

2007-1-26

등록 번호
11-1370252-000074-14

2007

제주 지역어 조사 보고서

책임자: 강영봉

연구 보조원: 오창명 · 김순자

조사 지역: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

립 국 어 원

출 문

귀하

2007 제주 지역어 조사 및 전사에 관하여 귀원과 체결한 연구
용역 계약에 의하여 최종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07년 12월 24일

연구책임자 : 강 영 봉

2007년
제주 지역어 조사 보고서

차

1. 과정	7
2. 전사 원칙	14
3. 전사 자료	17
제 1 편 구술 발화	19
제 2 편 어 휘	163
제 3 편 음 운	218
제 4 편 문 법	257
4. 제출 자료(별첨)	
1) 보고서 100부	
2) 디지털 녹음 전사 파일 및 전사 trs 파일	
3) 조사된 질문지	
4) 지역어 조사 정보 파일	
5) 제보자 조사표	
6) 지역어 자료 활용 동의서	

1. 과정

1.1. 조사 지점 개관

1.1.1. 개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加時里)는 ‘가시오름’(오늘날 지도에는 가세오름으로 표기함.) 북쪽, ‘갑선이오름’ 서쪽에 있는 중산간 마을이다. 마을 동쪽으로 ‘가마천’(加麻川)이, 마을 서쪽으로 ‘안좌천(安坐川: 안좌름내·두리물내)’이 흐른다. 두리물동네(가시리 두리동)에서 보면 동네 서쪽에서 ‘넙은뚝내’가 흐르고, 동네 동쪽에서 ‘구석물내’가 흐르고, 그 동쪽에서 ‘보미숫내’가 흐른다.

가시리는 700여 년 전에 ‘안좌름’ ‘와게우영’ 일대에 변씨가 들어오고, 600여 년 전에 지금의 가시리에 청주한씨가, 450여 년 전에 군위 오씨가 들어와 살면서 마을이 커졌다고 한다. 그 후 순흥 안씨, 신천 강씨 등이 들어왔다고 한다.

가시리의 옛 이름은 ‘가시오름’ 또는 ‘가스름’이다. ‘가시오름’ 또는 ‘가스름’ 주변에 형성된 마을이라는 데서 ‘가시오름마을’ 또는 ‘가스름마을’이라 했을 텐데 ‘마을’은 생략해서 말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정의군 동중면 加時里(가시리), 그리고 安坐里(안좌리) 일부(일부는 수망리와 신흥리에 병합됨.)를 병합하여 제주군 동중면 加時里(가시리)라 하였다.

2007년 12월 현재 가시리는 ‘중동, 안좌동, 두리동, 폭남동, 동상동, 역지동’ 등 6개의 자연마을로 이루어져 있다. 중동(中洞)은 가시리 중심마을이다. 안좌동은 ‘안좌오름’(별칭 ‘벵긋오름’) 앞에 형성되어 있는 자연마을을 이른다. 두리동은 ‘두이동’이라고도 하는데 마을 서쪽에 있는 ‘두리물’ 일대에 형성되어 있는 자연마을이다. 동상동(東上洞)은 웃동네 동쪽 동네를 이른다. 폭남동은 중동 남쪽 ‘폭남’(팽나무) 일대에 형성되어 있는 자연마을이다. 역지동은 가시리 동남쪽 ‘역마르’ 일대에 형성되어 있는 자연마을로 ‘영지동’이라고도 한다. 국토지리정보원 발행의 1:5,000 지형도에는 ‘영지동’으로 표기하였다.

1.1.2. 관련 개관

마을은 주로 1960년대까지 밭을 이용하여 보리, 조, 고구마, 감자 등의 농사를 지었고, 마을 위쪽의 들판을 이용하여 소규모의 목축업도 하던 마을이었다. 그러다가 1970년대부터 감귤나무를

시작하면서 목축업은 거의 하지 않게 되었다. 그 이후 오늘날까지 주로 감귤 농사를 짓고 있고, 일부에서 더덕, 감자 등의 밭농사를 짓기도 한다.

주제보자의 선조 중 할아버지는 가시리 중심동네인 농협창고 앞쪽에 살고, 아버지는 두리물동네(가시리 두리동)의 지금 집터 서쪽에 살았다. 주제보자는 1935년에 가시리 두리물동네(가시리 두리동)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을 보냈다. 초등학교 5학년까지 다니다가 15살 때 제주43사건을 겪으면서 학교 공부를 제대로 하지 못하였다. 제주43사건 후에 1950년인 20살 때 결혼을 하고, 그 후 군대에 갔다 온 뒤부터 지금까지 두리물동네(가시리 두리동)에서 밭농사를 지었다. 1970년대 이후에 감귤농사를 짓기 시작하여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다. 근래에는 더덕농사도 짓고 있다.

이 지역 사람들의 통혼은 마을 안에서 이루어지기도 하고 이웃마을끼리 이루어지기도 한다. 주제보자의 선조는 가시리에서 살았지만, 주제보자의 아내인 보조제보자는 이웃 마을인 안좌름(가시리 안좌동) 출신이다. 안좌름은 지금 가시리에 속한 자연마을 중 하나이지만, 예전에는 가시리와 이웃한 마을이었다. 이 마을도 중산간 마을로, 주로 밭농사를 짓고 살았다. 이 마을도 가시리와 같이 1960-70년대부터 주로 감귤농사를 짓기 시작하여 오늘날까지 감귤농사를 주로 짓고 있고 간혹 더덕농사 등을 비롯한 밭농사를 짓고 있다. 보조제보자도 초등학교 5학년까지 다니다가 15살 때 제주43사건을 겪으면서 학교 공부를 제대로 하지 못하였다.

조사지점인 가시리는 현재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표선면 중산간 지역에 형성되어 있는 마을 중 하나이다. 표선리로 나갈 때는 주로 시내버스와 자가용 등을 이용하는데, 20-30분 정도 걸린다. 주제보자와 보조제보자는 사업용 트럭과 오토바이를 가지고 있는데, 외출할 때는 주로 이것을 이용한다.

1.2. 기간

2007년 7월~2007년 10월

1.3. 제 보 자

(1)

- 이름: 오국현
- 성별: 남
- 나이: 74세(1934년 생, 호적에는1935년 생으로 됨.)
- 출생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 두리물동네(두리동) 2333번지 서쪽
- 거주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 두리물동네(두리동) 2333번지
- 선대거주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

- : 농업
- 경력: 주로 농사를 지음
- 학력: 초등학교도 변변하게 다니지 못함
- 병역: 해병대
- 제보자 소개 과정: 가시리 어른들을 만나 제보자를 소개 받고 상담 후 결정.
- 제보자의 특기 사항: 주제보자와 보조제보자 모두 가시리 출신인데다 선조들도 모두 가시리 출신임. 학력이 별로 없을 뿐만 아니라 이제까지 가시리에서 주로 발농사를 지어온 데다가 발음이 정확하고, 제주방언 구사가 무난하여 주제보자로 선정함.
- 제보자의 음성 특징: 발음이 비교적 정확함.

(2) 제보자 사항

- 이름: 정서홍
- 성별: 여
- 나이: 74세(1934년 생)
- 출생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 안좌동
- 거주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 두리물동네로 시집 온 뒤에 계속 거주함.
- 선대거주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 안좌동
- 직업: 농업
- 경력: 농업
- 학력: 없음
- 병역: 없음
- 보조제보자 소개 과정: 주제보자의 아내

1.4. 사 자

- (1) 이름: 강영봉(제주대학교 교수)
오창명(제주대학교 강사)
김순자(제주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과 박사과정)

(2) 조사 일시: 2006. 7.~10.(4개월)

(3) 조사 장소: 주제보자의 집 마루

(4) 조사 일시 및 내용: 총 14일 조사

- ① 1차 (2007년 7월 25일 수요일): 제보자 면담 및 선정
- ② 예비조사 2차 (2007년 7월 26일 목요일): 제보자 조사 및 선정
- ③ 예비조사 3차 (2007년 7월 27일 금요일): 제조사 면담, 조사 및 확정
- ④ 1차 현지조사 (2007년 7월 30일 월요일): 구술발화 일부 및 어휘 일부 조사
- ⑤ 2차 현지조사 (2007년 8월 2일 목요일): 어휘 일부 조사
- ⑥ 3차 현지조사 (2007년 8월 6일 월요일): 어휘 일부 조사
- ⑦ 4차 현지조사 (2007년 8월 7일 화요일): 어휘 일부 조사
- ⑧ 5차 현지조사 (2007년 8월 8일 수요일): 어휘 조사 마무리
- ⑨ 6차 현지조사 (2007년 10월 18일 목요일): 음운 마무리 및 문법 일부 조사
- ⑩ 7차 현지조사 (2007년 10월 19일 금요일): 구술발화 마무리 및 문법 일부 조사
- ⑪ 8차 현지조사 (2007년 10월 20일 토요일): 문법 마무리
- ⑫ 1차 수정조사 (2007년 10월 21일 일요일): 어휘 재확인
- ⑬ 2차 수정조사 (2007년 10월 25일 목요일): 음운 재확인
- ⑭ 3차 수정조사 (2007년 10월 26일 금요일): 문법 재확인

(5) 조사 결과

- ※ 파일 21개: 구술발화 5개, 어휘 10개, 음운 3개, 문법 3개
- ※ 총 9056MB 1706분(약 28시간 26분)

구술발화

- NJJ 구술발화 01: 548MB(1시간 40분)
- NJJ 구술발화 02: 306MB(56분)
- NJJ 구술발화 03: 643MB(1시간 56분)
- NJJ 구술발화 04: 543MB(1시간 39분)
- NJJ 구술발화 05: 196MB(36분)

어휘

- NJJ 어휘 01: 522MB(1시간 36분)
- NJJ 어휘 02: 570MB(1시간 44분)
- NJJ 어휘 03: 607MB(1시간 51분)
- NJJ 어휘 04: 157MB(29분)
- NJJ 어휘 05: 549MB(1시간 41분)
- NJJ 어휘 06: 646MB(1시간 58분)
- NJJ 어휘 07: 556MB(1시간 42분)
- NJJ 어휘 08: 484MB(1시간 29분)

NJJ 09: 555MB(1시간 42분)
NJJ 어휘 10: 414MB(1시간 16분)

음운

NJJ 음운 01: 577MB(1시간 46분)
NJJ 음운 02: 560MB(1시간 43분)
NJJ 음운 03: 52.0MB(6분)

문법

NJJ 문법 01: 167MB(31분)
NJJ 문법 02: 255MB(47분)
NJJ 문법 03: 425MB(1시간 18분)

- (6) 조사 시간: 약 28시간 26분
- (7) 녹음기: 마란츠
- (8) 마이크: SURE SM11

1.5. 사

- (1) 전사자: 강영봉 · 오창명 · 김순자
전사 일시: 2007년 10월~11월(2개월)
소요 시간: 250시간
특기 사항 :

- (2) 1차 점검자 강영봉 · 오창명 · 김순자
1차 점검 일시 2007년 10월 20일~10월 30일
소요 시간 190시간
특기 사항

- (3) 2차 점검자 강영봉 · 오창명 · 김순자
2차 점검 일시 2007년 11월 15일~11월 30일
소요 시간 130시간
특기 사항

(4) 3 점검자 강영봉·오창명·김순자

2차 점검 일시 2007년 12월 2일~12월 10일

소요 시간 80시간

특기 사항

(5) 파일정보(총 21개 파일)

·구술발화

	녹음시간 1차 전사시간	2차 전사시간
NJJ 구술발화 01: 548MB(1시간 40분)	50시간	30시간
NJJ 구술발화 02: 306MB(56분)	30시간	20시간
NJJ 구술발화 03: 643MB(1시간 56분)		
NJJ 구술발화 04: 543MB(1시간 39분)		
NJJ 구술발화 05: 196MB(36분)		

·어휘

	녹음시간 1차 전사시간	2차 전사시간
NJJ 어휘 01: 522MB(1시간 36분)	8시간	4시간
NJJ 어휘 02: 570MB(1시간 44분)	8시간	4시간
NJJ 어휘 03: 607MB(1시간 51분)	8시간	4시간
NJJ 어휘 04: 157MB(29분)	3시간	1시간
NJJ 어휘 05: 549MB(1시간 41분)	8시간	4시간
NJJ 어휘 06: 646MB(1시간 58분)	8시간	4시간
NJJ 어휘 07: 556MB(1시간 42분)	8시간	4시간
NJJ 어휘 08: 484MB(1시간 29분)	8시간	4시간
NJJ 어휘 09: 555MB(1시간 42분)	8시간	4시간
NJJ 어휘 10: 414MB(1시간 16분)	6시간	3시간

·음운

	녹음시간 1차 전사시간	2차 전사시간
NJJ 음운 01: 577MB(1시간 46분)	10시간	5시간
NJJ 음운 02: 560MB(1시간 43분)	10시간	5시간

NJJ 03: 52.0MB(6분) 20분 10분

·문법

	녹음시간	1차 전사시간	2차 전사시간
NJJ 문법 01: 167MB(31분)		3시간	2시간
NJJ 문법 02: 255MB(47분)		4시간	2시간
NJJ 문법 03: 425MB(1시간 18분)	6시간		3시간

2. 원칙

2.1. 발화 전사

발화는 4시간 정도의 분량을 선정하여 전사한 것이다. 구술 발화는 문장 단위로 분절(segmentation)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따라서 각 분절 단위의 끝은 반드시 문장 종결 부호(마침표, 물음표, 느낌표)로 마무리하였다. 제보자의 이야기 중에 조사자의 말이 들어가더라도 하나의 주제로 이야기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제보자와 조사자 사이에 문장부호를 찍지 않았다. 내용이 전환될 경우, 조사자의 말과 제보자의 말을 모두 전사하였다. 이야기가 중간에 끊겨 내용이 전환되면 문장이 완전히 끝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문장부호를 사용하여 문장을 마무리하였다. 의미 내용상 분절이 어려운 경우에는 같은 분절 내에서 문장이 끝날 때까지 입력하고 문장부호를 넣은 다음 이어서 { } 안에 지역어 문장에 대한 표준어 대역을 넣고 문장 종결 부호를 넣었다.

표준어에 대응되는 어휘나 표현이 없거나 어감이 달라서 설명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그 내용을 기술하였다. 분절을 하고 전사하는 경우 분절 단위로 전사 번호를 부여하였다. 전사 번호는 분절된 문장의 맨 앞에 입력하고, 발화자 표시는 전사 번호 다음에 한 칸을 띄고 “@”(조사자)나 “#”(제보자)와 같은 부호를 입력하였다. 구술 참여자가 여럿일 경우에는 각 구술자를 구별하기 위해 발화 단위 앞에 “#1, #2……” 등의 발화자 표시 부호를 입력하였다. 음성 전사의 경우 잘 들리지 않는 부분이 있을 때 추측이 가능한 부분은 [x x]안에 전사하고 음성 청취와 전사가 불가능하면 음절, 혹은 모라(mora) 수만큼 ***로 표시하였다. 표준어 대역에서도 같은 방법으로 표시하였다. 구술 발화 질문지와 무관한 내용은 항목 번호로 “=1”을 부여하고 문장 단위로 전사하였다.

2.2. 항목 전사

① 조사 항목에 대응하는 지역어 어휘는 어절 단위로 전사하였다. 따라서 곡용 어미나 활용 어미가 연결된 경우에는 그들 어미가 포함된 부분까지 전사하였다.

② 지역어 어절이 표준어형으로는 띄어 써야 할 경우라도 하나의 발화 단위로 판단되면 지역어의 음성 전사에서는 붙여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③ 하나의 표제어에 여러 개의 방언형이 나타나는 경우 동일한 항목 번호를 부여하고 전사하였다.

④ <주의>를 통하여 조사된 지역어형은 별도의 항목으로 전사하지 않았으나,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표제 항목과 관련된 지역어 정보를 (+) 안에 기록하였다.

- ⑤ 항목과 대응되지 않는 지역어형은 항목 번호로 “=2”를 부여하고 어절 단위로 전사하였다.
- ⑥ 지역어형이 없는 경우에는 지역어 응답란에 “*” 표시, 지시 대상은 없는데 이름만 있는 경우에는 응답형 뒤에 “&” 표시를 하였다.
- ⑦ 지역어 응답형이 두 개 이상인 경우 신규형은 응답형 뒤에 (+신), (+구)로 표시하였다.
- ⑧ 사용 빈도의 차이가 있는 경우는 응답형 뒤에 (+다), (+소)로 사용 빈도 차이를 표시하였다.
- ⑨ 지역어형이 비칭과 존칭으로 구별될 때 비칭은 응답형 뒤에 (+비)로, 존칭은 응답형 뒤에 (+존)으로 표시하였다.
- ⑩ 조사 항목에 대한 지역어형이 두 개 이상이고 사용 계층이 노년층과 젊은층으로 구분되는 경우 응답형 뒤에 (+노), (+유)로 표시하였다.

2.3. 항목 전사

- ① 조사된 지역어의 어간과 어미가 통합된 음성형을 어절 단위로 전사하였다.
- ② 어미를 선택하여 조사하도록 제시한 항목에서는(‘-고(-더라)’, ‘-아/어서(-아/어도)’) 조사하기 쉬운 어미를 선택하고 그 결과를 어절 단위로 전사하였다.
- ③ 질문 항목과 대응되지 않는 지역어형은 항목 번호 “=3”을 부여하고 어절 단위로 전사하였다.

2.4. 문법 항목 전사

- ① 표제 항목에 대응하는 지역어가 포함된 부분을 어절 단위로 전사하였다.
- ② 표제 항목에 대응되지 않는 지역어형은 항목 번호로 “=4”를 부여하고 어절 단위로 전사하였다.

2.5 표기 방법

- ① ‘위’가 단모음 [y]로 실현되거나 상향 이중모음 [wi]로 실현되더라도 모두 ‘위’로 전사하였다.
- ② ‘외’는 단모음 [ø]로 실현되지 않고 이중모음 [we]로 실현되므로 ‘웨’로 표기하였다.
- ③ ‘에(e)’와 ‘애(ε)’가 변별적 기능을 지니고 있어서 구분하여 표기하였다.

- ④ 해당하는 음절 다음에 ~ 표시를 하였다.
- ⑤ 장음은 “:”, 인상적 장음은 “::” 등으로 표시하였다.
- ⑥ 아래아(으)와 이중모음 ‘으(으)’의 경우, transcriber 상에서는 ‘오/’와 ‘요/’로 표기했
으나 이 보고서 상에는 ‘으’와 ‘으’로 바꾸어 표기하였다.



2007 제주 지역어 조사 보고서

3. 자료

1편 구술발화

1.1. 마을의 환경과 배경

1.1.1. 들여다보기

10101 @1 옛날 어르신한테 듣끼를 이 가시 가시리 마 마으른 언제 어떠케 형성됐었따고 혹씨 드른 바가 인쭈과? 게서 그거 간단히 말쓰메 줍씨?{혹씨 옛날 어르신한테 듣끼를 이 가시 가시리 마 마을은 언제 어떻게 형성되었다고 혹씨 들은 바가 있습니까? 그래서 그것 간단하게 말 씀해 주십시오.}

10101 #1 가시리 마으리 우리가 듣끼가 혼 육뺑년 저네.{가시리 마을이 우리가 듣끼가 한 육 백년 전에.}

10101 @2 네.{예.}

10101 #1 한씨가 가시리 설촌헨는다.{한씨가 가시리 설촌헨는데.}

10101 @1 예. 계속 말쓰메 주십씨.{예. 계속 말씀해 주십시오.}

10101 #네.{예.}

10101 #1 그 다으른 어느 성씨가 먼저 헨는지 자세히 몰르고 지금 그 다으른 오씨 김씨가 드 러와실껀다.{그다음에는 어느 성씨가 먼저 헨는지 자세히 몰르고 지금 그다음은 오씨 김씨가 들 어왔을텐데.}

10101 @2 게문 그 한씨 어디서 어디서 드리 왈뎨 ㄱ라마씨?{그러면 그 한씨 어디에서 어디에 서 들어 왔다고 말합니까?}

10101 #1 한씨가 어디서 왈뎨 현 견또 몰르고 현디 야간 가시리에 저 지금 농협 저짜게 처음 사람꼬. 그디 선묘가 지금 여기 그 가시리 부락 부튼 디 인꼬.{한씨가 어디서 왔다고 하는 것도 몰르고 한테 하여튼 가시리에 요 저 지금 농협 저쪽에 처음 살왔고. 거기 선묘가 지금 여기 그 가시리 마을 붙은 곳에 있고.}

10101 @2 예.{예.}

10101 #1 게서 거기서가 지금 그 한씨 묘를 지금 문나제로 해부니까 가시리 그 동네 싸름은 좀 불편헌텐만.{그래서 거기서가 지금 그 한씨 묘를 지금 문화제로 해 버리니까 가시리 그 동네 사람은 좀 불편하다고만.}

10101 @1 그디가 청주 한씨우짜?{거기가 청주 한씨입니까?}

10101 #1 예.{예.}

10101 @2 지금 가시리 아네는 청주 한씨지예.{지금 가시리 안에는 청주 한씨지요.}

10101 #1 아 한씨. 이 지금 가시리 안넌 이 올렐찌비 오란 사는 아이가. 거기 즈손이 지금 혼 나만 가시리 내에 혼 사름 사람쭈다.{아 한씨. 이 지금 가시리 안에 문 쪽 집에 와서 사는 아이

. 거기 자손이 지금 하나만 가시리 안에 한 사람 살고 있습니다.}

10101 #2 한씨가 해주마는 그 저 그 한씨가 어선.{한씨가 많지만 그 저 그 한씨가 없어서.}

10101 #1 한씨가 지금 거의가 이 조천 지경 마니 살고 함덕 조천네 마니 살고.{한씨가 지금 거의가 이 조천 지경 많이 살고. 함덕 조천에 많이 살고.}

10101 @2 **네 마니 인쥬.{**에 많이 있지.}

10101 @1 주로 지그믐 어떤 성씨가 주성이우파? 가시리에.{주로 지금은 어떤 성씨가 주성입니까? 가시리에.}

10101 #1 가시리엔 지금까지는 아메도 오씨가 삼부네 이는 됩니까?{가시리에는 지금까지는 아마도 오씨가 삼분의 이는 됩니까?}

10101 #2 오씨허곡 김씨우다게.{오씨하고 김씨입니다.}

10101 @1 김씨는 광산 김씨우파?{김씨는 광산 김씨입니까?}

10101 #1 경주 김씨.{경주 김씨.}

10101 @1 아. 경주 김씨.{아. 경주 김씨.}

10101 #1 광사니영 거기 으라 가지니까.{광산하고 거기 여러 가지니까.}

10102 @1 이 가시리 마오레 오로든 어떤 오름드리 인쥬파? 가시리 마을 아네.{이 가시리 마을에 오름은 어떤 오름들이 있습니까? 가시리 마을 안에.}

10102 #1 가시리 안네 여기 갑싸니오름 인꼬.{가시리 안에 여기 갑선이오름 인꼬.}

10102 #1 그다음 설오름 그다음 따래비 그 다음에 사스미 즈근사스미.{그다음 설오름 그다음 따래비 그다음에 사슴이 작은사슴이.}

10102 #1 그 갱해서 저쪽 우터레 올라가며는 가시리 경내에는 가시리 도며네서 나오는 오르미 불근오름 거문오름. 저 으문영아리. {그 그렇게 해서 저쪽 위로 올라가면 가시리 경내에는 가시리 도면에서 나오는 오름이 붉은오름 거문오름. 저 여문영아리.}

10102 #1 물영아리는 내 저찌기니까 가시리가 아니고 그 성판악 입꾸까지 드러간디 가시리 경이.{물영아리는 내 저쪽이니까 가시리가 아니고 그 성판악 입구까지 들어갔는데 가시리 지경이.}

10102 #1 요. 요 근처에 또 번널오름 벵곶또름 경해서 근처엔또름.{요. 요 근처에 또 번널오름 벵곶오름 그렇게 해서 근처에 오름.}

10102 @1 성판악 그 코스에 휴게소 아라지쿠과? 성판악 휴게소.{성판악 그 코스에 그 휴게소 알겠습니까? 성판악 휴게소.}

10102 @1 성판악 할라산 등산 코스에 성판악 휴게소.{성판악 할라산 등산 코스에 성판악 휴게소.}

10102 #1 아 저 질 이짜게 이제사 헛 디.{아 저 길 이쪽에 이제야 한 데.}

10102 @1 예.{예.}

10102 #1 예. {예.}

10102 #1 그기는 가시리 경 아니고 부꾼 경이고.{거기는 가시리 경이 아니고 북군 경이고.}

10102 @1 예. 그디는 잘 모르는구나예. 예예.{예. 거기는 잘 모르는군요. 예예.}

10102 # .{예.}

10102 @1 내는 이쭈과? 가시리 흘러 가는 내.{내는 있습니까? 가시리 흘러가는 내.}

10102 #1 가시리 걸쳐서 나가는 내가 이 아피 인꼬 요디 우리 요 아까 건너온 다리 인꼬 저 짜게 인꼬 세 개가 하나로 합쳐서 저기 가문 가마리 쪽뜨레 빠지는 거.{가시리 걸쳐서 나가는 내가 이 앞에 있고 요기 우리 요 아까 건너온 다리 있고 저쪽에 있고 세 개가 하나로 합쳐서 저기 가면 가마리 쪽으로 빠지는 것.}

10102 @1 그 세 개를 즈근즈근 이르믈 ㄱ라줍써. 이름.{그 세 개를 자근자근 이름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름}

10102 #1 요거는 보통 이디는 너분둔내라고 하고. 요 요 요 내 다리 걸친 건 구성물래라고 하고.{요것은 보통 여기는 너분둔내라고 하고. 요 요 요 내 다리 걸친 것은 구성물래라고 하고.}

10102 #1 저 짝 내는 보미순내엔 험쭈. 저기.{저 쪽 내는 보미순내라고 하지요. 저기.}

10102 @1 그거시 하나로 합쳐정은 아래는?{그것이 하나로 합쳐져서 아래는?}

10102 #1 아래 가민 가매물서부터 이젠 가마리 드리가부는 거.{아래 가면 가매물에서부터 이제 가마리 들어가버리는 것.}

10102 #2 세 개가 그디 간 다 합쳐점신가?{ 세 개가 거기 가서 다 합쳐지고 있는가요?}

10102 #1 다 합쳐전.{다 합쳐졌어.}

10102 #1 가시리 나강 먼남밭 가문 합쳐정 글로 저레 가매물 걸쳐서 저 가마리 드리가분 거.{가시리 나가서 먼나무밭 가면 합쳐져서 그리로 저쪽으로 가매물 거쳐서 저 가마리 들어가버린 것.}

10102 @1 예. 다시 한번양. 서쪼게 중가네 동쪼게 내를 해서 가는 가운데 합쳐가는 내까지. {예. 다시 한번요. 서쪽에 중간에 동쪽에 내를 거쳐서 가는 가운데 합쳐가는 내까지.}

10102 #1 예.{예.}

10102 @ 즈근즈근 말씀 이어가지고 ㄱ라줍써?{자근자근 말씀 이어서 말씀해 주십시오?}

10102 #2 이쪼그론 보미순.{이쪽으로는 보미순.}

10102 #1 게문 이쪼게 건 너분둔내가 어디 간나? 요데. 가시나물 가고. 구성물래가 가시나물 가서 합쳐지고 그 다음에 쪼짜게 강 췌 개 합쳐지는 디는 새가름 가서 합쳐져신가?{그러면 이쪽에 것은 너분둔내가 어디 갔나? 요디 가시나물 가고. 구성물래가 가시나물 가서 합쳐지고 그다음에 저쪽에 가서 세 개 합쳐지는 곳은 새가름 가서 합쳐졌는가?}

10102 #1 새가름 똥네 가서 합쳐전.{새가름 동네 가서 합쳐져서.}

10102 #2 보미순내가 설오름 에므로 느리는 무리주게. 저게.{보미순내가 설오름 옆으로 내리는 물이지요. 저것이.}

10102 #1 게연 그거시 먼남밭떠서 합쳐전 가매물 가서 세화 경계 그디 가서.{그래서 그것이 먼나무밭에서 합쳐져서 가매물 가서 세화 경계 거기 가서.}

10102 #2 동네 일로 느려 온 건.{동네 이리로 내려 온 것은.}

10102 #1 저레 쪽 빠전.{저쪽으로 쪽 빠져서.}

10102 #2 저 안자리로 이제 저 안자름 ***엔 현 달로 이레 느려온 무리주.{저 안자리로 이제

안자름 ***라고 한 곳으로 이리로 내려온 물이지.)

10102 @1 아까 오름 말쓰메 주시고 내 말쓰메 주시지 아넝따가?{아까 오름 말씀해 주시고 내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10102 #1 예.{예.}

10102 @1 혹씨 그 오로미나 내에 어떤 전서리나 어려 인는 오로미나 전서리나 어려 신 내가 이신가마씨?{혹씨 그 오름이나 내에 어떤 전설이나 어려 있는 오름이나 전설이나 어려 있는 내가 있을까요?}

10102 #1 전설 인는 내창이 안자름. 소꿍찌 영쫘 웨어신가?{전설 있는 내가 안자름. 소꿍찌 바위쫘 되었을까?}

10102 #2 전서리 뭐이? 벵곶뜨름도 옛날 어른덜 벵구리만 벵구리엔 현 거는 멩지썰 허는 거 주. 벵구리마니 나만 나무난 벵곶뜨르멘 일름 지우고.{전설이 무엇? 벵곶뜨름도 옛날 어른들 가락만 가락이라고 한 것은 멩주실 하는 거지. 가락만큼 남안 남으니까 벵곶뜨름이라고 이름 짓고.}

10102 #2 따래빈 따래비 영 받 까는 따래비. (웃음) 따비마니 나르난 따래비엔 벨르 지우고. 경헨젠. 허. 어른덜 ㄹ르나네 뭐? 그 (웃음){따라비는 따라비 이렇게 받 가는 따비. 따비만큼 남으니까 따라비라고 별명 짓고. 그렇게. 하. 어른들이 말하니까 뭐?}

10102 @1 삼추는 아는 거?{삼춘은 아는 것?}

10102 #1 계난 오름 이름 지운 거를 지금 확실히 걷또 모르고 옛날 전설로 방 윈 거 그런 거 지금 다 걷찌도 안 허고 마찌도 아녀.{그러니까 오름 이름 지은 것을 지금 확실한 것도 모르고 옛날 전설로 봐서 윈 그거. 그런 것 지금 다 말하지도 안 하고 맞지도 않아.}

10102 @1 예. 다블 말쓰메 주썩싸고 허는 게 아니라 듣꼬 *** (웃음) 허는 거예.{예. 답을 말씀해 주십사고 하는 것이 아니라 듣고 *** 하는 것입니다.}

10103 @1 요즘 가시리 싸람드른 주로 어떤 농사를 허멍 사라갑니까?{요즘 가시리 사람들은 어떤 농사를 지으면서 살아갑니까?}

10103 #1 농사허는 사르문 거의가 과수허고 더덕 간.{농사짓는 사람은 거의가 과수하고 더덕 갈아.}

10103 #2 하우스 대중.{비닐 하우스 대중.}

10103 #1 하우스 과수.{비닐 하우스 과수.}

10103 #2 절문 사름 다 하우스 허고.{젊은 사람 다 비닐 하우스 하고.}

10103 #1 그 나머지 반농사 허는 건 거의가 더덕.{그 나머지 밭농사 짓는 것은 거의가 더덕.}

10103 @1 흥번만양. 그 말씀 자꾸 꼬너져서.{한번만요. 그 말씀 자꾸 끊어져서.}

10103#1 예.{예.}

10103 @1 쫘 이어져서.{웃음}{쫘 이어지게.}

10103 @1 혹씨 마으레 뭐 어떤 모임 계 혹씨 그런 모임도 일쑤과?{혹씨 마을에 뭐 어떤 모임 계 혹씨 그런 모임도 있습니까?}

10103 #2 믁으레 모이른?{마을에 모임은?}

10103 #1 믁으레.{마을에.}

10103 #2 . 노인 노인회 모이는 거나 베틀 청년회 허곡 그런 거 베틀.{마을에. 노인 노인회 모이는 것이나 밖에는 청년회 하고 그런 것 밖에는.}

10103 @1 예저네 가트면 무슨 상연계 생이계 가튼 건또 이서실 건디 경 안 헐쭈가?{예전에 같으면 무슨 상연계 같은 것도 있었을 텐데 그렇지 않았습니까?}

10103 #1 경 아녀.{그렇지 않아.}

10103 @2 몰방엔겐?{연자매계는?}

10103 #2 그런 건또 흥고 요새 절문 사름 절문 사름 모임 들곡.{그런 것도 하고 요새는 젊은 사람은 젊은 사람 모임 들고.}

10104 @1 이운 마을 가시리 말고 흑씨 가시리 동쪽 마을이나 서쪽 마을하고 비교해 가지고 가시리 사람들만 독트카게 허는 뭐 어떤 행사나 그런 전통이나 흑씨 그런 게 어실건가마씨? {이웃 마을 가시리 말고 흑시 가시리 동쪽 마을이나 서쪽 마을하고 비교해서 가시리 사람들만 독특하게 하는 뭐 어떤 행사나 그런 전통이나 흑시 그런 것이 없을까요?}

10104 #1 뭐 행사 허는 건또 업꼬 뭐가 업는디 가시린.{뭐 행사 하는 것도 없고 무엇이 없는데 가시리는.}

10104 @3 가시리에서 가장 유명한 건 뭐우파? 계믄.{가시리에서 가장 유명한 것은 무엇이에요? 그러면.}

10104 #1 유명한 게 뭐가 이서? (아. 헛기침){유명한 것이 무엇이 있어?}

10105 @1 어르신어 어련쭈 때 생활허는 거와 요즘 절문 아이드리 생활허는 거 영 비교하면 어떤 거시 막 차이 인꼬 험니까?{어르신어 어렸을 적 생활하는 것과 요즘 젊은 아이들이 생활하는 것 이렇게 비교하면 어떤 것이 막 차이 있습니까?}

10105 #2 아이구 차이사.{아이고 차이야.}

10105 #1 옛날 허고는 차이는 월똥히 차이 나니까 요즘 사라가는 게.{옛날 허고는 차이는 월똥히 차이 나니까 요즘 살아가는 것이.}

10105 #2 요새 생화리사게.{요즘 생활이야.}

10105 @2 계난 그 차이 난 거 한번 쭈 그라보십씨?{그러니까 그 차이 난 것을 한번 조금 말씀해 보십시오?} (웃음)

10105 #2 옛날은 이척 그라라. 뭐 보리 가랑 먹꼬 산디 가랑 먹꼭 모믄 가랑 먹꼭 경행으네 비료도 얻꼭 할 때는 우리 윈. 나멘이 먼싼디 우둥이 먼싼디.{옛날은 아까 말하더라. 뭐 보리 갈아서 먹고 밭벼 심어서 먹고 메밀 갈아서 먹고 그렇게 해서 비료도 없고 할 때는 우리 윈. 라면이 무엇인지 국수가 무엇인지.}

10105 #2 몰랑으네. 아 자식들 키울 때도 그치룩커난 공부도 즐바로 몬 시기고 영 헤신디. 시방이사게.{몰라서. 아 자식들 키울 때도 그처럼 하니까 공부도 제대로 못 시기고 이렇게 했는데. 요즘이야.}

10105 #2 사라가는 게 밀감도 인꼬. 춤 아프로는 아 뭐헌덴 헐꾸나마는 밀감도 인꼬 아이덜 하우스도 허영으네 춤 버스는 사르믄 뭐 이럭 버스런쭈 이억 버스런쭈 허는 거시기도 인꼬.{살아가는 것이 밀감도 있고. 참 앞으로는 아 무엇한다고 했지마는 밀감도 있고 아이들 하우스도 해서

버는 사람은 뭐 일억 벌었다 이억 벌었다 하는 거시기도 있고.}

10105 #2 요즘 생활 사리 허는 건싸 옛날로 허며른 옛날 뭐 몰쌀 때는 모이미 뭐고 계가 뭐고 헐쭈가게. 경헌디 요새는 춤 흥나네 모임 매날 아이덜토 모임 (웃음) 모임 모임 허멍 나가고. 아메도 폐난 허난 경허는 겁쭈게.{요즘 생활 살이 하는 것이야 옛날로 하면 옛날 뭐 못살 때는 모임이 무엇이고 계가 무엇이고 했지요. 그런데 요새는 참 하니까 모임 매날 아이들도 모임 (웃음) 모임 모임 하면서 나가고. 아마도 편안 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지요.}

10105 #2 사는 거사 폐난히 그자. 춤 옛날게 뭐 여기 무신 전기가 완쭈가? 수도가 완쭈가? 옛날 사라 우리 사라올 때사 거북커게 사라십쭈. {사는 거야 편안히 그저. 참 옛날이야 뭐 여기 무슨 전기가 들어왔습니까? 수도가 들어왔습니까? 옛날 살아 우리 살아올 때야 불편하게 살았지요.}

1.2. 의례

1.2.1. 출생과 성장

10201 @1 요버는 삼추니 사라온 그 생애에 대해서.{이번은 삼촌이 살아온 그 생애에 대하여.}

10201 #1 으.{으}

10201 @1 예. 여쭈 보쿠다.{예. 여쭈보겠습니다.}

10201 @1 삼추니 태어난 디는 어디고예. 게서 지금 어디서 지금까지 사라오고 지금 연세는 어느 정도 됐고 그리고 이제 향년근 어느 정도 됐고 그 다오메 예 삼촌네 아버지 하라버지 부모 고향은 어디고 그걸 좀 차근차근 이야기해줍써. 튼내지는 대로.{삼촌이 태어난 곳은 어디이고요. 그래서 지금 어디서 지금까지 살아오고 지금 연세는 어느 정도 됐으며 그리고 이제 학력은 어느 정도 되고 그다음에 예 삼촌네 아버지 할아버지 부모 고향은 어디이고 그것을 좀 차근차근 얘기 해주십시오. 생각나는 대로.}

10201 #1 원래 본토가 가시리.{원래 본토가 가시리.}

10201 @2 예.{예.}

10201 #1 게문 하라바지가 저 그 식땅 인는 그 밋테 저 농업 거기 압 찌경에 거기 사라왈꼬. 아버지는 아예 이 이 서쪽 받띠 완 사라서 그디서 우리도 태어나고 지금까지 우린 여기서 살고. {그리고 할아버지가 저 그 식당 있는 그 밑에 저 농협 거기 앞 지경에 거기서 살아왔고. 아버지는 아예 이 이 서쪽 밋에 와서 살아서 거기서 우리도 태어나고 지금까지 우리는 여기서 살고.}

10201 @3 지금 연세는 몇 세마씨?{지금 연세는 몇 세 이십니까?}

10201 #1 연세는 게난 호적짱으로는 삼오년으로 뉘곡 월래는 삼사년생.{나이는 그러니까 호적상으로는 삼오 년으로 되었고 원래는 삼사년 생.}

10201 #1 게난 이른 네 설이고 이제 스삼 때 그럭쭈럭 살다보니까 공부도 잘 몰테얼꼬.{그러

일흔 네 살이고 지금 사삼 때 그러저럭 살다보니까 공부도 잘 못했고.}

10201 #1 사삼 때 그자 그 열다섯 썩레 근무허멍 매만 처 마따보니까 (웃음) 아무 건또 몰테 연 지금까지 사라왈꼬.{사삼 때 그저 그 열다섯 살에 근무하면서 매만 처 맞으면서 (웃음) 아무 것도 못해서 지금까지 살아왔고.}

10201 #1 또 유기오 터지니까 부모네가 이거 군대에 가든 다 주그니까 어린 때고 뭐고 그자 무조건 겨론시킨 거라.{또 육이오 터지니까 부모네가 이것 군대에 가면 다 죽으니까 어린 때고 뭐고 그저 무조건 결혼시킨 거야.}

10201 #1 저 후소나라도 흥나 보고 군대에 가서 주건건 사라건 흥라고 해서.{저 후손이라도 하나 보고 군대에 가서 죽든 살든 하라고 해서.}

10201 #1 거니까 우리가 스무 스레 겨론헤 가지고 나 스물세 스레 살림사리 이디 오란 마탄 이디 살기 시작커니까 지금까지 사랑꼬.{그러니까 우리가 스무 살에 결혼해서 나 스물세 살에 살림살이 여기 와서 말아서 여기 살기 시작하니까 지금까지 살았고.}

10201 #1 겨단 그 살림사리 맨테 아 두 헤 찬가 세 헤차에 사라호 태풍 부러부니까 싹 쓰러 부니 먹을 게 윈 어서나십쥬.{그러다가 그 살림살이 몇 해 아 두 해제인가 세 해제에 사라호 태 풍 불어서 싹 쓸어버리니 먹을 것이 전혀 없었지요.}

10201 #1 계연 그 머글 거 어신 때 나가 부모네 몰래 이젠 슬짜기 소 흥나 가지고 서귀포 간 이를 흥 이시빌 너머 허니까 그뻐 톤 이마닐 쪼끔 너머 버스런 오란 거로 비료 사고 뭐 해서 그 헤에 보리가 쪼끔 헤 머그니까 허 동네에서 아주 췌고 보리 마니 헐텐 그런 소문 나난.{그러니까 그 먹을 것이 없을 때 내가 부모네 모르게 이제는 살그머니 소 하나 가지고 서귀포에 가서 일할 이십 일 넘게 하니까 그때 돈 이만 윈 조금 넘게 벌고 와서 비료 사고 무엇하고 그 헤에 보리를 조금 해서 먹으니까 동네에서 아주 췌고 보리를 많이 했다고 그런 소문이 났었지.}

10201 @2 형제부는 어떻 돼우까?{형제 분은 어떻게 됩니까?}

10201 #1 우리 형님미 이선꼬 나허고 형제뿐.{우리 형님이 계셨고 나하고 형제뿐.}

10201 #1 으선 오누이 중에 아덜만 아덜 두리니까 우리 성젠디 우리 형님 도라가시고 나만. {여섯 오누이 중에 아들만 아들 둘이니까 우리 형제인데 우리 형님 돌아가시고 나만.}

10201 @2 부모니든 무슨 이를 하셔신고예?{부모님께서는 무슨 일을 하셨습니다?}

10201 #1 농사 해십쥬.{농사 지었지요.}

1.2.2. 과정

10202 @1 예 저기에. 마쓰를 부쳐서 삼분 오분 (웃음) 자꾸 꼬너져 가지고. 요버는예 계민 이제.{예. 저기요. 말썹을 붙여서 삼분 오분 (웃음) 자꾸 끊어져서. 이번에는요 그러면 이제.}

10202 @1 예청 삼춘하교의 겨론할 현 과정까지를 말쓰메 주시는 거라예.{여자 삼춘하교의 결혼한 과정까지를 말쓰해 주시는 겁니다.}

10202 #1 예.{예.}

10202 @1 그래서 어떻게 하나면 이제 삼춘니 여청 삼춘과 겨로하기 과정을 이야길 해줍써예.

해 주시는데 이제 예칭 삼추니 어느 지역 출신이고 주로 어디서 성장을 했꼬 예 그걸 좀 말쓰메 줘써. {그래서 어떻게 하나면 이제 삼촌이 여자 삼촌과 결혼하기 과정을 이야길 해주십시오. 이야길 해 주시는데 이제 여자 삼촌이 어느 지역 출신이고 주로 어디서 성장을 했고 그것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10202 #1 저 원래 이 동네 사란는데 그 멀지 아년 거리에 사라도 이 개 부라그로 연날 나눠질 때 이구열꼬 우린 일구고.{저 원래 이 동네 살았는데 그 멀지 않은 거리에 살아도 두 개 마을로 옛날 나눠질 때 이구였고 우리는 일구고.}

10202 #2 저 안자름멘 헨디 우린 알똥네 사나네 우린 안자리로 허어나고 여기는 구리동으로 허여날꼬.{저 안좌름이라고 한 곳 우리는 알똥네 사니까 우리는 안좌리로 했었고 여기는 구리동으로 했었고.}

10202 #1 * 요기 멀지 아년 내 헨나 너머 간 사이에 살면서도 그런 그 차이가 이서날꼬.{* 멀지 않은 내 하나 넘어 간 사이에 살면서도 그런 그 차이가 있었꼬.}

10202 #2 나도 고생 마니 헨쑤다. 둘 세 설 때 **부모 다 도라가부난 춤 스테에도 어렵게 살다네 겨론헤연 이제는 뭐 자식덜토 다 우리는 배우지 못테도 배우고.{나도 고생 많이 했습니다. 두세살 때 **부모 다 돌아가시니까 참 사태에도 어렵게 살다가 결혼해서 이제는 뭐 자식들도 다 우리는 배우지 못 해도 배우고.}

10202 #1 춤 시에 서너 서너 오누이 살고 여기 살고 헤염쑤다마는 애기도 으선 또누이고 아덜 네 성제 (웃음) 딸 성제 허나네 딸덜토 잘 살고.{참 제주시에 서너 서너 오누이 살고 여기 살고 하지마는 아기도 여섯 오누이고 아들 네 형제 (웃음) 딸 형제 하니까 딸들도 잘 살고.}

10202 #2. 아덜도 잘 살고.{아들도 잘 살고.}

10202 #2 손지도 또 손지깁장 풀고.{손자도 또 손자까지 결혼시키고.}

10202 #2 큰 손진 서울 간 약싸나네 여자 약싸난.{큰 손자는 서울 가서 약사니까 여자 약사니까.}

10202 #2 이젠 걱정 어시 (웃음) 사라왓쑤다.{이제는 걱정 없이 살고 있습니다.}

10203 @1 삼추니 예칭 삼추늘 어떻게 만나서 겨론헨꼬예 어떻게 만나서 겨론헨꼬 그 겨론 과정에 대한 말쓰믈 좀 해주십써.{삼촌이 여자 삼촌을 어떻게 만나서 결혼했고 어떻게 만나서 결혼했고 그 결혼 과정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십시오.}

10203 #1 거 우리 때에는 뭐 여내겨론도 어선꼬 그 당시는 중매겨론 헨.{그거 우리 때에는 무엇 연애결혼도 없었고 그 당시에는 중매결혼 했어.}

10203 #1 중매겨로네 그때는 뭐 어린 때덜 꼭는 거니까 뭐 어디 근처에 가도 모터게 아주 멀리 봐야 웬덴 허연 저껏디 못 보게 허고 해서 겨론헨 산 겁쑤. 지금까지.{중매결혼에 뭐 어릴 때 결혼시키는 거여서 뭐 어디 근처에 가지도 못하게 아주 멀리 봐야 된다고 해서 걸을 못 보게 하고 해서 결혼해서 산 거지요. 지금까지.}

10203 #1 그때 당시 겨로는 몰 타고 연날 말로 거 뚱게 타고 헨 겨로는 헨꼬.{그때 당시 결혼은 말 타고 옛날말로 거 독고 타고 해서 결혼은 했고.}

10203 #1 요즘 ㄱ트믈 거 뚱야지도 멘 머리 자방 헨 켜디 그때 헨 헨 오십 킬로짜리 뚱야지

자바서 그걸로 뭐 잔칠 다 해쓰니까.{요즘 같으면 거 돼지 몇 마리 잡아서 할 건데 그때 한
한 오십 킬로짜리 돼지 하나 잡아서 그것으로 뭐 잔치를 다 했으니까.}

10204 @1 그 삼촌 쪼개서 겨룬헐 때 신부 쪼그로 뭐 이러케 해주 거냐예.{그 삼촌 쪽에서 결
혼할 때 신부 쪽으로 뭐 이렇게 해 주거나.}

10204 #오.{오.}

10204 @ 뭐 헐 게 어떤 게 이신쭈과? {뭐 헐 게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10204 #1 ** 옛날 그런 건또 얻고 은곡 우선 그자.{옛날은 그런 것도 없고 없고 우선 그저.}

10204 #2 옛날은 신부 오민 온 대중 그자 받던 동기가나라도 온 헐 불 새각씨 온 헐 불 허여
주고 씨부모도 온 헐 불 허여준 거베끼는 뭐 어습니께. 어서날쭈게.{옛날에는 신부 오면 옷 대중
그저 가까운 동기간이라도 옷 한 벌 옷 한 벌 해주고 시부모도 옷 한 벌 해준 것밖에는 뭐 없습
니다. 없었어요.}

10204 @1 삼추니 오시면서 뭐 해 오신 거 얻꼬.{삼촌이 오시면서 뭐 해 오신 것은 없고.}

10204 #2 허여 오신 건 그냥 이부리나베끼 무신 거.(웃음){해 온 것은 그냥 이불이나밖엔 무
엇. (웃음)}

10204 #2 그땐 뭐 단스 ㄱ튼 그런 건또 아널 때고게. 거울 거우리엔 허멍 얼굴 거 거 보는 거
그거 사곡. 그자 이불 두 채 행 오민 마니 혜영 왈젠 헉곡. 그거 뭐시라.{그때는 장롱 같은 그런
것도 안 할 때이고. 거울 거울이라고 하면서 얼굴 그것 보는 거 그거 사고. 그저 이불 두 채 해오
면 많이 해왔다고 하고. 그거 무엇이야.}

10204 #2 궈 헉나.{궈 하나.}

10204 @2 베개는?{베개는?}

10204 #2 어 베개도 두 개.{아 베개도 두 개.}

10204 @1 이불 두 채는 어떻 이불 두 채과?{이불 두 채는 어떤 이불 두 채입니까?}

10204 #2 경. 요 헉나 요 헉나게 이불 헉나 깡랑 누는 거 헉나허곡 우의 꺼 두 개 아래 꺼 두
개 허며는 두 채.{그렇게. 요 하나 요 하나요. 이불 하나 깔아 놓는 거 하나 하고 위에 것 두 개
아래 것 두 개 하면 두 채.}

10202 @1 겨룬허고 날떠니 예청 삼촌쪼개 이제 시꾸드리에 어떤 분드리 게서신고예?{결혼하
고 났더니 여자 삼촌 쪽에 이제 식구들이 어떤 분들이 계셨었나요?}

10202 #1 거기 글로 뭐 탄 사라미 어서십쭈. 처 겨룬 직씨는 우리 처나미 군대에 가서 안 도
라오니까 유기오 때 간 그 고생허다 보니까 우리 겨룬헐 때 오도 몬테선꼬 그르후제 완 처남허고
처아주망베끼.{거기 거기로 뭐 다른 사람이 없었쪼. 처 결혼 즉시는 우리 처남이 군대에 가서 안
돌아오니까 육이오 때 가서 그 고생허다보니까 우리 결혼할 때 오지도 못 했었고 그 후에 와서
처남하고 처아주머니밖에.}

10202 #2 우리 오라바니가 포로 당헐냥. 포로 당헐네 헐 삼스 년 원 소시글 몰란.{우리 오라
버니가 포로로 잡혀서 포로서 잡혀서 한 삼사 년 원 소식을 몰랐어요.}

10202 #2 원 오라방은 우리 따른 서너 성제헤네 언니 주거불고 우리 성제 사라신디 오라바니
가 포로 당헐 가부난.{원 오라버니는 우리 딸은 서너 형제해서 언니 죽어 버리고 우리 형제 살았

오라버니가 포로로 잡혀 가버리니.}

10202 #2 제스는 만헌디. 우리 아주망은 저 저 신흥리 뿌닌디 오랑으네 애기도 자식도 하나
얻꼬 하나네 매날 살리든 갈랑 강 소문도 못 들꼬허난 아이구 갈랑 가젠 해도 제사 따문 못 간
거라마씨.{제사는 많은데. 우리 올케는 저 저 신흥리 분인데 와서 애기도 자식도 하나 없고 하니
까 매일 살림을 갈라 가서 소문도 못 들고 하니까 아이고 가르려고 해도 제사 때문에 못 간 거지
요.}

10202 #2 저 씨누이덜 허여 두고 우리도게 처녀로 이신 때고 하나네.{저 시누이들 해두고 우
리도 처녀일 때고 하나까.}

10202 #2 이번 가져 저번 가져 해도 못 강으네 춤 벨 방상에서 벨 이를 다 허멍 **** 덩기교
다 허단 보나네.{이번 가자 저번 가자 해도 못 가서 참 별 친척들이 별 일을 다 하면서 **** 다
니고 다 하다 보니까.}

10202 #2 그 교완통에 교완통에 우리 오라바니가 정원웅인데 아이구 표선면 가시리 정원웅이
사람젠 신문네 보도뵈져 하나네.{교완통에 교완통에 우리 오라바니가 정원웅인데 아이고 표선면
가시리 정원웅이 살았다고 신문에 보도됐다고 하나까.}

10202 #2 곧 뜨러지질 아წყ디다. 아이고 무신 나 열일곱 씨리던가 웬 때란게. 뭇신 따문 그자
이땅 경혈 리가 이시리 혜연게.{곧이곧대로 들을 수 없었습니다. 아이고 무슨 나 열일곱 살이던가
할 때인데. 무슨 때문에 지금까지 있다가 그럴 수가 있으라 했는데.}

10202 #2 구월 뜨레 우리 모멸 빼레 요디 오란 가네. 저 가르메 살 땀디 간 보난 춤 저 제주시
로 허여네 그때 허여네 경 방송허여네 혼 보름 마니 오라선게.{구월 달에 우리 메밀 베러 저기
왔다 가서. 저 마을에 살 때인데 가서 보니 참 저 제주시로 해서 그때 해서 그렇게 방송해서
한 보름 만에 왔었는데.}

10202 #2 그때 춤 거문 물 드러네 그 군복또 아녀네 거문물 드린 거 입꼬 무신 김빵인가 무
신 거 보르가미 하나 메고 허여네 절로 알로 완텐 헤네. 그때는 차가 이신이 폐선으로 이레 거렁
을 때난.{그때 참. 김정물 들어서 그 군복도 아니고 김정물 들인 것 입꼬 무슨 김빵인가 무슨 골
판지 하나 메고 해서 저리로 아래로 온다고 해서. 그때는 차가 있을까 표선에서 이리로 걸어서
올 때니까.}

10202 #2 아이고 나가 막 뛰어간 저 그땀 가시리 성 신 때난 성 알력페니 가시난 아이고 우
리 오라바니 완텐 험텐 허난 아이고 야야 아이고 야야 막떨 허멍 헤네.{아이고 내가 막 뛰어가서
저 그때는 가시리 성이 있을 때니까 성 아래쪽에 가니까 아이고 우리 오라버니 온다고 하나까 아
이고 애야 아이고 애야 막들 하면서 하나까.}

10202 #2 보난 줄줄. 포로 당헨 사라부난 말도 ㄱ만ㄱ만 아라든찌 모터곡. 경허난 기자 손 자
바네 우리 다 주거시카부덴 너네덜 주거시카부덴 허고렌 허멍 손 자반 오라네 **** 오라네 나도
춤 사주 쥐부나네 겨론허고 헬쑤다게.{보니까 후줄그레. 포로로 잡혀서 살아버리니까 말도 가만가
만 알아듣지 못하고. 그러니까 그저 손잡아서 우리 다 죽었을 거라고 너희들 죽었을 것이라고 했
다면서 손잡고 와서 **** 와서 나도 참 사주 쥐버리니까 결혼하고 했습니다.}

10202 #2 간 오라네 아덜 나코 허여네 춤 푼란 이젠 손지도 나고 헤신디. 그 더홀로 그때 오

보난냥 얼마나 고사신디 손바리 이디가 문 터러져버서마씨.{가서 온 다음 아들 낳고 해서 참 결혼시켜서 이제는 손자도 낳고 했는데. 그 후유증으로 그때 와서 보니까 얼마나 곱았는지 손발이 여기가 모두 헐었어요.}

10202 #2 경허고 말도 크게 글썽 몬터영 슬쩍슬쩍 그 경헨 사라나난 그대로 허연.{그리고 말도 크게 말하지 못 해서 살짝살짝 그 그렇게 살았었으니까 그대로 해.}

10202 #2 계도 산처는 올케 우리가 우리 오라바니네가 팔때 구대 독짜여 무시거여 헤 나신디 올케 막 거러네 아덜 이제 손지 너 오누이. 춤 딸 두 개 아덜 두 개 나고 잘 뵈쑤다 이제. 이제 아방은 기자 그 고생헌 뵈로 기자 오폭 도라가셔버리고.{그래도 산천은 옹치 우리가 우리 오라바니네가 팔때 구대 독자여 무엇이라고 했었는데 옹치 막 아이가 많아서 아들 이제 손지 네 오누. 참 딸 둘 아들 둘 나서 잘 뵈었습니다. 지금. 이제 아버지는 그저 그 고생한 무엇으로 그저 그만 돌아가고. }

10205 @1 삼추니 씨지블 왕 보난 씨지베 식꾸드른 어떤 분드리 계썸쑤가?{삼촌이 시집을 와서 보니까 시집의 식구들은 어떤 분들이 계셨습니까?}

10205 #2 그때는 큰씨누이허고 씨아지방만 겨론식케네 다 이서십쑤. 씨누이 두 개에 또 거시기 허나네 너오 너오누이 나르난 나가 간 나 와 간 후제 또 딸덜 겨론시키고.{그때는 큰씨누이하고 시아주버니만 결혼식 해서 다 있었지요. 시누이 둘에 또 거시기 하니까 네 오누이 남으니까 내가 가서 간 후에 또 딸들 결혼시키고.}

10205 #2 우리 씨아바님 그자 두 부체 계시고.{우리 시아버님 그저 두 부처 계시고.}

10206 @1 지금 씨택 식꾸드른 어떻 인쑤과?{지금 시택 식구들은 어떻게 있습니까?}

10206 #2 우리 씨대근 우리 씨아주바님 아덜 넷 또 우리도 넷 아덜 네세 그디도 아덜 네 성제 딸 세 성제 우린 또 딸 성제허연 우린 으선 오누이고 그딘 일곱 쑤정이 동세 인척 도라가셔부난 또 이제 계부 헤네 딸 하나 나코 헤네 그디 이 일곱 쑤정인디 아주바니허고 동세는 일척 도라가벼도 막 잘 사랍쑤다. 씨아주방네 아덜덜.{우리 시택은 우리 시아주버니 아들 넷. 우리도 넷 아들 넷에 거기도 아들 네 형제 딸 세 형제 우리는 또 딸 형제 해서 우린 여섯 오누이고 거기는 일곱 명이 동서 일찍 돌아가니까 이제 계모 해서 딸 하나 낳고 해서 거기 일곱 명인디 아주버니하고 동서는 일찍 돌아갔어도 막 잘 살고 있습니다. 시아주버니네 아들들.}

10204 @1 당시 겨론 하셔쑤 때 아까 뵈 게니까 삼추는 정확키 뵈뵈 가정 오셔서마씨?{당시 결혼하셨을 때 아까 뵈 그러니까 삼촌은 정확히 무엇무엇 갖고 오셨습니까?}

10204 #2 가정 온 거 어서. 그때 가정.{가져 온 거 없어. 그때 가져.}

10204 @1 퀘?{퀘?}

10204 #2 예. 기자 이불허곡 거울 하나 그거.{예. 그저 이불하고 거울 하나 그거.}

10204 @1 거울허곡 이불 두 채.{거울하고 이불 두 채.}

10204 #2 으. 이불 두 채도 **이주. 이불 두 개에 요 하나주. 헤헤헤. 반드시.{으. 이불 두 채도 **이지. 이불 두 개에 요 하나지. 헤헤헤. 반드시.}

1.2.3. 혼례식

10207 @1 겨론힐 때 남자 어르는 어떤 치장을 하고양?{당시 결혼할 때 남자 어른은 어떤 치장을 하고요?}

10207 @1 여자 어르는 어떤 치장을 하고예. 우선 남자 어르신부터 겨론힐려고 허면 겨론식 준비를 힐려고 허면 어떤 준비를 해신고마씨?{여자 어른은 어떤 치장을 하고요. 우선 남자 어르신부터 결혼하려고 하면 결혼식 준비를 하려고 하면 어떤 준비를 했을까요?}

10207 #1 준비힐 게 윈 어시난 거자 보통 입딤 오세 조끔 뒤 헨 거 헨 입꼬.{준비할 것이 윈 없으니까 그저 보통 입딤 옷에 조금 뒤 한 것 해서 입고.}

10207 #1 그때는 좀 비러당 그 저 사모관대엔 헨 그거 썬 그자 간. 강오른 그거 돌려볼른 거 메기. 아무 건또.{그때는 좀 빌러다가 그 저 사모관대라고 해서 그거 써서 그저 가서. 가오면 그거 돌려버리면 그것 뿐. 아무 것도.}

10207 #2 건지 얻고게. 오랑으네 무신 거 걱쩡힐 게 어습쭈게. 기자 윈 밥쌍 바당 낡으네 어느 사진을 찌그젠 허카 지비서 겨론헌 거나.{땀머리 얹히고. 와서 무슨 거 걱정할 게 없지요. 그저 윈 밥상 받아서 어떤 사진을 찍으려고 하나 집에서 결혼한 거니까.}

10207 @1 삼추는 아까가치 뭘 준비헨쭈가? 겨론힐려고.{삼춘은 아까처럼 무엇을 준비했습니까. 결혼하려고.}

10207 #2 계난 그 안 ㄱ람쭈가게. 이불허곡 겨우리나 허나 허곡 이 의복이나 창기문 그.{그러니까 그 안 말합디까. 이불하고 거울이나 하나 하고 그 의복이나 창기면 그.}

10207 @1 그 그 의복 치장할 때 이번편 의복들.{그 그 의복 치장할 때 입었던 의복들.}

10207 #2 아.{아.}

10207 @1 뭘든 어떤 게**.{뭘든 어떤 게 **.}

10207 #2 그때 그때 사땡이엔 헨 치마가 그때 기자 올치 돈 어슨 사르른 건또 몬터영으네 기자 인주나 허영으네 허여신디.{그때 그때 사땡이라고 한 치마가 그때 그저 올치 돈 없는 사람은 그것도 못 해서 그저 인조나 해서 했는데.}

10207 #2 사땡 치메엔 헨 거 허나허곡 또 씨지비 오난 멩지치마 허여주고 ** 험디다게.{사땡 치마라고 한 거 하나 하고 또 시집에서 멩주치마 해주고 **하대요.}

10207 @1 겨론식커고 게문 삼추니 그 가고양.{결혼식하고 그러면 삼춘이 그 가고요.}

10207 #1 예.{예}

10207 @1 신부 씨베 가곡 저 신부는 오고 그 과정에 뭘 뭘 이용헨니까?{신부 집에 가고 저 신부는 오고 그 과정에 무엇을 이용헨니까?}

10207 #1 아.{아.}

10207 @1 교통수단 가튼 거예.{교통수단 같은 거요.}

10207 #1 몰탕 가고 올 때 가마 탄 오고.{말 타서 가고 올 때 가마 타서 오고.}

10207 #1 옛날 말로 뽕게 탄 오고.{옛날 말로 독교 타서 오고.}

10207 @1 뽕. 옛날말로 뽕마씨?{뽕 옛날 말로 뽕니까?}

10207 #1 뽕게.{독교.}

10207 #2 새각씨 치비 갈 때는 시방도 경허는 디 아직도 신평 어신 디도 실꺼우다마는
돋따리 새서방 치비서 흥나 새각씨 지비 가져 가.{그러니까 신부 집에 갈 때는 지금도 그렇게 하
는 데 아직도 있고 없는 곳도 있을 겁니다마는 돼지다리 신평 집에서 하나 신부 집에 가져 가.}

10207 #2 경허민 또 그디서 대가브로 또 그마니 그마니 모테도 새각씨 찌비서 또 새서방 칩
더레 오고 경허는 거.{그렇게 하면 또 거기서 되잖음으로 또 그만큼 그만큼 못 해도 신부 집에서
또 신평 집으로 오고 그렇게 하는 거.}

10207 #2 그거 허민 원 서 * 선무리나 무신 거라도 교환하는 거.{그것 하면 원 서 * 선물이
라도 어떤 거라도 교환 하는 것.}

10207 @1 게며는 이제 신평이 몰 타그네 신부치베 가지 아녀우파?{그러면 이제 신평이 말 타
서 신부 집에 가지 않습니까?}

10207 #1 으.{예.}

10207 @1 맨 처음 가 가지고 신부영 가치 이제 똬계 탕 이디 오는 데까지 저 신부치베양.{맨
처음 가서 신부하고 함께 이제 독교 타서 여기 오는 데까지 저 신부 집예요.}

10207 #1 예.{예.}

10207 @1 강 어떤 이리 버러질쑈과? 당시에.{가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당시에.}

10207 #1 이리 버러질게 아니라 그자 우리.{일이 벌어질게 아니라 그자 우리.}

10207 #2 그때는 새시방광 새각씨 밥쌍 받끼 저니 보민 정 떠러진텐 똬우도 아녀쑈다.{그때
는 신평과 신부 밥상 받기 전에 보면 정 떨어진다고 보이지도 않았습디다.}

10207 @1 예예.{예예.}

10207 #2 똬우도 아녀 새스방 강으네 밥쌍 바다 나미는 새스방 저레 가불곡 똬혜사 허고 또
우리도 이 여자도 씨지비 가며는 씨어멍이 밥쌍 받끼 저네 씨어멍을 보미는 정 떠러정으네 (웃
음) 몬 썬텐 절때 똬우질 아녀서마씨.{보이지도 않아서 신평 가서 밥상 받고 나면 신평 저리로
가야 하고 또 우리도 이 여자도 시집에 가면 시어머니가 밥상 받기 전에 시어머니를 보면 정 떨
어져서 (웃음) 못 산다고 절대 보이질 않아요.}

10207 #2 그자 그. 영영 새각씨 강으네 영 고평디레 영 도라아지민 산 덴 허곡 베꼈디레 저
새각썬 안 살켜 베꼈디레 도라아장 영 곤곡. (웃음) 옛날 시기. 우리 갈 때.{그저 그. 이렇게 이러
게 신부 가서 이렇게 고평 쪽으로 이렇게 돌아왔으면 산다고 하고 바깥 쪽으로 야 저 신부는 안
살쥬다 바깥 쪽으로 돌아왔아서 이렇게 말하고. (웃음) 옛날 식이. 우리 갈 때.}

10207 @1 게민 삼추니 이제 이제 남편찌베 오서서양. 게민 그 과정을 저녁 저녁까지 삼춘 온
다음에 저녁까지 생각나는 대로 영 순서대로 그라뵈씨.{그러면 삼춘이 이제 이제 남편 집에 오셨
습디다. 그러면 그 과정을 저녁 저녁까지 삼춘 온 다음에 저녁까지 생각나는 대로 이렇게 순서대
로 말씀해 주십시오.}

10207 #2 경허영 영 아장 친구드리영 놀당 가불미는 씨지비서 저냐글 혜영 밥 머그렌 줍쑈
게.{그렇게 해서 이렇게 앉아서 친구들이 놀다 가버리면 시집에서 저녁을 해서 밥 먹으라고 주지
요.}

10207 @1 예.{예.}

10207 #2 저녁 머경 어디 그때는 무신 여행이 이선쭈가 무신 거 인쭈가? 그자 그제 끄시로 (웃음) 잘 사라가는 거주.{그 저녁 먹어서 어디 그때는 무슨 여행이 있었습니까? 무슨 거 있었습니까? 그제 그것이 끝으로 잘 살아가는 거지요.} (웃음)

10207 @예.{예.}

10207 @1 그제 끝.{그제 끝.}

10207 #1 예. 그거.{예 그것.}

10207 @1 천날빠른 어떻 보냅띠강? {첫날밤은 어떻게 보냈습니까?}

10207 #2 천날빠.{첫날밤.}

10207 #1 그디서 그자.{거기서 그제.}

10207 #1 어두우른 즈낙 머그른 번떨 놀레오른 밤새깁떨 놀당 가버리민 즈 멀리민 그대로들 자*.{어두우면 저녁 먹으면 벗들 놀러오면 밤새껏 놀다 가버리면 잠이 쏟아지면 그대로들 자*.}

10207 #2 게국 그때는 친구 그날 처낙 장 꺾치덜 장도 가국 **** 여라 가지난.{그리고 그때는 친구 그날 저녁 자서 같이들 자서 가고 **** 여러 가지니까.}

10208 @1 그때 겨론식킬 때 이제 실랑 쪼게서 잔친날 아니우파양.{그때 결혼식 할 때 이제 신랑 쪽에서 잔친날 아십니까?}

10208#1 예.{예.}

10208 @1 어떤 거뜨를 머글 쥬로 준비를 해신고마씨? 실랑쪼게서는.{어떤 것들을 먹을 것으로 준비를 했을까요? 신랑 측에서는.}

10208 #1 밥 퍼고 술** 혼 잔씩 주국 돼지고기.{밥하고 술** 한 잔씩 주고 돼지고기.}

10208 #2 고기 허머는{고기 하면.}

10208 #1 쪼금허영 주국.{조금 주고.}

10208 #2 모밀. 요새 메밀갯를양. 메밀갯르 허영으네 소뚜쟁이에서 전 영 혼 수꾸락 낱 요새 특새기 후라이허든 거 특커영으네 케기쪼 우테레 특커게 모밀쪼늘 더끄는 거라.{메밀. 요즘 메밀가루. 메밀가루 해서 소담에서 지집이를 이렇게 한 숟가락 넣어서 요새 달걀 프라이하듯 그것을 톱 해서 고깃점 위에 톱 메밀 지집이를 덮는 거야.}

10208 #2 그거 윈 케기쪼 흥나에 혼 쪼씨에 그거 흥나 톱 더끄민 그거 잔치.{그거 윈. 고깃점 하나에 한 쪼씨에 그거 하나 톱 덮으면 그게 잔치.}

10208 @1 그거는 실랑 쪼비나.{그것은 신랑 집에나.}

10208 #2 예 새각씨.{예 신부.}

10208 @1 신부 쪼비나.{신부 집에나.}

10208 #2 쪼비나.{집에나.}

10208#1 예.{예.}

10208 #2 윈윈. 무신 흰꺼리도 그때는 얻꼬 윈 그거.{윈윈. 무슨 흰꺼리도 그때는 없고. 윈 그것.}

10208 @1 게민 그때 삼촌네 그 씨지비서 잔치 준비헌 거 게민 꺾라뵘씨.{그러면 그때 삼촌네 그 시집에서 잔치 준비한 거 그러면 말씀해 보십시오.}

10208 #2 치비도게 그거주 무신. 새각씨쌍 출리면 요새치록 과일허영으네 무신 상 우 터레 퀘영으네 사지네 나오게시리 무신걸 허멍 사진도 안 찍그니까.{신랑 집에서 그거지 무슨. 신부상 차리면 요새처럼 과일해서 무슨 상 위에 꺾어서 사진에 나오게끔 무슨 거 하면서 사진도 안 찍으니까.}

10208 #2 무신 거 원 헐 꺼시 업꼬. 득 기자 득 헐 머리 슬망으네 새각씨상엔 노록.{무엇 원 할 것이 없. 닭 그저 닭 한 마리 삶아서 신부상이라고 올리고.}

10208 #2 신부상 저 대반 아진 사르문 헐 짝. 그거 헐 헐 가글 노나 헐 짜글 노나. 우시쌍더 레 더러 브려 노록케영. 득 두 머리 슬므민 그걸로 허미는 득따리 거 헐물 친헌 새각씨 헐물 어느 때민 득따리 허영으네 헐리 허멍 조케더리나 누게 시민 손내와두문 그거 문 주곡.{신부상 저 대반 앓은 사람은 한 짝. 그것을 한 한 각을 올리나 한 짝을 올리나. 위요 상에 더러 찢어 놓고 해서. 닭 두 마리 삶으면 그것으로 하면 닭다리 그것 사뭇 친헌 신부 사뭇 어느 때면 닭다리 해서 할까 하면서. 조카들이나 누구 있으면 손내밀면 그것을 모두 주고.}

10208 #2 밥피영 퀘기 헐 저메. 접시에 퀘기 헐 점 노록 밥 헐 수꾸락 노록 헤영 방상 어른덜 신디 거 다 테우는 거라. 이거 새각씨 바비엔.{밥해서 고기 한 점에. 접시에 고기 한 점 넣고 밥 한 숟가락 넣고 해서 친척 어른들한테 그것을 다 나눠주는 거야. 이것 신부 밥이라고.}

10208 #2 경허곡 기잔 타이더른 손 내와두문 그거 헐 수꾸락씩 낭푸니에 거려당으네 헐 수꾸락씩 나나나나나 헐민 그거 헐 수꾸락씩 툽툽 거려냥. (웃음) {그렇게 하고 그저 아이들은 손내 밀면 그것 한 숟가락씩 양푼에 떠다 한 숟가락씩 나나나나나 하면 그것 한 숟가락씩 툽툽 떠놔서.}

10209 @1 그러면 삼추니 새각씨치비 가서 상을 바닷짜녀파?{그럼 삼촌이 신부 집에 가서 상을 받았잖습니까?}

10209 #1 예.{예.}

10209 @1 그때 상에 뭐뭐 와십띠가? 하여간 국 뺨부터 촌근촌근 튼내지는 대로 ㄹ라보십써? {그때 상에 뭐뭐 올라왔었습니까? 하여튼 국 뺨부터 차근차근 생각나는 대로 말씀해 보십시오?}

10209 #2 **

10209 @1 남자삼촌?{남자삼촌?}

10209 #1 판 게 뭐가 어서실 꺾디 저 계란 하나 쫄든 거 노코.{판 것이 무엇 없었을 텐데. 저 계란 하나 삶은 거 놓고.}

10209 #2 계란 쫄든 거.{계란 삶은 거.}

10209 #1 그 득따리 하나 노코 허민 일류 반찬 다 웨어 부니까.{그 닭다리 하나 놓고 하면 일류 반찬 다 되니까.}

10209 @1 실랑쌍이고예.{신랑상도요.}

10209 @1 그다음에 삼추니 또 이디 왈쓸 때 또 그 받은 상.{그다음에 삼촌이 또 여기 왔을 때 또 받은 상.}

10209 #2 그거 원 ㄹ라 ㄹ라도 그거. 예. 벨다른 거 출리질 아녀.{그거 원 말해 말해도 그것. 예. 벨다른 거 차리질 앓아.}

10210 @1 삼촌네도 조코 삼촌네 비스탄 또래 다른 겨론 하신 분도 조코 그 첫날밤미 뭐 즈미진 얘기 가튼 거 혹시 드른 얘기 가튼 건 언췌과?{당시 삼촌네도 좋고 삼촌네 비슷한 또래 다른 결혼 하신 분도 좋고 그 첫날밤에 뭐 재미있는 얘기 같은 것 혹시 들은 얘기 같은 것은 없습니까?}

10209 #2 그때는.{그때는.}

10210 #2 그날쯤 어시 기자 친구덜 막 메왕정으네 춤추고 노래하고 노는 거 시방은 놀렌 아녀주마는 그때는 막 노랴췌게게.{그날쯤 없이 그저 친구들 마구 모여서 춤추고 노래하고 노는 것. 지금은 놀라고 하지 않지만 그때는 마구 놀았지요.}

10210 #2 경허곡 저 토산 요디왕 요디도 허영으네 겨론허영 실랑 소리 신부 소리 안 시키미는 실랑 드라마영 발 영 천장 우의 드라마영. 친구드리.{그렇게 하고 토산 여기와 여기도 해서 결혼해서 신랑 소리 신부 소리 안 시키면 신랑 매달아 발 이렇게 천장 위에 매달아서. 친구들이.}

10210 @1 예.{예.}

10210 #2 드라마영 신부 소리 시키젠 막 발창 췌을 아사당 두드리나 맥췌췌을 아사당 막 두드리나 그치룩커민 막 메옹이 아저당 이제 ***리 헌 말도 나나곡 막 해남췌다.{매달아서 신부 노래 시키려고 마구 발바닥을 병을 가져다 때리나 맥췌병을 가져다가 마구 때리나 그렇게 하면서 막 매 가져다가 이제 ***리 한 말도 나고 마구 했습니다.}

10210 @1 그때 삼촌도 발빠닥 마자납떠강?{그때 삼촌도 발바닥 맞았었습니까?}

10210 #1 나 우린 이 지방에선 경 아녀난 허주. 웨레 웨레 싸름 오라야.{나 우린 이 지방에서 그렇게 안 하니까 하지. 외래 외래 사람 와야.}

10210 @1 계난 삼추니 노래 부르거나 헌 적또 언꾸나. 그 그뻐.{그러니까 삼촌이 노래 부르거나 한 적도 없군요. 그 그때는.}

10210 #1 예.{예.}

10210 #2 노래도 우리 불를 충 모르고.{노래도 우리 부를 줄 모르고.}

10210 #1 거 웨레 (#2 웃음) 실랑이 오며는 그러케 험췌.{그거 외지 신랑이 오면 그렇게 하지요.}

10210 @1 아 웨레 신랑이 오민 경험니까? 계민 가시리 안에서는 경 아녀췌가?{아 외지 신랑이 오면 그렇게 합니까. 그러면 가시리 안에서는 그렇게 아니 합니까?}

10210 #1 아 아녀곡.{아 아니하고.}

1.2.4. 생활에 대한 이야기

10211 @1 에 요번부터는 이제 겨론 험짜녀파양. 이젠 예. 이제 그 겨론헌 후에 얘기를 췌 길게 한 삼 부네서 오 분 얘기한다 이레 생각케서 얘기해 줍써예.{에 이번부터는 이제 결혼했잖습니까. 이제는요. 이제 그 결혼한 후에 얘기를 췌 길게 한 삼 분에서 오 분 이야기한다 이렇게 생각해서 얘기해 주십시오.}

10211 @1 에 겨론헌 후에 시논살리른 어떠케 마려늘 해서 어디에서 어떠케 시자글 험췌가?

{ 결혼한 후에 신혼살림은 어떻게 마련을 해서 어디에서 어떻게 시작을 했습니까?}

10211 #1 시논쌀리문 혼 일 년 이상 부모와 똑ㄴ치 그대로 살고.{신혼살림은 한 일 년 이상 부모와 똑같이 그대로 살고.}

10211 #1 게서 아이 나코 현 후제 우리 여기 집 딱로 지션 여기 오란 지금까지 살고.{그래서 아이 낳고 한 후에 우리 여기 집 따로 지어서 여기 와서 지금까지 살고.}

10211 @1 이젠 예청 삼촌안티 무르쿠다양.{이제는 여자 삼촌한테 묻겠습니다.}

10212 @1 천따이를 가질 때부터예. 그다음에 나올 때까지 이션편 일 중에 트키 기어게 낳은 이리 이시몬예. 천 천따이에. 천따이 가지는 과정에서부터 가져서 나올 때까지 어떻 허고. 나올 때 그 과정에 기억나는 건뜨리 ㄴ를 말 인쓰면 ㄴ라줍써예.{첫아이를 가질 때부터. 그다음에 낳을 때까지 있었던 일 가운데 특히 기억에 남는 일이 있으면요. 첫 첫아이요. 첫아이 가지는 과정에서부터 가져서 낳을 때까지 어떻게 하고. 낳을 때 그 과정에 기억나는 것들 말씀하실 말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10212 #2 ㄴ를 말 거. 저 우리 췌테기 날 때는 저 가르메서 저 쪼게서 아이 가지나네 윈 기억나는 거 벨로.{말씀드릴 말 그거. 저 우리 첫아기 낳을 때는 저 마을에서 저 쪽에서 아이 가지니까 윈 기억나는 거 벨로.}

10212 #2 우리 안과꺼리 저치룩 허여넨 그때 씨아주방네광 사니까 우리 동세는 딸만 나고 나는 췌테기로 간 아덜 나난 동세가 흐썰 썩썩페서 흐썰 이너기 서러움 바든 거빠뀐 다른 이룬 벨로.{우리 안팎꺼리 저렇게 해서 그때 시아주버니네와 사니까 우리 동서는 딸만 낳고 나는 첫아기로 가서 아들 낳으니까 동서가 조금 썩썩해서 조금 자기대로 서러움 받은 거밖에는 다른 일은 벨로.}

10212 @1 뭐 특별리 뭐 입떠슬 심하게 허거나 아니면 유난히 또 먹꼬 시픈 뭐가 일꺼난 그런 건또 얻쑈과? {뭐 특별히 뭐 입덧을 심하게 하거나 아니면 유난히 또 먹고 싶은 뭐가 있거나 그런 것도 없습니까?}

10212 #2 먹꼬 시픈 건싸 물론.{먹고 싶은 거야 물론.} (웃음)

10212 @1 아아 그러썰꾸나.{아아 그러썰군요.}

10212 #2 아 인찌게. 아기 가정으네 먹꼬 시픈 거 뭐 혼 ㄴ리에 얻쑈 안커든.{아 있지. 아기 가져서 먹고 싶은 것이 뭐 한고비에 없지는 았거든.}

10212 @3 뭐 뭐꼬 시핀마썰?{무엇 먹고 싶었어요.}

10212 #2 아무 돼야지래기라고 완전 먹꼬 시플 때가 이션. 건또 흐썰 서넉 딸 너므며는 먹꼬 시프지 아녀.{아무 돼지고기라도 완전 먹고 싶을 때가 있어. 그것도 조금 서넉 달 지나면 먹고 싶지 았아.}

10212 @1 예예예.{예예예.}

10213 @1 게문 아이를 가졌을 때 가장 어려웠던 이리나양. 예. 재미 이션편 이리나 혹썰 그런 거는 혹썰 어실건가마썰? 삼추는?{그러면 아이를 가졌을 때 가장 어려웠던 일이나 재미있었던 일이나 혹시 그런 것은 혹시 없었습니까? 삼촌은?}

10213 #1 벨로 그때 뭐가 업썰디.{벨로 그때 뭐가 없었는데.}

10213 #2 그자 입초 생활만 허레 그 총 메고 허영 텅긴 때 무신 거 혼으시.{그때는 그저 입초 생활만 하러 그 총 메고 해서 다닐 때 무엇. 한없이.}

10213 #1 계속 그자 겨론헌 후제도 우리 근무허레만 다녀노니까.{계속 그저 결혼한 후에도 우리 근무하러만 다녔으니까.}

10213 @2 무슨 근무마씨?{어떤 근무입니까?}

10213 #1 사삼 후에 그 유기오 터지니까 여기도 공비실젠 허니까 계속 근무 허곡.{사삼 후에 그 육이오 터지니까 여기도 공비 있다고 하니까 계속 근무하고.}

10213 #2 올라. 이 성 다네 가르메 **. {오라. 이 성 쌓아서 마을에.}

10213 #1 우리가 해베니 소가이 헨탄 올라 완 이디 성.{우리가 해변으로 소개했다가 올라와서 여기 성.}

10213 #2 여자도 이 열 다서시 너므민 입초 사례 바미 강으네 성 우의 영 초막싸리 허영으네 그디 낡으메 바미 우리 문 근무 간 텅여날쑈게.{여자도 이 열 다섯이 넘으면 입초 사러 밤에 가서 성 위에 이렇게 초막 지어서 거기 놔서 밤에 우리 모두 근무 가서 다녔었습니다.}

10213 #2 남즈도 허곡. 남즌 순찰 돌미엔 바미 성 뱅뱅 돌명 중노동 허곡.{남자도 하고. 남자는 순찰 돈다고 밤에 성 뱅뱅 돌면서 중노동 하고.}

10214 @1 그 칠다이를 나아네 산후조리는 어떻**?{그 첫아이를 낳아서 산후조리는 어떻게**}

10214 #2 산모 조리가 무신 거 인쑈가? 요새 산모 조리주. 그때사 지베. 기자 어머니나 씨부모나 시나네 기자 춤 혼 보름 영 오랑으네 뭘해주곡.{산후 조리가 무슨 것 있습니까? 요즘이야 산후 조리지. 그때야 집에서. 그저 어머니나 시부모가 계시니까 그저 참 한 보름 이렇게 와서 뭘 해주고.}

10214 #2 아년 사르문 또 이대로 기냥 아이고 지. 산모 조리 산모 조리 그뻐 무신 산모 조리가 셔서?{못한 사람은 또 이대로 그냥 아이고 지. 산후 조리 산후 조리 그때는 무슨 산후 조리가 있어?}

10214 @3 삼추는 어떻 헨마씨? 칠데기 나쑈 때.{삼촌은 어떻게 했습니까. 첫아기 낳았을 때.}

10214 #2 기자 어머니 시나네게 혼쑈 영 나들명 뭘 모멸끄르라도 카주난 먹꼬 헨쑈게.{그저 어머니 계시니까 조금 이렇게 드나들면서 뭘 메밀가루라도 타주니까 먹고 했지요.}

10214 @2 게 애기는 누가 바단쑈가?{그 아기는 누가 받았습니까?}

10214 #2 애기 엄마 바단쑈. 누게가? 씨어명 이시난.{아기 엄마 받았지요. 누구가?. 시어머님이 계시니까.}

10215 @1 흑씨 아이들 베길 치나 돌잔치 가튼 거{흑씨 아이들 백일잔치나 돌잔치 같은 거}

10215 #2 그런 거 연꼬.{그런 것도 없고.}

10215 @1 헨 적 어설쑈가?{한 적 없었습니까?}

10215 @1 연꼬.{없고.}

10216 @1 이제는 아까 이제 사남 이녀 나오실따고 허십떼가?{지금은 방금 이제 사남 이녀 낳았다고 하셨습니까?}

10216 #1 예.{예.}

10216 @1 이녀예.{사남 이녀요.}

10216 #1 예.{예.}

10216 @1 여선 오누이예?{여섯 오누이요?}

10216 @1 자시글 키우면서 이선편 일 중에 가장 기어기 남는 이리 이시면 혼 두 가지만 좀 삼춘 먼저 그라줍써?{자식을 키우면서 있었던 일 가운데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 있으면 한 두 가지만 좀 삼춘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10216 #1 키우면서 뭐 벨 거. 혼 이른 엽는디 중학교에 뭐 드러가젠 허난 돈 엽쩍 좀 고생 좀 해반. 학비 내지 못터연 도라맹긴 거 그거베끼는 벨 뭐 그런.{키우면서 뭐 벨 거. 한 일은 없는데 중학교에 뭐 들어가려고 하니까 돈 없어서 조금 고생 조금 했던 일. 학비 내지 못 해서 돌아다니는 것 그것밖에는 벨 뭐 그런.}

10216 @1 삼춘. 게니까 자식 여선 오누이를 키우면서 이선편 일 중에서양. 기어게 남는 일 혼 두 가지만.{삼춘. 그러니까 자식 여섯 오누이를 키우면서 있었던 일 가운데서요. 기억에 남는 일 가운데 한 두 가지만.}

10216 #2 기어게 남는 거 그집쭈게. 경허곡 그때는 대하교를 돈 어선 못 시건 그 바시라도 경계난 이젠 막 후회 후회 헤져마씨.{기억에 남는 것은 그거지요. 그렇고 그때는 대학교를 돈 없어서 못 시켜서 그 밭이라도 그렇게 그러니까 이제는 막 후회 후회하게 됩니다.}

10216 #2 게 받 사쟁 마랑으네 게나제나 허영 우리 흥끔 버슨 거라도 즈식떨 공부 시겨시민 지네 거시기 헐 켄.{그러게. 밭 사려 말고 그러나저러나 해서 우리 조금 번 것이라도 자식들 공부 시켰으면 아이들 거시기 할 것을.}

10216 #2 그 춤 머리가 서도 시방은 아이덜 하귀니여 뭐여 허는다.{그 참 머리가 있어도 지금은 아이들 학원이다 뭐다 하는데.}

10216 #2 강 오민 혼저 조퇴허영 오라. 오라. 유채 같고. 그때는 보리 같고 허난. 마나 치젠 허민 아이고 조퇴허영 오라. 조퇴허영 오라 허영.{가서 오면 어서 조퇴해서 와라. 와라. 유채 같고. 그때는 보리 같고 하니까. 장마나 지려고 하면 아이고 조퇴하고 와라. 조퇴하고 와라 해서.}

10216 #2 기자 흥물 들와 그자 일만 부러진 거. 그거 시방 이제깁장 남는 거시 그 기어기라. 후회허여지는 거. 즈식떨 보민 미안허고. (웃음) {그저 사뭇 자꾸 그저 일만 시킨 거. 그것이 지금 이제까지 남는 것이 그 기억이지. 후회헤지는 것. 자식들 보면 미안하고.} (웃음)

10217 @1 흑씨 이 마으레 남자가 성이니 뉘면양.{흑시 이 마을에 남자가 성인이 되면요.}

10217 #1 예.{예.}

10217@1 어떻 뭐 성인식 한다든가 예 성년식컨다든가 그런 거 얼썬가?{어떻게 뭐 성인식 한다든가 예 성년식 한다든가 그건 것 없습니까?}

10217 #1 아니 그런 거 어서.{아니 그것 것 없어.}

10217 @1 따로 얼썬가?{따로 없습니까?}

1.2.5. 대한 경험담

10218 @1 예청 삼촌한테 이제 씨집싸리 험편 거에 대해서 좀 여쭙구다양.{이제는 여자 삼촌한테 이제 시집살이 했던 것에 대해서 조금 여쭙겠습니다.}

10218 #2 예. {예.}

10218 @1 계란 가스메 다마둔 거 기냥 팍팍 ㄱ라불써? 삼촌안티.{그러니까 가슴에 담아둔 거 그냥 팍팍 말씀하십시오? 삼촌한테.}

10218 #1 #2 (웃음)

10218 #2 씨집싸리에는 벨로 영 무신 씨부모덜 굳져 아녀네 잘 허난 배랑 구진 거이 어시. {시집살이에는 별로 이렇게 무슨 시부모들 굿지 않으니까 잘 하니까 별로 굿은 것은 없어.}

10218 @1 구진 건 어서예.{굿은 것은 없어요.}

10218 @1 계민 삼촌예. 이젠 메느리도 허고 허지 아녀쭈과양? 삼추니 씨집싸리 험편 거와 요즘 메느리드리 씨집싸리 험편 거 어떤 차이가 이신고마씨?{그러면 삼촌. 이제 며느리도 했고 했잖습니까? 삼촌이 시집살이 했던 거와 요즘 며느리들이 시집살이 했던 것과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10218 #1 건 차이 큼주게. 씨집싸리 험 때게 씨부모안티 욱뜨를 이리라도 춤 이시곡 뭐 허주마는. 시방은 뭐 메느리덜신디레 뭐엔 곧또 ㄱ를 피료도 언꼬. 아메도 배운 사름더리라 잘도 허고 뭐 허나네. (웃음){그것은 차이 크지요. 시집살이 할 때는요 시부모한테 욱들을 일이라도 참았고 뭐 하지만. 지금은 뭐 며느리들한테 무엇이라고 말하지도 말할 필요도 없고. 아마도 배운 사름들이라 잘도 하고. 무엇 하니까. (웃음)}

10218 #1 아 메느리들 차커나네 뭐 ㄱ를 말도 건또 언쭈다. 아 메느리 네 개라도 다 차케마씨.{아 며느리들 착하니까 뭐 말할 말도 그것도 없습니다. 아 며느리 넷이어도 다 착합니다.}

10219 @1 흑씨 씨집 오셔가지고 씨집 오기 저네 삼촌네 이제 제사를 헤셔쭈 거고양. 씨집 와가지고서.{흑시 시집 오셔서 시집 오기 전에 삼촌네 이제 제사를 하셨을 거고요. 시집 와서는.}

10219 @1 제사가 어선쭈게.{제사가 없었지요.}

10219 @1 아 어선쭈과?{아 없었습니까?}

10219 #2 우리가{우리가}

10219 #1 우린 제사 어선. 망내난.{우리는 제사가 없어. 막내니까.}

10219 #2 우리 씨아버님부터 네 형제에서 망내난. 망내 메느리나네.{우리 시아버님부터 네 형제에서 막내니까. 막내 며느리니까.}

10219 #2 우린 또 거세기고 허나넨 이제 춤. 우리 씨아주방덜 어머니덜 도라가셔도 큰조케가 헤부난. 여기는 경 시에는 흥 때씩 헌덴 험니다마는 제위리 이십쭈게. 경허나네 제월도 큰조케신디 문 가곡 헤불민 우리 제 원. 우리 예기더리라도 제는 아직 아년.{우리는 또 거시기고 하니까 이제 참. 우리 시아버님들 어머니들 돌아가셔도 큰조카가 하니까. 여기는 그렇게 제주시에선 한 때씩 한다고 합니다만 제위전이 있지요. 그러니까 제위전도 큰조카한테 모두 가고 하면 우리는 제를 원. 우리 자식들이라도 제사는 아직 안해.}

10219 @1 경해도 흑씨 삼촌 씨집오기 저네 이제 우리 식게 방법파고 여기 완 큰지비 가네양. 식게 방법파고 흑씨 튼나거나 트기헌 거시 인꼭 험떠가?{그래도 흑시 삼촌 시집오기 전에 이제

제사 방법하고 여기 와서 큰댁에 가세요. 제사 방법 하고 혹시 다르거나 특이한 것이 있고 합디가?}

10219 #2 트기헌 건 무신 거 초네는 다 제스 그자 어연간.{특이한 것은 무슨 것 촌에는 다 제사 그저 어연간해.}

10219 @1 다 엔간허여양?{다 어연간하다구요?}

10219 #2 예.{예.}

10219 #2 출리는 거예. 사라가난 이젠 츠츠츠츠 뭐 잘 출리젠 허영 뭐허주. 연날 제스는게. 츠 경 다 아는 거고.{차리는 거요. 살아가니까 이제는 차차차차 뭐 잘 차리려고 해서 뭐하지. 옛날 제사는요. 참 그렇게 다 아는 것이고.}

10219 @1 멧질도 경험띠강? 그냥. 차이가 어시.{멧질도 그렇습디까? 그냥 차이가 없어.}

10219 #1 #2 예. 차이가 어시.{예. 차이가 없어.}

10220 @1 씨아버지와 씨누이허고의 관계 삼춘 하고예.{시아버지와 시누이허고의 관계 삼춘하고요.} #2 예.{예.}

10220 @1 그다으메 또 씨누이허고 다른 식꾸들허고 혹씨 관계가 어떠케 헨는지 쯔 얘기헤주 실 꺼 이쓰면 쯔 ㄱ라츰씨?{그다음에 또 시누이허고 다른 식꾸들과의 혹씨 관계가 어떻게 했는지 조금 말씀해 주실 것이 있으면 쯔 말씀해주십시오.}

10220 #2 씨누이덜허고 뭐 혼느시 나 츠 구진 중 어시 기자 조양 사난 윈 얘기 헐 꺼시 배랑 얻썸다. {시누이들허고 뭐 한없이 나 참 곳은 것 없이 그저 좋아서 사니까 전혀 얘기할 것이 별로 없습디다.}

10220 @1 어서양.{없어요.}

10220 #2 예.{예.}

10221 @1 지금 아들 네시 다 저 겨론허지 아년썸과?{지금 아들 넷이 다 저 결혼하지 않았습디니까?}

10221 #2 예.{예.}

10221 @1 그 그러면 이제 네 메느리를 드린 건데양. 네 메느리를 드린 건데 삼춘과 그 네 며느리들과의 관계는 어떻습디까?{그 그러면 이제 네 며느리를 들였는데요. 네 며느리를 들였는데 삼춘과 그 네 며느리들과의 관계는 어떻습디까?}

10221 #2 막 잘 허여주난 조음만 험니다. 시방 뭐 헐 꺼라. (웃음) {막 잘 해주니까 좋기만 합니다. 지금 뭐 할거야. (웃음)}

10221 #1 지금 지금 다.{지금 지금 다.}

10221 @1 특별리 기억나거나 뭐 재미지거나 뭐 이런 건 얻썸과?{특별히 기억나거나 뭐 재미 있거나 뭐 이런 것은 없습디까?}

10221 #2 아니 기자.{아니 그저.}

10221 #1 거리 멀리에 사라볼곡 지금 이디 흥나 사난 그자 이진 또 직짱 가볼곡 허민 만남 무신 거엔 ㄱ를 걷또 얻꼬. 그자.{거리 먼 곳에 살고 지금 여기 하나 사니까 그저 이것은 또 직장 가버리고 하면 만나서 뭐라고 말할 것도 없고. 그저.}

10221 #2 대행은 원 우리 기자 춤 뭐해도 춤 큰머느리부터 잘 하나네 생신도 잘 해 주곡. 그자 그런 때 메와지민 또 재미지곡 저 동기가네덜 화목커영 살믄 우린 난 그걸로 만족커 영. 뭐 ㄱ를 마리 어습네다게. 느네 그거 허는 거나 만족커렌 허영으네.{머느리에 대해서는 원 우리 그저 참 뭇 해도 참 큰머느리부터 잘 하니까 생신도 잘 해주고 그저 그럴 때 모이면 또 재미 있고 저 동기간에 화목하게 살면 우리는 나는 그것으로 만족해서. 뭐 말할 말이 없습니다. 너희들 그것 하는 것이나 만족하게 하라고 해서.}

10222 @1 네 분의 아드님드른 지금 무언떨 허섬쑤과?{네 명의 아드님들은 지금 무엇들을 하고 계십니까?}

10222 #2 아더른 저 흥난 추켜베 조근아더른 뭐 그때사 거시기 허고.{아들은 저 하나는 축협에 작은아들은 뭐 그때야 거시기 하고.}

10222 #2 다른 사름더른 뭐 무시거.{다른 사람들은 뭐 무슨.}

10222 #1 둘째 아더른 여기서 하우스 농사허고.{둘째 아들은 여기에서 하우스 농사하고.}

10222 #2 쉔짤 아덜도 하우스 허영 사라불고 하나네.{첫째 아들도 하우스 해서 살고 하나까.}

10222 #2 큰아덜만 시에 조근아덜허고 시에 살고 조근똥허곡. 또 우리 큰똥른 저 신호나네 신호 사라불고.{큰아덜만 시에 작은아덜하고 시에 살고 작은딸하고. 또 우리 큰딸은 저 신호이니까 신호 살고.}

10222 #2 큰 아더른 너오누이 나네 아덜 똥 시성제 아덜 마꾼디 아덜 날첸 허난 네 개.{큰 아들은 네 오누이니 낱아 아들 딸 삼형제 아들 마지막으로 아들 나려고 하나까 넷.}

10222 #2 아이 공부 시키켄 허명 시에 이자 이디 재사는 놔두고 시에 가네 집 쌍 살명 그건 똥 공부 다 이젠 시견 아덜만 시방 군대 갈쑤다마는.{아이 공부 시키겠다고 하면서 시에 이제 여기 재산은 놔두고 시에 가서 집 사서 살면서 그것들 공부 다 이제 시키고 아들만 지금 군대 갔습 니다마는.}

10222 #2 뭐 그잔 이디 오랑 밀감 허영 강그네 야기나 오랑 허곡. 그디도 이젠 즈식똥 공부 다 서워레 간 똥 성제 시기고 이디서 춤 거시기 허고 허난 편너게 삼니다.{뭐 그저 여기 와서 밀 감 수확해서 가서 약이나 와서 치고. 거기도 이제는 자식들 공부 다 서울에 가서 딸 형제 시키고 여기서 참 거시기하고 하나까 편하게 삼니다.}

1.2.6.

10223 @1 환갑 치 헤 납띠가?{환갑잔치 했었습니까?}

10223 #2 예.{예.}

10223 #1 예.{예.}

10223 @1 삼촌. 또 마자. 또 나이가 가트설꾸나. 또 가튼 헤 헤설꾸나.{삼촌. 또 맞다. 또 나이가 같으시구나. 또 같은 해 하셨구나.}

10223 @1 환갑잔치는 이 동네에서는 어떠케 허고 혹씨 삼촌네 또는 어떠케 허썸똥지를 ㄱ라 줍썸. 생각나는 대로.{환갑잔치는 이 동네에서는 어떻게 하고 혹씨 삼촌네 또는 어떻게 하셨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생각나는 대로.)

10223 #2 지바네만 지만썬기나네 무신 뭐. 우리는. {집안에만 제만썬이니까 무슨 뭐. 우리는.}

10223 #1 우리. {우리.}

10223 #2 시에서 헐썬다.{시에서 했습니다.}

10223 #1 환갑잔친 뭐 크게 헐 걷또 얻꼬. 윈 저거 환갑잔치 저거고.{환갑잔치는 뭐 크게 한 것도 없고. 윈 저것이 환갑잔치 저것이고.}

10223 #2 저디 무신 거.{저기 무슨 거.}

10223 #1 요거 칠썬. 그날 잔치.{요것 칠썬. 그날 잔치.}

10223 #2 환갑헐 때 무신 사진 썬기썬. {환갑할 때 무슨 사진 썬었지.}

10223 #1 저거 환갑잔치 사진.{저것 환갑잔치 사진.}

10223 @1 그 상 차려줘서 이제 식꾸들 모연 밤 먹꼬 그냥 사진 썬꼬양.{그 상 차려주니까 이제 식꾸들 모여서 밥 먹고 그냥 사진 썬꼬요.}

10223 #1 예.{예.}

10223 #2 저 잔갑헐 때가 저 무신 거 면사포 썬저신가? 저 드레스.{저 칠썬할 때가 저 무슨 거 면사포 썬었는가? 저 드레스.}

10223 @1 아 잔갑헐 때는 헐꾸나양.{아 칠썬할 때는 했었군요.}

10223 #1 예.{예.}

10223 @1 아아.{아아.}

10223 @1 그 얘기를? 썬썬.{그 말씀을 조금.}

10223 #2 촬영헐넌 저기 사진. 방에.{촬영해서 저기 사진. 방에.}

10224 @1 환갑상은 누구 메느리드리 출런 완썬가? {환갑상은 누구 며느리들이 차려서 왔습니까?} #2 예.{예.}

10224 @1 계난 어떻 헐 줄도 모르겐네양.{그러니까 어떻게 했는지도 모르겠네요.}

10224 #1 예.{예.}

10224 #2 환갑헐 때는 이디 큰메느리 살 때난 저 큰메느리네 지브레 읍헐헐네 허연 저 허어나고. 또 잔갑 칠썬헐 때는 시에 가네 저 뭐 그거 오신가 비리다네 사진관 오란 지비서 아털네 지비서 헐네 또 식당으로 가네 먹꼬 허나네.{환갑할 때는 여기 큰며느리 살 때니까 저 큰며느리네 집으로 오시라고 해서 하고 저 했었고. 또 잔갑 칠썬 할 때는 시에 가서 저 뭐 그것 옷인가 빌러다가 사진사 와서 집에서 아들네 집에서 해서 또 식당으로 가서 먹고 했으니까.}

1.2.7. 절차에 대한 이야기

10226 @1 오신 다크메 그 썬집 오신 다크메는 썬아버지 썬어머니가 다 계썬뻐 거 아니우파 예.{오신 다크메 그 시집 오신 다크메는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다 계썬뻐 거 아닌가요.}

10226 #2 예 예.{예 예.}

10226 #1 예.{예.}

10226 @1 후에 도라가시고예?{그 후에 돌아가셨고요?}

10226 @1 그러면 요버는 그 장례에 대한 말쓰를 좀 여쭙쿠다예.{그러면 요번에는 그 장례에 대한 말씀을 좀 여쭙겠습니다.}

10226 @1 사라미 주그면 장례를 치르는데 그 전통저긴 장례 절차.이제 도라가실때 헌 거부터 누느로 화긴하고 친척뜨레게 알리고 식꾸뜨레게 알리고 그다음에 이제 어떠한 과정을 발바가지고 이제 무덤힐 때 할 때까지에 과정을 좀 말쓰메 주십써?{사람이 죽으면 장례를 치르는데 그 전통적인 장례 절차. 이제 돌아가셨다 한 것부터 눈으로 확인하고 친척들에게 알리고 식구들에게 알리고 그다음에 이제 어떠한 과정을 밟아가지고 이제 무덤힐 때 할 때까지의 과정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10226 #1 계난 그제 연날 시기난 그때 뭐 혼 오일장쯤 헤져실건디.{그러니까 그것이 옛날 식이니까 그때 뭐 한 오일장쯤 했었을 텐데.}

10226 #1 거 여기서는 거 저 그전 뭐 시그로 놓 비런 저 도라가시믄 처음 초수렴 대수렴 그 거 깐지 허곡 이제 그 관자를 요즈믄 사당 허는데 그때는 여기서 목쭈 비렁 짜그넝에 경허영 입 판 행 날땅 그다음.{그것 여기서는 그것 저 그전 뭐 식으로 놓 빌려서 저 돌아가시믄 처음 소렴 대렴 그것까지 하고 이제 그 관을 요즈믄 사다가 하는데 그때는 여기서 목수 빌려서 짜서 그렇게 입관해 두었다가 그다음.}

10226 #2 우리 씨어머니미 씨아버님 보단 아피 도라가시나네.{우리 시어머니께서 시아버님보다 앞에 돌아가시니까.}

10226 #1 그 전날 일포 허고 다음날 장사 지네고.{그 전날 일포하고 다음날 장사 지내고.}

10226 #2 우리 춤 딱르 사라부난 아멩헤도 춤 아버지 사나네 기자 저 미테주마는 아버지가 그자 춤 인꼭 허영 허나네. 잘 못터곡 인쭈다마는.{우리 참 따로 사니까 아무래도 참 아버지께서 사시니 그저 저 밑에지만 아버지가 그저 참 있고 하니까. 잘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10226 #1 여기서 기자 저 뭐 아니 강으네 병워네도 안 가곡 그때는 지비 영장 놀 때 아니우 파? 경허연 놔네 영장허연.{여기서 그저 저 뭐 아니 가서 병원에도 안 가고 그때는 집에 시체를 둘 때 아닙니까? 그래서 놔서 장례를 치렀지요.}

10226 @1 계믄 이제 어머님 도라가실 때는 아버니미 사라계션쓰니까 아버니미 쫘 헤실꺼고 그럼 이제 아버님 도라가실 때는 계도 삼추니나 식꾸드리.{그러면 이제 어머님 돌아가실 때는 아버님께서 살아계셨으니까 아버님께서 조금 했을 것이고 그럼 이제 아버님 돌아가실 때는 그래도 삼촌이나 식구들이.}

10226 #2 또 아바님 도라가신 땐 큰조케가 푼라서마씨.{또 아버님께서 돌아가실 때는 큰조카가 치렀지요.}

10226 #2 시방 요 올레치베 가네 살단 저 가르메 이층집 지선 나갠쭈다마는.{지금은 요 입구 쪽 집에 그애들 살다가 저 마을에 이층집 지어서 나갔습니다마는.}

10226 #2 씨아주방 아덜 푼난 하르버지 모성 사라네 허나네 깡제기 기자 경 저 정월 초 으드레날 쟈 게 초사홀 날깡장 이디 잔치 음식 먹꼬 헤신디 아판젠 헤네 병워네 시꺼가나네 원 기자 춤 메틀 안 사라예. 혼 이틀산디 사란 지비 오나네 도라오시난 기자 아버지도 지비 오라네 기자

장네 지낼쭤다.{시아주버니 아들 결혼시키니까 할아버지 모셔서 사니까 갑자기 그저 그렇게 저 정월 초여드레날 사이였는데 초사흘 날까지 여기 잔치 음식 드시고 했는데 아팠다고 해서 병원에 모셔가니까 윈 그저 참 며칠 안 살았어요. 한 이틀 정도 사니까 집에 오니까 돌아오시니까 그저 아버지께서도 집에 와서 그저 그대로 장례 치렀습니다.}

10226 @ 1 케민 그 사람 이제 도라가시면 뭐 지붕에 가서 혼. 이거 허는 그 그런 과정 즈근 즈근 얘기해주실 쭤 인쭤 때까지 얘기해줍써.{그러면 그 사람 이제 돌아가시면 뭐 지붕에 가서 혼. 이것 하는 그 그런 과정 차근차근 얘기해 주실 때까지 얘기해주십시오.}

10226 #2 그때깎장은 시방 주커게 허연쭤다게.{그때까지는 지금 쭤 했지요.}

10226 #1 건 초수려멘 헨 거는 그 도라가시면 빠나 빠트리지지 말라고 영 세 곤데 영 똑커게 무껴서 빠짜커게 허는 거시 초수려미고.{그것 소렴이라고 하는 것은 그 돌아가시면 빠나 비틀어 지지 말라고 이렇게 세 군데 이렇게 꼭 묶어서 뺏뺏하게 하는 것이 소렴이고.}

10226 #1 대수려문 온 입찌고 이 춤 뭐 다 허는 거시 대수려미난 대수렴 헤여두고 혼 불르고 그다음부터는 상제도 곡쏘리도 허고 절도 허고.{대소렴은 옷 입히고 이 참 뭐 다 하는 것이 대소렴이니까 대소렴해두고 혼 부르고 그다음부터는 상주도 곡소리도 하고 절도 하고.}

10226 #2 그때는 아프로 올라간 혼 불령 춤 두이로 느려오랑으네 큰상제가 상 행으네 그 혼 적쌈 마탕으네 안따날쭤게게. 경허영.{그때는 앞으로 올라가서 혼 부른 다음 참 뒤로 내려와서 큰 상주가 상 해다 그 혼적삼 말아다가 가져다놨지요. 그렇게 해서.}

10226 #1 요새는 요새도 경허긴 험쭤마는 이젠 집 우의도 안 올릅떠다. 허는 거 보난 장의사 덜 저 집 미테 강으네 혼 불령.{요즘은 요즘도 그렇게 하긴 하지만 이제는 집 위로도 안 오르더군요. 하는 것 보니까. 장의사들 저 집 밑에 가서 혼 불려서.}

10226 @1 케연 혼 불려보시기도 험떠가? 삼추니.{그래서 혼 불려보시기도 했는가요? 삼춘이.}

10226 #1 아 우린.{아 우리는.}

10226 #2 무사 불려받쭤. 가르메 사둔 주글 때도 간 불르고.{왜 불려봤지요. 마을에 사둔 돌아가실 때도 가서 부르고.} (웃음)

10226 #1 아 놈 간 헤보고 나 지비서는 아직 아네 보고.{아 남 가서 헤보고 나 집에서는 아직 안 헤보고.}

10226 @1 케민 그 그거 그 과정. 그 과정을 좀 자세히.{그러면 그 그것 그 과정. 그 과정을 좀 자세하게.}

10226 @1 경허주. 이러지 마라양. 그 과정을 좀 자세히.{그러하지. 이러지 말고요. 그 과정을 좀 자세히.}

10226 #1 아 혼 불릴 때.{아 혼 부를 때.}

10226 @1 예. 아프로 올라가든 무사 아프로 올라가고 무사 뒤로 올라가고 뭐 이러케 허는 과정을?{예. 앞으로 올라가면 왜 앞으로 올라가고 왜 뒤로 올라가고 뭐 이렇게 하는 과정을.}

10226 #1 건 혼 부르레 나갈 때는 그 적쌈 일로 강 올라강 상므르에 가서 어디 성씨 보는 뒤시고 해서 거 전부 일러 노코 나이는 멘 썰 해서 거 보라고 해서 거 세 번 불려 노코.{그것은 혼

나갈 때는 그 적삼 여기로 가서 올라가서 용마루에 가서 어디 성씨 본은 무엇이고 해서 거 전부 일러 놓고 나이는 몇 살 하고 거 보라고 해서 거 세 번 불러 놓고.}

10226 #1 그다음은 두이로 내려오면 딱 이 된무똥으로 내려와서 큰상제가 가서 그 적삼 마타 당 상 아페 올려서 그때부터 절도 하고 뭐 다가 똥는 겁쥬.{그다음은 뒤로 내려오면 딱 위 똥문 앞으로 내려와서 큰상주가 가서 그 적삼 맡아다 상 앞에 올려서 그때부터 절도 하고 뭐 다 되는 거지요.}

10226 @2 그러니까 그다음서부터는 쫘 즈근즈근 쫘 그라 쫘쫘예?{그러니까 그다음에서부터는 쫘 차근차근 쫘 말씀해 주십시오?}

10226 #1 그 다음은 일짜를 테케서 그 성보기렌 행 관 관 짜그네 관 쏘게 너코.{그다음은 날 짜를 택해서 그 성복이라고 해서 관 관 짜서 관 속에 넣고.}

10226 #1 이제 그 글로 테기리 빨리 나머는 그다음 일포하고 그다음 장사 지나는 거.{이제 그 글로 택일이 빨리 나면 그다음 일포하고 그다음 장사 지내는 것.}

10226 @2 계난 예를 들면 두거는 며춘까지 줘니까?{그러니까 예를 들면 두건은 몇 춘까지 줘니까?}

10226 #1 대개 팔춘까진 줘니다. 여기.{대개 팔춘까지는 줘니다. 여기.}

10226 @2 복치메도예.{복치마도요.}

10226 #1 예.{예.}

10226 @2 음식은 뭐뭐 준비합니까?{음식은 무엇 무엇 준비합니까?}

10226 #1 음식.{음식.}

10226 #1 음식 그때는 아이고 우리 아버지네 도라가신 때는 음식커곡 저 잔치할 때 무시 거 으라 아니허영 헐쥬게게.{음식 그때는 아이고 우리 아버지네 돌아가실 때에는 음식하고 저 잔치 할 때 무엇 여러 가지 아니해서 했었지요.}

10226 #2 경헌디 이제는 으자기 춤 그 국쟁이 어떻 저 우리 섯머니 도라가셔신디 뭐 시방 더른 흐는 거시 만추게. 이걸쫘건.{그런데 이제는 요전에 참 그 국쟁이 어머니 저 우리 들쥬어머 니 돌아가셨는데 뭐 지금은 하는 것이 많지요. 이것저것.}

10226 @2 그러면 그 상여는 어떤 헤싱고. 동네 거 썩신가마쫘?{그러면 그 상여는 어떻게 했 을까요. 동네 것 썩을까요?}

10226 #1 아 그제까지는 상여가 이선꼬 요즈문 상여도 어십니께.{아 그전에는 상여가 있었고 요즘은 상여도 없지요.}

10226 @2 예나렌마쫘?{옛날은요?}

10226 #1 그 동네 저브로 만드러 논 게 이서십쥬.{그 동네 계로 만들어 놓은 것이 있었지요.}

10226 @2 계 빌면 돈 주고예?{계 빌리면 돈 주고요?}

10226 #1 아 그 접꾸는 돈 안 주고 타 접꾸니 비러갈 때는 돈 받꼬.{아 그 계꾼은 돈 안 주고 타 계꾼이 빌러갈 때는 돈 받고.}

10226 #1 경해서 우 우리도 그때까지는 저비 이서시니까 거 그대로 가져다 쓰고.{그렇게 해서 우 우리도 그때까지는 계가 있었으니까 그것 그대로 가져다 쓰고.}

10226 #1 낭 또 거기 잘 헤영 가따노코.{쓰고 난 다음에는 또 거기 잘 해서 가져다놓고.}

10226 #2 상옌도 인꼬 화단도 인꼬 커영으네 그디 저디 허영으네 집 따로 지서와네 그걸 그디 막 그걸 모션 나땅으네 누게 빌리렌 허민 그뻬 접돈 바당으네 접똥허곡 또 이녁 접뻬네서는 이녁 가따쓰곡 헤날쑤게.{상여도 있고 화단도 있고 해서 거기 저곳에 해서 집 따로 지어서 그것을 거기에 막 그것을 모셔 놔똥다가 누가 빌리라고 하면 그때는 겻돈 받아서 겻돈하고 또 자기 계 안에서는 자기가 가져다 쓰고 했었지요.}

10226 @2 상똥꾸는 어떻 비러신고예?{상두꾼은 어떻게 빌렸을까요?}

10226 #1 상똥는 비는 방버비 옌나른 그 동만 비러도 나고 또 마을 전체도 비러나고.{상두꾼은 빌리는 방법이 옛날은 그 동만 빌리기도 하고 또 마을 전체도 빌리기도 하고.}

10226 #2 상제 놔시민 이제 기자 소가줍써 소가줍써 경 행으네 춤 하영 빌젠허믄 므를 전체 경헤영 비는. 경 아녀민 혼 동 비나 두 동 비나 경헤날쑤다게.{상주 났으면 이제 그저 수고해 주십시오 수고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참 많이 빌리려고 하면 마을 전체 그렇게 빌리는. 그렇지 않으면 한 동 빌리나 두 동 빌리나 그렇게 했었습니다.}

10226 #2 헤나신디 이제는 원.{했었는데 지금은 원.}

10226 #1 아 이제는 비는 사르미 어시니까 아무도 빌도 아녀고 아예 장의사에 메껴부니까 지그믄 빌도 아녀고.{아 이제는 빌리는 사람이 없으니까 아무도 빌리지도 않고 아예 장의사한테 맡겨버리니 지금은 빌리지도 않고.}

10226 #2 경헤도 영 보레는 마니 와.{그래도 이렇게 보려는 많이 와.}

10226 #1 아 거 치년 사름덜끼리 지그믄 다 가긴 허는디 거. 가서 뉘 일허는 건또 아니고 강영 보기만 허영 오는 거.{아 거 친한 사름들끼리 지금은 다 가기는 하는데 그것. 가서 뉘 일하는 것도 아니고 가서 이렇게 보기만 해서 오는 것.}

10226 @2 그러믄 산터는 누가 보레 감니까?{그러면 뉘자리는 누가 보러 갑니까?}

10226 #1 산터는 여기서 지금꺄지는 으디 지관 촌자그네게 강.{뉘자리는 여기서 지금까지는 여기 지관 찾아서 가서.}

10226 #2 조은 산터가 어스난 이녁 바슬 내와도 자리나 발판 오란 험니다. 저년 옌날사 혼민 오랑으네 막 도라보레 그 켜당더렁 뎡겉쑤게. 목짱에라도. {좋은 뉘자리는 없으니까 자기 밭을 내놓아도 자리나 바르게 해서 와서. 전에는 옛날이야 하면 와서 막 돌아보러 그 친족과 다녔지요. 목장이라도.}

10226 #2 경헤신디 이제는 경 목짱에도 산 몬 쓰게 생겨부난 공동묘지 안 강은 이제는 이녁 뻬 내똥덜 보통은 허나네 발르레 오는 거주.{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목짱에도 묘를 못 쓰게 하니까 공동묘지 안 가서는 이제는 자기 밭을 내와서 보통은 하니까 바르게 하러 오는 거지요.}

10226 @2 그러믄 성보글 하면 성보칼 때 뉘뉘뉘 준비합니까? 예를 들면 어 상제인 경우는 보곤 그다으믄 쥘뎡이 방장때 그런 거 어떻어뎡 거 쥘 꺄라줍써?{그러면 성복을 하면 성복할 때 무엇무엇무엇 준비합니까? 예를 들면 어 상주인 경우는 상복 그다음은 짚단 상장 그런 것 어떠어떠한 것 조금 말씀해 주십시오.}

10226 #1 지금 이너쿠로 멘드는 사르믄 거 찌그로 무꾼 북씨미 그거 인꼬 그다음 상제가 두리민 두 개 만들고 혼 사르미믄 하나 만들고.{그것 지금 자기대로 만드는 사람은 그것 짚으로 묶은 북씨미 그거 있고 그다음 상주가 둘이면 두 개 만들고 한 사람이면 하나 만들고.}

10226 #1 방장때도 마찬가지로. 상제에 따라서 수정 그대로 만들고.{상장도 마찬가지로. 상주에 따라서 숫자 그대로 만들고.}

10226 #1 계믄 그때부터 이젠 일푼나른 사위는 똥 쪼기고 본 상제는 또 똥 쪽케서 사고.{그러면 그때부터 이제는 일포 날에는 사위는 똥 쪽이고 본 상주는 또 똥 쪽 해서 서고.}

10226 #2 사위는 대막땡이. 아덜 상제는 머귀냥. 어머니 주그민 머귀냥.{사위는 대막대기. 아들 상주는 머귀나무. 어머니 돌아가시면 머귀나무.}

10226 @2 예.{예.} (웃음)

10226 #2 아버지 주그민 왕대 몽땡이.{아버지 돌아가시면 왕대 막대기.}

10226 @2 그러믄 사위는 장인 장모에 관계업씨 대나무 대냥이우꽈?{그러면 사위는 장인 장모에 관계없이 대나무 대나무입니까?}

10226 #1 예. 거긴 기자 이 저 여기 수리대라고 죽은.{예. 거기는 그저 이 저 여기 이대라고 작은.}

10226 #2 계믄 이젠.{그러면 이제는.}

10226 #1 대남.{대나무.}

10226 #2 상제온또 다 혼 불로 허는 디도 인쪽 허난 경 장의사덜 헤노난 험띠다마는.{상주옷도 다 한 별로 하는 데도 있고 하니까 그렇게 장의사들 하니까 함디다만.}

10226 #2 아덜 상제나 장손 이 큰아더레 지나 행으네 이 저 오슬 주며는 수미 수미오시라고 해서 쫄 이디 영 쫄 다마지게 영 딱게 허고 상제는 영 허영으네 지도오스로 녁녕 허는디 시방은 원 뉘 그자 다 지도오스로 멩그는 딘 멩그라. 또 수미오스로도 멩그라 하나네원. 장의사신디만 온 메끼난. 어시킵디다.{아들 상주나 장손 이 큰아들에 손주나 해서 이 저 옷을 주면 수미옷이라고 해서 쫄 여기 이렇게 쫄 담을 수 있게 이렇게 뜨게 하고 상주는 이렇게 해서 지도옷으로 이러이러하게 하는데 지금은 원 뉘 그저 다 지도옷으로 만드는 데는 만들어 수미옷으로 만들고 하니까 원. 장의사에게만 맡기니까. 없겠습디다.}

10226 @2 거 왕대도 멘 믑작짜리 허썸니까?{그것 왕대도 몇 마디짜리 했습니까?}

10226 #1 육통칠찌리렌 헤그네. 그.{육통칠절이라고 해서. 그.}

10226 #2 계난 믑작 쪼르케 헤십데다.{그러니까 마디 짧게 했습디다.}

10226 @2 무사?{왜.}

10226 @2 육찌린고마씨?{육절일까요?}

10226 #1 육절. 건 모른 디 믑작 으슨 개 들구 그 통은 일곱 개 들게 꼬창그네. 영.{육절. 그 것은 모르겠는데 마디 여섯 개 들고 그 통은 일곱 개 들게 끊어서. 이렇게.}

10226 @2 계믄 막 진 걸또 인꼬 쫄븐 걸또 이실 거 아니우꽈?{그러니까 막 진 것도 있고 짧은 것도 있을 거 아닙니까?}

10226 #1 계난 진 거는.{그러니까 긴 것은.}

10226 #2 조근 거 험띠다게.{마디를 작은 것으로 함디다.}

10226 #1 개난 아예 죽근 곁로 영 끼차그네 경 마춤도 허고. 또 어시민 큰상제만 경 마취뵤
나머진 그 두이로 허민 세 므작도 뵤고 네 므작.{그러니까 아예 작은 것으로 이렇게 끊어서 그렇
게 맞추기도 하고 또 없으면 큰상주만 그렇게 맞춰두고 나머지는 그 뒤로 해서 세 마디도 되고
네 마디.}

10226 #2 엔날도 이 아버니른 즈식 쌍에도 므으미 무디무디 낭으네 경 습습허게 안 나는 따
문 뵤작킨 그 왕델 몽델일 허고.{옛날도 이 아버님은 자식 상에도 마음이 무디무디 나서 그렇게
섬섬하게 안 나기 때문에 뵤뵤한 그 왕대 막대기를 하고.}

10226 #2 어머니는 기자 습습습습습습 흥난 가시마다 그 자식 썩가글 흥다고 그 머귀남 몽델
일 험뵤 험띠다.{어머니는 그저 섬섬섬섬섬 하니까 가시마다 그 자식 생각을 한다고 그 머귀나무
막대기를 했다고 함디다.}

10226 #2 (웃음)

10226 @2 아까 그 째뵤이 북씨비.{짚단 북시미.}

10226 #1 북씨미.{북시미.}

10226 #2 북씨미.{북시미.}

10226 @2 북씨미.{북시미.}

10226 #2 건 아덜 흥나에 흥나.{그것은 아들 한 명에 하나.}

10226 @2 아덜 흥나에 흥나.{아들 한 명에 하나.}

10226 @2 거 용도가 뵤니까?{그것 용도가 무엇입니까?}

10226 #1 거 엔날 전설 마를 드르며는 향시 상제는 상복 이븐냥 사라야 뵤고 이제 상 아피
뵤 자게 뵤며는 베게가 업쓰니까 건 베게 용처로 곁 만드랴따고 허는데.{그것 옛날 전설 말을 들
으면 향시 상주는 상복 입은 채 살아야 되고 이제 상 앞에 누어 자게 되면 베게가 없으니까 그것
은 베게 용도로 그것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10226 @1 지그른 그자 그거 뵤 거 논는 거엔 그자 놉 뿌닌디. 그저넌 꼭 그걸 베영 뵤뵤 허
여.{지금은 그저 그거 뵤 그것 놓는 것이라고 그저 놓는 것뿐인데 그전에는 꼭 그것을 베서 누었
다고 해.}

10226 @2 게영 그건또 뵤 깨로 무꺼마씨?{그럼 그것도 몇 개로 뵤습니까?}

10226 #1 건또 욱절칠통으로 무꿈니께.{그것도 욱절칠통으로 뵤습니다.}

10226 #1 으습 므자글 무꺼마썩.{여섯 마디를 뵤습니다.}

10226 #1 게믄양 그깽이 그 뵤 함치면 일곱 통이 나오니까.{그러면 양쪽 끝 그 뵤 함치면 일
곱 통이 나오니까.}

10226 @2 예예.{예예.}

10226 #1 그거는 뵤궤치 그대로 다 궤치 뵤들고.{그것은 뵤같이 그대로 다 같이 뵤들고.}

10226 @2 그러믄예. 아까 시그로. 아버니미든 어머니미든 일딴 장지에 갈 궤 아니우파? 그러
믄 다 봉분도 다 험짚썩니까? 그다음에 제는 뵤뵤뵤 지뵤썩니까?{그러면요. 아까 식으로 아버님
이든 어머님이든 일딴 장지에 갈 궤 아뵤니까? 그러면 다 봉분도 다 했썩습니까? 그다음에 제는

지냈습니까?)

10226 #1 초우 재우 사무를 지내는다.{초우 재우 삼우를 지내는데.}

10226 @2 예.{예.}

10226 #1 요즈믄 합제 해부니까 그제 업꼬 그 저네는 초우 재우 사무를 따로 지내십쥬.{요즘은 합제 해버리니 그것이 없고 그 전에는 초우 재우 삼우를 따로 지냈지요.}

10226 #1 계믄 초우 초우는 봉분 다 막꼬믄 지내는 게 초우고 그다음부터는 일 츠장 허랭 허며는 이틀 후에도 허곡 당일 된날도 홀 쥬 인꼬.{그러면 초우 초우는 봉분 다 만들면 지내는 것이 초우고 그다음부터는 일 찾아서 하라고 하면 이틀 후에도 하고 당일 뒷날도 할 수 있고.}

10226 #1 경헝 거 사무ㄷ지 냉기고.{그렇게 해서 삼우까지 지내고.}

10226 #2 사무에서 그자 요새는 흠치 다 험니다. {삼우에서 그저 요새는 아예 다 합니다.}

10226 @2 그럼 엔나린 경우는 일년 썩도 지내고.{그러면 옛날인 경우는 일 년 상도 지내고.}

10226 #1 아 연날 엔나린 일년썩을 안 지날쥬. 계믄 엔나레 어떻게연 일년썩 지나는 디가 시냐허믄.{아 옛날 옛날은 일년상을 안 지냈지. 그러면 옛날에 어떻게 해서 일년상 지내는 곳이 있는가 하면.}

10226 #1 부부가 사는데 여자가 먼저 주그믄 일년썩.{부부가 사는데 여자가 먼저 죽으면 일년상.}

10226 @2 예.{예.}

10226 #1 남자가 먼저 주그믄 삼년썩.{남자가 먼저 죽으면 삼년상.}

10226 @2 그럼 삼년썩 헝 때는 소상허지 아넘니깁예?{그럼 삼년상 할 때는 소상을 지내지 않습니다.}

10226 #1 예. 소상허고 대상허고 다.{예. 소상하고 대상하고 다.}

10226 @2 대상허고 다헝썩니까? 그러면 아까 헝뎀 북씨미라든가 방장때는 어떻 허여마씨? 보곤타고.{대상하고 다헝썩니까? 그러면 아까 헝뎀 북씨미라든가 상장은 어떻게 합니까? 상복하고.}

10226 #2 대상 헤사 스라.{대상 지내야 불살라.}

10226 #1 대상 헤사 불테와불거.{대상 지내야 불테위버릴 거.}

10226 @2 전부다 불테위예.{전부다 불테위요.}

10226 #1.2 예.{예.}

10226 @2 아.{아.}

10226 #2 대상에는 우리 여즈 상제도 흰머리창 드렁으네 문딱 허는디 대상에는 흰머리창 드러그네 그거 버성 탈복케영으네 또 씨를 드림니께. 씨를 드러그네 담제에는 그 씨를 버성 스라부는 거라.{대상에는 우리 여자 상주도 흰머리창 드러서 모두 하는데 대상에는 흰머리창 드러서 그것 풀어서 탈복해서 또 실을 드리지요. 실을 드러서 담제에는 그 실을 풀어서 태워버리는 거예요.}

10226 #2 계믄게 남즈덜토 경헝 때는 백른 그 두거늘 썩니께게. 남즈상제도.{그러면 그 남자들도 그럴 때는 폭이 좁은 그 두건을 쓰지요. 남자 상주도.}

10226 #2 백른 거 이녀 시민 기자 창을 입꼭 대상 너므며는 남제덜토 창을 입꼭 백른 두 건 쓰꼭 북 버성 행 계영 담제 너므민 막 백른 거.{막 백 거 이녀 있으면 그저 창을 입고 대상 넘으면 남자들도 창을 입고 폭이 좁은 두건 쓰고 상복 벗어서 그래서 담제 넘으면 막 백 거.}

10226 @ 2 계민 이제 다 대소상 지나지 아년쭈강? 그 다으멘 식계 해야 될 꺼 아니우파예. {그러면 이제 다 대소상 지나지 않았습니까? 그다음에는 제사 지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10226 # 예.{예.}

10226 #1 아 그다음에는.{아 그다음에는.}

10226 @2 예.{예.}

10226 #1 담제.{담제.}

10226 #2 계메.{그러게.}

10226 @2 예. 담제 지나고 난 다으메 이제 사 년째 되면 삼 년째 되면 이제 제살 해야 될 꺼 아니우파?{예. 담제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사 년째 되면 삼 년째 되면 이제 제사를 지내야 할 거 아닙니까?}

10226 @2 그 과정은 어떤쭈과?{그 과정은 어떻습니까?}

10226 #1 제스는 그자 보통 제사로 그냥 허는 디 인꼬. 칠째엔 헤그닝에 또 조끔 더 유난히 제수기라도 흥나 더 구해다그네 지나는 거 뿐이지 뭐. 똑ㄴ튼 거.{제사는 그저 보통 제사로 그냥 하는데 있고 첫제사라고 해서 또 조금 더 유난히 제육이라도 하나 더 구해다가 지내는 것뿐이지 뭐. 똑같은 거.}

10226 @2 그럼 지금 어르신께서는 제사이 제사는 어떤 거 지내볼때가?{그럼 지금 어르신께서는 제사에 제사는 어떤 것을 지냈었습니까?}

10226 @2 예를 들면 그 물론 사촌네 지베서 헐쭈마는 어떤 제사가 인썰썰습니까?{예를 들면 그 물론 사촌네 집에서 했지만 어떤 제사가 있었습니까?}

10226 #2 계나네 우리는 기자 지방 이디는 제스를 열뚜 시 넘으으네 저 파제를 방으네 느랑 허는. 그자 춤 널 주그미는 오늘 경 행으네 제스를 지내는데 이제더른 뭐 열 씨에 지냄쭈 아읍 씨에 지냄쭈 허난 해도 모르쿠다. 우리는 그대로 열뚜 시 돼야 지냅니다.{그러니까 우리는 그저 지금 여기는 제사를 열뚜 시 넘어서 저 파제를 봐서 늘 하는. 그저 참 널 죽으면 오늘 그렇게 해서 제사를 지내는데 이제들은 뭐 열 시에 지낸다 아홉 시에 지낸다 하니까 해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그대로 열뚜 시 되어야 지냅니다.}

10226 @2 그러니까 시제도 시제도 인꼬예.{그러니까 시제도 시제도 있고요.}

10226 #1 예.{예.}

10226 #2 시제는?{시제는?}

10226 @2 묘제도 인꼬예.{묘제도 있고요.}

10226 #1 건 묘제 허긴 허는데 묘제는 사대가 너머야.{그것은 묘제 하기는 하는데 묘제는 사대가 넘어야.}

10226 @2 예.{예.}

10226 #2 예. 계난 사대 지나며는 그 즈소니 그러케 만허면 그.{예. 그러니까 사대 지나며는

자손이 그렇게 많으면 그.}

10226 #2 오대까지 웨영으네 **젤헤며서 묘제를 허는 거 아니우파. 제사 아녀사.{오대까지 되어서 **해서 묘제를 지내는 것 아닙니까. 제사 안 해야.}

10226 #1 사대 너머사.{사대 넘어야.}

10226 @2 그 제 지바네서 제사 지낼 때 한번 말씀해 주십써.{그 제 집안에서 제사 지낼 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10226 @2 제무른 뉘뉘 허고 그 다오메 현과는 누구누구 하고 참석 버뉘는 어느 버뉘까지고 그다오메 참석칼 때 제무른 어떤 거 해오고. 그거마씨?(제물은 무엇무엇 하고 그다음에 현관은 누구누구 하고 참석 범위는 어느 범위까지이고 그다음에 참석할 때 제물은 어떤 것 해오고. 그겁니다.)

10226 #2 이던 이던 연날시기우다. 제물허는 건 나가 그르쿠다마는.{여기는 여기는 옛날식입니다. 제물하는 것은 내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10226 #2 여기는 이 준떠기엔 행으네 술펜떡 허곡 인절미 절벤 또 연나른 대썩 노명 친떡행으네 저 제폐니앵 허명 아래 페우는 거 이서나신디 요새는 원 경 아녕으네 기자 다 설탕 놓으네 제펜ㄴ치록 허난 그거.{여기는 이 자잘한 떡이라고 해서 술편 하고 인절미 절편 또 옛날은 댓잎 놓으면서 시루떡 해서 저 제편이라고 해서 아래 까는 거 있었는데 요새는 원 그렇게 아니해서 그 저 다 설탕 넣어서 제편처럼 하니까 그거.}

10226 #2 저 폰 안 서끈 걸까라 제폐넌 험쭈게. 허영헌 친떡까라. 경허난 그자 경허영으네 썩니다게. 경행 요새는 저 도시에는 기자 하간 뉘 튀기미여 무시거여 허는디 초네는양 원 완전 연날뻬비 시방도 이서마썩.{저 팔 안 섞은 것보고 제편이라고 하지요. 하얀 시루떡 보고. 그러니까 그저 그렇게 해서 괴지요. 그렇게 해서 요즘은 저 도시에에는 그저 이런저런 뉘 튀김이다 뭐다 하는데 촌에는 전혀 완전 옛날 법이 지금도 있지요.}

10226 #2 준떡 준떡 허곡. 연나른 흐뉘 친떠커민 큰떠기엔 허곡 무신 거 허곡 헤나신디.{자잘한 떡 자잘한 떡 하고. 옛날은 사뉘 시루떡 하면 큰떡이라고 하고 무엇이라고 하고 했었는데.}

10226 #2 시방도 그자 아랜 친떡 궤곡 준떡 헤영으네 인절미 뉘 우썩 그런 거 다 썩니다.{시방도 그저 아래는 시루떡 괴고 자잘한 떡 해서 인절미 뉘 웃기떡 그런 것 다 썩니다.}

10226 @2 우찌근 뉘로 헤마씨?(웃기떡은 무엇으로 합니까?)

10226 #2 우썩. 그 다 곤떠그로 허는디 일름만 경 영. 족께 허영으네 그런 우썩 영 기차 내는 걸까 일썩다. (웃음) 떡보니.{웃기떡. 그 다 쌀떡으로 하는데 이름만 그렇게 이렇게. 작게 해서 그런 웃기떡 이렇게 끓어 내는 것이 있습니다. (웃음) 떡본이.}

10226 #2 보니 이시난 그거 사당으네 툃툃커게 찌경 그 우찌겐 현 건 젤 우의 궤는 거시 우찌기고.{본이 있으니까 그것 사다가 툃툃하게 찌어 그 웃기떡이라고 한 것은 가장 위에 괴는 것이 웃기떡이고.}

10226 #2 또 친떡 우의 궤는 거는 인절미.{또 시루떡 위에 괴는 것은 인절미.}

10226 #2 절 절벤 궤여낭 그 우의 술펜.{절 절편 궤 다음 그 위에 술편.}

10226 #2 또 그 우원 매 우썩 경허영.{또 그 위에는 매 웃기떡 그렇게.}

10226 @2 맨 쪽 합니까?{과일은 몇 종류 합니까?}

10226 #2 과일? 과일 맨 개씩 꼬박신고? 과일.{과일은 과일은 몇 개씩 올릴까? 과일.}

10226 #2 과일 다섯 개 노며는 아래 세 개 노코 우의 두 개 노면 다섯 개 나오니까 그러케 노코.{과일은 다섯 개 올리면 아래 세 개 올리고 위에 두 개 올리면 다섯 개 나오니까 그렇게 올리고.}

10226 @2 아 종쭙는마씨?{종류는요?}

10226 #1 종류?{종류?}

10226 @2 예.{예.}

10226 #1 종류는 여기서?{종류는 여기서?}

10226 @2 삼 중 오 중.{세 종류 다섯 종류.}

10226 #1 맨 쪽 안 웬디 여기.{몇 중 안 되는데 여기.}

10226 #2 미깡신 딴 미깡 허곡 게 과일 사과 베나네게 원.{굴 있는 집은 굴 하고요 과일 사과 배니까 원.}

10226 @2 삼 중?{세 종류?}

10226 #2 예.{예.}

10226 #2 기자 빠나나 온 때 수박 온 때 허민 그거 다. 게민 힘니다. 수박처레는.{그저 바나나 올 때 수박 나올 때 하면 그거 다. 그러면 합니다. 수박철에는.}

10226 @2 문전제는 힘니까?{문전제는 지냅니까?}

10226 #1 예.{예.}

10226 #2 예 문전제 힘니다.{예. 문전제 지냅니다.}

10226 @2 거 본 제사 허기 저네 먼저 헤마씨? 나중에 헤마씨?{그것 본제 사 지내기 전에 먼저 합니까? 나중에 합니까?}

10226 #1 아 먼저.{아 먼저.}

10226 #2 먼저.{먼저.}

10226 #2 경 저 바미 허미는 그거는 그 제 시간 안 툐 때 문전제 그 본 본주에서.{그렇게 저 밤에 하면 그것은 그 제 시간 안 된 때 문전제 그 본 본주에서.}

10226 #2 예.{예.}

10226 #2 본주에서 힘니다게. 본주에서 허여블며는.{본주에서 합니다. 본주에서 하며는.}

10226 #2 또 제과는게 아메도 보딘 영 아더리 늘경으네 제에 몬 텅기게 웨민 손지도 그 그 자소넨 난 손지 상 상을 출령허곡 집스질 허곡 허는 거 아니우파게.{또 제관은 아마도 가까운 이렇게 아들이 늙어서 제사에 못 다니게 되면 손자도 그 그 자손에 난 손자 상 상을 차려서 하고 집사 노릇 하고 하는 것 아닙니까?}

10226 #2 경허는 거.{그렇게 하는 것.} (웃음)

10226 @2 마니레 사위가 오면 무슨 닐 합니까?{만약 사위가 오면 어떤 일 합니까?}

10226 #1 아 사위도 제과네 흐나 줍니다.{아 사위도 제관으로 하나 줍니다.}

10226 @2 집사로.{집사로.}

10226 #1 .{예.}

10226 #2 아 집싸도 허.{아 집사도 하.}

10226 #1 아 현과네 하나 쥐마씨 사위.{아 현관으로 하나 주지요. 사위.}

10226 #2 사위도 섭섭하카부데 그치룩 안지는 거주.{사위도 섭섭할까 봐 그렇게 앓히는 거지요.}

10226 @1 어머니가 따로 지내는 제사가 인쭈가?{어머니가 따로 지내는 제사가 있습니까?}

10226 @1 제삿찌베 제삿찌베 여자 여자가.{제삿집에 제삿집에 여자 여자가.}

10226 #1 그디도 어서.{거기도 없어.}

10226 #1 그런 지비 언는다.{그런 집이 없는데.}

10226 @1 계난.{그러니까.}

10226 @1 본상을 차리고양.{본상을 차리고요.}

10226 #예.{예.}

10226 @1 그다음 아까 문전상을 차리고 그리고 따로 어머니가 안팍이나 고팍.{그다음 아까 문전상을 차리고 그리고 따로 어머니가 팍이나 고팍.}

10226 #1 아 그런 거 이신디 그저 안네 논는 거엔 허영 다들 그런 집.{아 그런 것 있는데 그저 안에 놓는 것이라고 해서 다들 그런 집.}

10226 #2 이디도. 그건 이 안칠성 하나는 이 뭐 농사지곡 무신 거 허는 거세 이 북두칠성 무신 거세기엔 허명 다른 건 지비 오란 보난 아무 겐또 얻꼬.{여기도. 그것은 이 안칠성 하나는 이 뭐 농사짓고 무슨 거 하는 것에 이 북두칠성 무슨 것이라고 하면서 다른 것은 집에 와서 보니까 아무 것도 없고.}

10226 #2 그거 안네 하나 노록 된무똥엔 행으네 된무네엔 행으네 거 사바레도 아니. 보민 접씨에 거러네 두 개. 옛날 중 드랑 살다네 어디 된텐가 그 종행 무더부나네 그거 나시엔 허명 그거 놓떠다.{그것 안에 하나 놓고 뒷문 앞이라고 해서 뒷문에 해서 그것 사발에도 아니. 보면 접씨에 떠서 두 개. 옛날 중 데려서 살다가 어디 이뭇해인가 그 중 해서 물어버리니 그것 깃이라고 하면서 그것 놓대요.}

10226 @1 계민 전체 세 개.{그러면 전체 세 개.}

10226 #2 으.{으.}

10226 @1 안칠성 하나 허고.{안칠성 하나 하고.}

10226 #2 으.{으.}

10226 @1 그리고 간따니 허는 거 두 개. 게여그네 세 개.{그리고 간단하게 하는 거 두 개. 그래서 세 개.}

10226 #2 게서.{그래서.}

10226 @1 그때 안칠성에 칠성은 뭐 북두칠성에 이런 거 모시는 부니랍떠가?{그때 안칠성에 칠성은 뭐 북두칠성에 이런 것을 모시는 분이라고 합디까?}

10226 #2 여기는 이 이땅으네 베결떠 노정눌그치룩 영 신디가 심니다. 우리.{여기는 이 이따금 바깥에 노적가리처럼 이렇게 있는 데가 있습니다. 우리.}

10226 @2 .{으.}

10226 #2 우리 지바는 얼썬다마는.{우리 집안에는 없습디만.}

10226 #2 그거 현 거 연나래 이 사르미나 췌끼미는 칠썰 어디 허영으네 ㄴ미 칠썰이라도 모 사당 경헨젠 허멍.{그것 한 거 옛날에 이 사람이나 견디지 못하면 칠성 어디 해서 남의 칠성이라도 모셨다가 그랬다고 하면서.}

10226 #2 그런 디 이서. 경헨 거는 아네 두 그릇 논는 디가 인는디 우리 지바는 그런 거 아무 걸또 어신 디난 기자.{그런 곳 있어요. 그렇게 하는 것은 안에 두 그릇 놓는 곳이 있는데 우리 집에는 그런 것 아무 것도 없는 데니까 그저.}

10226 #2 기자 이녁 췌 지바네 췌. 집안네 뭇엔 허멍 그거 노코. 그 연날 중 주거부나네 그거 나시엔 허멍 그거 허영.{그저 이녁 집 집안에 것. 집안에 뭇라고 하면서 그것 놓고. 그 옛날 중 죽어버리니 그것 깃이라고 하면서 그거 해서.}

10226 @1 케난 큰대게 그러케 지넨따는 말이지예?{그러니까 큰택에 그렇게 지냈다는 말이지요.}

10226 #1 예.{예.}

10226 #2 우린 제 아녀난.{우리는 제 지내지 않으니까.}

10232 @2 그러면 메는 누가 거러마췌?{그렇다면 메는 누가 뜯니까?}

10232 #2 우리는 아무라도 거러주.{우리는 아무라도 뜨지.} (웃음)

10232 @2 아니 아니. 예를 들면예.{아니 아니 예를 들면요.}

10232 #2 우린 거 지네렌 아넘니다.{우리는 그것 지내라고 않습디다.}

10232 @2 아 그럼니까?{아 그렇습니까?}

110232 #2 예. 기영 아넘니다.{예. 그렇게 않습디다.}

10232 @2 큰메느리만 거러는디.{큰메느리만 뜨는데.}

10232 #1 아 그런 집또 인넨 허는디.{아 그런 집도 있다고 하는데.}

10232 #2 연날 우리 친정에는 이 정치바는 연라리 잔치빠블 헨뎨 영장빠블 거러뎨 이 상뎨덜 나시 거러는 거나 거러는 걸또 중손 각시 아니며는 불이 부뎨 큰부리 낭으네 막.{옛날 우리 친정에는 이 정췌 집은 옛날에 잔치빠블 했던지 장례식 때 빠블 뜨든 이 향도들 뎨 뜨는 거나 뜨는 것도 중손 각시 아니면 불호령이 떨어져서.}

10232 #2 아이고 뎨뎨. 이거 허는 지시 뎨넨 허멍 시방 우리 춤 저 육춘 오라방 산 때에 경 막 육해날췌다. 케문 우리 시방도 ㄹ르멍 우습디다게. 거 몬뎨딘 이린디 그 중손 각췌를 웨 시키느냐 허영. 아이고. (웃음) 메느리는 늘거도 그걸 허라고 경 막 시겨노민 거 사르냐 헤신디. 이제는 이 그런 시기 얼썬다. 여기.{아이고 뎨뎨. 이것 하는 것이 무엇이나 하면서 지금 우리 참 저 육춘 오라버니 산 때 그렇게 마구 육했었지요. 그러면 우리 지금도 말하면서 웃지요. 그것 못 견디는 일인데 그 중손 각췌를 왜 시키느냐 하면서. 아이고. (웃음) 메느리는 늙어도 그것을 하라고 그렇게 막 시키면 그거 살췌냐 했는데. 이제는 이 그런 식이 없습디다. 여기.}

10232 #2 그자 절믄 사름.{그저 젊은 사름.}

10232 @2 으음.{으음.}

10232 #2 저 때 보기 조케시리 거러 가는 거. 우리는 이제 아.{이렇게 저 때 보기 좋게끔 떠 가는 거. 우리는 이제 아.}

10227 @1 오치비 와도 그런 거 었떠란말쓰미지예.{오씨 집에 와도 그런 것이 없더란 말씀이지요.}

10227 #2 예.{예.}

10227 @1 오치비 올 땐양.{오씨 집에 올 때는요.}

10227 #1예.{예.}

10227 @2 그다음 그러믄 부조는 누가 험니까?{그다음 그러면 부조는 누가 합니까?}

10227 #2 부정?{부정?}

10227 @2 부조. 부조.{부조. 부조.}

10227 #2 부주?{부조?}

10227 @2 예.{예.}

10227 #2 부주는게 그디 대허미는 그 상제 영장이나 나미는 딸 상제도 인꼬 아 메느리도 인 꼭 허민 도시엔 혼 지바네 상 우이만 아땅 올리믄 웬텐 험떠다마는 이딴 각 부주를 허여. 계난 부지 썸니다. 여즈도 허곡 남즈도 허곡.{부조는요 거기 대하면 그 상주 장례나 나면 딸 상주도 있고 아 며느리도 있고 하면 도시에는 한 집안에 상 위에만 가져다 올리면 된다고 합니다만 여기는 각각 부조를 해요. 그리니까 부조가 많지요. 여자도 하고 남자도 하고.}

10227 @2 아 제가 드리는 말쓰믄 무신 얘기냐 하면 마닐 이 지베서 제사를 모신다고 할 때에 지금 여자 삼추니 메를 거린다라고 하면 여자 삼추니 부주를 허는 거라.{아 제가 드리는 말씀은 어떤 이야기인가 하면 만약 이 집에서 제사를 모신다고 할 때에 지금 여자 아주머니가 메를 뜬다고 하면 여자 아주머니가 부조를 하는 거예요.}

10227 @2 겐디 이제 큰며느리한테 이젠 나가 늘거부난 못터키여 하고 고향을 물려주는 거 아니우파? 그러면 이제 여자 삼추는 부주를 하지 았아.{그런데 이제 큰며느리한테 이제는 내가 늙으니까 못하겠다 하고 고향을 물려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는 여자 아주머니가 부조를 하지 았죠.}

10227 #2 아녀 아녀.{안 해 안 해.}

10227 @2 그리고 며느리가 해야 돼.{그리고 며느리가 해야 돼요.}

10227 @1 으.{으.}

10227 #2 그런 거 어서.{그런 것은 없어요.}

10227 @1 아아.{아아.}

10227 #2 그런 거.{그런 것.}

10227 @1 그런 거 상관어서?{그런 것 상관없어요?}

10227 #2 아 상관어서.{아 상관없어.}

10227 @2 저쪽 가믄예. 고향 물림 헤가지고.{저쪽 가면요. 고향 물림 해서.}

10227 #2 아아.{아아.}

10227 @2 메 뜨기 시작허믄예. 부주 몽땅 해야 돼. 메느리가.{메 뜨기 시작하면요. 부조 모두

돼. 며느리가.}

10227 #2 아이고 우리 그런 거.(웃음){아이고 우리 그런 것.}(웃음)

10227 @2 씨어명은 아내.{시어머니는 안 해.}

10227 @1 그제 정치비도 그런 게 얻꼬양. 오치비도 얻꼬양. 그다음에 이 동네에서도 그런 거 본 적 얻꼬.{그것이 정씨 집에도 그런 것이 없고요 오씨 집에도 없고요. 그다음에 이 동네에서도 그런 것을 본 적이 없고요.}

10227 #2 그런 거 원 당추 그런 건 얻쑤다.{그런 것 원 당최 그런 것 없습니다.}

10227 @2 아 메 아무나 거린다.{아 메 아무나 뜯다.}

10227 #2 예.{예.}

10227 #2 메는게 보통으로는 그 주웬네서가게 중손 깍씨가 그레 거렁 메 허민 올리는 건 그 그대로.{메는요 보통으로는 그 주인네서가 중손 각시가 거기에 떠 메 하면 올리는 것은 그 그대로.}

10227 @1 알겠쑤니다. 으음.{알겠쑤니다. 으음.}

1.3. 활동

1.3.2.

10307 @1 반농사로 진는 곡식뜨른 주로 어떤 건뜨리 이선쑤가?{밭농사로 짓는 곡식들은 주로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10307 #1 우리가 처으른 보메 사리 시작커니까 보메는 조 같고.{우리가 처음에는 봄살이 시작하니까 봄에는 조 같고.}

10307 #1 그.{그.}

10307 #2 그때 각 꼭 다 헐쑤워.{그때 갖가지 곡식 다 했지 뭐.}

10307 #1 으 피옌 헐 거 거 잘 안 돼는 받뎠 피 반 서꺼그네예 그거 같고.{아 피라고 한 것 그것 잘 안 되는 밭에는 피 반 섞어서 그거 같고.}

10307 #1 그다음에 감자는 처으메 뭐 잘 안 되니까 이젠 감자 조쑤 노코.{그다음에 고구마는 처음에 뭐 잘 안 되니까 이젠 감자 조쑤 심고.}

10307 #1 모뎠 깔고 산디 같고.{메밀 같고 밭벼 같고.}

10307 #1 거믄 그건뎠 중에 잘 돼는 게 그러케 어려왕.{그러면 그것들 가운데 잘 되는 것이 그렇게 어려와.}

10307 #1 게믄 모뎠 까란 본진 밀쑤도 나고.{그러면 메밀 갈아서 본진 밀쑤도 보고.}

10307 #1 감저 행 낱으네 헤 받짜 그때는 얼마 안 쑤디.{고구마 해서 넣어서 해 봤자 그때는 얼마 안 되었는데.}

10307 #2 쑤뎠 사라갈 때는 감저도 풀 건뎠 아니고 이녁 양서게.{첫 번 살아갈 때는 고구마도 팔 것도 아니고 이녁 양식에.}

10307 #1 머글꺼만 해신디.{이녀 먹을 것만 했는데.}

10307 #2 양서게 보텔 거 그자.{양식에 보텔 거 그저.}

10307 #1 내중 웨어 가니까 감저 헨 써린 뺨뻐기 들류운 거시 그때는 제일 돈 가니까 이제 그거로 해서 좀 미친 자바 살기 시자근 헨 거고. 그.{나중에 되어 가니까 고구마 해서 썰어서 고구마고지 말린 것이 그때는 가장 돈 되니까 이제 그것으로 해서 좀 밀친 잡아 살기 시작한 한 것이고. 그.}

10307 #1 박정희 대통령 때 그 일싸나나 뭐는 관계업씨 쥘리두고 국산 사용 국산 그거 주정 월료로 그거만 꼭 바다드리렌 허니까 그때 돈 쯤 바드민 그거 그거로 헨 우리가 좀 살기 시작한 헨 거고.{박정희 대통령 때에 그 일산이나 뭐는 관계없이 질러두고 국산 사용 국산 그것 주정 월료로 그것만 꼭 받아들이라고 하니까 그때 돈 쯤 받으면 그거 그것으로 해서 우리가 좀 살기 시작한 한 것이고.}

10307 #2 게나제가게.{그러나 저러나요.}

10307 #2 살몬 쉼 질루고 물 질루고 그런 거 허영으네 까분 하영 안 쥐도 그거 프랑으네 받 싸곡 받 싸곡 허명 헨 살아완.{삶은 소 키우고 말 키우고 그런 것 해서 값은 많이 안 쥐도 그것 팔아서 밭 사고 밭 사고 하면서 해서 살아왔고.}

10307 #1 게난 처음 살 때는 송아지 하나 프라도 받 하나 망아지 하나 프라도 받 하나 경허 명 바슬 사난는디 지그른 아마 그런 받 사젠허든 그때 시절 쉼 아마도 헨 이삼백 개 쥐도 못 팔 거 ㄱ타베.{그러니까 처음 살 때에는 송아지 하나 팔아도 밭 하나 망아지 하나 팔아도 밭 하나 그렇게 하면서 밭을 샀었는데 지금은 아마 그런 밭 사려고 하면 그때 시절 소 아마도 한 이삼백 개 쥐도 못 살 것 같아요.}

10307 #2 우리 웨야지도 영 행으네 도통땀 행으네 웨야지도 영헌디 사당 질화네 프라네 받 하나 시방 헨 이천 쉼짜리 저디 사 논 거 인쑤다.{우리 돼지도 이렇게 해서 돼지우리 해서 돼지도 이렇게 한 곳에 사다가 키워서 팔아서 밭 하나 지금 한 이천 쉼짜리 저기 사 둔 것이 있습니다.}

10307 #1 게난 웨야지 그거 웨야지 프란 시방 ㄱ트민 사가지 아녀주 성읍리서 어디 저 상 만 날젠 허명 그걸 오란 새끼 미시렛끼 베고 헨 거 거 오십 키로 쉼울로 뜨젠 허난 친 딱 꼬너지난 기자 무데기허젠 허명 오십 키로로 헨디 그뻐 받깎 하영 안 주난 헨쑤. 그때 받 하나 사집따다 게.{그러니까 돼지 그거 돼지 팔아서 지금 같으면 사가지 않겠지만 성읍리서 어디 저 상 났다고 하면서 그것을 와서 새끼 미시렛끼 베고 한 것 그것 오십 키로 저울로 뜨려고 하니까 끈 딱 끊어 지니까 그저 무더기하자 하며 오십 키로로 했는데 그때는 밭값 많이 안 주니까 했지 그때 밭 하나 샀었지요.}

10307 #1 받 저거 지금 그 바시 쉼 먼저 산 받 지금도 남아인는디 건 아무토 주지도 아녀고 허난 거 이천오백 쉼 쉼짜리. (웃음) 거 만칠처닐 바단 웨야진 프란는디 만육처닐네 바순 사나네 처닐 나만꼬.{밭 저것 지금 그 밭이 가장 먼저 산 받 지금도 남아 있는데 그것은 아무에게도 주지도 않고 하니까 그것 이천오백 몇 쉼짜리. (웃음) 그거 만칠친 원 받아서 돼지 팔았는데 만육 천 원에 받은 사니까 천 원 남았고.}

10307 #1 지금 그 바시 지그문 켈 큰 바스로 지금도 남아 이시난.{그래서 지금 그 밭이 지금은 제일 큰 밭으로 지금도 남아 있으니까.}

10307 #1 그 중에도 큰 밭 마니 이서남쭈마는 거 아들덜도 쥐불고 다 쥐부니까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바시 그 밭 지금 그대로 이십쭈.{그 가운데도 큰 밭 많이 있었지만 그것 아들들도 쥐버리고 다 쥐버리니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밭이 그 밭 지금 그대로 있지요.}

10310 @2 보리농사는 어떠케 헐썬습니까?{보리농사는 어떻게 지었었습니까?}

10310 #1 보리농살 헐 썬 허민.{보리농사를 지으려고 하면.}

10310 @2 예.{예.}

10310 #1 우서는 도통에 거르물 마니 지어야 돼니까.{우선은 돼지우리에 거름을 많이 만들어야 하니까.}

10310 #2 그때는 물똥예.{그때는 말똥이죠.}

10310 #1 드르에 나강 거 지금 ㄴ썬 아녕 물똥 싸 논 거 물똥 주서다그네 거기 다마노코.{들판에 나가서 그거 지금처럼 하지 않고 말똥 싸 둔 것 말똥 주어다가 거기에 담아놓고.}

10310 #2 고사리 비어당 담쪽 보리쪽 담쪽 행으네.{고사리 베다가 담고 보릿짚 담고 해서.}

10310 #1 거 세상 썬글 다 다마냥.{그것 세상 짚을 다 담아놔서.}

10310 #2 막 허영.{마구 해서.}

10310 #2 그거를 이젠 내영 내는 거엔 퍼내영으네 이 마당이나 어디 위영이나 그때 나므민 내영 그걸 쉼로 막 그걸 불립따다. 불령 보리씨에 아정강으네 잘락 저 뻘영으네 불르곡 불리곡 막 불려냥 또 이젠 쉼스령으로 그걸 문 돼싸.{그것을 이제는 퍼내서 내는 것이라고 퍼내서 이 마당이나 어디 터알이나 그때 남으면 퍼내서 그것을 소로 막 그것으로 밟아요. 밟아서 보리씨에 가져가서 다락 저 뿌려서 밟고 밟고 마구 밟아서 또 이제는 쇠스랑으로 그것을 모두 뒤집어.}

10310 #2 즈근즈근 돼쌍 또 따시 또 불리명 또 우티레 뻘곡 헤영 그뎨 맥 돋꺼레차겐 헤영 쉼에 아예 쉼에 들르명 그 두 개씩 헤영 시겜썬게.{차근차근 뒤집어서 또 다시 또 밟으면서 또 위로 뿌리고 해서 그때는 먹서리 먹둥구미라고 해서 소에 아예 소에 들어서 그 두 개씩 해서 실었습니다.}

10310 #2 경행으네 받띠 문 시꺼다 냥.{그렇게 해서 밭에 모두 실어다 놔서.}

10310 #2 춤 연나레 무신 모멸 커름 놉도 무신 돋꺼레로 노탕으네 그거세 명나 헤나신디. 똥 걸름헤영 소느로 박박 보비명 그거 다 받띠 강 그 걸름 착착착착 행 냥 보리 갈민 그런 건 돼곡 냥 쉼씨엔 허영으네 다른 불경이나 서경 저봐논 건 잘 안 똘띠다게. 비료 어서노난.{참 옛날에 무슨 메밀 거름 넣음도 무슨 돼지거름으로 놓다가 그것에 먹는다 했었는데 똥거름 해서 손으로 박박 비비면서 그것 다 밭에 가서 그 거름 착착착착 해서 넣어서 보리 갈면 그런 것은 되고요 쉼시라고 해서 다른 재나 섞어서 집어넣은 것은 잘 안 되대요. 비료 없으니까.}

10310 #2 경 다령 허므로. 계난 대중은 막 어렵게 그 걸름헤영 그 물 잘잘 불령 쉼에 그거 쉼 질메 지왕으네 시방 사름덜 알티말티 쉼질메 지왕으네 혼 차게 혼 착 돋꺼레착 혼나씩 헤영 양 차게 지왕 강 그거 시경 강 받띠 강 퍼노코 퍼노코 허명 그때 보리 가라난.{그렇게 다져서 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대체로 마구 어렵게 그 거름해서 그 물 질질 밟아서 소에 그것 소 길마 지어서

사람들 알지말지 소 길마 지어서 한 쪽에 한 쪽 돼지거름 먹서리 하나씩 해서 양쪽에 지워서 가서 그것 싣고 가서 밭에 가서 퍼 놓고 퍼 놓고 하면서 그때 보리 갈았지.}

10310 #1 계문 보리 해 멩는 사르미 그걸로 마니 헌 사르문 조끔 해먹꼬 그거 몬텡 불경에 서경 즈봐논 사르문 옛날 말로 여기 계원찌둥 으피 맨 찹 저당 찹피문 그거 메기.{그러면 보리 해서 먹는 사람이 그것으로 많이 한 사람은 조금 해서 먹고 그거 못 해서 재에 섞어서 뿌린 사람은 옛날 말로 여기 뿔기둥 옆에 몇 짐 저다가 쌓아놓으면 그것뿐.}

10310 @2 으.{으.}

10310 #1 계문 이젠 장마쳐 가며는 머글 꺼 어시민 그 노물 멩서게 낱 발로 보비아당 건또 물류지 모터민 어떻어뎡 부래서 물류와그네 그 정ㄱ래에 이껌 거평 채 반주기 웬 거 헤영 그거세 죽 썩 머거시니까.{그러면 이제는 장마 저 가면 먹을 것이 없으면 그 놈을 멩석에 놔서 발로 비비아다가 그것도 말리지 못하면 어찌어찌 불에 말려서 그 맷돌에 껌질 벗겨 반죽이 된 것 해서 그것으로 죽을 썩서 먹었으니까.}

10310 #2 여름용스 혈 때도 경헝따다. 여름용스혈 때도 비료 어스나네 받띠 강으네 흥글 팡으네 그 받 용스혈 받띠 깃나 경 아녀민 테를 해당으네 지영으네 문 등지므로 흥 병헝이씩 정으네 그놈을 쉼스렁으로 강으네 탁탁 티왕으네 경허영 허며는 곡씩이 흥썰 뉘어마썩.{여름농사 지을 때는 그러디다. 여름농사 지을 때도 비료 없으니까 밭에 가서 흙을 파서 그 밭농사할 밭에 까나 그렇지 않으면 잔디를 파다 저서 모두 등짐으로 한 덩이씩 저서 그놈을 쇠스랑으로 가서 탁탁 두드려서 그렇게 하면 곡식이 조금 되지요.}

10310 #2 경허곡. 경 아녀민 경 아녀민 또 쉼해당 그 바령.{그렇게 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또 소 몰아다가 바령 놓고.}

10310 @2 예. 바령.{예. 바령.}

10310 #2 양 바령 헝으네 밤이 강 에우곡 에우곡 헝으네 그 바령 헝으네 그거 허곡 경해나고. 계난 아이덜 ㄱ라도 몰랑으네 멩청허난 경헝젠 요썩 파이덜 ㄱ름니다. 아아. (웃음) 그때 그치록 썩으네.{예. 소를 풀어놔서 밤에 가서 가두고 가두고 해서 그 소를 풀어놔서 그거 하고 그렇게 했었고. 그러니까 아이들 말해도 몰라서 멩청하니까 그렇게 했다고 요즘 아이들 말합니다. 아아. (웃음) 그때 그렇게 해서.}

10310 #1 거름혈 방버비 어시니까 쉼 나진 ㄴ미 거 문 모다당 ㄱ짱 바민 그 받띠 강 가두문 똥오줌 싸니까 거름 뉘니까 그때는 가랑 보리 가는 거.{거름할 방법이 없으니까 소 낮에는 남의 것 모두 몰아다가 가꿔서 밤에는 그 밭에 가서 가두면 똥오줌 싸니까 거름되니까 그때는 갈아서 보리 가는 것.}

10310 #1 계. 그베피 허여 볼 계 윈 어시난.{그러게. 그것밖에 해 볼 것이 윈 없으니까.}

10310 #2 계난 시방 윈 해 춤 생각허민 어이가 여성 윈. 아니 쉼겉름이라도 ㄴ물 ㄱ튼 건또 여성으네 또 같지 몬터영 그걸 사다머거진 생각커민 그 쉼거름이라도 팡팡 비와냥으네 윈 ㄴ물도 갈 썰 그걸 우리 사래 뎡겨날쑈게게 그거.(웃음){그러니까 지금 윈 해 참 생각하면 어이가 없어서 윈. 아니 소거름이라도 나물 같은 것도 없어서 또 같지 못해서 그것을 사다 먹은 것 생각하면 그 소거름이라도 팡팡 뿌려서 윈. 나물도 갈 것을 그걸 우리 사러 다녔었지요. 그것.}

10310 @2 .{예.}

10310 #1 계민 비료 비료가 아녀민 안 돼난 비료를 사쟁허민 그러케도 어려워신디 비료를 여기 그전 초서기엔 현 비료 이서신디 그거 오십 키로짜리 우리 표선 간 등에 하나 정 오란도 걸 뿌려봐신디. 경해도 그거 까비 나오니까 비료 뿌리믄.{그러면 비료 비료가 안 하면 안 되니까 비료를 사려고 하면 그렇게도 어려웠는데 비료를 여기 그전 초석이라고 한 비료 있었는데 그거 오십 키로짜리 우리 표선 가서 등에 하나 저서 와서 그것을 뿌렸었는데. 그렇게 해도 그것 값이 나오니까 비료를 뿌리면.}

10310 #1 비료 안 뿌리고는 건 원 안 돼고.{비료 안 뿌리고는 그것은 원 안 되고.}

10310 #2 어 저 폐서니 강으네 몰래도 그 몰래 신평 몰래 시꺼당으네 감저노첸허믄양 그거 빼영으네 그 쉼로 시꺼당으네 놔날쭈게게. 비료가 어스나네게.{아 저 표선리 가서 몰래도 그 몰래 신평 몰래 실어다가 고구마 심으려고 하면요 그것 뿌려서 그 소로 실어다가 심었었지요. 비료가 없으니까요.}

10310 #1 거 몰래 뿌려도 피바길레기엔 허영 조 허고 피씨 반 서경 뿌렁 불리며는 건 몰래 뿌린 디도 그거는 돼니까.{그것 몰래 뿌려도 피바길레기라고 해서 조하고 피씨 반 섞어서 뿌려서 밟으면 그것은 몰래 뿌린 데도 그것은 되니까.}

10310 #2 우리 사라올 때꺼장은 촌물도 다 저날쭈다. 우리 촌물 저당 소금 으스니까 저 강으네 홍리 ** 아서단 현디 영 촌물 지러오는 디가 이서. 계민 오랑 딸리믄 소금 웅텐 허멍 딸렁 오랑 짐치 주겨양. 그거.{우리 살아올 때까지는 짠물도 다 지었었습니다. 우리 짠물 저다가 소금 없으니까 저 홍리** 아서단 한데 영 짠물 길어오는 곳이 있어. 그러면 와서 달이면 소금 된다고 하면서 달여서 오랑 김치 죽이고. 그것.}

10310 @2 조 농사는 어떠케 헐썬썬니까?{조 농사는 어떻게 했었습니까?}

10310 #1 예. 아 조농사는 그자 그거는 뭐 거름 아녀도 돼니까. 조는.{예. 아 조농사는 그거 그것은 뭐 거름 안 해도 되니까. 조는.}

10310 @2 예.{예.}

10310 #2 계민 겉또 구즌 받떠는 조 가랑 놔두민 요 정도 허곡 고고리가 으만씩베끼 안 돼니까 그건 기가메킨 노르시고 좀 조은 받떠는 거 허민 고고리도 좀 크게 나오민 그거 허미 상당히 힘든거라 검질을 세 번 메여야 돼고 이제는 세 번 메영 그 태풍만 안 불민 그건 조코코리가 좀 요 정도 크게 나오니까 그때는 그거는 쓸행 멍는 거고.{그러면 그것도 굵은 밭에는 조 갈아서 놔두면 요 정도하고 이삭도 요만씩밖에 안 되니까 그것은 기가 막힌 노릇이고 좀 좋은 밭에는 그것 하면 이삭도 좀 크게 나오면 그것 하는 것이 상당히 힘든 것이예요. 김도 세 번 매야 하고 이제는 세 번 매면 그 태풍만 안 불면 그것은 조 이삭이 좀 요 정도 크게 나오니까 그때는 그것을 쌀해서 먹는 것이고.}

10310 @2 예.{예.}

10310 #2 거 조에 조 페여갈 때 웨시리 웨시리 허멍 허닥허닥헌 거멍헌 고고리가 이서날쭈다. 그거 허며는 그 연나렌 그 화각 어시나네 동네 강으네 불 담양 불 담양 와나민 웨시리 잇넨 허멍 불 다망 텅기지 말렌허멍 (웃음) 웨시리 경 그치룩허멍.{그거 조 펠 때 웨시리 웨시리 하면서 허

거명한 이삭이 있었습니다. 그거 하면 그 옛날에 그 성냥 없으니까 동네 가서 불 담아 불 담아 온 적 있으면 웨시리 인다고 하면서 불 담고 다니지 말라고 하면서 (웃음) 웨시리 그렇게 그렇게 하면서.)

10310 #1 연나른 성냥 어시니까. 동네 어디 불 살른 디 이시민 그디 강 요즘 뭐 요즘 ㄹ트민 뭐 췌그르시나 저 검질 영 행 그거세 아정오당 보민 불 일어낭으네게 그만 화제도 문 나곡.(옛날에는 성냥 없으니까 동네 어디 불 피운 데 있으면 거기 가서 요즘 뭐 같으면 뭐 쇠그릇이나 저 검불 이렇게 해서 그것에 가져오다 보면 불 일어나서 그만 화제도 모두 나고.)

10310 #2 경허난 조은 받 어슨 사르른 조은 받면 반분병작. 노미받띠 허민양. 반분병작 두 단 허민 혼 단씩 갈르곡.{그러니까 좋은 밭 없는 사람은 좋은 밭은 반분병작. 남의 밭에 하면요. 반분병작. 두 단하면 한 단씩 가르고.}

10310 #2 또 구진 받면 삼분병작키영 석 판 허영으네 저 임젠 두 단 아저가고 우린 석 판 아정 오곡 경헤그네 반작키영으네 경허는 사름덜. 바시 다 이션췌게가? 경허난 기자 게나제나 반만 상으네 흥췌리라도 머글 꺼 허젠.{또 나쁜 밭에는 삼분병작 해서 석 단 하면 저 임자는 두 단 가져가고 우리는 석 단 가져오고 그래서 병작해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 밭이 다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그저 그러나저러나 밭만 사서 조금이라도 먹을 것 하려고.}

10310 #1 계난 우리 처음 살 때는 바시 어시니까 노미 반만 빌명 허다 보니까 멘날 헤 봐도 불 께 어시니까. 이제는 소 질환 크기 시작커니까 이제는 바시나 조안 낀 구절 낀 바시나 사자고 해서 그건만 사다보니까 이제 뜯 건 원 신경 안 쓰고 게나제가 반만 사.{그러니까 우리 처음 살 때는 밭이 없으니까 남의 밭만 빌려서 하다 보니까 만날 헤봐도 불 것이 없으니까 이제는 소 키워서 크기 시작하니까 이제는 밭이나 좋았든 나빴든 밭이나 사자고 해서 그것만 사다 보니까 이제 판 것은 전혀 신경 안 쓰고 그러나저러나 밭만 샀어.}

10310 #2 아더른 헤도 딱른 가시리 궁민학꼐 ㄹ차네 조립떨 때 웨나네 우리 씨아버님 곤는 마리 무신 건고 허난 아이고 느네 어멍네 너미나 몫 췌더네 혼저 허영 어멍네 도와드리라. 우리는 중학교 보내젠 ㄹ으른 딱 헤신디 ‘아이고 요거 아버지 알민 요근 드러질로구나’ 허멍 헤도 ‘아이고 아멩헤도 중학꼐 보내사주’ 허여네 시방 췌흐나우다마는. 그 딸. (웃음) 중학교 요새. 계난 이제 흥뭇 고등학교라도 시켜 주저 헤도 큰딸 중학교빼끼 몫 시킨 딸 이췌다.{아들은 헤도 딸은 가시리 초등학교 마쳐서 졸업할 때 되니까 우리 시아버님 하는 말씀이 무엇이냐 하면 “아이고 너희 어머니네 너무나 못 견뎌서 어서 해서 어머니네 도와드려라.” 우리는 중학교 보내려고 마음은 딱 먹었는데 아이고 요것 아버지 알면 욱은 들을 것 같다고 하면서도 ‘아이고 아무래도 중학교는 보내야지’ 해서 지금 췌 한 살입니다마는 그 딸. (웃음) 중학교 요새. 그러니까 이제 사뭇 고등학교라도 시켜 주자 헤도 큰딸 중학교밖애 못 시킨 딸이 있습니다.}

10315 @2 감자 농사는마씨?{고구마 농사는요?}

10315 #1 감저는 내중에는 감. 이천 췌도 너고 삼천 췌도 너곡 경 내중 웨니까 바시 느러나니까 그걸또 마니 헤저서마씨.{고구마 나중에는 고. 이천 췌도 넣고 삼천 췌도 넣고 그렇게. 나중 되니까 밭이 늘어나니 그것도 많이 했지요.}

10315 #2 경헤난 체빠니 아이.{그러니까 첫 번에 아니.}

10315 #1 허난 그거를 그냥 통차 공장에도 디려나고. 이제 씨러그넵에 그 감저 뽕뽕길 헤여야 도니 나온다고 해서 그거 헨 다으메는 조끔 펜너게 도니 나오니까 산 겁쥬. 그때부터는. {많이 하니까 그것을 그냥 통째 공장에도 팔았었고. 이제 썰어서 그 고구마고지 해야 돈이 나온다고 하니까 그것 한 다음에는 조금 편하게 돈이 나오니까 산거지요. 그때부터는.}

10315 @2 케니까 그 감자 농사는 어떠케 지었느냐는 얘깁쥬. 예를 들면 어 늘 누런땅 씨감자를. {그러니까 그 고구마 농사는 어떻게 지었느냐는 얘가지요. 예를 들면 어 가리를 지었다가 씨감자를.}

10315 #2 예. 씨감자 구덩이. {예. 씨 고구마 구덩이.}

10315 @2 구덩이 팡. {구덩이 파서.}

10315 #2 시방은 뭐 집안네 온도 마환 낚쥬마는 그때는 받뽕 구덩이 팡. {지금은 뭐 집안에 온도 맞춰서 놓지만 그때는 밭에 구덩이 파서.}

10315 @2예. {예.}

10315 #2 구덩이 팡 어여므로 조치블 꺾나 저 어워글 꺾나 허영 영 빙허게 낡그네 그자 저으레 머글 꺾나 씨헐 꺾나 으라 늘 늑쥬게. {구덩이를 파서 가장자린 조질을 까나 저 역새를 까나 해서 이렇게 빙 하게 놔서 그저 겨울에 먹을 것이나 씨 할 거나 여러 가리를 만들지요.}

10315 @2 예. {예.}

10315 #2 즈근즈근 누렁 허며는 파. 감저 파오젠 허믈 흐뭇 홀목 다 가라불멍 경허는디. 경헤그네 이젠 쉼걸르믈 터노나 돌걸르믈 터노난 허영으네 시방은 아멩헤도 웨는 걸 막 이 다깡으네 그 걸름 꺾랑 우이 더경으네 이젠 그 감질뽕 놔낫쥬게. 감전뽕 낡 그것 즐기 나면 그것 기차당으네. {차근차근 (가리를) 지어서 하면 파. 고구마 파오려고 하면 사뭇 손목 다 할퀴고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는 소거름을 뿌려 넣으나 말거름을 뿌려 넣으나 해서 지금은 아무렇게 해도 되는 것을 막 이 다져서 그 거름 깔아서 위에 덮어서 이젠 그 고구마 모종을 심었었지요. 고구마 묘종 심어서 그거 즐기 나면 그거 끊어다가.}

10315 #1 씨감질 경 노민 그때도 비료가 어려우니까 어디 향아리 낡 오쥬 쌍 그디다가 계속 모썰땅 그거 막 씨그면 그거 뿌려서 키우고. {씨 고구마 그렇게 넣으면 그때도 비료가 어려우니까 어디 향아리 놓아서 오쥬 싸서 거기다가 계속 두었다가 그거 막 썩으면 그것 뿌려서 키우고.}

10315 #1 경헿 그거 크믈 감저 거 놀 때는 기자 즐 기창 그자 무조건 노는디 겐또 모래나 즐논 바슨 감저가 잘 들고 모래 안 논 바슨 잘 안 웨곡. 겨난 경헤도 워낙 마니 헿시니까 그때 거. {그렇게 했다가 그것 크면 고구마 그것 심을 때에는 그저 즐기 끊어다가 그저 무조건 심는데 그것도 모래나 조금 넣은 밭은 고구마가 잘 달리고 모래 안 넣은 밭은 잘 안 되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도 워낙 많이 하고 있으니까 그때 그거.}

10315 #2 저을리 경 무덜땅 씨거나 불민 씨 또 씨 신 집브로 사당 생돈 쥬그네 그거 이녁 논 거 몬딱 내버뽕 강 또 사당 씨그민 몬 파당 들이싸뽕 파당. {겨울에 그렇게 묻었다가 씨거나 하면 씨 또 씨 있는 집으로 사다가 생돈 쥬서 그거 이녁 가린 것은 모두 내버려두고 가서 또 사다가 썩으면 모두 파다가 내버리고 파다가.}

10315 #1 거 흐 늘 구덩이 흐 받뽕레 구덩이 기피 허며는 쥬장히 마니 드러가는 디 경헤서

안 써그민 될테 씨도 충분허곡 겨울이 이거 머꼬 허는다. 그거 마니레 써거부리민 그때는 문제가 뜨나. 거 씨도 얻꼬 멍는 거는 웬마니 써근 거 기차불멍덜 쏘마 멍는다. 씨논는 게 제일 문제라.{그거 한 가리 구덩이 한 군데 구덩이 깊이하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데 그렇게 그것이 안 썩으면 이듬해 씨도 충분하고 겨울에 이거 먹고 하는데. 그것 만일에 썩어버리면 그때는 문제가 달라. 그것 씨도 없고 먹는 것은 웬만큼 썩은 것 잘라버리면서 삶아 먹는데. 씨 놓는 것이 제일 문제라.}

10315 #1 게문 씨 잘 묻는 사르미 어떠다 재수 조양 원 혼나 안 썩게 논는 저 허는 사름도 인쪽 온체 써거부는 사름.{그러면 씨 잘 묻는 사람이 어찌다가 재수 좋아서 전혀 하나 안 썩게 놓는 저 허는 사람도 있고 통째로 썩어버리는 사름.}

10315 #2 시방은 쥐가 어서도양 엔나른 쥐고냥 딸랑으네 물 드러볼곡 게나제나 쥐 따문 씨급 떠다게.{지금은 쥐가 없어도요 옛날은 쥐구멍 뚫어서 물 들고 그러나저러나 쥐 때문에 썩대요.}

10315 #1 쥐 따문 썩꼭 온도 맞추지 몰텡 열 바당 썩꼭 그거 으라 가지.{쥐 때문에 썩고 온도 맞추지 못해서 열 받아서 썩고 그거 여러 가지.}

10315 #2 거문 그거 제 온도 맞추당 보문 어느 순가네 쥐가 가그네 혹 막 올렁 그만 고평 마가불민 그만 열 바당 써거볼곡.{그러면 그거 겨우 온도 맞추다 보면 어느 순간에 쥐가 가서 흙막 올려서 그만 구멍 막아버리면 그만 열 받아서 썩어버리고.}

10315 @2 뭐 마늘농사나 고추농사도 해설쭈가?{뭐 마늘농사나 고추농사도 지었었습니까?}

10315 #1 그런 거 아녀난.{그런 것 안했어요.}

10315 #2 여긴 그 마늘 ㄱ튼 건 안웁니다. 여기.{여기는 그 마늘 같은 것은 안 됩니다. 여기.}

10315 #1 마늘 여기 돼지도 아녀고.{마늘 여기 되지도 않고.}

10313 @1 노미 득 노미 농사 그 다 익찌도 아널 때 이 자바당 슬망 머거 볼곡 자방머거 볼곡 또 해날쭈가?{남의 닭 남의 농사 그 다 익지도 않았을 때 이 잡아다가 삶아 먹거나 잡아먹기도 했었습니까?}

10313 #2 콩?{콩?}

10313 @2 아. 예. 저 뭐.{아. 예. 저 뭐.}

10313 @1 콩 뭐 득.{콩 뭐 닭.}

10313 #1 아아.{아아.}

10313 @2 서리 서리.{서리 서리.}

10313 @3 노미 받떠 강 감저 파당 먹거나 득 자바당 머근 기억 이시냐고마씨?{남의 밭에 가서 고구마 파다 먹거나 닭 잡아다가 먹은 기억 있느냐고요?}

10313 #1 그런 걸또 이서날때는 허는다.{그런 것도 있었다고는 하는데.}

10313 #2 저 감저 파당 머그문 ㅁ쉬 그 쉼덜 ㄱ꾸레. 쉼 ㄱ꾸레 저 드름뽕띠레 막 강 ㅁ쉬 ㄱ꾸레 허민 파당 썩 멍는 거라. 출 받떠 눈 거 시른 빠다 노록.{저 고구마 파다 먹으면 마소 그 소들 가꾸러. 소 가꾸러 저 들녘 밭에 막 가서 마소 가꾸라고 하면 파다 구워 먹는 거라. 풀밭에 가리 있으면 빠다 놓고.}

10313 #2 그거 그런 때는 거 허여당으네.{그거 그런 때는 그거 해다가.}

10313 #1 행 머근 거 임제 봐도 크게 옥또 아녀고 허니까 그때는. 거 소 ㄹ꾸멍.{그렇게 해서 먹은 거 임자 봐도 크게 옥도 안하고 하니까 그때는. 그것 소 가꾸면서.}

10313 #2 콩도 꺼꺼당으네 받띠 시문 허곡. 그때는 쉼 몰바레기로 허니까 바레기 수닐멍 현 지비 혼 바레기 땀깨씩 허미는 바미드른 그 몰 메기젠 콩 꺼꺼당으네 ㄴ미 콩을 꺼꺼당 경혜영 옥 뜨는 사름도 하나서.{콩도 꺾어다가 밭에 있으면 하고. 그때는 소 물이꾼으로 하니까 목동 품 앓이하는 집에 한 물이꾼 댓 명씩 하면 밤에는 그 말 먹이려고 콩 꺾어다가 남의 콩을 꺾어다 그렇게 해서 옥 듣는 사람도 많았어.}

10313 #2 그 몰 행 메겨사 된날 아치기 홀 꺼난. 지비 뿔땅으네 가질 아녀고 드르에 강 출판 맨 깨 빠평으네. 그날 쟈낙 출 시경오젠 허민 남즈더른 올라가는 거라. 여자더른 된날 아치기 세 베기 조반허곡. 올라강으네 그 몰 잘 메겨사게 그날 저무랑 출 시끌거나네 그치룩허영으네 (웃음){그 말 해서 먹여야 뒷날 아침에 할 것이니까. 집에 잠 잤다 가지 않고 들판에 가서 풀 못 몇 개 빠두고. 그날 저녁 풀 싣고 오려면 남자들은 올라가는 거야. 여자들은 뒷날 아침에 새벽에 조 반하고. 올라가서 그 말 잘 먹여야 그날 저물도록 풀 실어나를 거니까 그렇게 해서.(웃음)}

10313 #2 콩도 꺼꺼오고 감절쫄도 거더당으네 경행 주곡 그치룩 허주. 다른 거는 무신 헤당계 초니나네게.{콩도 꺾어오고 고구마줄기도 걷어다가 그렇게 주고 그렇게 하지. 다른 것은 무슨 해다가 촌이니까.}

10312 @1 보리나 조는 맨 뺨 김질 땀니까?{보리나 조는 몇 번 김을 매나요?}

10312 #2 아 보리는 경 김질 하영.{아 보리는 그렇게 김을 많이.}

10312 #1 조 저 보리는 김질맨 깨 벨로 업씨.{조 저 보리는 김질 것이 별로 없어.}

10312 #2 조는 하영 멧쭈. 조는 소까사만 허는 거난.{조는 많이 땀지요. 조는 속아야만 하는 것이니까.}

10312 #1 조는 초불 질 때 소끄고 두불끔질 메고.{조는 초벌 김질 때 속고 두벌 김매고.}

10312 #2 존 세부른 매야.{조는 세벌은 매야.}

10312 #1 세불끔질 다 매어사는 거.{세벌 김 다 매야하는 것.}

10312 #2 산디도 서너 번 매어사.{발벼도 서너 번 매야.}

10312 @1 아 산디도.{아 발벼도.}

10312 #1 산디는 세 번 너머 네 번까지 매어야 돼고.{발벼는 세 번 넘어 네 번까지 매야되고.}

10312 #2 모물만 이거 느저 가랑 가는 거난 모물만 김질 안 매주.{메밀만 이것 늦게 갈아서 가는 거니까 메밀만 김 안 매지.}

10312 #1 모머른 아직 갈 때 안 돼여시나네 이루 후제 가라도 돼는 거난.{메밀은 아직 갈 때 안 되었으니까 이후에 갈아도 되는 것이니까.}

10312 @2 게난 산디는 네 번까지 맨다양. 게민 네 번까지 매면 김질 쥘 마니 매는 거우파? {그러니까 발벼는 네 번까지 맨다고요. 그러면 네 번까지 매면 김 쥘 많이 매는 건가요?}

10312 #2예.{예.}

10312 #1 예. 그때는 산디가 쥘 김질 마니 매는 거.{예. 그때는 발벼가 쥘 김 많이 매는 것.}

10312 #2 ** 흔 음녀 칠월꺄장만 메민 김지른 언는 거나네.{** 한 칠월까지만 음력 칠월까지만 매면 김은 없는 것이니까.}

10312 #1 계난 김질 마지막 멜 때가 거의 이 저 월력쌍에 보든 처서가 돼든 거의 마지막 매는 거.{그러니까 김 마지막 멜 때가 거의 이 저 달력상으로 보면 처서가 되면 거의 마지막 매는 것.}

10312 @1 켈 켈는 멘 뵤 뵤니까?{참개 참개는 몇 번 매나요?}

10312 #2 켈는 배랑 김질 안 뵤니다. 김질 메불민 이 밭 흥그렁 안뵤덴 허영으네 나도 저거 켈 가라나부넌 김질 잘 안 매부난 올린 김질 하영 매연쑤다마는. 장너네 뵤 켈도 조코헤여도 켈는 경 김질 안 매여. 낭 나민 그자 그 켈 쵸낭에 뵤 헤정으네 김질 우티레 오르지 아너는 거난. {참개는 별로 김 안 뵤니다. 김매버리면 이 뿌리 흔들어서 안 된다고 해서 나도 저거 참개 같아 나니까 김 잘 안 매니까 올해는 김 많이 뵤었습니다만. 작년에 뵤 참개도 좋고 해도 참개는 그렇게 김 안 매. 갯대 나면 그저 그 참개 참갯대에 뵤 해서 김 위로 오르지 앓는 거니까.}

10311 @1 보리 뿌려낭 봄 뵤민 받 블바줍니까?{보리 뿌린 다음 봄 되면 받을 밭아줍니까?}

10311 #2 예.{예.}

10311 #1 거.{그것.}

10311 #2 잘 사름마다 블르질 아너고 잘허는 사름. 그 보리빨리 영 고상으네 뵤허며는 블르며는 든든 헤영으네 보리 읤넨허멍 막 블라줘.{잘 사람마다 밭지 앓고 잘하는 사름. 그 보리 뿌리 이렇게 곱아서 뵤하면 밭으면 단단해서 보리 여문다고 하면서 마구 밭아줘.}

10311 @3 건 어느 처레 블라마씨?{그것은 어느 철에 밭습니까?}

10311 #2 겨울 나가든 거 막 블라야주.{겨울 나가면 그거 마구 밭아야지.}

10311 #1 그때가 보통 이 저 언제뵤나?{그때가 보통 이 저 언제 되나?}

10311 #1 이월 흔 사오일 너머그넵예. 그 저 고슴 끈나갈 때.{이월 한 사오일 넘어서. 그 저 곱음 끊나갈 때.}

10311 @2 양너그로예.{양력으로요.}

10311 #1 예. 고슴 뵤며는 거 문 들러져 이신디 이젠 그걸 블봐줘야 밭뿌뜨게끔 그때 블라주는 거.{예. 곱음 때는 그것 모두 들떠 있는데 이제는 그것을 밭아줘야 밭붙게끔 그때 밭아주는 거.}

10311 @2 고스미 뵤니까? 아 곤는 거.{곱음이 뵤니까? 아 곱는 거.}

10311 #1 예 땅 고스 거.{예. 땅 곱은 거.}

10311 @2 예예. 고슴.{예예. 곱음.}

10311 @1 그건 절기로 계민 언제 너뜨면 뵤니까? {그것은 절기로 그러면 언제 넘으면 뵤니까?}

10311 #1 절기로 봐서는 그거 저 뵤라? 정월쑤. 정월쑤미 거.{절기로 봐서는 그거 저 뵤야? 정월쑤. 정월쑤에 거.}

10311 @1 정월.{정월.}

10311 #1 으.{으.}

10311 @3 보리 낱으네 이제 밭 크기 저네 허는 거구나예?{그러니까 보리 나서 이제 밭 크기 전에 하는 것이군요?}

10311 #1 커갈 때.{커갈 때.}

10311 #2 영영 베작베작질 때에 블라주는 거난. 영 우깅 들리정으네.{이렇게 이렇게 뽕족뽕족 할 때에 밟아주는 것이니까. 이렇게 우깅 들떠서.}

10311 #1 너무 자라는 걸또 블바블곡 커난 커 갈 때 거 블방 다 녹져 노며는 땅에 데깅 부뜨니까 경행 딱시 다시 올라오라야 건강허곡.{너무 자라는 것도 밟아버리고 하니까 커 자랄 때 밟아서 다 눅혀 놓으면 땅에 단단히 붙으니까 그렇게 다시 올라와야 건강하고.}

10311 @1 보리 아까 보리갈 때 돌궂름 헤영 헨다고 헨짜너우파양. 조 가튼 건 어떻헛띠가? {보리 아까 보리갈 때 돼지거름 해서 한다고 했잖습니까? 조 같은 것은 어떻게 했습니까?}

10313 #1 조는 거름 어시.{조는 거름 없이.}

10311 #2 조는 저.{조는 저.}

10311 @1 거름 어시 그냥 드리부러양.{거름 없이 그냥 들어버려요.}

10311 #2 조나 산디는 그냥 빼여.{조나 밟버는 그냥 뿌려.}

10311 @1 쉼씨로는 뭘 거 허는 겨우파?{쉼씨로는 뭘 그것 하는 겁니까?}

10311 #1 쉼.{쉼.}

10311 @1 여기는 쉼씨는 잘 아너쭈과?{여기는 쉼씨는 잘 안 했습니까?}

10311 #2 쉼씨엔 허는 건 걸름 아녕 허는 건꼬라 쉼씨.{쉼씨라고 하는 것은 거름 안 해서 하는 것보고 쉼씨.}

10311 @1 예예.{예예.}

10311 #1 여기선 그대로.{여기서는 그대로.}

10311 #2 빼는 거시 쉼씨에 허는 거.{뿌리는 것이 쉼씨에 하는 거.}

10311 #1 그대로.{그대로.}

10311 @1 보리에 보리.{보리에 보리.}

10311 #1보리.{보리.}

10311 @1 보린 걸름 아녕.{보리는 거름 안 해서.}

10311 #1 보리 그 쉼씨에 가란뎨 헨 건 여기서는 돼지도 아너고.{보리 그 쉼씨에 갈았다고 하는 것은 여기서는 되지도 않고.}

10311 #1 이 이땅 쉼씨에 그냥 뿌렁 헤그네 굳는 사름 인는디 그거는.{이 이따금 쉼씨에 그냥 뿌려서 해서 말하는 사름 있는데 그것은.}

10311 @1 기지양.{그렇지요.}

10311 #1 여름농사베끼 겨울 농사는.{여름 농사밖에 겨울 농사는.}

10311 @1 겨울 농사 안 돼고.{겨울 농사 안 되고.}

10311 @1 구좌 가며는 돌궂름 아너그네 허는 디 허곡.{구좌 가면 돼지거름 아니해서 하는 곳은 하고.}

10311 #2 경헌디 시방사 아메도 비료.{그런데 지금이야 아마도 비료.}

10311 #1 돈겨름 허는 디가 언꼬 이젠 비료만 사용하니까.{지금은 돼지겨름 하는 곳 이 없고 이제는 비료만 사용하니까.}

10314 @1 그 보리쪽 조쪽 계민 행으네 그걸 주로 필로 이용헐쑤가? 그거는.{그 보릿짚 조질 그러면 해서 그것은 주로 무엇으로 이용했습니까? 그것은.}

10314 #2 그때사.{그때야.}

10314 #1 조찌근 소 메기고.{조질은 소 먹이고.}

10314 @1 예. 조찌근 쉼 메기고.{예. 조질은 소 먹이고.}

10314 #1 보리쪽또 그 당시에 쉼 메기는 사람도 일쪽.{보릿짚도 그 당시에 소 먹이는 사람도 있고.}

10314 #2 쉼 또꼬냥에 끌고.{소 뒤에 끌고.}

10314 #1 또 쉼 그 똥 싸노른 자꾸 버무니까 거기 자꾸 계속 깎아주면 거름이 돼니까 그거. {또 소 그 똥싸면 자꾸 더러우니까 거기 자꾸 계속 깔아주면 거름이 되니까 그거.}

10314 @1 그거 마당에도 끌꼭 험니까?{그거 마당에도 깔고 합니까?}

10314 #2 예.{예.}

10314 #1 보리쪽 마당에도 끌고.{보릿짚 마당에도 깔고.}

10314 #2 시방에나 세멘헐쑤. 그때는 문 마당에 깎랑 끌고.{지금이야 시멘트했지. 그때는 모두 마당에 깔아서 깔고.}

10314 #1 마당에 검질 깎라야 곧찌 안헌텐 허멍.{마당에 검불 깔아야 곱지 아니한다고 하면 서.}

10314 #2 하나씩 질루나네 그거세 보리 해나머는 보리꼬꼬리가 일쑤. 계민 딱 누런땅 득 머기 주서머그렌.{하나씩 키우니까 그것에 보리 해나면 보리이삭이 있지. 그러면 딱 가리 지었다가 닭 먹이 주워먹으라고.}

10314 #2 거 자꾸 허영 문저 헌 건 거두왕 지더 가멍.{그것 자꾸 해서 먼저 한 것은 가두어 다가 볼때 가면서.}

10314 #2 또 *** 새 *** 마당에 끌민 득 그느멍 거 주서먹꼬.{또 *** 새 *** 마당에 깔면 닭 이 굵어당기면서 그것 주워먹고.}

10314 #2 경허민 그 득글 계나제나 질화노민 베여미가.{그렇게 하면 그 닭을 그러나저러나 키우면 뱀이.}

10314 #2 계나제가 그 득새기덜 막 텅에 큰 득통 득라메영 득새기 나노민 그거 흐물 먹젠 비 실비실비실 영 뽕꼰띠 아자도 그레 오는 거라 막. 베여미가. 켜디 이제는 베여미가 윈 어서.{그러 나저러나 그 달걀 막 등우리 큰 닭등우리 달아매면 달걀 낳으면 그거 사뭇 먹으려고 비실비실비 실 이렇게 밖에 앓아 있어도 거기로 오는 거야 마구. 뱀이. 그런데 이제는 뱀이 전혀 없어.}

10314 @2 뭐가마씨?{무엇이요?}

10314 #2 베여미야 베여미 모름니까?{뱀 뱀 모름니까?}

10314 @2 아 베미.{아 뱀.}

10314 #2 경헌디 이제는 베미가 이 양만 헤 가고 득 언꼬 허난.{그런데 이제는 뱀이 이 약만

닭 없고 하니까.}

10314 #1 이제 원 어서.{이제는 전혀 없어.}

10314 #2 편칙 어서.{전혀 없어.}

10314 @2 으.{으.}

10314 #2 연나래 무신 토산땅엔 헨쩌 무신 무신 거 헨쩌 허멍덜 놀리는디 당취 건 연날 전서 리주 아무 곁또 어서.{옛날에 무슨 토산당이라고 했다 무슨 무슨 거 했다 하면서들 놀리는데 당 취 그것은 옛날 전설이지 아무 것도 없어.}

10314 @1 여기는 멩 멩석 가튼 곁또 즈라나고 험니까?{여기는 멩 멩석 같은 것도 곁었었습니까?}

10314 #2 예 멩석 즈라난.{ 멩석 곁었어}

10314 @1 건 뭘 재료로 험니까?{그것은 무엇을 재료로 합니까?}

10314 #2 산디찍.{밭벗짚.}

10314 #1 산디찍.{밭벗짚.}

10314 @1 산디찍.{밭벗짚.}

10314 #2 예.{예.}

10314 #1 그.{그.}

10314 #2 산디찍 헤영 바위엔 험빅 ㄱ란.{밭벗짚 해서 가에는 험꼬 깎아서.}

10314 @1 산디찌근 주로 용도가 뭘로 쓰입니까? {밭벗짚은 주로 용도가 무엇으로 쓰입니까?}

10314 #2 멩텅이허곡.{떡서리하고.}

10314 #1 그 저네는 주로 그거 저 멩텅서기엔 헤그넵에.{그 전에는 주로 그거 저 떡서리라고 해서.}

10314 @1 멩텅석허고?{떡서리하고.}

10314 #1 예.{예.}

10314 #1 그거 저 절메 주로 쓰고.{그거 저 곁는데 주로 쓰고.}

10314 @1 주로 쓰고.{주로 쓰고.}

10314 #1 또.{또.}

10314 #1 좀 잘허는 사르믄 서귀포 하논 가그넵에 나룩쩍 사당 그걸로 멩석 즐곡.{좀 잘 허는 사람은 서귀포 하논 가서 벗짚 사다가 그것으로 멩석 곁고.}

10314 @1 멩석 즐고.{멩석 곁고.}

10314 #2 시방은 이 저 첨막떠리 날쭈마는 그때는 멩석베끼 어설쑈게.{지금은 이 저 첨막들이 났지만 그때는 멩석밖에 없었지요.}

10314 #2 멩석베끼 어스난 곡씨글 허민 멩서게만 널영 시방도 허민 멩서게만 넌 거시 잘 ㄱ를 켜우다마는.{멩석밖에 없으니까 곡씨를 하면 멩석에만 널어서 지금도 하면 멩석에만 넌 것이 잘 마를 겁니다마는.}

10314 #1 지금도 멩성만 헤지믄 조쭈.{지금도 멩석만 할 수 있으면 좋지.}

10314 #2 멩서게만 너런 허난 우리도 절꼬 우리 씨아바님도 저란 우리 마니 쥘 씨보고.{멩석

널고 하니까 우리도 곁고 우리 시아버님도 곁어서 우리 많이 주니까 써보고.}

10314 #2 하하하. (웃음){하하하.}

10314 @1 나룩찍커고 산디찌게 큰 차이가 이십니까?{벗짚하고 발벗짚에 큰 차이가 있습니까?}

10314 #1 아 차이 큽쭈기.{아 차이가 크지요.}

10314 @1 차이 커마씨.{차이 큽니까?}

10314 #1 나룩찌근 이 존는데도 물랑지고 질기고. 산디찌근.{벗짚은 이 곁는데도 부드럽고 질기고 발벗짚은.}

10314 @1 물랑지고 질기고.{부드럽고 질기고.}

10314 #1 산디찌근 이 저 쪼꼬만 물 두르적쟁 허머는 이거 꺼꺼져부러 뿌러져.{발벗짚은 이 저 조금만 물 적게 적셔서 하면 이거 꺾어져버려. 부러져.}

10314 @1꺼꺼져부러 아아.{꺾어져버려. 아아.}

10314 @2 아까 줄보리 헐떼멍예?{아까 맥주보리 했다고 하면서요?}

10314 #1 예.{예.}

10314 @1 줄보리 때는 뭐로 헐쭈가?{맥주보리 때는 무엇으로 쓰였습니까?}

10314 #1 줄보리 때는 거 췌도 잘 안 멩넨 해서 그거는 그냥 마당에 깎랑 거름용으로 사용해 부는 거.{맥주보리 때는 그것은 소도 잘 안 먹는다고 해서 그것은 그냥 마당에 깔아서 거름용으로 사용해 버리는 것.}

10314 @2 밀랑퍼랭인 뭘로 멘드라쭈가?{밀짚모자는 무엇으로 만들었습니까?}

10314 #2 밀랑페랭이.{밀짚모자.}

10314 #1 밀랑페랭이 밀찍.{밀짚모자 밀짚.}

10314 #2 밀찍.{밀짚.}

10314 #1 여기 여기서 우리 밀도 가라나시니까.{여기 여기서 우리 밀도 같았었으니까.}

10314 #2 줄보리찍도 줄오리찍도 흥췌 해 저라날쭈다마는 우리도 페랭이 즈라나신디.{맥주보리짚도 맥주보리짚도 조금 해 곁었었습시다마는 우리도 밀짚모자 곁었었는데.}

10314 #2 저 밀찌그로 헐 거는 소소이 아녕 바작허영으네 막 곱췌 무신 거 허곡 보리찌근 쪼꼬만 허민 곱쟁이 피곱양 저 질기지 아닙니다.{저 밀짚으로 한 것은 대수롭지 않고 팽팡해서 막 곱고 무슨 것 하고 보릿짚은 조금만 하면 곱팡이 슬고요 저 질기지 않습니다.}

10314 @1 다 밀찌그로예.{다 밀짚으로요.}

10314 #2 예.{예.}

10314 #1 전부 밀찍으로.{전부 밀짚으로.}

10314 @3 직쩍 밀랑페랭이 해난마씨?{직쩍 밀짚모자 만들었었습니까?}

10314 #2 여기 막 허영 몬 이녕만췌 해영.{여기 마구 해서 모두 이녕만췌 해서.}

10314 #1 우리 그런 거 마니 멘드라날쭈. 그 밀찍.{우리 그런 것 많이 만들었었지. 그 밀짚.}

10314 #2 밀 시방 그 돈 이삼췌넌 뭘 오쳐넌 주는 거 보민 당췌 간도 안 마장. 시방 싸름덜 아이고. (웃음){밀 지금 그 돈 이삼췌넌 원 뭘 오쳐넌 원 주는 거 보면 당췌 간에도 안 들어서. 지금

아이고.(웃음)}

10314 @2 예. 그럼쭈예.{예. 그렇지요.}

10314 #2 예. 게나네 연나리주. 아이구.{예. 그러니까 옛날이지. 아이구(웃음)}

10317 @1 검질드른 어떤 건뜨리 인쭈가? 검질 검질 생각 튼나지는 거 인쓰며는 계절별로예. 계절별로.{김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김 김 생각 생각나는 거 있으면 계절별로요. 계절별로}

10317 #1 계절별.{계절별.}

10317 @1 아니 농사 농사별로.{아니 농사 농사별로.}

10317 @1 계절별로 여름에 용신 거시기는.{계절별로 여름에 농산 거세기는.}

10317 #1 아 검질메는디 인꼬 그 저.{아 김매는데 있고 그 저.}

10317 #2 제완.{제완.}

10317 #1 출 비는 거 여기서 그 큰나스로 파월 음녁 파월뜰 나며는 뺑로 지나며는 그때 이 출 비는 거. 하루 흐 사르미 흐 천 평도 비고 천 평.{꿀 베는 것 여기서 그 큰나스로 팔월 음력 팔월달 나면 백로 지나면 그때 이 꿀 베는 거. 하루 한 사람이 한 천 평도 베고 천 평.}

10317 @1 아 건 쉼 질룰 때 여쭈볼 께고양. 검질만. 초른 이따가.{아 그것은 소 키울 때 여쭈 볼 것이고요. 김만. 꿀은 이따가.}

10317 #2 검지른 여름에 다 대중은 제완지. 제완지 검지리 쉼 우터영으네 무신 거 허곡 이 거 올리는 진쿨 콩쿨 수에풀 그런 거게 보리밭떠는 납떠다게. 이 여름 푸른 안 나난. 시방은 제완지 보통으로 제완지 허곡 무신 독풀. 독푸렌 현 거. 시방은 그런 거. 처레 딱랑 나는 거난.{김은 여름에 다 대중은 바랭이. 바랭이가 김은 쉼 독해서 무슨 거 하고 이 겨울에는 별꽃 개불알풀 씌바귀 그런 것이 보리밭에는 나지요. 이 여름 풀은 안 나니까. 지금은 바랭이 보통으로 바랭이 하고 무슨 여우구슬. 여우구슬이라고 한 것 시방은 그런 거. 철에 따라서 나는 것이니까.}

10317 #2 겨울리는 대중 콩쿨 진쿨 수에풀 그런 거. 보리밭떠는.{겨울에는 대중 개불알풀 별꽃 씌바귀 그런 것. 보리밭에는.}

10309 @1 밀도 종류가 여러 가지 인쭈가?{밀도 종류가 여러 가지 있습니까?}

10309 #2 예. 밀도 두 가지. 여러 가지지 몰라도 우린 그자 거 불근 웨밀 허고 또 흰 그.{예. 밀도 두 가지. 여러 가지인지 몰라도 우리는 그저 그것 붉은 외밀 하고 또 흰 그.}

10309 @1 게난 그 밀 농사도 지어받꾸나예.{그러니까 그 밀 농사도 지어봤군요.}

10309 #1 예.{예.}

10309 @1 게민 그 밀 농사는 어떻 지음니까?{그러면 그 밀 농사는 어떻게 짓습니까?}

10309 #2 밀 농사는 보리나 똑ㄱ타.{밀 농사는 보리나 똑같아.}

10309 #1 미른 진짜 그건 쉼씨에 뿌렁 가는 거.{밀은 진짜 그것은 쉼씨에 뿌려서 가는 것.}

10309 @1 아 건 쉼씨에.{아 그것은 쉼씨에.}

10309 #2 보리나 똑ㄱ타.{보리나 똑같아.}

10309 @1 보리허고 똑가튼데 둔꺠름허지 안는 거시 차이가 인쭈가?{보리하고 똑 같은데 돼지 거름 하지 않는 것이 차이가 있습니까?}

10309 #1 예.{예.}

10309 #2 그거나.{그것이나 그것이나.}

10309 @3 그 밀 이르른 뭐 뭐마씨?{그 밀 이름은 무엇 무엇입니까?}

10309 #2 밀 이르른 미리엔 허나네 무신.{밀 이름은 밀이라고 하니까 무슨.}

10309 #1 그 연날 이디 토종미를 춤 불근 거. 그건만 가는 디 우리 가라나신디 그건 갈민 음식 만드라도 찢갈찢갈하게 찢기고 마시 조코 요즘 미른 우리 가라서 그거 허연 머거 보지 아녀난 몰르고.{그 옛날 여기 토종밀은 참 붉은 것. 그것만 가는데 우리 같았었는데 그것은 갈면 음식을 만들어도 쫄깃쫄깃하게 질기고 맛이 좋고 요즘 밀은 우리 같아서 그거 해서 먹어 보지 않으니까 몰르고.}

10309 #2 연나른 밀 가랑으네 이 크니리 나도 이젠 떡덜 안 먹쭈마는 동네뿐덜 막 모다정으네 정궤에서 이거 궤랑 기계 어시난.{옛날은 밀 같아서 이 큰일이 나도 이제는 떡들 안 먹지만 동네분들 다 모아져서 맷돌에서 이것을 갈아서 기계 없으니까.}

10309 #2 그거 궤랑으네 상워 피왕으네 빵 빵 피왕 그거 허영으네 이 영장반디도 먹꼭 뭐 헤나신디 이제는 뭐 그런 거 아녀나네.{그거 같아서 밀가루빵 부풀게 해서 빵 빵 부풀게 해서 그거 해서 이 장지에서 먹고 뭐 했었는데 지금은 뭐 그런 것 아니하고.}

10309 #2 모물쌀도 허영 궤랑으네 돌레떡 커영 아니 연나렌 어떠한 떠글 잘사 머거신디 이장받피도 문 돌레떡 켕으네 뜰더리 출려 가나 누게 출려 강으네 피려기우다 비역부찌미우다 허멍 매겨서. {메밀쌀도 해서 같아서 도래떡 해서 아니 옛날에는 어떻게마 떡을 잘 먹었는지 이 장지에도 모두 도래떡 해서 딸들이 차려 가나 누가 차려 가서 필역입니다 비역부침입니다 하면서 먹였어.}

10309 @3 무신 부찌 마씨?{무슨 붙이입니까?}

10309 #2 비역부찌.{비역붙임.}

10309 @2 피력.{필역.}

10315 @1 그 감저 농사는 진는 과정에서부터 끈내는 거까지 궤라쭈씨? {그 고구마 농사는 진는 과정에서부터 끝내는 것까지 말씀해주십시오.}

10315 @3 풀 때까지.{팔 때까지.}

10315 #1 감저는 종자를 땅 소게 무디땅 글로 영 저 뭐허영 공기통 세와그네 헤영 무디그넵 해받짜 공기 잘 통허지 아녀민 열 바다 쭈 썩는디 경해도 그거 썩따 남는 거 모중 놀 때는 쉼걸름 터다그넵에 받 다 양쪽더레 사브로 다 자쳐뵤 거기다 궤랑 이제 혹 더경 그다으메 그 감저 종자를 또 요만씩 거리 노명 다 허영 일췌허게 무덩 혹 더피그네.{고구마는 종자를 땅 속에 묻었다가 그리로 이렇게 저 뭐해서 공기통 세워서 해서 묻어 봤자 공기 잘 통하지 않으면 열 받아서 쭈 썩는데 그래도 그거 썩다 남은 것 모중 놀 때는 소거름 떠다가 받 다 양쪽으로 삽으로 다 헤쳐서 거기에 깔아서 이제 흙을 덮어서 그다음에 그 고구마 종자를 또 요만씩 거리 두면서 다 해서 일정하게 묻어서 흙 덮어서.}

10315 #1 경해도 출 나민 그 추를 이제 키우쟁 허민 거 오쭈항에 허영 오쭈 바당으네 향아리에 낱판 거 그거 췌기민 그거 뿌려췌 키와그네.{그렇게 하다가 줄기 나면 그 줄기를 이제 키우려고 하면 그것 오쭈항아리 해서 오쭈 받아서 향아리에 넣었든 것 그거 췌으면 그거 뿌려서 키워

.}

10315 #1 그다음에 여기 그때는 거 비료가 어시니까 빨리 안 크난 이월찌리엔 헤영 소서. 소서가 거이 가차 오라가민 모든 게 빨리 발똥허난 그때 됴든 거 끼차당 받 까랑 낱.{그다음에 여기 그때는 거 비료가 없으니까 빨리 안 크니까 이월절이라고 해서 소서. 소서가 거의 가까워 오면 모든 것이 빨리 발똥하니까 그때 되면 그것 끊어다가 밭 갈아서 심고.}

10315 #2 댕 댕새 압좌 낱쭈.{다 닻새 앞서 났지요.}

10315 #1 경헨 거 낱따그네 이땅 ㄱ무라불민 출 주거부는 수도 인꼬. ㄱ물질 아녕 제대로 됴미는 그거. {그렇게 해서 그거 심었다가 이따금 가물어서 줄기 죽어버리는 수도 있고. 가물지 않아서 제대로 되면 그거.}

10315 #2 감저 노첸 허민 받 초불 가랑 초불 가랑 이땅으네 또 놀 때는 두불 가는 거. 두불 가랑그네 출 이제 기치명 남자는 같고.{고구마 심으려고 하면 밭 초벌 초벌 갈아서 이따가 또 심을 때는 두벌 가는 것. 두불 갈아서 줄기 이제 자르면서 남자는 같고.}

10315 #1 번년 바시엔 헤영 초불 가랑 낱당. 두불 가랑 이젠 거기에 두불 갈민 병에도 폭씩커고 그 흑병뎡이가 어시니까. 그때는 감저를 영 축커게 뉘가는 거. 감저추를.{애벌갈이한 밭이라고 해서 초벌 갈아 두었다가 두벌 갈아서 이제는 거기에 두벌 갈면 벧밭도 푸석하고 그 흙뎡이가 없으니까. 그때는 고구마를 이렇게 죽 심어가는 거. 고구마 줄기를.}

10315 #2 경운기도 인쪽 차도 인쭈마는 엔나렌 감저꿀 등지므로 저가젠 얼마 지진 몬터곡 애기덜 허영으네 혼 단 지우민 씨러지명 시방 그 아이더령 엔말 곱앙. 아이고.(웃음){경운기도 있고 차도 있지만 옛날에는 고구마 줄기 그렇게 등짐으로 저가려고 하면 얼마 지진 못하고 아이들 해서 한 단 지우면 쓰러지면서 지금 그 아이들하고 옛날 말하고. 아이고.(웃음)}

10315 @2 그때는 두벧띠기 해야지예.{그때는 두벧갈이 해야지요.}

10315 #1 아 두벧띠기로 허는 사람도 인꼬.{아 두벧갈이로 하는 사람도 있고.}

10315 #2 두벧띠기{두벧갈이.}

10315#1 세벧띠기 허는 사람도 인꼬 그거 두벧띠기로 허며는 여기 땅에 감저 즐게 든뎡 허명 세벧뜨기로 가는 사람 인꼬.{세벧갈이로 하는 사람도 있고 그거 두벧갈이로 하면 여기 땅에 고구마 잘게 든다고 하면서 세벧갈이로 가는 사람 있고.}

10315 #1 경헤영 그거 허영 낱따그넵에 이젠 상강일이 뉘더가야 파는 거라.{그렇게 해서 두었다가 이제는 상강이 가까워서야 파는 거야.}

10315 #1 그때 됴든 파그넵에 그거 씨렁 폭는 사람도 인꼬 통감저로 폭는 사람도 인꼬 이젠 머글 꺼는 그 저네 좀 상강일 저네 미리 파당 다 저장을 해사. 그 땅 구뎡이 파그네.{그때 되면 파서 그거 썰어서 파는 사람도 있고 통고구마로 파는 사람도 있고 이제는 먹을 것은 그 전에 좀 상강일 전에 미리 파다가 다 저장을 해야. 그 땅 구뎡이 파서.}

10315 #1 구뎡이 팡 그거 잘허영 무드며는 무근헤ㄱ지 안 씨건뎡도 세헤에 낱그넵에 이월 뎡 낱 썩는 수가 시니까 그때 멍심허며는 또 다음 해 또 종자허고.{구뎡이 파서 그거 잘 해서 묻으면 묵은해까지 안 썩었다가도 새해에 나서 이월 달 나서 썩는 수가 있으니까 그때 멍심해서 또 다음해 또 종자하고.}

10315 @1 꾸뎡이를 팡양.{고구마 구뎡이를 파서요.}

10315 #1 예.{예.}

10315 @1 으프로 도라가게 뭘 짱 뭘 짱 놓니까?{옆으로 빙 둘러서 무엇을 짜서 무엇을 짜서 놓습니까?}

10315 #1 아 저 검질 세왕.{아 저 검불 세워서.}

10315 #2 또 가운데 발란 움탕허게 낭푸니 헨나 디달 마니 그레 또 해낭.{또 가운데 방향에 는 움푹하게 양푼 하나 들어갈 만큼 그리로 또 해 놔서.}

10315 #1 가운데.{가운데.}

10315 #2 낭께기 우터레 낭.{나뭇가지 위로 놔서.}

10315 #1 이 영 파그네 나무 영영 낭 검질 깎는 건 거기 솜통 저 습끼가 드러가든 거기로 고 이렌 그거 소게 꺼 파 노코.{이 이렇게 파서 나무 영영 넣어서 검불 까는 것은 거기 솜통 저 습 끼가 들어가면 거기에 고이라고 그것 속에 거 파 놓고.}

10315 @2 솜굴예?{솜구멍요?}

10315 #1 예.{예.}

10315 #1 경허고 또 그거 연통 세우는 사르미 인쥬. 거기로 공기 우터레 오르렌. 대나무로 요 영 헤영 요 정도 행 딱 싸놔그네. 거 쏘게 영 낭 우까지 세우민 거기로 그 감저 열 받는 거 거기로 올라오라블민 그거 두루 허는디 경허당 봐도 인땅 씨글 때가 셔.{그렇게 하고 또 그거 연통 세우는 사람이 있지요. 거기로 공기 위로 오르라고. 대나무로 요렇게 해서 요 정도 해서 딱 세워 서. 그것 속에 이렇게 놔서 위까지 세우면 거기로 그 고구마 열 받는 거 거기로 올라가면 그거 (씩는 것) 덜 하는데 그렇게 하다 봐도 이따금 썩을 때가 있어.}

10315 @1 계난 여페는 찌글 으끄지 아녕 세웁니까?{그러니까 옆에는 짚을 엮지 않아서 세웁 니까?}

10315 #1 예 그대로.{예. 그대로.}

10315 #2 그자.{그저.}

10315 #1 그대로.{그대로.}

10315 @1 찌근 뭇엔 헤마씨? 으끄지 아녕 엽띠레 논 건.{짚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엮지 않고 옆에 놓은 것은.}

10315 #2 거는 찌근게 새 비어 오미는 썰 세우나 경 아녀민 새 어스민.{그것은 짚은요 띠 베 어오면 띠를 세우나 그렇지 않으면 띠 없으면.}

10315 #1 조척또 세우고.{조짚도 세우고.}

10315 #1 조찍도 세우고.{조짚도 세우고.}

10315 @1 세우고.{세우고.}

10315 #2 어욱또 예.{억새도 예.}

10315 @1 어욱또 세우고.{억새도 세우고.}

10315 #2 요새.{요새.}

10315 #1 계영 거 세왕 영 누르뎡 노뎡 혹 영 올리는 거난.{그래서 그것 세워서 이렇게 둘러

흙 이렇게 올리는 것이니까.)

10315 @1 누르짱 혹 올려양.{눌러서 흙 올리나요?}

10315 #1 예.{예.}

10315 @1 혹 우의 또 짝 여꺼그네.{흙 위에 또 짚 엮어서.}

10315 #1 아 그건.{아 그것은.}

10315 #2 느람지.{이영.}

10315 #1 새 여깁 헨 거 느람지라고 거 더뜨지 아녀민 물 드니까.{띠 엮어서 한 것 이영이라고 그것 덮지 않으면 물 드니까.}

10315 @1 느람지?{이영?}

10315 #1 예.{예.}

10315 @1 그다음 느람지 가운데 또.{그다음 이영 가운데 또.}

10315 #1 주지.{주저리.}

10315 @1 주지.{주저리.}

10315 #2 이젠 우 무경으네 뱅뱅뱅뱅허게 짱 자바댕기는 거.{이제는 위 묶어서 빙빙빙빙 하게 짜서 잡아다니는 것.}

10315 @1 여폐도 새를 여꺼그네 지금 시그로 허민양. 경허진 아녘니까? 기냥 역찌 아녘 탁탁 **. {옆에도 띠를 엮어서 지금 식으로 하면요. 그렇진 않습니까? 그냥 엮지 않고 탁탁 **.}

10315 #1 아 그대로 영 세와.{아 그대로 이렇게 세와.}

10315 @1 바 바로 세와. 아.{바 바로 세와. 아아.}

10315 #1 예.{예.}

10315 #2 우의 더끄는 거만 도라가명 더끄는 거만 느람지헤그네 새 비어당으네 누르는 거. {위에 덮는 것만 돌아가면서 덮는 것만 이영해서 띠 베어다가 누르는 것.}

10315 #1 계난 건 여끄지 아녘 세와사 우의로 그 겨우레 먹꼬 시픈 때 파 먹따 보며는 그거 시 덤방허며는 그거 더러 뺄바뵙 또 내려가고 내려가고.{그러니까 그건 엮지 않고 세와야 위로 그 겨울에 먹고 싶은 때 파 먹다 보면 그것이 덤방하면 그거 더러 빼두고 또 내려가고 내려가고.}

10315 @1 게 주 농스가 보리 조 밀 감저. 주 농사가예?{그래 주 농사가 보리 조 밀 고구마. 주 농사가요?}

10315 #1 예.{예.}

10315 #2 모믈.{메밀.}

10315 @1 모믈.{메밀.}

10315 @1 피도 피는 거 서경허는 거고.{피도 피는 그것 섞어서 하는 것이고.}

10315 #1 으피 아 핀 조에 서꺼그넵에 잘 안 뵈는 받띠.{옆에. 아 피는 조에 섞어서 잘 안 되는 받에.}

10315 #2 피만도 허곡 허는디 서경 헨 거는 거린날레라고 피 혼착 영 즈깁 이딘 옆피곡 이디 심쪽 툃젠허며는 막 구집니다.{피만도 하고 하는데 섞어서 한 것은 거린 날레라고 해서 피 한쪽

옆구리에 끼워서 여기는 옆이고 여기는 심고 따려고 하면 막 곳지요.}

10315 #2 거리엔 거린날레엔 허멍.{거리라고 거린 날레라고 하면서.}

10315 #2 피영 조영 서경 가라노민.{피하고 조하고 섞어서 갈면.}

10315 #1 게문 피가 드리가는 바순 나쁜 밭. 저 물 물 줌 고이고 허니까 피는 무레 잘 전디는 거난 그거 거기 서꺼부는 거.{그러면 피가 들어가는 밭은 나쁜 밭. 저 물 물 줌 고이고 허니까 피는 물에 잘 전디는 것이니까 그거 거기 섞어버리는 것.}

10315 @1 게니까 피가 주 농사는 아니고.{그러니까 피가 주 농사는 아니고.}

10315 #1 예. 거는 물 무레 잘 전 전디는 그 장물이니까 그건 조에 서경으네 허당 물 고이민 피라도 나쁘렌 거 피 서끄는 거.{예. 그것은 물 물에 잘 전디는 그 작물이니까 그것은 조에 섞어서 하다가 물 고이면 피라도 남으라고 그것 피 섞는 것.}

10318 @1 이 보리와 밀을 수화글 헤영양. 수화글 헤여 그 비여. 비여 가지고 그 비여 가지고 쌀 만들 때까지에 과정을 마라줍써?{이 보리와 밀을 수확을 해서요. 수확을 해서 그 베서. 베서 그 베서 쌀 만들 때까지의 과정을 말씀해 주십시오.}

10318 #2 쌀 미른 저 날꼬기 하영 안 나주게.{쌀 밀은 저 날이 많이 나지 않지요.}

10318 #2 미른 거 쌀만치 나는 거 아니난.{밀은 그것 쌀만큼 나는 것이 아니니까.}

10318 @1 게문 보리 보리 헤그네 하여간 비여그네양 쌀 만들 때까지에 과정예.{그러면 보리 보리 해서 하여튼 베서 쌀 만들 때까지의 과정요.}

10318 #2 보린 비여 노민 영 허영으네.{보리는 베어 놓으면 이렇게 해서.}

10318 #1 비여봐그네예.{베어 놓아서.}

10318 #2 무경.{묶어서.}

10318 #1 혼 이틀 몰량. 그때는 무경으네게. 무경.{한 이틀 말려서 그때는 묶어서. 묶어서.}

10318 #2 인치게 보리클 이선게게 우리는 그때 시저렌 보리클로 거 홀탄쥬 뭐.{아까 그네 있던데 우리는 그때 시절에는 그네로 그거 훑었지 뭐.}

10318 #2 영 혼 사르문 저바주고 혼 사르문 마트곡 커영 작작 홀탕으네 이젠 그거 허영.{이렇게 한 사람은 집어주고 한 사람은 말고 해서 작작 훑어서 이제는 그거 해서.}

10318 #1 거 홀타 노민 마당예.{그것 훑어 놓으면 마당예.}

10318 #2 이제 홀타 노민 도끼로 마당예 두드려사.{이제 훑어 놓으면 도리깨로 마당에서 두드려야.}

10318 #1 너령 도끼로 때령. 도끼로 거 마당지리엔 헤영 푸쥬 거 때려노민 사르미 그때 그 고생이 그 마스락 그거 날라노며는 모미 다 꺼립꼭 날리나는 건디 경해도 그걸 헤사.(웃음){널어서 도리깨로 때려서. 도리깨로 그것 마당질이라고 해서 푸새 그거 때리면 사람이 그때 그 고생이 그 까끄라기 그거 날리면 몸이 다 꺾끄럽고 난리 나는 것인데 그래도 그것을 해야.(웃음)}

10318 #2 그거 허영 경허영 두드령 이젠.{그거 해서 그렇게 해서 두드리고 이제는.}

10318 #1 게민 거 다 두드려노민 바라미나 이시민 그걸 불릴 켜디.{그러면 그거 다 두드려놓으면 바람이나 있으면 그것을 불릴 텐데.}

10318 #2 바람.{바람.}

10318 #1 어시몬 그러케도 문제라.{바람 없으면 그렇게도 문제야.}

10318 #2 끄성 텅기명 흐물 브름 신 디 강 거 불령.{끌고 다니면서 사뭇 바람 있는 데 가서 그걸 불려서.}

10318 #2 물콧그넨 이젠 그거를 또 기계빵 그루 후제사 선쭈. 기계빵 어스난 인치게 물궤 이디 신 거세 헤영으네.{말려 이제는 그것을 또 방앗간 그 이후에야 있었지. 방앗간 없으니까 아까 연자매 여기 있는 것에 해서.}

10318 #1 물궤에 물 치대기명 거 서경.{연자매에 물 끼었으면서 그거 섞어서.}

10318 #2 물궤.{연자매.}

10318 #1 거.{그거.}

10318 #2 동네마다 동아리 헤영으네 물궤렐 허주. 경허미는 그 궤렐쭈룩 물궤렐쭈룩커영으네.{동네마다 동아리 지어서 연자매를 하지. 그러면 그 연자매 자루 연자매 자루 해서.}

10318 #1 그 집꾼만 걷또 해서.{그 계원만 그것도 해서.}

10318 #2 집꾸니 도라가명 그걸 안따날땅으네 이젠 우리 오늘 굴 물궤 굴켜 허영 허민 세베기 보리 흐 솔빱 안땅으네 물 헐 빠다게 툭 비왕 심는 거라. 이녀 헐 꺾.{계원이 돌아가면서 그것을 가져다 왔다가 이제는 우리 오늘 갈 연자매 갈겠다고 해서 하면 새벽에 보리 한 나무바가지 가져다가 연(자매)할 바닥에 툭 비워 잡는 거야. 이녀 할 것을.}

10318 #2 (웃음) 거 시머냥 허미는 흐쭈 므리나 신 사르문 그 물궤에 강 물 메왕 허려 허명 꺼닥꺼닥 굴주마는. 경 아녀민 에기더리라도 드랑강 베로 허영 문 지왕 뱅뱅 도랑으네 그거. 그 물허영으네 적피명 보리 거려노명 썰명 헤영 허민 궤라가민 물 적쟁 궤라가민 부각킨 체가 나주게.{그거 잡아와서 하면 조금 말이나 있는 사람은 그 연자매에 가서 말을 메와서 어려 하면서 꺼닥꺼닥 갈지만. 그렇지 않으면 아이들이라도 데려가서 참바로 해서 모두 지게 해서 뱅뱅 돌아가면 그것. 그 물 해서 적시면서 보리 떠놓으면서 쓸면서 하면 방아를 쪼어 가면 물 적시면서 갈면 부각한 겨가 나지요.}

10318 #2 부각킨 체가 나미는 이젠 그거 궤라당으네 마당에 이젠 멍서게 문 물콧.{부각한 겨가 나오면 이제는 그것을 갈아다가 마당에 이제는 멍석에 모두 말려.}

10318 #2 이젠 또 체 불려튀으네 그거 따시 두번 잘허는 사르문 두 번 경 물방에 강으네 궤랑허곡 경 아녀 사르문 정궤에 허영 쏘 벌령으네 대체로 그 노물 영영 치명. 그 대체에.{이제는 또 겨 불려두고 그거 다시 두번 잘하는 사람은 두 번 그렇게 연자매에 가서 갈아서 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멍돌에 해서 쌀은 쪼개서 대체로 그 놈을 영영 치면서. 그 대체에.}

10318 #1 홀근 쫄른 일등푸미고 그다으문 이등품 스테기가 나오니까. 경헤도 그걸 다 머거 머거야 돼니까.{굵은 쌀은 일등품이고 그다음은 이등품 싸라기가 나오니까. 그렇게 해도 그것을 다 먹어 먹어야 하나까.}

10318 #2 계난 줍쭈 안 나오게 스테기 그자 중엘쭈로 문 궤라사 그건 처사.{그러니까 싸라기 안 나오게 싸라기 그저 중간 쌀로 모두 갈아야. 그것은 처야.}

10318 #2 경허영 허곡. 이젠 춤 기계빵에 가나네 이젠 보리썰리 통보리썰리 튀영으네 흐물 곤밥. 쉼뻬는 그거 헤가난 아이고야 곤밥 달마라. 곤밥 달마라 얼마나 허영.{그렇게 해서 이제는 참

가니까 이제는 보리쌀이 통보리쌀이 되 서 사뭇 흰밥. 그거 해나니까 “아이고야, 흰밥 같더라 흰밥 같더라 얼마나 해서.”

10318 #2 요러케 가간 보리쌀 남젠 허나넨 막 취미가 나남쥬.{요렇게 깎은 보리쌀 난다고 하니까 막 취미가 났었지요.}

10318 #2 경허난 그때 시저레는 또 이젠 이치록 어디 상을 만나나 잔칠 허나 이 돈 뿌주가 어스나넨 무쫘건 허고 향 그드게 뇌될땅 어디 헌텐허믄 쏘 부주 구더게 들렁 그거를 막 어디 친족 까나나 보딘 뉘 스촌 간이나 아닌 거는 경헌 디는 곤쑈.{그렇게 하니까 그때 시절에는 또 이제는 이처럼 어디 상을 당하나 잔치를 하나 이 돈 부조가 없으니까 무조건 향아리 가득하게 담아 두었다가 어디 한다고 하면 쌀 부조 바구니에 들어서 그것을 막 어디 친족 간이나 가까운 뉘 사촌 간이나 아닌 것은 그렇게 한 곳엔 흰쌀.}

10318 #2 경 아넝 보리쌀 행으네 율구리 쟁으네 다 부지로 이 믋을 펜다블 허는 거라.{그렇게 하지 않고 보리쌀 해서 옆구리에 끼어서 다 부조로 이 마을 편답을 하는 거야.}

10318 #2 춤 명칭허짐도 경도 명칭.{참 명칭함도 그렇게도 명칭.}

10318 @1 그때 곤쑈은 산디쓰리우파? 나룩쓰리우파?{그때 흰쌀은 발벼쌀입니까? 볍쌀입니까?}

10318 #2 예.{예.}

10318 #1 산디쑈.{발벼쌀.}

10318 @1 산디쑈?{발벼쌀.}

10318 #1 나룩쓰리엔 헌 건 이 저 언제라. 저 언제 돼야. 칠썸 년 너머서 언제부터 나룩쓰리지. 저 그때도 나룩쓰리 아니라 저 알랑미 저 쫘랑쫘랑헌 거.{볍쌀이라고 한 것은 이 저 언제야. 저 언제 되어야. 칠십년 넘어서 언제부터 볍쌀이지. 저 그때도 볍쌀 아니라 저 안남미 저 쫘랑쫘랑헌 거.}

10318 @3 정부미.{정부미.}

10318 #1 예.{예.}

10318 #2 저거 알랑미 쓰른 저 무신 거세 나온 거. 내용살 팍 허고.{저거 안남미 쌀은 저 무슨 것에 나온 거. 냄새 확 하고.}

10318 #1 그거 조금 이서나고 그지후에 나룩쑈 우리가 굴리멍 머글 때는 오래지도 안코.{그거 조금 있었었고 그 후에 볍쌀 우리가 가리면서 먹을 때는 오래지도 않고.}

10318 @1 게난 그 쓰를 구분힐 때는 나룩쑈 산디 저 산디쑈 허지 아너우까양?{그러니까 그 쌀을 구분할 때는 볍쌀 발벼 저 발벼쌀 하지 않습니까?}

10318 #1 예.{예.}

10318 @1 건디 요거 다는 곤쑈 아니우파?{그런데 요거 다는 흰쌀 아넝니까?}

10318 #1 예. 무조건 건 저 그 흰쓰른 곤쑈. 이거는.{예 무조건 그것은 저 그 흰쌀은 쌀. 이것은.}

10318 @1 예예.{예예.}

10318 #1 나룩쓰리든.{볍쌀이든.}

10318 #2 .{중간에.}

10318 #1 산디쓰리든.{발벼쌀이든.}

10318 #2 대만미엔 허멍 동글동글헌 쏘 나와나신디 그건또 밥 거시기 헌. 이젠 그런 쏘 안 나와. 동글락동글락 알랑미 마랑 동글락동글락 헌 거 나와디. 막 거세 거세영 보리쏘마니도 모터텐 허멍 해나고. 이제는 춤 쏘 잘 나오란 멍는다.{대만미라고 하면서 동글동글한 쏘 나왔었는데 그것도 밥 거시기 헌. 이제는 그런 쏘 안 나와. 동글락동글락 안남미 말고 동글락동글락한 거 나왔는데. 막 거세 거세어서 보리쌀만큼도 못하다고 하면서 했었고. 이제는 참 쏘 잘 나와서 먹는데.}

10318 @1 이제는 산디양. 산디 비여그네 아까ㄴ치 쏘 만드는 디까지 과정?{이제는 발벼요. 발벼 베서 아까처럼 쏘 만드는 데까지의 과정?}

10318 #2 산디도게.{발벼도요.}

10318 #1 산디도 비며는 물리와그녕에 그러케 해다냥.{발벼도 베면 말려서 그렇게 해다 놓고.}

10318 #2 보리 ㄴ뜨는. 홀트는.{보리 같은. 훑는.}

10318 #1 보리클 어신 때는 이 찻찻끼로 헉나 헉나.{그네 없을 때는 이 벼훑이로 하나 하나.}

10318 #2 찻제기로 홀탕도.{벼훑이로 훑어서도.}

10318 #1 홀탕도 해나고.{훑어서도 했었고.}

10318 #2 또 쯤쯤허게 이만씩 이만씩 무꿍니다. 이만씩. 이만씩 무꿍 마당에 쯤쯤쯤쯤쯤 쯤 쯤왕으네 도께로 기냥 확각 후리미는 살락살락 터러집니다게. 또 또 그 다늘 둘러노록. 또 베리쌍 둘러노록 케영 서너 네 번 둘러노며은 판씩 터러집니다. 단차.{또 자잘하게 이만씩 이만씩 묶습니다. 이만씩. 이만씩 묶어서 마당에 차근차근차근차근 퍼서 도리깨로 그냥 확 후리치면 살락살락 떨어지지요. 또 또 그 단을 뒤집어놓고 또 벌려서 뒤집어놓고 해서 서너 네 번 뒤집어 놓으면 깨끗이 떨어지지요. 단재.}

10318 #2 다는 크게 무끄민 쏘게 꺼 알로 베려지난. 경 헤영도 헤 먹꼬. 거 산디 장만허는 건 또 으라 가지.{단은 크게 묶으면 속에 것 아래로 보이니까 그렇게 해서도 해 먹고. 그것 발벼 장만하는 것도 여러 가지.}

10318 #1 산디 장마니 비교적 쉽쥬. 그게 저 깁스락 꺼 꺼립찌 아녀니까. 게곡 겨울처렌 사느라오니까.{발벼 장만이 비교적 쉽지. 그것이 까끄라기 꺾 꺾끄럽지 않으니까. 그리고 겨울철엔 사느러우니까.}

10318 #1 게 산디 장마는 그거 쉬운 거고. 그거 허민 이 산디는 너런땅 언제민 저걸 ㄴ라당 곤밥 흔 번 행 머글 꺾고 허당. 그거.{그거 발벼 장만은 그것 쉬운 것이고. 그것 하면 이 발벼는 널었다가 언제면 저것을 갈아다가 쌀밥 한 번 해서 먹을 것인가 하다가. 그거.}

10318 #2 경허민 그건또 폭랑으네 초네서 허미는 도니주.{그렇게 하면 그것도 팔아서 촌에서 하면 돈이지.}

10318 #1 폭라불주게. 거 먹찌도 아녕.{팔아버리지. 그것 먹지도 않고.}

10318 #2 아이덜 생일 때나 곤쏘 넣으네 그 바쟁 주곡 경 아녀민 스테기나 바쟁 주곡. 이거는 폭랑으네 이 돈 보테영 바시나 사저 췌나 사저. 그거 무신 때로 거 먹췌 경. 아이구.{웃음}{아이

생일 때나 흰쌀 넣어서 그 밥해서 주고 그렇지 않으면 싸라기나 밥해서 주고 이것은 이 돈 보
태서 밭이나 사자 소나 사자. 그거 무슨 끼니로 그것 먹으려고 그렇게. 아이구.(웃음)}

10318 #1 계란 요즈믄 존 거 봐지민 먹젠 해주마는 그 저넨 존 거 봐지민 무조건 프라야. 돈
버슬젠.{그러니까 요즘은 좋은 거 보이면 먹으려고 하지만 그 전에는 좋은 것 보면 무조건 팔아
야. 돈 벌려고.}

10318 #1 여기서 계란도 나민 먹찌 안코 다 프라시난.{여기서 달걀도 낳으면 먹지 않고 다
팔았으니까.}

10318 #1 요즈믄 사당 머거부는데 그거.(웃음) {요즘은 사다 먹는데 그것.(웃음)}

10318 #2 초네는 득 질루난 그 득께기도 경 맘 조콕. 아이더리라도 기자 춤 유월절 웨미는 그
거 흔 머리 혼차 자방 머그라 머그라 허멍 그치룩 허영 머금도 허곡 헨는다. 요샌 딱근 연날 득
담찌 아녕 맘또 어시난.{촌에는 닭 키우니까 그 닭고기도 그렇게 맛 좋고. 아이들이라도 그저 참
유월절 되면 그것 한 마리 혼자 잡아서 먹어라 먹어라 하면서 것처럼 해서 먹기도 하고 했는데.
요새 닭은 옛날 닭 같지 않아서 맛도 없으니까.}

10318 @2 지냉이 머근 득기 맘 쪼아마씨? {지네 먹은 닭이 맛 좋습니까?}

10318 #2 예. 아 경헌 월씬 맘 존 거 알아져.{예. 아니 그렇게 한 것이 훨씬 맛 좋은 것 알
수 있어.}

10318 #1 시방 득기라도 영 낳 질람시민 헐 낀디 이거 하우스 안네 질룬 득기 아주 득내깁장
몬져 콕 헤민.{지금 닭이라도 이렇게 놓아서 키우면 할 것인데 이거 하우스 안에 키운 닭이 아주
닭내까지 먼저 콕 나면.}

10318 #1 요즘도 연날치룩 이디 그냥 푸러냥 질람시민 맘존 거 나오주기.{요즘도 옛날처럼
여기 그냥 풀어놔서 키우고 있으면 맛 좋은 거 나오지요.}

10318 #1 요즈믄 흥덜 몸털꺼라구만. 고냉이가 만코 세상 께 마네난.{요즘은 하질 못하겠더구
만. 고양이도 많고 세상 것이 많으니까.}

10318 @1 이제 게민 보리나 미를 쓸 장만할 때 아까 좁찌기 좁찌기?{이제 그러면 보리나 밀
을 쓸 장만할 때 아까 벼훤이 벼훤이?}

10318 #2 으.{으.}

10318 #1 거 산디. 접찌기로 홀튼 건 산디.{그것 발벼. 벼훤이로 훤은 것은 발벼.}

10318 @1 산디는 좁찌기로 홀트고. 보리는?{발벼는 벼훤이로 훤고. 보리는?}

10318 #1 또 산디 홀튼 때 또 첨망 영 어퍼냥 그거세 낳도 영영 홀터나고. 산디.{또 발벼 훤
을 때 또 챗바퀴 이렇게 엮어 놓아서 그것에 넣어서도 이러이러하게 훤었고. 발벼.}

10318 @1 친막 어퍼냥마씨?{친막 엮어 놔서요?}

10318 #1 #2 아니. 저.{아니 저.}

10318 #1 첨망이라고 저.{챗바퀴라고 저.}

10318 @1아 첨망. 첨망 예예.{아 챗바퀴. 챗바퀴 예예.}

10318 #1 그걸로도 홀타나고.{그것으로도 훤어나고.}

10318 #2 산딘 잘 홀타지는 거난 아무 걸로 영 지둘라도 영 동기믄.{발벼는 잘 훤어지는 것

아무 것이라도 이렇게 지질러서 이렇게 당기면.}

10318 @1 아아.{아아.}

10318 #2 작작 홀타지주게.{작작 훑어지지.}

10318 #2 계난 보리클.{그러니까 그네.}

10318 #1 계난 보리클 난 후제사 그걸 허난.{그러니까 그네 나온 후에야 그것을 하니까.}

10318 #2 보리클도 언쪽 허난게.{그네도 없고 하니까.}

10318 @1 계난 보리클로는 기냥 뭐 산디든 보리든 다 이용하고양?{그러니까 그네로는 그냥 뭐 밍벼든 보리든 다 이용하고요?}

10318 #2 엉기게 엉긴 거는 산딘 몸 털 꺼주마는 흥쓸 줌진 거는.{성기게 성긴 것은 밍벼는 못 할 거지마는 조금 자잘한 것은.}

10318 #1 걷또 그 보리클도 두 가지라시나네 연날 그 보리만 홀트는 저 꺾뽀리만 홀트는 건 트맹이가 널버서.{그것도 그 그네도 두 가지였으니까 옛날 그 보리만 훑는 저 꺾보리만 훑는 것은 틈이 넓어서.}

10318 @1 널뽀꼬.{넓었고.}

10318 #1 줄보릴 홀트젠 허든 자꾸 새라부러.{맥주보리를 훑으려고 하면 자꾸 새어.}

10318 @1 새어볼고예.{새고요.}

10318 #1 계난 그 중에는 아까 크레 뭐 보이는 거 거 저 철판 오린 거.{그러니까 그 가운데는 아까 그네에 뭐 보이는 것 거 저 철판 오린 것.}

10318 @1 예예.{예예.}

10318 #1 그런 클 나온 후제는 아무 거나 홀트곡.{그런 그네 나온 후에는 아무 것이나 훑고.}

10318 @1 그 다오메 이제 도깨질허는 거는마씨?{그다음에 이제 도리깨질하는 것은요?}

10318 #1 그 홀타냥그닝에.{그 훑어 놓아서.}

10318 @1 홀타냥.{훑어 놓아서.}

10318 #1 마당에서 물류명 나저넨 물류고 날투젠 마당질 도깨질 허곡.{마당에서 말리면서 오전엔 말리고 오후에는 도리깨질 하고.}

10318 @1 콩이나 팟시나 궤는. 계민 무조건 궤?{콩이나 팟이나 참개는. 그러면 무조건 참개?}

10318 #2 궤는?{참개는?}

10318 #1 아니 궤는 세왓땅 물르든 그자 꺼꾸로 들렁 소느로만 녀 떠러도 다 떠러지고.{아 참개는 세웠다가 마르면 그저 거꾸로 들어서 손으로만 이렇게 떨어도 다 떨어지고.}

10318 #2 도개로 팟시나 콩은 도개로 이 그계 어성은 다 도개로.{도리개로 팟이나 콩은 도리개로 이 기계 없어서는 다 도리개로.}

10318 @1 아 도개로 두드리고예.{아 도리개로 두드리고요.}

10318 #2 경허난 이젠 이 경운끼 시난 요새는 경운기로 *쭈마는 그때는 그런 거시 언꼬 원츄 도개로베긴 헤 볼 거세기가 어설쭈.{그러니까 이제는 이 경운기 있으니까 요새는 경운기로 *지만 그때는 그런 것이 없고 원 참 도리개로밖엔 헤 볼 거시기가 없었지.}

10318 @1 인꼬양?{벼훤이도 있고요?}

10318 #1 홀태?{벼훤이?}

10318 #2 좁제기 게문 그다으메 클 보리클량?{벼훤이. 그러면 그다음에 그네 그네요?}

10318 #1 예.{예.}

10318 @1 그걸 산디클 나로크리넨 아넘니까?{그것을 발벼 그네 발벼 그네라고는 않습니까?}

10318 #1 거 거 나로크리넨 헨 따시 나온 거시 줌진 거.{그것 그것 그네라고 해서 다시 나온 것이 자잘한 것.}

10318 @1 아 그게 줌진 겨우파?{아 그것이 자잘한 것입니까?}

10318 #1 그저네 보리크렌 헨 거는 그 여기 그 꺾보리 홀트는 거니까 이디가 망 널버노니까 그냥 빠져부러.{그전에 보리그네라고 한 것은 그 여기 그 꺾보리 훤는 것이니까 여기가 마구 넓으니까 그냥 빠져버려.}

10318 @1 게미는 산디클 쓸 만들젠 허머는 그 아까 뭐 네 종류? 이제 쓸 쓸 만들 때 켈 큰 거시 체마씨?{그러면 발벼를 쌀 만들려고 하면 그 아까 뭐 네 종류? 이제 쌀 쌀 만들 때 켈 큰 것이 겨예요?}

10318 #1 아 켈뻐 나온 거 체.{아 첫 번 나온 거 겨.}

10318 @1 체.{겨.}

10318 #1 그다음 나온 거 저.{그다음 나온 것 저.}

10318 #2 보미.{쌀겨.}

10318 #1 보미.{쌀겨.}

10318 @1 보미.{쌀겨.}

10318 #1 으.{으.}

10318 #2 그다음 나온 두 번차 거 거 보미에 서꺼지주. 소레기는.{그다음 나온 두 번째 것 그 것 쌀겨에 섞여지지. 싸라기는.}

10318 @1 아 스레기?{아 싸라기?}

10318 #1 으. 그걸 따시 체로 쳐야 스레기가 그디서 골라 아상 밥행 먹을 꺼. 스레기로.{으. 그것을 다시 체로 쳐야 싸라기는 거기서 골라 가져서 밥해서 먹을 거. 싸라기로.}

10318 @1 보리나 산디나 똑그트파?{보리나 발벼나 똑같습니까?}

10318 #2 예. 아니 보리는 기축 아녕 허는 거. 보리는 저 기자 건 정그레에 그랑 허는 거난. 정그레에 킬멍 체로 치는 거. 거나네 건.{예. 아니 보리는 것처럼 앓고 하는 거. 보리는 저 그저 그것은 멧돌에 갈아서 하는 것이니까. 멧돌에 갈면서 체로 치는 거. 그러니까 그것은.}

10318 @1 게문 보리는 체 인꼬 쓸 인꼬 그 가운데 건 위우파?{그러면 보리는 겨 있고 쌀 있고 그 가운데 것은 뭇니까?}

10318 #2 저 산디는 정그레는 몬 골주.{저 발벼는 멧돌에는 못 갈지.}

10318 @1 몬골고예.{못 갈고요.}

10318 #2 방애에 지나 물고레에 그나 헤사.{방애에 짚으나 연자매에 가나 해야.}

10318 @1 예예.{예예.}

10318 @2 등계꼬르는 어디서 나와마씨?{아까 보릿겨는 어디서 나오니까?}

10318 #1 보리에서.{보리에서.}

10318 #2 보리에서 나오고 그 보미엔 흰 거 등계 산디에도 등계꼬르광 ㄱ튼 거주게.{보리에서 나오고 그 쌀겨라고 한 것 보릿겨 발벼에도 보릿겨와 같은 거지요.}

10318 @1 보미도 등계꼬르 ㄱ튼 거우파?{쌀겨도 보릿겨 같은 것입니까?}

10318 #2 그저 거지 ㄱ튼 거.{그저 거의 같은 것.}

10318 @1 보미와 등계꼬르가 나뉘진 안코 그냥 그게 그거우파?{쌀겨와 보릿겨가 나뉘진 았고 그냥 그것입니까?}

10318 #2 산 저 산디는 보미로 곧꼭 이 보 저 보리에는 등계꼬르.{산 저 발벼는 쌀겨로 말하고 이 보 저 보리에는 보릿겨.}

10318 @1 등계꼬르 아아.{보릿겨 아아.}

10318 @3 보미는 안 먹찌마는 등계꼬르 머거나지 아녀쭈가?{쌀겨는 안 먹지만 보릿겨는 먹었었지 았습니까?}

10318 #1 예. 등계꼬르 여기서 그 저 무신 떠기엔 허영 될 떠긴가? 그거.{예. 보릿겨는 여기서 그 저 무슨 떡이라고 해서 무슨 떡인가? 그거.}

10318 @3 췌기?{췌기?}

10318 #1 그거 그 떡케연 멘드란쭈.{그거 그 떡 해서 만들었지.}

10318 #2 이 그걸또 이 저 그게 나네 가끔 시작컨후제 곱게 나온 거 머건쭈. 정 ㄱ레에 ㄱ랑 거핀 거는 몬 머거.{이 그것도 이 저 기계 나서 깎기 시작한 후에 곱게 나온 것 먹었지. 맷돌에 갈아서 꺾질 벗긴 것은 못 먹어.}

10318 @2 어렸을 때 거 머거뻐 거 가튼데.{어렸을 때 그것 먹었던 거 같은데.} (웃음)

10318 @2 건 무슨 떡.{그것은 무슨 떡?}

10318 #2 예.{예.}.

10318 @2 돌레떡?{도래떡?}

10318 #2 돌레떡.{도래떡.}

10318 #1 그 떠기 지금 혼 오십 때까지 머거실 켜디.{그 떡이 지금 한 오십 살까지는 먹었을 텐데.}

10318 @3 췌기엔 험니까? 그 떡 이름.{췌기라고 하나요? 그 떡 이름.}

10318 #2 아 밀 미른 미래 꺼는 췌기떠기고.{아 밀 밀은 밀에 것은 췌기떡이고.}

10318 #2 미래는 그때는 밀로 허영으네 풀도 허영으네 영 켄땅 그걸 켄땅으네 풀 꺾찌랑으네 그거 곱게 나온 거는 풀 풀 허곡.{밀에는 그때는 밀로 해서 풀도 해서 영 담갔다가 그것을 담갔다가 풀 짜서 그거 곱게 나온 것은 풀 풀 하고.}

10318 #2 그 췌기떡 풀췌기떡 풀 할 때에 연나른 팔월만 나도 막 빨레허영으네 학생덜도 스 문 풀 해주고 어른덜도 그 온턴디.{그 췌기떡 풀췌기떡 풀 할 때에 옛날은 팔월만 나도 막 빨레 해서 학생들도 사뭇 풀 해주고 어른들도 그 옷 했는데.}

10318 #2 췌기떠겐 헤영 그거.{췌기떡이라고 해서 그거.}

10318 #2 상웨떡도 허며는 곧그르는 상웨고 두 번차 그르는 췌기떡.{또 상화떡도 하면 부드러운 가루는 상화떡이고 두 번째 가루는 췌기떡.}

10318 #2 음. 게 비삭비삭 해도게.{음. 그것 부서부석 해도.}

10318 #2 상웨떡 상웨떡 허는 게 그때는 원료가 여기 저 순다리엔 헐쭈. 그 막걸리 원료. 순다리를 밥 써긴 거 그 누룽 놔그넝에 놔두민 빠글빠글 케민 그 물 떼어낭 그 그르 놔그넝에 떡커민 떠기 부푸러오르니까 그때는 건 상웨떡.{상화떡 상화떡 하는 것이 그때는 원료가 여기 저 순다리라고 했지. 그 막걸리 원료. 순다리를 밥 삭힌 것 그 누룩 놔서 두면 빠글빠글 괴면 그 물 떠놓고 그 가루 넣어서 떡 하면 떡이 부풀어 오르니까 그때는 그것을 상화떡.}

10318 @1 상웨떡.{상화떡.}

10318 #1 밀그르로 헐 거.{밀가루로 한 것.}

10318 @1 밀그르 헐거예.{밀가루로 한 거요.}

1.3.3. 겨우살이

10319 @1 방에 종류. 절귀까지 포함헤영양.{방아 종류. 절구까지 포함헤서요.}

10319 #1 예.{예.}

10319 @1 방에 종류는 어떤 거시 이설쭈가?{방아 종류는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10319 #1 여기는 원 그대로 방에. 이만이 큰 거.{여기는 원 그대로 방아. 이만큼 큰 것.}

10319 #2 방에.{방아.}

10319 #1 나무통.{나무통.}

10319 @1 나무통?{나무통?}

10319 #2 그 큰 통허며는 안네 해노코.{그 큰 통하면 안에 해놓고.}

10319 #1 안네는 저 방에호기엔 허영 돌 돌통으로 되어 인는 거.{안네는 저 방아확이라고 해서 돌 돌통으로 되어 있는 것.}

10319 #2 방에 지는 사르른 네 사름씩 세 사름씩 행으네 기냥 혼 번 빠민 혼 번 행으네 이어도방에 이어도방에 소리허멍 거 막 저나신디 시방 육찌는 저거 그자 웨돌베기로 나오란.{방아 찢는 사람은 네 사름씩 세 사름씩 해서 그냥 한 번 빠면 한 번 해서 이어도방아 이어도방아 노래 부르면서 그것 마구 찢었었는데 지금 육찌는 저것 그저 외돌로 나와서.}

10319 #1 저거 하나베끼 못 찢는 거.{저거 하나밖에 못 찢는 거.}

10319 #2 여기는 이제 방에덜 여기덜 문 프라부니까 그런 방에가 어서. 영 너분 거.{여기는 이제는 방아들 여기들 모두 팔아버리니까 그런 방아가 없어. 이렇게 넓은 거.}

10319 @1 남방에나 돌방에나 경허우파?{남방아나 돌방아나 그렇습니까?}

10319 #1 아 여기선 남방에.{아 여기서는 남방아.}

10319 @1 남방에?{남방아?}

10319 #2 예. 거 가운데는 돌호각 노록.{예. 그거 가운데는 돌확 넣고.}

10319 @1 예.{예.}

10319 #2 .{옆으로만.}

10319 @1 돌호각?{돌확?}

10319 #1 흑. 방에흑.{확. 방아확.}

10319 #2 방에흑.{방아확.}

10319 @1 바로 돌호기엔 험니까?{바로 돌확이라고 험니까?}

10319 #1 아니 방에호기엔 허주.{아니 방아확이라고 하지.}

10319 @1 방에흑.{방아확.}

10319 #2 방에흑 그거 돌로 판 거주게.{방아확 그것 돌로 판 거지.}

10319 @1 그 호글 호갱이라고도 험니까?{그 확을 호갱이라고도 험니까?}

10319 #1 아 여기서 그냥 방에호기엔만 험.{아 여기서 그냥 방아확이라고만 해.}

10319 @1 방에흑.{방아확.}

10319 @1 게민 남방에가 이선꼬예?{그러면 남방아가 있었고요.}

10319 #2 예.{예.}

@1 경허고예?{그리고요.}

10319 #1 거 남방에 소고베 이 구멍 파 놓 디 거기다 땅 맡게 거 만드러그네 거기다 논 게 방에흑.{그것 남방아 속에 이 구멍 파놓은 데 거기다 딱 맞게 그것 만들어서 거기다가 놓은 것이 방아확.}

10319 @1 방에호기고예.{방아확이고요.}

10319 @1 다시 쫘 허쿠다예. 게난 아까 방에 말쓰마다가 방에와 절귀를 하여튼 다 포함메가 지고양. 하여간 보리나 조 하여간 지는 거 무조건양. 지는 거 종류와 사용 방버베 대해서 ㄹ라쫘 써?{다시 쫘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방아 말씀하시다가 방아와 절귀를 하여튼 다 포함해서요. 하여튼 보리나 조 하여튼 찢는 거 무조건 찢는 거 종류와 사용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10319 #1 방에만 사용하는 건 방에는 아무 커난 보리는 물 적쟁 놔그네엔 지민 꺾떼기가 버 서지고. 조나 산디는 그대로 모른차 저서 꺾떼기 버끼고 그냥 ㄹ르 허는 건또 썩를 물 적쟁 거기 낱 부수 뺄스며는 방에를 마구 지며는 ㄹ르가 돼는 거고.{방아만 사용하는 것은 방아는 아무 것 이나 보리를 물 적셔서 넣어서 찢으면 꺾떼기가 벗겨지고. 조나 발벼는 그대로 마른째 찢어서 꺾 떼기 벗기고 그냥 가루 하는 것도 쌀을 물 적셔서 거기 놔서 부수 뺄으면 방아를 마구 찢으면 가 루가 되는 것이고.}

10319 #2 옛날 그 게 기겔빵 업꼭 크게 무신 거 하영 물ㄹ레에 묻 부찌며는 무쫘건 여기 방 에에 그 춤.{옛날 그 저 정미소 없고 크게 무슨 거 많이 해서 연자매에 못 붙이면 무조건 여기 방아에 그 참.}

10319 #1 거 여기 남방에서 모터는 게 업써나시난 그거 남방에에 허는디.{거 여기 남방아에 서 못하는 것이 없었으니까 그거 남방아로 하는데.}

10319 @1 게민 한번 다시 여쭙쿠다양. 허니까.{그러면 한번 다시 여쭙겠습니다. 그러니까.}

10319 @1 물ㄹ레가 인꼬.{연자매가 있고.}

10319 #1 예.{예.}

10319 @1 인꼬.{남방아가 있고.}

10319 #2 예.{예.}

10319 @1 절귀가 인꼬.{절귀가 있고.}

10319 #2 정ㄴ레.{맷돌.}

10319 #1 정ㄴ레.{맷돌.}

10319 @1 정ㄴ레?{맷돌.}

10319 #1 예.{예.}

10319 @1 절귀는 아예?{절귀는 아예?}

10319 #2 절귀는 건 육찌서 난 거.{절귀는 그것 육찌서 나온 거.}

10319 @1 예.{예.}

10319 @1 계민 몰ㄴ레 남방에 정ㄴ레.{그러면 연자매 남방아 맷돌.}

10319 #1 예.{예.}

10319 @3 정ㄴ레는 어떻 ㄴ는 거?{맷돌은 어떻게 가는 거?}

10319 #1 영 돌리는 거.{이렇게 돌리는 것.}

10319 @1 정 정ㄴ레양.{맷 맷돌요.}

10319 @1 남방에는 어 어떻 사용한다고예.{남방아는 어 어떻게 사용한다고요.}

10319 @1 남방에는 영 큰 건디. 나무로 그 그런 큰 나무 영헨 거로 멘든 건디 그거는 저 쏘고베 영 똥그랑케 파냥 그디다 돌혹 저 방에혹 거기다 딱 맞게 멘드랑 놔낸 거 물 안 셀게 뭐 다 불판. 경해냥 거기서 방에지를 허는 거.{남방아는 이렇게 큰 것인데. 나무로 그 그런 큰 나무 이렇게 해서 그것으로 만든 것인데 그것은 저 속에 이렇게 동그랑케 파서 거기다 돌혹 저 방아확 거기다 딱 맞게 만들어 놔서 그것 물 안 셀게 뭐 다 발라서. 그렇게 해 눈 다음에 거기에서 방아질을 하는 것.}

10319 #2 게 비치락 커영 썰명게 방에 영영 행으네.{그래. 빗자루 해서 쓸면서 방아 이리 이렇게 해서.}

10319 #1 방에 지민 거 바깥디레 티민 비차라그로 그레 쓰러 노코 쓰러 노코 계속.{방아 찼으면 그것 바깥으로 튀면 빗자루로 그리로 쓸어 놓고 쓸어놓고 계속.}

10319 @1 몰ㄴ레는예.{연자매는요?}

10319 #2 몰ㄴ레는.{연자매는.}

10319 #1 몰ㄴ레도 마찬가지로.{연자매도 마찬가지로.}

10319 #2 몰ㄴ레는 지영 드라가는 거.{연자매는 찼으면서 돌아가는 것.}

10319 #1 보리 보리를 그 꺾덕 베끼젠 허민 물 버무렁 놔야고 허니까 건 계속 이레 저 뭐로 올려줘야. 우터레 올리민 그거시 도라가가민 바끄로 나오민 또 올리고 또 올리고 허민.{보리 보리를 그 꺾테기 벗기려고 하면 물 버무리서 놔야 하니까 그것은 계속 이리 저 무엇으로 올려줘야. 위로 올리면 그것이 돌아가면 밖으로 나오면 또 올리고 또 올리고 하면.}

10319 #2 조나 산디는 므른 차 기자 씨렁 다막 씨렁 다막 허멍 허영.{조나 발벼는 마른 채 그저 쓸어서 담고 쓸어서 담고 하면서 해서.}

10319 #1 안트레만 올리민 바끄로 ㄹ라지멍 바깥띠렌 내치난 그견또 깨끄시.{계속 안쪽
으로만 올리면 밖으로 갈리면서 바깥으로 내치니 그것도 깨끗이.}

10319 #2 겁떡 버서지믄.{겁테기 벗겨지면.}

10319 #1 건 ㄹ라정 나오곡.{그것은 갈려져서 나오고.}

10319 #2 불러뵙으네 또시 쫄 농그렁 허미는 곱딱커게 허젠 허며는 똥을 싸게 영영.{불러두
고 다시 쌀 까부르면 곱게 하려고 하면 똥을 싸게 이러이러하게.}

10319 @1 그 물방에예. 알에 넙짜칸 도리 인꼬 우에 세와진 도리 인꼬.{그 연자매예요. 아래
에 넓적한 돌이 있고 위에 세워진 돌이 있고.}

10319 #1 예.{예.}

10319 @1 양.{요.}

10319 @1 이 도를 고정시키려고 하면 가운데 고망 똥랑 지둥 사마야 되고. 이걸 또 도레 고
망 똥랑 이걸 가운데 연결시켜야 되고. 그다음 또 ㄹ리나 쉼에 메우젠 허믄 그거 해야 되고. 혹시
그 부분 명칭들 혹시 기억남쭈가?{이 돌을 고정시키려고 하면 가운데 구멍 뚫어 지둥 삼아야 하
고. 이것을 또 돌에 구멍 뚫어서 이것을 가운데 연결시켜야 하고. 그다음 또 말이나 소에 매려고
하면 그것 해야 하고. 혹시 그 부분 명칭들 혹시 기억나겠습니까?}

10319 #2 그 낭 네 개 헤네 그 **ㄹ치록 영.{그 나무 네 개 해서 그 **처럼 이렇게.}

10319 @1 우선 맨 아래 널분돌?{우선 맨 아래 넓은 돌.}

10319 #1 널븐 돌 ㄹ래창똥.{넓은 돌 멧돌바닥돌.}

10319 @1 ㄹ래창똥. 예예예.{멧돌바닥똥. 예예예.}

10319 #2 영 도라가멍 허는 건 저니고. ㄹ래전.{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는 것은 전이고. 멧돌
전.}

10319 #1 여피 부쩍도 인꼬 그냥 돌 따로따로 가끄멍 부쩍 저 부쩍 도리주. 거믄 그건 ㄹ렌
전.{옆에 붙여셔도 있고 그냥 돌 따로따로 깎으면서 붙인 저 붙인 돌이지. 그러면 그것은 멧돌
전.}

10319 @1 ㄹ래전.{멧돌전.}

10319 #1 예 그거는 자꾸 이땅 떼어짐도 허는디 그거 방수뵙게 뉘 메겨그녕에 거기허민 막
널르믄 널르게 멘드는 거.{예 그것은 자꾸 이따가 떼어지기도 하는데 그거 방수뵙게 뉘 먹여서
거기하면 막 넓으면 넓게 만드는 거.}

10319 @1 널르게 멘드령예.{넓게 만들어서요.}

10319 @1 게믄 ㄹ래창똥 인꼬 ㄹ래저니 인꼬.{그러면 멧돌바닥돌이 있고 멧돌전이 있고.}

10319 #1 전.{전.}

10319 @1 그다음예.{그다음에.}

10319 #1 우의 도는 건 맨똥.{위에 돌아가는 것은 멧돌.}

10319 @1 우엔 맨똥.{위에는 멧돌.}

10319 #1 으.{으.}

10319 #1 그다음 그다음 ㄹ래선장 가운데 기둥은.{그다음 그다음 멧돌선장 가운데 기둥은.}

10319 @1 선장 ㄹ레선장엔 험니까? ㄹ레선장. ㄹ레선장은 어디 끼와마씨?{그것을 선장 멧돌선장이라고 합니까? 멧돌선장. 멧돌선장은 어디 끼워요.}

10319 #1 그 창똥 구머게.{그 바닥돌 구멍에.}

10319 @1 건 기냥 창똥 구머겐 험니까?{그것은 바닥돌 구멍이라고 합니까?}

10319 @1 그 구머근.{그 구멍은.}

10319 #1 그 구머게 이만치 큰 구머게 걷또 흔들지 아녀게 바가냥 마구 뜰질허멍 데각허게 부트게.{그 구멍에 이만큼 큰 구멍에 그것도 흔들지 않게 박아서 마구 뜰질하면서 빈틈없이 붙 게.}

10319 @1 예. 게문 선장 인꼬. 이젠 이 멘또레 또 연결행 해야 뵈 쥘 아니우파양.{그러면 선 장 있고. 이젠은 이 멧돌에 또 연결해서 해야 될 것 아납니까?}

10319 #2 그거 냥 네 개 해서 네 반디 네모나게 허영으네 ㄹ레 도는 거.{그것 나무 네 개 해 서 네 군데 네모나게 해서 멧돌 돌게 하는 것.}

10319 #1 그거시 거 이름 제게 튼내지커라. 그거 거 냥 두 개 네 개 허영 연결허영.{그것이 그것 이름 빨리 생각나겠어. 그거 그거 나무 두 개 네 개 해서 연결해서.}

10319 @1 네 개 허영양. 우선 가운데 고망 딸랑 그걸 찢러살 꺼고.{네 개해서요. 우선 가운데 구멍 뚫어서 그것을 질러야 하고.}

10319 #1 거 다 이신디 그거 오래여부난 이름 알아지커라.{그것 다 있는데 그거 오래 되서 이름 알겠어.}

10319 @ (웃음) 생각케 돕써. 다음 오걸랑예.{(웃음) 생각해 두십시오. 다음 오면요.}

10319 #1 거 생가기 얼른 안 날 꺼 ㄹ튼디.{그것 생각이 얼른 안 날 것 같은데.}

10319 @1 요 가운데 딸른 거슨 무슨 수리 험니까?{요 가운데 뚫은 것은 무슨 수리합니까?}

10319 #1 수리?{수리.}

10319 #2 가운데.{가운데.}

10319 #1 거 멘 ㄹ트맹이에 빠딱 찢러땅 현 건 채경인디.{그것 멘 ㄹ트머리에 뵈다가 질렀다 가 하는 것은 채인디.}

10319 @1 마주다. 채경?{맞습니다. 채.}

10319 #1 예.{예.}

10319 #2 거 채경.{거 채.}

10319 @1 거 저 쉼 메우곡 몰 메우느 디예.{그것 저 소 매고 말 때는 데지요.}

10319 #2 하도 오래여부난 윈 ㄹ라점직커멍 걷또 이저불키여.{하도 오래 돼서 윈 말해질 것 같으면서 그것도 잊어버리겠네.}

10319 #2 채경은 네 받띠 그.{채는 네 군데 그.}

10319 @1 네받띠양.{네 군데요.}

10319 #2 으. 허영으네 혼 지비 보관헤날쥬게. 그거 허영.{으. 해서 한 집에 보관했었지. 그거 해서.}

10319 @1 혼번 튼내보써. 다시 여쭈쿠다양.{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시 여쭙겠습니다.}

10319 @1 정ㄹ레는양.{이제는 멧들은요.}

10319 #2 정ㄹ레는?{멧들은?}

10319 @1 어떻 집니까?{어떻게 쫓습니까?}

10319 #2 정ㄹ레도 가운딜로 또 이 배또롱 시나넨 그디 허영으네 그 ㄹ레 남 가짱으네.{멧들
도 가운테로 또 이 배뽀 있으면 거기 해서 그 멧들 나무 깎아서.}

10319 #1 ㄹ레장귀렌 헨쭈. 그거 그 가운디 구멍으로 요러케 꼬브면 요마니 나오게 헨 우원
썩 구머기 시니까 그레 아사당 톱 끼우든 도망가지 아녀게.{멧수쇠라고 했지. 그거 그 가운테 구
멍으로 요렇게 쫓으면 요만큼 나오게 해서 위에 것은 구멍이 있으니까 거기에 가져다가 톱 끼우
면 도망가지 않게.}

10319 @1 아랫또른 뭘엔 험니까?{아랫들은 무엇이라고 험니까?}

10319 @1 거 알착 ㄹ레알착.{거 아래쪽. 멧들 아래쪽.}

10319 @1 ㄹ레알착양.{멧들 아래쪽요.}

10319 #1 알착 우착 헤신디.{아래쪽 위쪽 했는데.}

10319 @1 우엔또른?{위에 들은?}

10319 #1 우착.{위쪽.}

10319 #2 우착.{위쪽.}

10319 @1 ㄹ레우착양.{멧들 위쪽이지요.}

10319 #1 예.{예.}

10319 @1 이 노믈 흔들리지 안케 사용허는데 요 바강 뽀쪽 나온 노믈?{이 노믈 흔들리지 않
게 사용허는데 요 박아서 뽀쪽 나온 노믈은?}

10319 #2 건 ㄹ렐쫓룩.{그것은 멧손.}

10319 #1 ㄹ레쫓룩.{멧손.}

10319 @1 아니 그건 잡는 거실 꺼고.{아니 그것은 잡는 것일 것이고.}

10319 #2 으. 그건 잡는 거.{으. 그것은 잡는 거.}

10319 @1 알착파 우차글 연결하기 위해서.{아래쪽과 위쪽을 연결하기 위해서.}

10319 #1 장귀. 장귀. ㄹ레장귀.{멧수쇠. 멧수쇠. 멧수쇠.}

10319 @1 ㄹ렐쫓귀?{멧수쇠.}

103189 #1 예. 거.{예. 그거.}

10319 @1 그다음 이 아래 구멍은? 알차게.{그다음 이 아래 구멍은? 아래쪽에.}

10319 #2 알착.{아래쪽.}

10319 @1 이 장귀를 끼우는 데. 그건?{이 멧수쇠를 끼우는 곳. 그것은?}

10319 #2 건 구멍이주.{그것은 구멍이지.}

10319 #1 거는 거 따로 안 불려나실 건디.{그것은 거 따로 안 불렀을 텐데.}

10319 @2. 으음.{으음. }

10319 #2 따로 불르는 건.{따로 부르는 것은.}

10319 @1 이 ㄹ렐쫓귀를 흑씨 ㄹ레조시렌 험니까?{이 멧수쇠를 흑씨 멧수쇠라고 험니까?}

10319 #2 . ㄹ레존 ㄹ레조시 맞아. 아이고 존 몽그랑 안돼키여. 까까벼사주.{예. 멧수쇠 멧수쇠가 맞아. 아이고 멧수쇠 모지라져서 안 되겠다. 깎아버려야지.}

10319 @1 경허지양?{그렇지요?}

10319 #1 예.{예.}

10319 @1 ㄹ렐짱귀가 ㄹ레존양.{멧수쇠가 멧수쇠요.}

10319 #2 그거 몽그라가민 우윳ㄹ레가 영 ㄹ라가민 그거 몽그라가민.{그거 몽그라져 가면 위에 멧돌이 이렇게 갈아 가면 그거 몽그라져 가면.}

10319 #1 막 다라.{마구 닳아.}

10319 #2 흔들흔들허는 거난.{흔들흔들하는 것이니까.}

10319 @1 게문 이게 다라부러.{그러면 이것이 닳아버려요.}

10319 #2 ㄹ레가 이레 가곡 저레 가주게.{멧돌이 이리로 가고 저리로 가지요.}

10319 @1 이게 ㄹ레조시면 이 아랫구멍은 그거 반대마리 이실 켜 아니우꽈?{이게 멧수쇠이면 이 아랫구멍은 그거 반대말이 있을 것 아닙니까?}

10319 #1 아이 뭘 썬다. 그거. (웃음){아이고 무엇인지. 그것. (웃음)}

10319 #2 글로 다망으네.{그리로 답아서.}

10319 @1 그다으메 아까 이 우차게 손자비 잡는 부분양 끼왕 영 허는 거. 아까 요거슨?{그다음에 아까 이 위쪽에 손잡이 잡는 부분요. 끼워서 이렇게 하는 것. 아까 요것은?}

10319 #2 ㄹ렐썬룩.{멧손.}

10319 @1 ㄹ렐썬룩예.{멧손요.}

10319 #2 건 오그라진 거 ㄹ렐썬룩 기차당으네 영 허여사키여 허멍.{그것 오그라진 것 멧손 잘라다가 이렇게 해야겠다고 하면서.}

10319 @2 영 논는 구멍은마씨?{이렇게 넣는 구멍은요?}

10319 #2 고레썬룩 썬룩 쥘르는.{멧손 멧손 지르는.}

10319 #1 아니 밥.{아니 밥.}

10319 @1 우착게.{위쪽에.}

10319 #1 으. 밥 저 쥘 디리치는 구녕.{으. 밥 저 쥘 디미는 구멍.}

10319 @2 예.{예.}

10319 #1 그거.{그것.}

10319 #1 건 뭐 아라지커라?{그것이 무엇인지 알겠나?}

10319 #2 아이 그 벨다른 거시기 헨 거 답지 아녀. 그.{아니 그 벨다른 거세기 한 것 같지 않아. 그.}

10319 @2 이름 엇어예?{이름 없어요?}

10319 @1 건 이름 어서양?{그것은 이름 없다고요?}

10319 #2 이름 이신 거 달마베지 아녀. 우리가 느랑 ㄹ랄썬마는.{이름 있는 것 같지 않아. 우리가 늘 말했었지만.}

10319 @1 그리고 남방에는 남방에 방에혹 방웁귀.{그리고 남방아는 남방아 방아확 방앗공

.}

10319 @1 준비됐고예.{준비되고요.}

10320 @1 미리나 보리나 진는 과정은 그트우파?{밀이나 보리나 찢는 과정은 같습니까?}

10320 @1 미리 쉬운 거.{밀이 쉬운 거.}

10320 #2 흠뻑 저 쉬어도 밀도 물 버무령 그는 거.{조금 저 쉬어도 밀도 물 버무리어서 가는 거.}

10320 @1 버무령.{버무리어.}

10320 #2 예.{예.}

10320 @1 그거 다 저 물방에나 남방에서 험니까?{그거 다 저 연자매나 남방아에서 험니까?}

10320 @1 미른 보차 보차도 머거지는 거. 정그레에만 그랑 쓸 거피민.{밀은 붓째 붓째도 먹어 지는 거. 맷돌에만 갈아서 쌀 껍질 벗기면.}

10320 @1 아 미른?{아 밀은?}

10320 #2 예.{예.}

10320 #2 미른 보차도 머거지는 거. 이 보리는 보차 먹찌 모테도.{밀은 붓째도 먹어지는 것. 이 보리는 붓째 먹지 못해도.}

10320 @1 볼차도에 보가 명삼니까?{보차도에 보가 명사입니까?}

10320 #1 볼 껍테기.{붓 껍테기.}

10320 #1 껍테기 볼.{껍테기 붓.}

10320 #2 그냥.{그냥.}

10320 @1 보차도. *차도 가튼데. {껍테기째. *차도 같은데.}

10320 #2 건 보차엔 허여.{그것은 껍테기라고 해.}

10320 @2 볼째.{껍질째.}

10320 @1 아 그러치예. 그래야.{아 그렇지요. 그래야.}

10320 @3 볼째 통채 해그네.{껍질째. 통째 해서.}

10320 @1 볼차도 그러치예.{껍질 그렇지요.}

10320 @3 그게 걸러진 건 보미.{그것이 걸러진 것이 쌀겨.}

10320 #2 그거 기냥 정그레만 그랑 쓸만 벌르민 보리쓰레 서팅 머거뻐 밀파물 따로 헤 머거 뻐 밀팝마는 따로 잘 아너주게.{그것이 그냥 맷돌에만 갈아서 쌀만 쪼개면 보리쌀에 섞어서 먹었던 밀밥을 따로 해서 먹었던 밀밥만은 따로 잘 안하지.}

10320 @1 게믄 삼춘 요거양. 하나씩만 여쭙보쿠다양. 예 저 미를 밀 진는 과정을 잠깐 말씀해 줘써. 밀 진는 과정.{그러면 삼춘 이것을요 하나씩만 여쭙보겠습니다. 예 저 밀을 찢는 과정을 잠깐 말씀해 주십시오. 밀 찢는 과정.}

10320 #2 밀 진는 과정은 물 버무령으네 약간 버무령으네 거주기 얹찌 미른. 거주기 알루나네 기자 영 흠쫘 영 정으네 허민 미른 막 쉬운 거.{밀 찢는 과정은 물 버무리어서 약간 버무리어서 껍질이 얹지 미른. 껍질이 얹기 때문에 그저 이렇게 조금 이렇게 찢어서 하면 밀은 막 쉬운 것.}

10320 @1 미른 막 쉬운 거.{밀은 막 쉬운 것.}

10320 #2 .{예.}

10320 @1 계근 그 미른 정ㄹ레에 ㄹ랑 머금니까?{그러면 그 밀은 맷돌에 갈아서 먹습니까?}

10320 2 예.{예.}

10320 @1 남방에 허지 안코.{남방아에 하지 않고.}

10320 #1 예.{예.}

10320 @1 그다음 보리 방에 진는 법?{그다음 보리 방아 찧는 법?}

10320 #2 보리 방에는 그거 허영으네 잘 거죽 뺴겨벼뒤사 허영으네 딱시 물뢰사주. 물 적셔난 거난. 물랑으네 또 정ㄹ레 쓸 거평.{보리방아는 그것 해서 잘 껌질 벗겨둔 후에 다시 말려야지. 물 적셨던 거니까. 말려서 또 맷돌에 쌀 껌질 벗겨서.}

10320 @1 아 정ㄹ레에 거평.{아 맷돌에 껌질을 벗겨서.}

10320 #2 으.{으.}

10320 #2 거평. 체도 대체인고 거름체 인꼬 인주게. 계난 또 ㄹ른 굴미는 ㄹ는체. 체가 세 가 지난.{껌질을 벗겨서. 체도 대체 있고 거름체 있고 있지. 그러니까 또 가루는 갈면 가는체. 체가 세 가지니까.}

10320 @1 예.{예.}

10320 @1 체는.{체는.}

10320 #2 ㄹ는체로 ㄹ는체로.{가는체로 가는체로.}

10320 @1 나중에 자세히 여쭙쿠다.{나중에 자세히 여쭙겠습니다.}

10320 # 예.{예.}

10321 @1 계민 저 산디 보리 밀 중에 이거슬 지으면 나오는 껌뜨리 이쨌찌 아너우파양. 나오는 거양. 진는 과정에 생겨나는 거. 그 쨌 마는 거시 뭐파? 종류가.{그러면 저 발벼 보리 밀 가운데 이것을 찧으면 나오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나오는 것. 찧는 과정에 생겨나는 것. 그 쨌 많은 것이 무엇입니까? 종류가.}

10321 #2 껌떡 마니 나오는 거? 껌떡 마니 나오는 거 산디가 물론 조껌떡보다 마니 나오지. {껌데기 많이 나오는 거? 껌데기 많이 나오는 거. 발벼가 물론 조껌데기보다 많이 나오지.}

10321 @1 계근 산디를 다시 한번 산디를 일찌게도 여쭙받찌만예. 산디 지으면 그 깨끄턴 ㄹ르도 나오고 덜헌 ㄹ르도 나오고 아주 더러운 견또 나오고 허는데 그걸 촌근촌근 순서 구분해서.{발벼를 다시 한번 발벼를 일찌도 여쭙봤지만요. 발벼 찧으면 그 깨끗한 가루도 나오고 그렇지 않은 가루도 나오고 아주 더러운 것도 나오고 하는데 그것을 차근차근 순서 구분해서.}

10321 #2 계나네 그.{그러니까 그.}

10321 @2 맨 처음 나오는 견부터예.{맨 처음 나오는 것부터요.}

10321 #2 쨌빠는 껌떡.{첫번은 껌데기.}

10321 #2 껌떡 나오고 두 번찬 보미 나오고 또 보미에 서꺼진 거는 스투기. 스투기쨌.{껌데기 나오고 두번째는 쌀겨 나오고 또 쌀겨에 섞어진 것은 싸라기.}

10321 @1 그럼 큰 쨌른?{그럼 큰 쌀은.}

10321 #2 큰 쨌른 거 큰 쨌른 청으네게.{큰 쌀은 큰 쌀은 처서.}

10321 @1 썰. 계난 겁떡과 체는 ㄹ튼 마리구나예.{그것은 썰. 그러니까 꺾데기와 겨는 같은 말이군요.}

10321 #2예.{예.}

10321 #1 계난 산디 ㄹ는디 처음 나온 체는 돼야지도 안 먹꼬 아무 걸또 안 머그니까 막 거치난.{그러니까 발벼 가는데 처음 나온 겨는 돼지도 안 먹고 아무 것도 안 먹으니까 막 거치니까.}

10321 @1 아 거치난예. 예예예예.{아 거치니까. 예예예예.}

10321 @1 근데 산디는 그러치만 보리채?{그런데 발벼는 그렇지만 보릿겨는?}

10321 @1 보리채는 도새기 주지예?{보릿겨는 돼지 주지요?}

10321 #1 도새기.{돼지.}

10321 @1 아아 산디채는 아무 걸또 안 먹꼬 계문 그건 낭받띠 걸르므로 ㄹ라부러마씨?{아아 쌀겨는 아무 것도 안 먹고 그러면 그것은 나무발에 거름으로 까나요?}

10321 #1 예.{예.}

10321 #2 낭받띠나.{나무발에나.}

10321 #2 굴목 엔나를 굴목 지더날주게.{굴목. 옛날은 굴목 불 땀었지.}

10321 @1 아아 예예예.{아아 예예예.}

10321 @3 그 사과 체 허는 게 그거지예?{그 사과 겨 하는 게 그거지요.}

10321 #1 예. 사과 체 허는 거. 그자 굴목 초네서 굴목 지더난 거.{예. 사과 겨 하는 것. 그자 굴목 촌에서 굴목 땀던 것.}

10321 @1 그다음에 보리인 경우에 보미 대시네 등게 등게엔 힘니까? 등게ㄹ르엔 힘니까? ㄹ튼 말이우파? 등게나 등게ㄹ르.{그다음에 보리인 경우에 쌀겨 대신에 보릿겨 보릿겨 합니까? 보릿겨가루엔 하나요? 같은 말입니까? 보릿겨나 보릿겨가루나.}

10321 #2 예. 똑 ㄹ튼 거. 등게ㄹ르나 등게나.{똑 같은 거. 보릿겨가루나 보릿겨나.}

10321 #1 등게엔 현디 그 등게 등게떡또 행 먹꼭 허난 건 줌지라사.{보릿겨라고 한 것은 그 보릿겨 보릿겨떡도 해서 먹고 하니까 그것은 가루가 잘고 고와야.}

10321 #2 거 곱게 헤사 등게떡글 허주.{그것 곱게 해야 보릿겨떡을 하지.}

10321 #2 곱게 현 거라사.{곱게 한 거라야.}

10321 #2 곱게 아년 거 등게ㄹ르떡 먹찌 몬터여{곱게 안 한 것은 보릿겨가루떡 먹지 못해.} .

10321 @1 그다음미 스투기 스투기썰. {그다음에 싸라기 싸라기.}

10311 #2 예.{예.}

10321 @1 그리고 썰. 영 힘니까?{그리고 썰. 이렇게 하나요?}

10321 #2 보리를 뭐 보깁으네 개역케영 이디선 개여기라고. 요센 미수ㄹ르엔 허주마는. 미순 ㄹ르엔 허주마는. 개역 개역허멍.{보리를 뭐 볶아서 미숫가루 해서 여기서는 미숫가루라고. 요새는 미숫가루라고 하지만 미숫가루라고 하지만. 미숫가루 미숫가루 하면서.}

10321 @1 개역은 뭘로 만듭니까?{미숫가루는 무엇으로 만듭니까?}

10321 #2 보리로.{보리로.}

10321 #1 .{보리.}

10321 #2 보리 보깡.{보리 볶아서.}

10321 @1 쓸. 쓸로.{쌀. 쌀로.}

10321 #1 아니 쓸 아니 껌데기차.{아니. 쌀 아니 껌데기째.}

10321 #2 슬우리 보깡으네 바드드허게 손떠서 뭉허머는.{쌀보리 볶아서 바드드허게 슬에서 뭉하면.}

10321 #1 완저니 보끄민 거 껌데기가 거의 타불민.{완전히 볶으면 그것 껌데기가 거의 타버리면.}

10321 #2 정ㄴ레에.{맷돌에.}

10321 #1 굴민.{갈면.}

10321 #2 ㄴ랑 ㄴ는체로 칭으네 개역 행으네 씨부모신디도 아사가곡 ㄴ슬 다 허머는 그걸로 부모신디도 아저가곡 뭉헤나신디.{갈아서 가는체로 쳐서 미숫가루 해서 시부모님께도 가져가고 가을농사 다 하면 그것으로 부모한테도 가져 가고 뭉 했었는데.}

10321 @2 그거시 인사우파?{그것이 인사입니까?}

10321 #2 예. 인사.{예. 인사.}

10321 @1 겨가 체냐? 그럼 왕겨 등겨는 여기선 그 차이가 별로 없네.{겨가 체냐? 그럼 왕겨 등겨는 여기서는 그 차이가 별로 없네.}

10321 @3 아니 아니 등겨는 등겨꼬르고.{아니 아니. 보릿겨는 보릿겨가루고.}

10321 @1 왕겨와 겨.{왕겨와 겨.}

10321 @3 겨는 겁떡 겁떡. 아까.{겨는 껌데기 껌데기. 아까.}

10321 @2 아니 아니. 왕겨는 산디에서 나오는 맨 처음에 나온.{아니 아니 왕겨는 밭벼에서 나오는 맨 처음에 나온.}

10321 @1 그게 왕겉니까?{그것이 왕겨입니까?}

10321 #1 아무 건또 안 멍는 거고 그다음에 겨는 겨. 보리체 돼지라도 멍는 거.{아무 것도 안 멍는 것이고 그다음에 겨는 채 보릿겨 돼지라도 멍는 거.}

10321 #1 그리고 등게가 나오고.{그리고 보릿겨가 나오고.}

10321 @2 왕겨는.{왕겨는.}

10321 @3 왕겨는.{왕겨는.}

10321 #1 겨 중에서 왕이니까 완전니 거친 거주게.{겨 중에서 왕이니까 완전히 거친 거지.}

10321 @1 게문 쌀겨와 보릿겨가?{그러면 쌀겨와 보릿겨가?}

10321 @3 쌀겨가 보미.{쌀겨가 쌀겨.}

10321 @1 아 쌀겨가 보미?{아 쌀겨가 쌀겨.}

10321 @3 예. 보릿겨는 아까 이제 등게꼬르 행으네. 위에 꺼썸 돼겉찌예. {예 보릿겨는 아까 이제 보릿겨가루 해서 위에 짓썸 되겠지요.}

10321 @1 아 등겉꼬르는?{아 보릿겨가루는?}

10321 @3 등겉꼬르는 쥬 그 ㄴ는체 아까 무신체 줌진체.{보릿겨가루는 쥬 그 가는체 아까 무

채 가는채.}

10321 #1 예. ㄹ는채라고 하지.{예. 가는채라고 하지.}

10321 @3 ㄹ는채로 해서 미테꺄로 해서 떡케 명는 거.{가는채로 해서 밑에 것으로 해서 떡 해서 먹는 거.}

10321 @1 등꺄ㄹ르도 쫄 고운 꺄파 쫄 덜한 꺄파 구분합니까?{보릿꺄라고도 쫄 고운 것파 쫄 덜한 것을 구분합니까?}

10321 #2 구분허주.{구분하지.}

10321 #1 쫄쫄.{조금.}

10321 @1 이름 이르므로. 흑씨 이르므로.{이름 이름으로 흑씨 이름으로.}

10321 #2 이르므로 구분 아녀고.{이름으로 구분 앓고.}

10321 @1 아예 구분 아녀고양.{아예 구분 앓고요.}

10321 #2 먹꺄 아념뿌니지.{먹지 앓을 뿐이지.}

10321 @1 예예예.{예예예.}

10321 @1 그다음 네 번째는?{그다음 네 번째는?}

10321 @3 이거 헤난 거.{이거 했었던 거.}

10322 @1 보 아까 보리꺄그로는 뭘 사용 뭘 헤어마씨? 보리꺄그로는?{보 아까 보릿꺄으로는 무엇을 사용 무엇을 하나요? 보릿꺄으로는?}

10322 #2 보리꺄그로는 췌 뒀에나 꺄고 또 뒀아지통에나 담꺄 꺄 아녀민 마당에 꺄랑으네 꺄자 그 보리 득 주서머그렌 보리 홀타난 꺄 시나네 그거 보리꺄근 췌도 안 먹꺄 시방은 췌 먹꺄덜 헤는 꺄 헤는 생이라.{보릿꺄으로는 소 뒀에나 꺄고 또 뒀지우리에나 담꺄 그렇지 앓으면 마당에 꺄아서 그꺄 그 보리 담 주워 먹으라고 보리 훗었던 꺄 있으니까 그꺄 보릿꺄은 소도 안 먹꺄 꺄금은 소 먹으려고 하는 모양이야.}

10322 #1 아 이 슬우리꺄꺄리 그꺄니도 줄보리꺄근 췌도 안 먹꺄 아무 꺄도 안 머꺄니까 그꺄는 그 옛날 뒀 뺄꺄 어신 뺄 마당에 꺄랑꺄 그 꺄지머는 꺄기 꺄지머는 꺄듬도 헤꺄.{아 이 쌀 보릿꺄들은 그꺄에도 맥주보릿꺄은 소도 안 먹꺄 아무 꺄도 안 먹으니까 그꺄것은 그 옛날 뒀 뺄꺄 앓을 뺄 마당에 꺄았다가 그 터지면 꺄기 터지면 꺄기도 하고.}

10322 #2 조꺄꺄고.{조꺄꺄고.}

10322 @1 조꺄꺄고.{조꺄꺄고.}

10322 #2 저 산디꺄꺄 온나른 췌 니 무꺄텐 헤꺄 꺄 안 꺄나서. 그꺄 출 이신 뺄는. 췌 씨브민 니 무꺄텐 헤꺄 꺄헤신디 꺄 꺄 훗꺄꺄꺄 아녀도 어스나네 산디꺄꺄 췌 호꺄 꺄.{저 발꺄꺄도 옛날에는 소 이꺄꺄이 무꺄디꺄고 하면서 꺄 안 꺄었던. 그꺄 꺄 앓을 뺄는. 소 꺄꺄면 이꺄꺄 무꺄디꺄고 하면서 그꺄꺄었는데 꺄 그렇게 훗꺄 꺄지는 앓아도 앓으니까 발꺄꺄도 소 꺄꺄 꺄.}

10322 @1 꺄꺄 산디꺄꺄 이제 췌 주꺄도 하고. 또 용꺄가 뒀꺄?{그러면 발꺄꺄은 이제 소 주꺄고 하고 또 용꺄가 뒀꺄까?}

10322 #1 용꺄가 주꺄 꺄꺄꺄 꺄는 꺄.{용꺄가 주꺄 꺄꺄꺄 꺄는 꺄.}

10322 #2 꺄꺄꺄 꺄는 꺄.{꺄꺄꺄 꺄는 꺄.}

10322 @1 멩명석 준는 거양.{반드시 먹서리 곁는 거요.}

10322 @1 조치그로는 저 기냥 쉼만 메기고.{조질으로는 저 그냥 소만 먹이고.}

10322 #2 조치근 어성 허주 뒤. 흐뭇 거 받칼레 가며는 쉼 양식을 그 조찌글 아사가날쭈게.
{조질은 없어서 하지 뒤. 사뭇 그것 발 갈러 가면 소 양식을 그 조질을 가져갔었지.}

10323 @1 아아. 그리고 삼춘. 하는 가가지고 나룩찌 사오면 그 나룩찌기 용도는예. {아아 그
리고 삼춘. 하는 가서 벗질 사오면 그 벗질의 용도는요.}

10323 #1 그거는 주로 명석.{그것은 주로 명석.}

10323 @1 아 건 주로 명석?{아 그것은 주로 명석?}

10323 #1 거 신 삼는 데도 좀 쓰고.{그것 신 삼는 데도 좀 쓰고.}

10323 @1 아 신 삼는 데도 쓰고.{아 신 삼는 데도 쓰고.}

10323 @1 삼춘 메주 띄우젠 허며는 그때는 뭇로 험띠가?{삼춘 메주 띄우려고 하면 그때는 무
엇으로 하졌습니까?}

10323 @1 뭇 메주 띄우는 거 시방도 거 산디찌 해당으네 걸로.{뭇 메주 띄우는 것은 지금도
그것 발벗벙 해다가 그것으로.}

10323 @1 산디찌헿 경허는구나. 예예예예.{발벗질 해서 그렇게 하는 구나. 예예예예.}

10323 @1 게믄 하여간 멩텅이든 무슨 명서기든 그런 종류는 나룩찌그로 즈라야 뭇니까?{그러
면 하여튼 먹서리든 무슨 명석이든 그런 종류는 벗질으로 짜야 됩니까?}

10323 #1 예. 나룩찌도 허고 여기 산디찌도 그대로 허고.{예. 벗질도 하고 여기 발벗질도 그
대로 하고.}

10323 @1 아 산디찌그로도 그대로 허고.{아 발벗질으로도 그대로 하고.}

10323 #1 산 산디찌근.{발 발벗질은.}

10323 @1 질기기가 줌.{질기기가 줌.}

10323 #1 질기는 차이고. 일꼬. 산디찌그로 허젠 허민 잘 두드려그네 뭇량지게 헤사.{질기는
차이고. 있고. 발벗질으로 하려고 하면 잘 두드려서 부드럽게 해야.}

10323 @1 가멩이도 짜뵈디가?{가마니도 짜보았습니까?}

10323 #1 아이. 여기서. 가멩이.{아니. 여기서 가마니.}

10323 @1 안 헤뵈디가?{안 했었습니까?}

10323 #2 안 짜도 그자. 가멩이 짜는 지비.{안 짜도 그저. 가마니 짜는 집이.}

10323 @1 가멩이는 뭇로 짬니까?{가마니는 무엇으로 짜나요?}

10323 #2 산디찌그로{발벗질으로.}

10323 @1 산디찌그로.{발벗질으로.}

10323 #1 나룩찌또 대충 짱 헤도게.{벗질도 대충 짜고 해도.}

10323 #1 여기서 산디찌그로도 짜날쭈.{여기서 발벗질으로도 짜났지.}

10323 @1 산디찌그로양.{발벗질으로요.}

10323 @1 섬. 섬은 뭇로 짬니까?{섬. 섬은 무엇으로 짜나요?}

10323 #2 서미 뭇라?{섬이 뭇야?}

10323 @2 .{떡서리.}

10323 #2 아 멩탱이는 그 산디찌기나 나록치그로나.{아 떡서리는 그 발벗짚이나 벗짚으로.}

10323 @1 지그른 여기선 나무 저 그칠 께고예.{지금은 여기서는 나무 저 꿇을 테고요.}

10323 @1 찌브로 향아리 가튼 모양으로 요샌 만들지 아녀지예.{짚으로 향아리 같은 모양으로 요새는 만들지 않지요?}

10323 #1 아녀.{안 해.}

10323 @1 아녀양.{않아요.}

10323 #1 아아 여기 저 찌그로 허벅ㄴ치 만드러서 건 뭐 허는고 허니까 씨 놔두는 거. 줍씨 놔두는 거. 거 모가지 툯 걸렁 어디 드라메민.{아 여기 저 짚으로 허벅처럼 만들어서 그것은 무엇 하는고 하니까 씨 놔두는 것. 줍씨 놔두는 거. 그거 모가지 툯 걸려서 어디 달아매면.}

10323 @1 허벅 모양으로양. 계난 그계.{허벅 모양으로요. 그러니까 그것이.}

10323 @2 씨부게기?{씨부게.}

10323 #2 씨부게기 아람신계.{씨부게 아네.}

10323 @1 산디찌그로 산디찌그로 허는 겨우파?{발벗짚 발벗짚으로 하는 것입니까?}

10323 #1 산디찌그로.{발벗짚으로.}

10323 @2 씨부게기허고 씨오쟁이허고 어떻 틀림니까?{씨부게하고 씨오쟁이하고 어떻게 틀림니까?}

10323 #2 씨부게 무신 씨부겐가.{씨부게 무슨 씨부겐가.}

10323 @2 거긴 같찌예.{거기는 같지요.}

10323 @1 계난 그계 산디찌그로예.{그러니까 그것이 발벗짚으로요.}

10323 #1 예.{예.}

10323 @1 씨부게예.{씨부게요.}

10323 #1 예.{예.}

10323 @1 씨부게기우파 씨부게우파?{씨부게기입니까 씨부게입니까?}

10323 #1 씨 씨부게 씨부게 허니.{씨 씨부게 씨부게 하니.}

10323 @1 아 씨부게.{아 씨부게.}

10323 @1 그다음 아까 맥또 산디찌그로 즐고양.{그다음 아까 떡서리도 발벗짚으로 짜고요.}

10323 @3 맥또 크기가 틀리지 아녜니까?{떡서리도 크기가 다르지 않습니까?}

10323 #1 예.{예.}

10323 #2 막 큰 건또 멘 썸드리로 허영으네 영 낡.{막 큰 것도 몇 썸들이로 해서 이렇게 놔서.}

10232 #1 큰 건또 인꼬 조근 건또 거 전부 메긴디 큰 건뽀고 창메기렌 허곡.{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그것 전부 떡서리인데 큰 것보고 창맥이라고 하고.}

10323 #1 즈근 거 보고 보통 저 메기렌허고 막 조근 건 돌꺼름차기엔 해서 건 아주 조근 거.{작은 것 보고 보통 저 떡서리라 하고 막 작은 것은 돼지거름을 담은 맥둥구미라고 해서 그것은 아주 작은 거.}

10323 @1 .{돼지거름 담는 먹둥구미요.}

10323 @1 씨부게도 혹시 크기에 따라랑 일쑤가?{씨부게도 혹시 크기에 따라서 있습니까?}

10323 #2 아니 기자 허병마는.{아니 그저 허벅만큼.}

10323 @1 아 씨부겐 보통 허병마니 험니까.{아 씨부게는 보통 허벅만큼 합니까?}

10323 #1 허벅마니 즈란게.{허벅만큼 곁었어.}

10323 @1 아 단지마니 허게 허진 아님니까?{아 단지만큼 하게 하지는 않습니까?}

10323 #1 아니 허병마는. 씨 지는 거. 요디 잔빤타르방엔 헨 하르방 나도 즈란 드라멘 거 봐 신디. 똑 허병마는.{아니 허벅만큼. 씨 걷는 것. 요기 잣밭할아버지라고 하는 할아버지 나도 곁어서 달아맨 것 봤었는데 꼭 허벅만큼.}

10323 #2 경허영 술넙 마게 그 우의 꼭 막꼭 커영 씨 집따다.{그렇게 술가리 마게 그 위에 꼭 막고 해서 씨 곁었어요.}

10323 @1 아 술넙마게로양.{아 술가리 마개로요.}

10323 #1 쥐 드러가지 못터게.{쥐 들어가지 못하게.}

10323 @2 술니블 꺼꾸로 이러케 꼬방.{술가리를 거꾸로 이렇게 꽃아서.}

10323 @1 째싯도 즈라납따가?{째싯도 삼았었습니까?}

10323#1 예.{예.}

10323 #2 째싯사 줄주게.{째싯이야 삼지.}

10323 @1 건 뭇로 줌니까?{그것은 무엇으로 삼습니까?}

10323 #2 건또 산디찌기주.{그것도 발뻗짚이지.}

10323 #1 산디찌그로도 허고 줌 질기게 허젠 허든 칙 거더당.{발뻗짚으로도 하고 줌 질기게 하려고 하면 줌 곁어다가.}

10323 @1 아 치그로도 허고양.{아 줌으로도 하고요.}

10323 #2 또 글러기엔 허명 새 달믄 글러기 이서. 막 질긴 거. 또 그 달믄 거도 해당.{또 근력이라고 하면서 띠 같은 수크령이 있어. 막 질긴 거. 또 그 같은 것도 해당.}

10323 @2 글러기.{수크령이.}

10323 #1 글러기렌 헨 푸른.{수크령이라고 하는 풀은.}

10323 #1 거문터럭 고장 피고 허는 거 일쑤다.{검정털이 달린 꽃 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10323 @2 글럭.{수크령.}

10323 @ 막 꺼시렁 요만큼 허영 허는 거마씨?{막 까끄라기 요만큼 해서 하는 것입니까?}

10323 #1 예.{예.}

10323 #2 꺼시럭.{까끄라기.}

10323 @3 그게 글러기라마씨? 이르미.{그것이 수크령입니까? 이름이.}

10323 @1 글럭.{수크령.}

10323 @2 글럭.{수크령.}

10323 #2 저년 막 하는게 이제.{전에는 아주 많았었는데 이제.}

10323 @3 쟈디 그거는 이런 디가 크지 안험니까? 이런디.{그런데 그것은 이런 데가 크지 않

? 이런데.}

10323 #1 이 굽뎡이 커도 거야 저 몰랑 쨌민 똑 ㄹ트나네.{이 밀동이 커도 그것이야 말려서 쨌면 똑 같으니까.}

10323 @3 쨌영으네 허는 거니까.{쨌서 하는 것이니까.}

10323 @1 느람지는 필로 만드라마씨?{이영은 무엇으로 만듭니까?}

10323 #1 느람진 새.{이영은 띠.}

10323 @1 주지는?{주저리는?}

10323 #1 주진 어워기로.{주저리는 억새로.}

10323 #2 어워기나 새나 건 아무 거나.{억새나 띠나 그것은 아무 것이나.}

10323 #1 아 어웁케사 쨌너지 이디가 바쨌커니까 영 들린뎡 톡 시르민 뎡 마지니까.{아 억새 해서 편하지. 여기가 바쨌하니까 이렇데 들었다가 톡 잡으면 딱 맞으니까.}

10323 @1 산디쨌그로 느람지 안 험니까?{발뻗쨌으로는 이영 안 합니까?}

10323 #1 산디쨌그로는 여긴 마지는 따무네 비 흥번 마지민 그건 몰드러부렁 안 똤어.{발뻗 쨌으로는 여기는 장마 지기 때문에 비 한번 맞으면 그것은 몰떡어서 안 돼.}

10323 #1 욱쨌서는 그걸로 전부 해신디 여기서는 그거.{욕지에서는 그것으로 전부 했는데 여기서는 그거.}

10324 @1 겨우레 뎡까므로는 뎡 사용해신고양?{겨울에 뎡감으로는 무엇을 사용했나요.}

10324 #1 그저넌 저 여기 봉더겐 행 여기 바가냥 낭해당 거기서 불 때영.{그전에는 저 여기 봉덕이라고 해서 여기 박아 놓고 나무 해다 거기서 불때고.}

10324 #2 봉더게 남 살르고 부어게서는 게나제나 검질 쨌테치엔 허멍 쨌 머거난 거 아나당으 네 쨌물 메기레 가불민 그거 아나냥으네 날뎡 쨌뻗. 또 멍는 그 머거 머거난 거 그 쨌테치 그.{봉 덕에 나무 사르고 부엌에서는 그러나저러나 검불 쨌테치라고 하면서 소 먹어난 것 안아다가 소물 떡이러 가버리면 그것 안아다가 두었다가 쨌고. 또 먹는 그 먹어 먹어난 거 그 쨌테치 그.}

10324 #1 쨌진 거.{자쨌한 거.}

10324 #2 쨌진 거 해당 굴뎡 살르고.{자쨌한 것 해다가 굴뎡 때고.}

10324 @1 거 쨌테치양.{쨌테치요.}

10324 #1 예.{예.}

10324 @1 게민 쨌테치 말고는예. 뎡까므로.{그러면 쨌테치 말고는요. 뎡감으로.}

10324 #2 뎡까므로 그거 말고는 낭허고 검질베피.{뎡감으로 그거 말고는 나무하고 검불밖에.}

10324 @1 낭허고 검질하고.{나무하고 검불하고.}

10324 #1예.{예.}

10324 @2 몰뎡 쨌뎡은 아너날쨌가?{말뎡과 소뎡은 안 했었습니까?}

10324 #1 몰뎡 쨌뎡.{말뎡 소뎡.}

10324 #1 몰뎡 쨌뎡은 주서당 겨우레 굴뎡 때는 거.{말뎡 소뎡은 주어다가 겨울에 굴뎡 때는 거.}

10324 @1 아 굴뎡 때고.{아 굴뎡 때고.}

10324 #2 . 굴묵.{예. 굴묵.}

10324 @1 그리고 아까 저 뭐 돌통에 노록예.{그리고 아까 저 뭐 돼지우리에 넣고요.}

10324 @3 사네 강으네 뭐 술넙허영으네.{산에 가서 뭐 술가리해서.}

10324 #1 아 여기서 술입꺀진 아녀고. 그냥.{아 여기서 술가리까지는 앓고. 그냥.}

10324 #2 사네 술넙퍼레는 안 가.{산에 술가리 하려는 아니 가.}

10324 @1 아 낭이나 검질 지더양.{아 나무나 검불 때나요.}

10324 @1 삭따리 가튼 거는 안함니까?{삭정이 같은 것은 안 하나요.}

10324 #1 나무엔 현 게 거 삭따리 줌진 거.{나무라고 하는 것이 그거 삭정이 자잘한 것.}

10324 @1 거 포함해서 낭?{그것 포함해서 나무.}

10324 #1 으.{으.}

10324 @1 예예.{예예.}

10324 #1 줌진 건 삭따리 흘근 건.{웃음}{자잘한 것은 삭정이 굵은 것은.}

10325 @1 겨우레 머글 양시그로 마련해논는 거는 아까 저 싸리 쓸 종류 말고.{겨울에 먹을 양식으로 마련해 놓는 것은 아까 저 쌀이 쌀 종류 말고.}

10325 #2 짐치.{김치.}

10325 #2 짐치 뭐 이녁 배추 안 갈믄 어디 강으네 사와도 시방은 마니 안 머경 냉장고도 인 꼬 마니 안 먹쭈마는 그때는 대중 반찬니 짐치라.{김치 뭐 이녁이 배추 안 갈믄 어디 가서 사와도 시방은 많이 안 먹어서 냉장고도 있고 많이 안 먹지만 그때는 대중 반찬이 김치라.}

10325 #2 짐치미는 혼 쉬나믄 퍼기 강 들바래길 꼬성가도 사당으네 그걸 향엘 다망 향아리에 다망 시방은 문꼭 하간 거. 그뻬 시도 아녀신고라. 겨도 고구마를 청으네 정시므로 항상.{김치는 한 쉼 남은 포기 가서 말몰이꾼 데려가서 사다가 그것을 향아리에 담아서 향아리에 담가서 시방은 문고 하지만. 그때는 시지도 앓았는지. 그리고 고구마를 썬서 점심으로 항상.}

10325 @1 계난.{그러니까.}

10325 #2 짐치를 마니 머견썬.{김치를 많이 먹었어.}

10325 @1 구텅이 구텅이 만드러서 이제 감젤 저장해노코양.{구텅이 구텅이 만들어서 이제 고구마를 저장해 넣고요.}

10325 @1 짐치허고.{김치하고.}

10325 #2 짐치허곡.{김치하고.}

10325 @1 짐치도 요새가치 짐장짐치우파 아니면 그때그때 헤영 머금니까?{김치도 요새처럼 짐장김치입니까 아니면 그때그때 해서 먹습니까?}

10325 #1 아이. 그때는 ㅁ슬리 혼번 다르민 향아리에 다망 내년 봄 나도록 머거야.{아니. 그때는 겨울에 한 번 담그면 향아리에 담갔다가 내년 봄 나도록 먹어야.}

10325 #2 봄 낭으네 이사뵐낭.{봄 나서 이삼월 나서.}

1.6. 생활

1.6.1.

10601 @1 . 그 옛날 초집 지을 때 집터 집터는 어떻 선정허곡 어떻 다집니까?{예. 그 옛날 초가 지을 때 집터 집터는 어떻게 선정하고 어떻게 다집니까?}

10601 #1 옛날 초가지베는 집터를 벨로 다지지 아녕 그자 담달 떠만 영 흐썰 파그넵에 그대로 돌따미나 단꼬.{옛날 초가지에는 집터를 벨로 다지지 않고 그저 담 쌓을 곳만 이렇게 조금 파서 그대로 돌담이나 쌓았고.}

10601 #1 그 방냥은 그 정시엔 허영 그 사름더리 근는 대로 어느 쪽 무슨 방냥 허렌 허믄 그자 그대로 허영 질꼭.{그 방향은 그 지관이라고 해서 그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어느 쪽 무슨 방향 하라고 하면 그저 그대로 해서 짓고.}

10601 @1 혹씨 그런 데도 이집디다. 그 집 바위를 다지지 아넘니까양. 게그네 낭 두 개 세와냥 돌 메다라그네 줄 허여그네 탕탕 다지던데양. 거 저 표주너시그로 허민 달구질한다고 험니까?{혹시 그런 곳도 있습니다. 그 집 가장자리를 다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무 두 개 세워놓아서 돌 매달아 줄 해서 탕탕 다지던데요. 거 저 표준어식으로 하면 달구질한다고 합니까?}

10601 #1 그거를.{그것을.}

10601 #2 집 진는 디.{집 짓는 데.}

10601 #1 그저넌 잘 아녀고.{그 전에는 잘 았고.}

10601 @1 잘 아녀고.{잘 하지 았고.}

10601 #1 그저넌 돌땀 다는 겐또 여기선 저 축찌비엔 헤그네 낭으로만 전부 세와냥 여피 그대로 담 다도 그러케 오래 살고 안전해나신디 그런 낭도 요즈믄 얻꼬.{그 전에는 돌담 쌓는 것도 여기서 저 축집이라고 해서 나무로만 전부 세워서 옆에 그대로 담 쌓아도 그렇게 오래 살고 안전했었는데 그런 나무도 요즘은 았고.}

10601 @1 그 게민 집터를 다져나지는 아녜꾸나양.{그 그러면 집터를 다지지는 았았네요.}

10601 #1 벨로 다져나지 아녜.{벨로 다지지 았았지.}

10601 @1 벨로 다져나지 아녜니까 그 다지명 부르는 노래도 얻꼭.{벨로 다져나지 았았으니까 그 다지면서 부르는 노래도 았고.}

10601 #1 예.{예.}

10602 @1 게믄 기냥 집 지스명 부르는 노래는 이서신가마씨?{그러면 그냥 집 지으면서 부르는 노래는 았었는지요?}

10602 #2 집 지스명 노래허는 거는 저 후 므 지서그네 후질헐 때에.{집 지으면서 노래하는 것은 저 후 모두 이겨서 후질할 때에.}

10602 @1 아.{아.}

10602 #2 이 후 파냥으네. 으. 쉼들 테들민 그 소리허명 막.{이 후 파서 아 소들 들이대면 그 소리하면서 마구.}

10602 #1 쉼로 후 불리는 거.{소로 후 밍는 것.}

10602 @1 흑 불리는 거. 불를 흐게.{아아 흠 밍는 거. 밍을 흠에.}

10602 #2 예.{예.}

10602 @1 불를 흐게 쉼 허영 흑 불리는 거. 예예예예.{밍을 흠에 소해서 흠 밍는 거. 예예예예.}

10602 #2 예. 그때 막 흐물.{예. 그때 막 사뭇.}

10602 @1 게난 흐기 마니 드니까 쉼 허여 가지고 불판꾸나양.{그러니까 흠이 많이 드니까 소해서 밍았군요.}

10602 #2 예. 산디쩍 수세 노멍 게나제나 불령으네 또 돼싸냥 또 불리곡 게나네 동네 싸름 다 허벅 정 강 흑짚물 정으네 밥 어덩먹꼬.{예. 밍벗짚 수세 넣으면서 그러나저러나 밍아서 또 뒤집어서 또 밍고 그러니까 동네 사람 다 허벅 저가서 흠질할 물 저다가 밥 얻어먹고.}

10602 @1 그 정도가 돼면 큰지비우다.{그 정도가 되면 큰집입니다.}

10602 #2 예.{예.}

10602 #1 예. 건.{예. 그것은.}

10602 #2 게나제나.{그러나저러나.}

10602 #1 동네 전부 동원해사.{동네 전부 동원해야.}

10602 @1 아아.{아아.}

10602 #2 흑짚물 막 지우곡.{흠질할 물 막 지게 하고.}

10602 #1 그때 흑짚을 허젠 허민 이 여피만 다 불르는 게 아니라 우의 고데엔 허영 우의도 허곡.{그때 흠질을 하려고 하면 이 옆에만 다 바르는 것이 아니라 위에 새우라고 해서 위에도 하고.}

10602 @1 예.{예.}

10602 #1 또 안느로 영 꺼꿀로 불리는 거 저 앙토엔 허영 불르고. 경허당 보민 상당이 거 인력기 마니 드러.{또 안으로 이렇게 거꾸로 바르는 거 저 앙토라고 해서 바르고. 그렇게 하다 보면 상당히 그것 인력이 많이 들어.}

10603 @1 아 예예. 게문 그거에 대해서 좀 자세히 무리보쿠다양. 우선 터를 아까 정시 불령 선정해마씨? 방냥 잡는 거.{아 예예.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좀 자세히 여쭙겠습니다. 우선 터를 아까 지관 불려서 선정합니까? 방냥 잡는 것.}

10603 @1 그리고 다지는 거 뭐 트별리 다지지 안코. 게머는 우선 터를 마련해야 돼는데 집 세울 터를 마련허민 어떡케 준비를 해야 됩니까?{그리고 다지는 것은 뭐 특별히 다지지 않고. 그러면 우선 터를 마련해야 하는데 집 세울 터를 마련하려면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됩니까?}

10603 #1 정시 비령 데길허영 제일기지엔 중심 저쪼그로 도라아지렌 허영 제일기지 제이를 쥘러주고.{지관 빌려서 택일해서 집 지을 방향을 잡는 나무 막대라고 해서 중심 저쪽으로 돌아왔으라고 해서 집 지을 방향에 나무 막대를 세우고.}

10603 #1 게민 그다음은 목씨가 지블 짜서 그걸 중심므로 딱 네 귀에 그 저 지동 네 개 세와냥 그거 딱 마취그넵에 그 방냥 정확키 마취그네 지서주는 거고.{그러면 그다음은 목수가 집을 짜서 그것을 중심으로 딱 네 귀에 그 저 지동 네 개 세워놓아 그것에 딱 맞춰서 그 방향 정확히

지어주는 것이고.

10603 #1 계문 그다음부터 이제 목씨가 아라서 주인 근는 대로 그냥 무조건 지어가는 거주. 계문.{그러면 그다음부터 이제는 목수가 알아서 주인 말하는 대로 그냥 무조건 지어가는 거지. 그러면.}

10603 @1 네 귀 마랜허믄 네 귀에.{네 귀 마련하면 네 귀에.}

10603 #1 기둥을 세워야지. 기냥 나무.{기둥을 세워야지. 그냥 나무.}

10603 @1 예. 그 지둥 밑에.{예. 그 기둥 밑에.}

10603 #2 지둥꼭.{기둥뿌리.}

10603 @1 돌도.{돌도.}

10603 #2 예.{예.}

10603 #1 지둥구비엔 해연 세와날꼬. 엔나른 그건또 어시 그대로 땅에 무더도 이거는 뺄년 가도 썩지 아녀는 낭덜만 해나난.{기둥뿌리라고 해서 세웠었고. 옛날은 그것도 없이 그대로 땅에 묻어도 이것은 백년 가도 썩지 않는 나무들만 했으니까.}

10603 @1 그때 그 지둥 네 귀 지둥은 주로 무슨 낭 해날쑤가?{그때 그 기둥 네 귀 기둥은 주로 어떤 나무로 했었습니까?}

10603 #1 엔날 노가리. 노가리허고 귀트른 이 저 조록낭 귀틀. 소리낭 귀틀 경해서 그런 썩지 아녀는 낭만 허곡.{옛날 주목. 주목하고 귀틀은 이 저 조록나무 귀틀. 소리나무 귀틀 그렇게 해서 그런 썩지 않는 나무만 하고.}

10603 @1 지둥구베 노는 거슬.{기둥뿌리에 놓는 것을.}

10603 #1 지둥꼭 도리 주춧돌.{기둥뿌리 돌이 주춧돌.}

10603 @1 걸 이제 표주너시그로 허민 주춧돌. 여기서도 주춧돌리렌 그라날쑤가?{그것을 이제 표준어식으로 하면 주춧돌. 여기서도 주춧돌이라고 말했었습니까?}

10603 #1 예. 여기서도 주춧돌리엔.{예. 여기서도 주춧돌이라고.}

10603 @1 건 또 지둥꾸비라고도 허고양. 계문 주춧돌르네 네 개?{그것은 또 기둥뿌리라고도 하고요. 그러면 주춧돌은 네 개?}

10603 #1 지둥꾸븐 포가 포 아래 지둥이 네 개난 네 개 허고 개위에 두 개 두 개 허민 여덟 개 허고 저쪽 끝때기에 썩장히 만허지 그거.{기둥뿌리는 보가 보 아래 기둥이 네 개니까 네 개 하고 인방에 두 개 두 개 하면 여덟 개 하고 저쪽 끝에 썩장히 많지. 그거.}

10603 @1 으. 지둥은 여러 개 될 쑤가 이쓰니까양. 하여간 네 귀 귀통이만 이제 주춧돌 네 개가 되는 거시고양.{으. 기둥은 여러 개 될 수가 있으니까요. 하여간 네 귀 귀통이만 이제 주춧돌 네 개가 되는 것이고요.}

10603 #1 우선 주춧돌 세개 드는 게 포 두 개 개위 두 개 허민 으답 개. 그거시 쥬로 중요한 거.{우선 주춧돌 세개 드는 것이 보 두 개 인방 두 개 하면 여덟 개. 그것이 제일로 중요한 거.}

10603 @1 예예. 네 귀 네 개 하고 개위 두 개 허고 포 두 개 하고 여덟 개예.{예예. 네 귀 네 개 하고 보 두 개 하고 인방 두 개하면 여덟 개요.}

10603 @1 계문 거 주춧돌 논는데 다지는 건 뭐 아예 얻꼬?{그러면 그것 주춧돌 놓는데 다지

것은 뭐 아예 없고.}

10603 #1 예. 거 주춧돌 기자 삐트러지지만 아녀게 잘 빵 싱그는 거.{예. 그것 주춧돌 그제 비틀어지지만 얇게 잘 봐서 심는 거.}

10603 @1 주춧돌은 어떻 마련합니다?{주춧돌은 어떻게 마련합니다?}

10603 #1 돌 까깁 네모나게 허는 건또 인꼬 요 동그랗게 허는 건도 인꼬 경혜당 요 펜펜허게 허영 낭 끄르에 노른 딱 부트게{돌 깎아서 네모나게 하는 것도 있고 요 동그랗게 하는 것도 있고 그렇게 해다가 요 평평하게 해서 나무 밑에 놓으면 딱 붙게.}

10603 @1 네모난 거와 동그런 거를 그 도를 뒀엔 ㄱ릅니까?{네모난 것과 동그런 것을 그 돌 을 무엇이라고 말합니다?}

10603 #1 아 이 그 저 주춧돌.{아 이 그 저 주춧돌.}

10603 @1 주춧돌. 둥근 거든 네모난 거든 걸 구분헤영 곧진 아녀양.{주춧돌. 둥근 것이든 네 모난 것이든 그것을 구분해서 말하진 않고요.}

10603 @1 혹씨 집 진따 보면 평지보다 흥뽀 지블 높게 진끼도 험니까?{혹씨 집 짓다 보면 평 지보다 조금 집을 높게 짓기도 합니까?}

10603 #1 아 그저네 높게 이디 저 쪼뽀 높게 지성으네 물 들지 말게 지술 가라 올리곡 커영 으네 쪼뽀 노프게.{아 그전에 높게 여기 저 조금 높게 지어서 물 들지 말게 짓을 갈아 올리고 해서 조금 높게.}

10603 @1 높게 진젠 허미는 뭘 싸아올려야 뽀니까?{높게 지으려고 하면 뭘 쌓아올려야 합니 까?}

10603 #1 지둥꾸블 노피는 거.{기둥뿌리를 높이는 것.}

10603 @1 건 지둥굼만 노피는 거우파?{그것은 기둥뿌리만 높이는 것입니까?}

10603 #1 주춧돌만 거 큰 거로 허영 흥쉴 노프게 허곡. 경허민 다시 담 다도 그거 노피로 이 지블 꾸미니까 노파지는 거.{주춧돌만 거 큰 것으로 해서 조금 높게 하고. 그러면 다시 담 쌓아도 그것 높이로 이 집을 꾸미니까 높아지는 것.}

10603 @1 노파지는 거고예?{높아지는 것이고요?}

10603 @1 게문 이제 지둥 마련하고 포 마련하고 헐라고 허민 낭은 어떤 낭더를 써마씨?{그러 면 이제 기둥 마련하고 보 마련하고 하려면 나무는 어떤 나무들을 썼나요?}

10603 #1 옛날 씨난 낭으로는 이르물 다 곧젠 허민 그 저 노가리 지둥.{옛날 썼었던 나무로 는 이름을 다 말하려고 하면 그 저 주목 기둥.}

10603 #1 소리낭 귀틀.{소리나무 귀틀.}

10603 #1 게문 그나마 웬만년 거는 조롱낭 허곡 솔피낭도 쓰곡커는 디 그거는 쪼뽀 약킨낭이 라도 그걸로 쓰곡.{그러면 그나마 웬만한 것은 조록나무 하고 솔비나무도 쓰고 하는데 그것은 조 금 약한 나무라도 그것으로 쓰고.}

10603 @1 지둥은 노가리. 귀트른 소리낭. 포나 개위나 대들뽀 가튼 거는 어떻합니다?{기둥은 주목. 귀틀은 소리나무. 보나 인방이나 대들보 같은 것은 어떻게 합니까?}

10603 #1 옛날 낭은 포는 반두어리.{옛날 나무는 보는 후박나무.}

10603 @1 ? 이건 어떻 냥이우파?{후박나무. 이것은 어떤 나무입니까?}

10603 #1 이 나무가 요즈믄 잘 안 보이는데. 그 뭐라? 누룽낭ㄹ치 이파리 돌는 게 누룽낭보다 이파리가 조금 크고 나무도 그러케 물르고. 게니까 손질하기 쉬운 마세 반두어리를 우엔 쓰는 거. 아래는 썩찌 아년 우에서 썩찌 아녀는 거니까.{이 나무가 요즘은 잘 안 보이는데. 그 뭐야? 누룽 나무처럼 이파리 돌는 것이 누룽나무보다 이파리가 조금 크고 나무도 그렇게 무르고. 그러니까 손질하기 쉬운 맛에 후박나무를 위에는 쓰는 거. 아래는 썩지 않아. 위에서 썩지 안 하는 것이니까.}

10603 @1 그 냥 이름 한번 더. 뭐마씨?{그 나무 이름 한번 더. 무엇이라고요?}

10603 #1 반두어리.{후박나무.}

10603 #1 지금도 사네 가믄 실 건디.{지금도 산에 가면 있을 테데.}

10603 @1 아 예예. 게믄 포는 반두어리낭.{아 예예. 그러면 보는 후박나무.}

10603 #1 반두어리로 거의가 쓰는 거. 옷또리는.{후박나무로 거의 다 쓰는 거. 옷도리는.}

10603 @1 옷또리까지예.{옷도리까지요.}

10603 #1 서리만 땀 냥.{서까래만 땀 나무.}

10603 @1 서리는 주로 땀 냥 씨마씨?{서까래는 주로 어떤 나무를 씩니까?}

10603 #1 치레허는 사르믄 것도 노가리.{치레하는 사람은 것도 주목.}

10603 @1 치레엔 허믄 노가리. 경 아녀민예?{치레라고 하면 주목. 그렇지 않으면요?}

10603 #1 경 아녀민 베엠편기.{그렇지 않으면 비목나무.}

10603 @1 뭐마씨?{무엇이라고요?}

10603 #1 베엠편기엔 현 나무가 이디 이디 거 땀 나무여.{비목나무라고 한 나무가 여기 여기 거 무슨 나무지.}

10603 @2 베엠편기.{비목나무.}

10603 @1 경 아녀믄 베엠편기.{그렇지 않으면 비목나무.}

10603 #1 베엠편기가 고추 올라가고 좀 질긴 냥이낭.{비목나무가 고추 올라가고 좀 질긴 나무니까.}

10603 @1 예. 그래서 게믄 아까 반두어리는 포나 도리나 서리 저 포나 도리 다 씨양?{예. 그래서 그러면 아까 후박나무는 보나 도리나 서까래 저 보나 도리 다 쓴다고요.}

10603 #1 예.{예.}

10603 #1 그런 용으로 쓰고 밭짜리는 거 빨리 썩는 냥 따무네 안 쓰곡. 우에만.{그런 용으로 쓰고 밭짜리는 그것 빨리 썩는 나무이기 때문에 안 쓰고. 위에만.}

10603 @1 우에만. 아하.{위에만. 아하.}

10603 @1 게믄 이제 가젠 허민 이제 포도 어떤 포더리 이쓸 게 아니우파? 포 종류가 인꼬 도리 종류가 인꼬.{그러면 이제 처마는 하면 이제 보도 어떤 보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포 종류가 있고 도리 종류가 있고.}

10603 #1 거 이르믄 다 곧젠 허민 막 한다.{그것 이름을 다 말하려고 하면 막 많은데.}

10603 @1 막 하도 ㄹ릅씨?{막 많아도 말씀하십시오?}

10603 #1 우에 썩르게 해서 똑 포그찌 메운 거 종포.{보 위에 짧게 해서 꼭 보처럼 맨 것이 종보.}

10603 @1 예.{예.}

10603 #1 계문 그 우에 상마르 올려 놀 떠 썩는 거시 대궁.{그러면 그 위에 용마루 올려 놓을 데 썩는 것이 대궁.}

10603 @1 예.{예.}

10603 #1 계문 이젠 상마르 막 올라가시니까 이젠 그 다으른 포 아팍 영 차이인게 메우는 게 개위. {그러면 이제는 용마루 막 올라갔으니까 이제는 다음은 보 앞에 이렇게 차이 있게 메우는 게 인방.}

10603 @1 예.{예.}

10603 # 계민 그 디 개원찌둥 그디 또 엽치기로 나가는 거시 포 대가리에서 물린 거는 문꼴도리. 개위에서 메운 거슨 개원또리. 전부 건 이젠 뺑 도라가는 건 도리로 드러가곡.{그러면 그 텃기둥. 거기 또 옆으로 나가는 것이 보 대가리에서 물린 것을 문꼴도리. 인방위에서 메운 것은 인방도리. 전부 그것은 이제는 빙 돌아가는 것은 도리로 들어가고.}

10603 @예. 도리로 드러가예.{예. 도리로 들어가고.}

10603 # 계민 양쪽 고분포엔 현 게 인쭈. 쟈 낭 드러가야 저쭈게 걸쳐서 그거세서 양쭈게 다 시끄니까.{그러면 양쪽 곱은보라고 한 게 있지. 쟈나무 들어가야 저쭈에 걸쳐서 그것에서 양쭈에 다 실으니까.}

10603 @1 예.{예.}

10603 #1 계문 건 고분포. 계영 드러간 그거 다 드러가민 서리 드러가는.{그러면 그것은 곱은보. 그래서 들어간 그거 다 들어가면 서까래 들어가는.}

10603 @1 포는 종포 고분포.{보는 종보 곱은보.}

10603 @그다음에 중시메 포를 뭘엔 험니까?{그다음에 중심에 보를 뭘라고 하나요?}

10603 #1 저 포 우에 중심 또 올라 아진 거 종포.{저 보 위에 중심 또 올라얏은 거. 종보.}

10603 @1 종포 종포 아래는?{종보 종보 아래는?}

10603 #1 종포 아래는 이거 포. 저 긴 거. 으기서부터 저까지 가는 포.{종보 아래는 이거 보. 저 긴 거. 여기서부터 저까지 가는 보.}

10603 @1 그 포를 대들포라고는 아십니까?{그 보를 대들보라고는 않습니까?}

10603 #1 아니 여기서 그자 포.{아니 여기서 그저 보.}

10603 @1 그냥 험니까?{그냥 합니까?}

10603 #1 포엔만 허난.{보라고만 하니깐.}

10603 @1 우리 저 서울시그로 하면 대들뿐인데양. 여긴 포다양. 대들포 들포라고도 아십니까?{우리 저 서울식으로 하면 대들보인데요, 여기는 보네요. 대들보 들보라고도 아니합니까?}

10603 #1 여긴 그자 포. 종포.{여기는 그저 포. 종보.}

10603 @1 포가 이러케 올라간 노미 종포고.{보가 이렇게 올라간 것이 종보고.}

10603 #1 그다음 저쭈그로 그다음 꾸부렁헌 거.{그다음 저쭈쪽으로 그다음 구부러진 것.}

10603 @1 .{굽은보이고.}

10603 #1 큰낭 고분포고.{큰 나무 굽은보고.}

10603 @1 대들포렌 마리 안 나오네.{대들보라는 말이 안 나오네.}

10603 #2 대들포엔 현 마를 시른 신고라.{대들보라고 한 말은 있기는 있는 모양이야.}

10603 @1 아 드러나긴 험띠가?{아 들어나긴 했나요?}

10603 #2 아 쪼끔 허믈게 어디 무신 닐로 아이고 대들포가 씨러정 허는 마를 허나네.{아 조급하면 어디 무슨 일로 아이고 대들보가 쓰러졌다하는 말을 하니까.}

10603 @1 예.{예.}

10603 #2 대들포렌 현.{대들보라고 하는.}

10603 @1 그거 이제 삼춘는 그냥 포.{그거 이제 삼춘은 그냥 보.}

10603 #1 큰포가 이신고라.{큰 보가 있는 모양이야.}

10603 @1 그 삼춘 니베션 대들포는 안 나와부네.{그 삼춘 입에서는 대들보는 안 나오네.}

10603 #1 대들포가.{대들보가.}

10603 @1 여청 삼춘는 이르른 나왓신디.{여자 삼춘은 이름은 나오는데.}

10603 #2 계난 그 포에로 지금 어떻사 험디 어디 크니리 나민 아이고 그 지빈 대들포가 씨러져서.{그러니까 그 보로 지금 어떻게야 하는지 어디 큰일이 나면 아이고 그 집에는 대들보가 쓰러졌어.}

10603 @1 쓰러져서. 제일 중요헌 낭입쥬.{쓰러졌어. 가장 중요한 나무지요.}

10603 #1 제일 중요헌 게 상므르. 그거시 옛날 그 지비 뭐 망허젠 험쥬. 상므르가 어떻 허연 허명.{가장 중요한 것이 용마루. 그것이 옛날 그 집에 뭐 망하려고 하네. 용마루가 어떻게 하면 서.}

10603 @1 상므르 또 그 집 우에 우에 믈르 우에 포 우에 꺼.{용마루는 또 그 집 위에 위에 마루 위에 보 위에 것.}

10603 #1 포 우에 꺼 그거 그거를 쥬 중심 잡앙 보논디.{보 위에 것. 그것 그것을 쥬 중심 잡아서 보논데.}

10603 @1 삼춘는 대들포는 전혀 얘기허구정을 안 험고라. (웃음) 쟁 이젠 포 올리고 이 지둥 다 내고. 거민 집 아늘 꾸며살 거 아니우파? 계믈 어떻 꾸밈니까?{삼춘은 대들보는 전혀 얘기하고 싶지 않은지. (웃음) 그래서 이제는 보 올리고 이 기둥 다 내고. 그러면 집 안을 꾸며야할 것 아닙니까?}

10603 #1 안네 꾸미는 건 백션.{안에 꾸미는 것은 벽션.}

10603 @1 네.{예.}

10603 #1 쥬수 아무 디나 세우는 거 백션. 문꼴 들 떠는 건 일등푸미라야 돼니까 문꼴백션. 요거 생깁백션. 이 이 중시메 쥬는 거.{쥬수 아무 데나 세우는 것은 벽션. 문틀 달 곳은 일등푸미라야 되니까 문설주. 요것은 깃기둥. 이 중심에 쥬는 것.}

10603 @1 계속 ㄱ릅쥬?{계속 말씀하십시오?}

10603 #1 쟁 드러가며는 문꼴백션 다 메우민 문때방을 메와야 돼니까 문때방이 어느 문때방

문때방도 이름 지왕 구들 문때방 구들반문때방 허든 저 풀 대가리에 메왕 문꼴 도리에서 물리는게 반 받창문이나네.{그렇게 들어가면 문설주 다 메우면 문지방을 메워야 하나까 문지방이 어느 문지방 어느 문지방도 이름 지워서 방문지방 방의 반문지방 하면 저 보 머리에 매워서 문틀 도리에서 물리는 것이 바깥창문이나까.}

10603 #1 받창문 백써니고 여기는 에 이거 문꼬리에 헤신디. 물꼴백선 요디 흥나 중심으로 큰 거는 거고라 생깁백써넨 허고. 엔나른 그거 좀 세게 세우민 생깁찌등엔도 허고 해서. 중시메 쟈 거 세우는 거.{바깥창문 벽선이고 여기는 에 이거 문틀이라고 했는데. 문설주 여기 하나 중심으로 큰 것은 그것보고 상기둥이라고 하고. 옛날은 그거 좀 세게 세우면 깃기둥이라고도 하고 해서. 중심에 쟈 나무 세우는 거.}

10603 @1 이제 포하고 도리로 허고양. 그다음 미트로 와 가지고 백션 들고.{이제 보하고 도리로 하고요. 그다음 밑으로 와가지고 벽선 달고.}

10603 #1 아니 미트로 귀틀 메운 다음에.{아니 밑으로 귀틀 메운 다음에.}

10603 @1 귀틀 귀틀 메운 다음에.{귀틀 귀틀 메운 다음에.}

10603 #1 백써니 그다음 들어간.{벽선이 그다음 들어갔지.}

10603 @1 게문 백써니 드러가고양. 그 창문틀드리 다 세와지고. 경 현 다음에 뭐 헐 꺼우파? {그러면 벽선이 들어가고요. 그 창문틀들이 다 세워지고. 그렇게 한 다음에 무엇 할 것입니까?}

10603 #1 경현 다음은 이제 테기. 이 저 아래는 널 드리는 걸꼬라 빈지.{그렇게 한 다음에는 이제 외. 이 저 아래는 널 드리는 것보고 빈지.}

10603 #1 빈지 드리곡. 그다음 우에는 테기라고 해서 이 저 나무 준준헌 거 영 가로 세로 영 낱으네게 문 노로 열거그네 테기 헌텐 허영 그거세 혹 떠러지지 말게. 그건 여쁜 거난 그거 여꺼 낱 혹 우에낱 문짝허게. 다 물르민 종이 불르며는 방이 다 되는 거.{빈지 드리고. 그다음 위에는 외라고 해서 이 저 나무 자갈한 것을 이렇게 가로 세로 이렇게 놔서 모두 노로 얹어서 외 한다고 해서 그것에 흙 떨어지지 말게. 그것은 엮은 거니까 그거 엮어 놓은 다음 흙 위에 놓아서 반반하게. 다 마르면 종이 바르면 방이 다 되는 거.}

10603 @1 테기는 구들 천장이우파? 삼방 천장이우파?{외는 방 천장입니까? 마루 천장입니까?}

10603 #1 백.{백.}

10603 @1 베기 테기지양. 게미는 삼방 천장은?{백이 외지요. 그러면 마루 천장은?}

10603 #1 삼방 천장이나 구들 천장은 처나반.{마루 천장이나 방 천장은 천장.}

10603 @1 처나반.{천장.}

10603 #1 처나반 시경 헤오는 거. 처나바네 대 노명 혹 노명 허영 큰똥허게 처나반 시끈덴 허는 거.{천장 징거서 하는 거. 천장에 대나무 놓으면서 흙 놓으면서 해서 가지런하게 천장 징근다고 하는 것.}

10603 @1 처나반 시끈다. 그러며는 아까 포허고 도리 현 다음에 그 우에 지붕. 지붕을 하젠 허면.{천장 징근다. 그러면 아까 보하고 도리 한 다음에 그 위에 지붕. 지붕을 하려고 하면.}

10603 #1 지붕은 서리.{지붕은 서까래.}

10603 @1 .{예.}

10603 #1 서리 다음 너스리.{서까래 다음 발비.}

10603 @1 서리는 뭘로 험니까? 주로.{서까래는 무엇으로 합니까? 주로.}

10603 #1 서리는 그 치레허는 노가리고 아니면 베엠편기.{서까래는 그 치레하는 주목이고 아니면 비목나무.}

10603 @1 베엠편기양? 그 서리를 여듭니까?{비목나무요. 그 서까래를 여듭니까?}

10603 #1 아니 서리는 건텐 허여.{아니 서까래는 건다고 해.}

10603 @1 서리는 거리양.{서까래는 건다고요.}

10603 #1 예.{예.}

10603 @1 너스리는 여듭니까? 어떻 여듭니까?{발비는 여듭니까? 어떻게 여듭니까.}

10603 #1 너스리는 이레 쪽커게 뭐 노 메여 넣으네 나무나 대 영 노멍 꼬자 올리는 거. 노로.{발비는 이리로 쪽하게 뭐 노 매어 놓고 나무나 대 이렇게 놓으면서 꽃아 올리는 거. 노로.}

10603 @1 이 너스리 험 때는 노로 이용허는데 나무나 대 험니까.{이 발비할 때는 노로 이용하는데 나무나 대 합니까?}

10603 #1 예.{예.}

10603 @1 게문 대는 족때나 왕대 다.{그러면 대는 이대나 왕대 다.}

10603 #1 아무 대라도. 대나 나무로.{아무 대라도. 대나 나무로.}

10603 @1 나무도 대와 가치 길쪽커거나 그런 걸똥 해당양?{나무도 대처럼 길쪽커거나 그런 것들 해다가요?}

10603 #1 거 다 슬지믄 깨멍.{그것 다 두꺼우면 깨면서.}

10603 @1 슬지믄 깨멍.{두꺼우면 깨면서.}

10603 @1 그러며는 서리 허고 서리 미테 너스리 헤여마씨?{그러면 서까래 하고 서까래 밑에 발비 합니까?}

10603 #1 서리 우에 너스리.{서까래 위에 발비.}

10603 @1 서리 험 다음에 너스리. 너스리 험 다음에 헝글 더प्니까?{서리 한 다음에 발비. 발비한 다음에 흙을 덮습니까?}

10603 #1 너스리 험 다음에는 이디 발 페운덴 헤영 곧띠로 또 영 여끈 걸. 길지 아녀게.{발비한 다음에는 여기 발 편다고 가로 또 이렇게 엮은 것. 길지 않게.}

10603 @1 아 너스리 우에 또 발 페웁니까?{아 발비 위에 또 발을 퍼나요?}

10603 #1 바를 저 곧띠만 어여메만 뽕 도라가멍.{발을 저 가로만 구석에만 빙 돌아가면서.}

10603 @1 아 곧띠만.{아 가에만.}

10603 #1 예.{예.}

10603 @1 바레 재료는마씨? 재료는마씨?{발의 재료는요? 재료는요.}

10603 #2 걸또 대나 낭이주.{그것도 대나 나무지.}

10603 #1 대나 나무 나무 영헤영 깨어그벵에 이거 짜는 거. 저 뉘로 노로 막 여꿍.{대나 나무 나무 이렇게 해서 깨서 이거 짜는 거. 저 뉘로 노로 막 엮어서.}

10603 @1 너스리가치 짜는 거우파?{아까 발비처럼 짜는 겁니까?}

10603 #1 아이 건 진짜 저 뭐 뜸 짜들 그 저.{아니. 그것은 진짜 저 뭐 뜸 짜듯이 그 저.}

10603 @1 너스리는 뜸 짜뜸 제대로 짜는 거고.{발비는 뜸 짜듯이 제대로 짜는 것이고.}

10603 #1 어. 너스리는 소느로 기냥 열거 가는 거고.{어. 발비는 손으로 그냥 얹어 가는 것이고.}

10603 @1 아 소느로 열거가고.{아 손으로 얹어 가고.}

10603 #1 발 페우덴 허는 건 진짜 도래 노 가망 진짜 이거 짜는.{발 편다고 하는 것은 진짜 들에 노 감아서 진짜 이거 짜는.}

10603 @1 집 곧띠로 도라가명.{지붕 가로 돌아가면서.}

10603 #1 곧띠 도라가명.{가로 돌아가면서.}

10603 @1 예. 게문 이제 서리 현 다음 너스리 현 다음. 그다음 발 네 곧띠에 도랑. 그 다음엔 마씨?{예. 그러면 이제 서까래 한 다음 발비 한 다음. 다음 발 네 개의 가로 돌아서. 그다음에는 요?}

10603 #1 그다음엔 잘 허는 지븐 혹 올링 고데엔 허영.{그다음엔 잘 하는 집은 흙 올려서 새우라고 해서.}

10603 @1 혹 올리는 거슬 고데라고 헤양. 예예.{흙 올리는 것을 새우라고 한다고요. 예예.}

10603 #1 거 올리 그 골라지문 이젠 지블 더프는 거.{그것 옳게. 가라앉으면 이제는 집을 덮는 거.}

10603 @1 지블 더퍼양. 지블 더플 댐 어떻 더프니까?{집을 덮어요? 집을 덮을 때는 어떻게 덮습니까?}

10603 #1 그때는 보통 이 무근집 사온 때는 그신새로 더프고 경 아녀민 어우그로 더프고 충분히 더프는 거.{그때는 보통 이 목은집 사온 때는. 썩은새로 덮고 그렇지 않으면 억새로 덮고 충분히 덮는 거.}

10603 @1 계난 고데 우에 그슨새 사와지민 그슨샬 덩쪽양. 어욱 커영 덩쪽. 그다음 그 우엔마 씨?{그러니까 새우 위에 썩은새 사오면 썩은새를 덩고요. 억새해서 덮고. 그다음 그 위에는요?}

10603 #1 그 우엔 집 이러지니까 그거고 안으로는 다음 혹 두 불 꾸명 또 앙토.{그 위에는 지붕이었으니까 그것이고 안으로는 다음 흙 두 벌 반죽하면서 또 앙토.}

10603 @1 아느론 앙토. 아까 지붕에 그슨새 허고 아니민 어시민 어욱 커고{안으로는 앙토. 아까 지붕에 썩은새 하고 아니면 없으면 억새 하고.}

10603 #2 그 우엔 새.{그 위에는 띠.}

10603 @1 그 우에 이제 새 헤여그네.{그 위에 이제 띠 해서.}

10603 #1 아 그 우엔 새로 안 셤게 그 제라허게 더플 때는 그거. 새 허영 더프고.{아 그 위에는 띠로 안 세게 그 격에 맞게 덮을 대는 그것. 띠 해서 덮고.}

10603 @1 새 허영 더프고. 그다음 줄 매야 돼고. 게 그건까지 ㄱ치 해야 지붕을 일판 끈마치는 거.{띠 해서 덮고. 그다음 줄 매야 되고. 그래 그것까지 같이 해야 지붕을 일판 끝마치는 것.}

10603 #1 계난 초블 이는 거는 그거고.{그러니까 초블 이는 것은 그것이고.}

10603 @1 이제 아느로 와가지고 아느로 이제 흑 바름 허는 게 앙토고양.{그렇게 해서 이제 안으로 와서 안으로 이제 흑 바르기 하는 것이 앙토고요.}

10603 @1 그다으메 이제 구드르를 노커나 상방을 놔살 꺼 아니우파? 이젠양.{그다음에 이제 방을 놓거나 마루를 놓어야 할 것 아닙니까? 이제는요.}

10603 #1 상방은 상방엔 헤그네 마릴닐 논는 게 상방.{대청은 상방이라고 해서 마루널을 놓는 것이 마루.}

10603 @1 네.{예.}

10603 #1 게문 구드르를 도를 납작납작헌 거 해당 쏘게 구멍 내왕 굴목 지더지게시리 구멍을 내와사 건 구두를 받텐 허는 거고.{그러면 구들은 돌을 납작납작한 것을 헤다가 속에 구멍 뚫어서 굴목 진을 수 있게끔 구멍을 뚫어야 구들을 놓았다고 하는 것이고.}

10603 @1 예.{예.}

10603 #1 게문 구두를 노며는 그걸 물류젠 마구 불 때여그냉에 그 다으메 이거를 반뜩아녀니까 엔나레 요즘 그 고데 저 췌쏘니 어시니까 솜뚜경 해당 어퍼냥 짹짹 밀면 반뜩허게.{그러면 구들을 놓으면 그것을 말리려고 마구 불을 지펴서 그다음에 이것이 반뜩하지 않으니까 옛날은 요즘 그 고대 저 흙손이 없으니까 솜뚜경 헤다가 엮어봐서 짹짹 밀면 반뜩허게.}

10603 @1 게난 볍서양. 굴목 고를 내영양. 그 우에 도를 더플 꺼 아니우파? 도를 더플 때 굴목 위에만 험니까? 방빠닥 다?{그러니까 보십시오. 굴목 골을 내세요. 그 위에 돌을 덮을 거 아닙니까? 돌을 덮을 때 굴목 위에만 험니까? 방빠닥 다?}

10603 #1 방빠닥 다.{방빠닥 다.}

10603 @1 다.{다.}

10603 #1 그걸로 아녀며는 그디만 덩찌 뜯 더레 더위가 안 가니까 이제 전부 구멍 내왕. 야픈 돌로 전부 더경.{그것으로 안 하면 거기만 덩찌 뜯 데로 온기가 안 가니까 이제 전부 구멍 내서. 납작한 돌로 전부 덮어서.}

10603 @1 그지양? 게문 그 돌 더편. 그 우의는?{그렇지요? 그러면 그 돌 덮어서.}

10603 #1 그 우에 흑. 편 흑. 촌늑기라사 거 불 잘 안 부트게.{그 위에 흑. 이긴 흑. 찰흙이라야 그것 불 잘 안 붙게.}

10603 @1 편흑. 촌늑양. 게민 촌늑글 더플 때 아까 잘 안 헤지민 솜뚜경 헤 가지고 이렇게 험다는 말.{찰흙. 찰흙요. 그러면 찰흙을 덮을 때 아까 잘 안 해 지면 솜뚜경 해서 이렇게 한다는 말.}

10603 #1 깎라냥 물류당으네 거저 몰라가갠 이걸 반뜩허게 허젠 허민 솜뚜경으로 미러서 반뜩허게.{깎아와서 말리다가는 거의 말라가면 이것을 반뜩허게 하려고 하면 솜뚜경으로 밀어서 반뜩허게.}

10603 @1 그 돌 구들또른 어떻허영 구험니까?{그 돌 구들들은 어떻게 해서 구합니까?}

10603 #1 구들또른 그저넌 어디 강 텅기명 거의 납작납작칸 헌 거만 주서당 헌 거고.{구들들은 그전에는 어디 가서 다니다가 거의 납작납작한 것만 주워다가 한 것이고.}

10603 @1 아 주서당 헌 거고. 아.{아 주워다가 한 것이고. 아.}

10603 #1 그거 뭐 깨는 디 시니까 허주마는 그 저네는 전부 거 주서단.{요즘은 그것
뭐 깨는 데 있으니까 하지만 그 전에는 전부 그거 주워다가.}

10603 @1 집 째을 사라미 미리 깎스를 마련해당 논는구나양.{집 째을 사람이 미리 감을 마련
해다가 놓는군요.}

10603 #2 바뎀 담은 디 어디 가미는 경헌 도리 심니다.{밭담 쌓는 데 어디 가면 그러한 돌이
있습니다.}

10603 @1 아 예. 경허영 구들허고 이젠 이 마리로 왕예. 마리?{아 예. 그렇게 해서 구들하고.
이제는 마루로 와서요?}

10603 #1 마리는 이젠 널파늘 이녁크로 오령.{마루는 이제는 널빤지를 이녁대로 오려서.}

10603 @1 오려양.{오린다고요?}

10603 #1 이젠 쏘는 디 인쭈마는 그때는.{지금은 파는 데가 있지만 그때는.}

10603 @1 그때 마리너를 널 주로 사용허는 건마씨?{그때 마루널을 널 주로 사용하는 것은
요?}

10603 #1 마리 너리 이녁쿠로 오령.{마루널 이녁대로 오려서.}

10603 @1 아 오령.{아 오려서.}

10603 #1 이거시.{이것이.}

10603 @1 게문 마린너를 낭은예.{그러면 마루널은 나무는요?}

10603 #1 그때는 고지 가그벙에 그차당 그거 다 췌에 뒤로 허영 꼬성. 췌에 메왕. 시끄지 모
터니까.{그때는 꽃에 가서 끊어다가 그거 다 소에 무엇으로 해서 끊어다. 소에 메워서. 신지 못하
니까.}

10603 @2 으으.{으으.}

10603 #1 꼬서당 이디 오랑. 우리 요버네 본 톱 대톱 그걸로 다 오려. 맨 날 메틀 거 오리는
거?{끊어다가 여기 와서. 우리 요번에 본 톱 큰톱 그것으로 다 오려.}

10603 @1 게민 마라도 맨 미테서부터 츠츠츠초 올라옵씨?{그러면 마루도 맨 밑에서부터 차차
차차 올라오십시오?}

10603 #1 맨 미테 귀틀 바투는 도리 인꼬.{맨 밑에 귀틀 받치는 돌이 있고.}

10603 @1 걸 무슨 도리엔 험니까?{그것을 무슨 돌이라고 하나요?}

10603 @1 귀틀똥.{귀틀돌}

10603 #1 거 뭐엔 허는 고? 그거 귀틀 바툼덴만 헤시난.{그것 뭐라고 하는가? 그것은 귀틀
받친다고만 했으니까.}

10603 @1 귀틀 바투는 돌 노코양. 예예. 그 다으메 귀틀허고.{귀틀 받치는 돌 놓고요. 예예.
그다음에 귀틀하고.}

10603 #1 귀틀.{귀틀.}

10603 @1 귀틀은 영 가는 놈도 인꼬 영 가는 노미 인꼬.{귀틀은 이렇게 가는 놈이 있고 이렇
게 가는 놈이 있고.}

10603 #1 그저네는 그 걸리는 낭 허나 낡 일로 영. 전부.{그전에는 그 거는 나무 하나 뵈서

이렇게. 전부.}

10603 @1 전부 일로만 뇌양. 그걸 모나게 험니까? 쫘 등글게도 허곡 험니까?{전부 이리로만 놓나요? 그것을 모나게 험니까? 쫘 등글게도 하고 험니까?}

10603 #1 아니 모나게 까까불민 약커니까 그자 우만 반뜩커게 가깁.{아니 모나게 깎으면 약 하니까 그저 위만 반듯하게 깎아서.}

10603 @1 계난 요러케 노첸 무조건 요러케만 뇌양. 게문 귀틀 험 다음마씨?{그러니까 요렇게 놓으려고 무조건 요렇게만 놓아요? 그러면 귀틀한 다음은요?}

10603 #1 귀틀 험 다음 그다음 마리 논는 거?{귀틀 한 다음 그다음 마루 놓는 거.}

10603 #1 널과는 이제 따끄멍 마릴뇌사.{널판은 이제 뚫으면서 마루를 깔아야.}

10603 @1 예예. 게영 마리노록양.{예예. 그래서 마루 깔고요.}

10603 #1 예.{예.}

10603 @1 흑씨 마리 놀 때 요디도 뭐 험나 마드러 노록 허지 아넘니까?{흑씨 마루 깔 때 요기도 뭐 하나 만들어 놓고 하지 않습니까?}

10603 #1 부섭.{돌화로.}

10603 #2 부섭도 멘들주마는 영영 차창 달민 거 영 허영.{돌화로도 만들지만 이리이러하게 찬장 같은 것 이렇게 해서.}

10603 #1 아 요디 요디 우선 마리 구멍 딸랑으네 돌 돌화리 큰 거 해당 바강 겨우레 거기서 불살라 초는 부섭.{아 요기 요기 우선 마루 구멍 뚫러서 돌 돌화로 큰 거 해당 바박아서 겨울에 거기서 불 살라 쪼는 돌화로.}

10603 @1 부섭 만드라야지양?{돌화로 만들어야지요?}

10603 #1 부서비 인꼬. 이젠 마리를 다 뇌지민 저짜 양조게는 문 들민 어간이 비니까 이젠 그디는 장귀엔 헤네 만드렁 거기 뭐 물건 논는 거.{돌화리가 있고. 이제는 마루를 다 깔면 저쪽 양쪽에는 문 달면 사이가 비니까 이제는 거기에는 불박이장이라고 해서 만들어서 거기 뭐 물건 넣는 거.}

10603 @1 장귀?{불박이장.}

10603 #1 예.{예.}

10603 @1 마리에 놓는 장과 가튼 겨우파?{마루에 두는 장과 같은 것입니까?}

10603 #1 예.{예.}

10603 @1 장귀?{불박이장?}

10603 #1 어.{어.}

10603 #2 장귀 이 찬짱ㄴ치록. 그자.{불박이장. 이 찬장처럼.}

10603 @1 예예.{예예.}

10603 #1 찬짱 대비 거 완전니 부터인는 거난.{찬장 대비 그것 완전히 붙어 있는 것이니까.}

10603 @1 아 불빠기장가튼 걸 이제 장기구나. 마리에 논는 거?{아 불박이장 같은 것을 이제 불박이장이군요. 마루에 두는 것?}

10603 #2 예.{예.}

10603 @1 이제 방이 돼고 이제 마리가 똥짜녀우파? 이젠 정지해살 꺼 아니우파?{그러면 이제 방이 되고 이제 마루가 똥잖습니까? 이제는 부엌해야지 않겠습니까?}

10603 #2 정지.{부엌.}

10603 #1 게문 정지는 엔나레는 그 막꾸들허민 뉘 초네는 뉘 안 뉘텐 해서 그 혼 쪼근 무조 켜 정지.{그러면 부엌은 옛날에는 그 막구들하면 뉘 촌에는 뉘 안 된다고 해서 그 한 쪽은 무조건 부엌.}

10603 @1 네.{예.}

10603 #1 정지허며는 정지에는 벨로.{부엌하면 부엌에는 벨로.}

10603 #2 손떡 손떡 해넌. 엔나른.{봇돌 봇돌 해서 옛날은.}

10603 #1 드러가는 거 어시나네 둘 사각경으로 가까당 세 개 영 낱 그디 손 아찌는 거.{들어 가는 것이 없으니까 둘 사각형으로 깎아다가 세 개 이렇게 놔서 거기에 술 안치는 것.}

10603 @1 그게 손떠기우파?{그것이 봇돌입니까?}

10603 #2 예.{예.}

10603 #1 예. 손떡.{예. 봇돌.}

10603 @1 손 아찌 어떤 때는 흑찜도 허지 아넘니까?{술 안쳐서 어떤 때는 흙질도 하지 않습니까?}

10603 #1 아 흑찜허는 거는.{아 흙질하는 것은.}

10603 #2 그거는 그때는 경 아녀고.{그거는 그때는 그렇게 앓고.}

10603 #1 증가니고.{중간이고.}

10603 #2 증가네 화더기라고. 거 증가네.{중간에 화덕이라고 거 중간에.}

10603 @1 아 술 이거 현 거슨 화더기고 돌만 세우민 손떠기고 예저네는 화더근 안 허고 이젠 손떡만.{아 술 이거 한 것은 화덕이라고 돌만 세우면 봇돌이고 예전에는 화덕은 안 하고 이제는 봇돌만.}

10603 #1 엔날 화더기 어시나네 그냥 거만.{옛날 화덕이 없으니까 그냥 그것만.}

10603 @1 손떠근 멘개 만듭니까?{봇돌은 몇 개 만드나요?}

10603 #2 건 손 여라 개.{그것은 술 여러 개.}

10603 #1 손 흥나가 세 개 바치는 거나네 연결될 때는 평균 두 개 되는 거주.{술 하나가 세 개 받히는 것이니까 연결될 때는 평균 두 개 되는 거지.}

10603 @1 연결 될 때는 두 개? 게문 이제 손떡 마련허고. 정지를 다 꾸미젠 허민 손떡 마련 허고. 그다음은마씨?{연결될 때는 두 개? 그러면 이제 봇돌 마련하고. 부엌을 다 꾸미려고 하면 봇돌 마련하고. 그다음에는요?}

10603 #1 살레.{찬장.}

10603 @1 살레. 살레는 어떻?{찬장. 찬장은 어떻게.}

10603 #1 살레는 이 저 뭐로 나무로 짜든가 뭐로 헤당으네 영 노민 그디 사발도 어프고 그 저 모든 거 다 논는 거. 살레.{찬장은 이 저 무엇으로 나무로 짜든지 무엇으로 해서 이렇게 놓으면 거기 사발도 얹어놓고 그 저 모든 것을 다 놓는 것. 찬장.}

10603 @1 구들레 고를 내지 아년쭈가양. 그 구드른 굴목 구드른 아닐 꺼 아니우파양.{아
까 방에 골을 내지 않았습니까? 그 방은 굴목 때는 방은 아닐 것 아닙니까?}

10603 #1 아니 거 손.{아니 그것 술.}

10603 @1 굴무그로 현 겨우파?{굴목으로 한 것입니까?}

10603 #1 으. 굴무그로.{으. 굴목으로.}

10603 @1 계민 양조게 굴목컵띠가?{그러면 양쪽에 굴목합디가?}

10603 #2 예.{예.}

10603 @1 양조게 다.{양쪽에 다.}

10603 #1 다 굴목.{다 굴목.}

10603 #1 계민 화더글 할 때는 걷또 걸 또 뜨딩 바파사. 손 안찌는다.{그러면 화덕을 할 때는
그것도 그것을 또 뜯어서 바꿔야. 술 안칠 데.}

10603 @1 아 화더글 또 만들게 되면 바꿔그네 굴목 하나는 업새고 화덕 아닐 때는 그냥 손떡
만 인쓰니까 여기도 굴목 카고 여기도 굴목 카고. 예예.{아 화덕을 또 만들게 되면 바꿔서 굴목
하나는 없애고 화덕 안 할 때는 그냥 붓돌만 있으니까 여기도 굴목 하고 여기도 굴목 하고. 예
예.}

10603 #2 방이 멘 깨라도 굴무기우다.{방이 몇 개여도 굴목입니다.}

10603 @1 예예. 방 꾸미고양. 이제는 이디 보관하는 데는 뭐엔 ㄱ란쭈과?{예예. 방 꾸미고요.
이제는 여기 보관하는 데는 뭐라고 말합니까?}

10603 #1 고폡.{고방.}

10603 @1 고폡. 고폡은 어떻 꾸밈니까?{고방. 고폡은 어떻게 꾸밈니까?}

10603 #1 고폡은 하나로 웨언는디 거기다가 저 돌꺾 영 쪽커게 놔그네 향만 쪽커게 올려 논
는 거. 이 향이 그때는.{고방은 하나로 되었는데 거기다가 저 돌꺾 이렇게 쪽하게 놔서 향아리만
쪽하게 올려 놓는 거.}

10603 @1 고폡에 미테 다지지도 안코 그냥 흑 우에?{고방에 밑에 다지지도 않고 그냥 흑 위
에?}

10603 #1 아이. 옛날 그저 마리 논는 고폡도 일꼬 도니 어시민 그자 돌만.{아니. 옛날 그저
마루 놓는 고폡도 있고 돈이 없으면 그저 돌만.}

10603 @1 돌만 낱. 아하. 예예.{돌만 놔서. 아아. 예예.}

10603 #2 돌만 쪽커네 낱 향만 하영 해당우네 낱.{돌만 쪽 놔서 향아리만 많이 해다가 놔서.}

10603 #1 향이 만헌 지븐 부제치비엔.{향아리가 많은 집은 부갓집이라고.}

10603 @1 아 예. 고폡에양. 게서 쯤금 치레허민 마니 낱 고폡으로 사용허고 경 아녀민 바다게
사용허고.{아 예. 고폡에요. 그래서 쯤금 치레하면 많이 놔서 고폡으로 사용하고 그렇지 않으면
바닥에 사용하고.}

10603 @1 흑씨 정지에 딸린 또 조그만 뭐 논는 디도 이십니까?{흑씨 부엌에 딸린 또 자그마
한 뭐 놓는 데도 있습니까?}

10603 #1 거 논는 디가 벨로 업씨 윈. 그건 우리 살 때는 물항. 흑썰 영 저 손 안찌민 이쨌그

좀 나쁘다. 물항 세 개 노면 아 그 지비 물항도 세 개나 놔서라.{그거 놓는 데가 별로 없이
원. 그전에 우리 살 때는 물독. 조금 이렇게 저 술 안치면 이쪽으로 좀 남은데. 물항아리 세 개
놓으면 아 그 집에 물항도 세 개나 놔서라.}

10603 @1 아 정지에 물항 세 개양? 노민 걷또 잘 싸는 지비구나양.{아 부엌에 물독 세 개요?
놓으면 그것도 잘 사는 집이군요.}

10603 #2 무리 먼디 강 지러오곡 ㅁ문 때가 하는 따무네 물항 세 개는 항 ㅁ드기젠 경 여라
개 낳으네.{물이 먼데 가서 길어 오고 가물 때가 많기 때문에 물독 세 개는 독 가득하게 하려고
그렇게 여러 개 놔서.}

10603 @1 예예.{예예.}

10603 #2 ㅁ무라가민 하영 저 노첸 물항 세 개주. 경 아녀민 이제 흥나만 놔도 돼주마는. {가
물어가면 많이 지어다 놓으려고 물독 세 개지. 그렇지 않으면 이제 하나만 놔도 되지만.}

10603 @1 무슨 뎀 개 만듭니까?{문은 몇 개 만드나요?}

10603 #1 집 온 채.{집 전체.}

10603 @1 예.{예.}

10603 #1 둘 넷 또 다스 으슴.{둘 넷 또 다섯 여섯.}

10603 #1 대문 정젠문게. 구들 구들문.{대문. 부엌문. 방 방문.}

10603 #1 뎀 개 안 돼네. 옛날 초가지븐 문 으슴 개 베끼 안 돼네.{몇 개 안되네. 옛날 초가
집은 문 여섯 개밖에 안 되네.}

10603 @1 으슴 개.{여섯 개.}

10603 #1 일곱 개 돼는 거.{일곱 개 되는 거.}

10603 @1 일곱 개 일곱 개 문 이르미 다 인찌 아녀우파?{일곱 개 일곱 개 문 이름이 다 있지
않습니까?}

10603 #1 으.{으.}

10603 @1 예. ㅁ라봅써?{예. 말해 보십시오?}

10603 #1 정젠문.{부엌문.}

10603 @1 예.{예.}

10603 #1 정제된문.{부엌 뒷문.}

10603 @1 예.{예.}

10603 #1 상방문.{대청 문.}

10603 @1 예.{예.}

10603 #1 상방대문.{대청 대문.}

10603 @1 예.{예.}

10603 #1 계민 이제 그디 창무니 인쥬. 상방 대문 다으문 쪼근 문. 조끄만 허영 거 어른덜 안
는 게 창문.{그러면 이제 거기 창문이 있지. 대청 대문 다음은 작은 문. 자그만 해서 그거 어른들
앉는 곳이 창문.}

10603 @1 예.{예.}

10603 #1 상방된문.{그러면 대청 뒷문.}

10603 @1 으숫 개?{여섯 개.}

10603 #1 계문 그다음은 구들문 두 개.{그러면 그다음에는 방문 두 개.}

10603 @1 구들문 두 개 으덜 개네양.{방문 두 개 여덟 개네요.}

10603 @1 요 쪼근 거슨 창무니엔 ㄱ름니까?{요 작은 것은 창문이라고 합니까?}

10603 #1 아 이 저.{아 이 저.}

10603 @1 그 저 상방 대문 여피 쪼끌락 커게 만든 거 창문예?{그 저 대청 대문 옆에 자그만 하게 만든 것이 창문요?}

10603 #1 게 무슨 총계가 집 반네 열 개가 이 문덜토 이시니까. 상방 아네. 건 웨부로만 도라 가는 무니고.{그러니 문은 총계가 집 안에 열 개가 이 문들도 있으니까. 대청 안에 그것 외부로만 돌아가는 문이고.}

10603 @1 베글 헤살 께 아니우파? 이젠. 베근 어떠케 험니까?{벽을 해야지 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벽은 어떻게 합니까?}

10603 #1 이 벼글 요 노피로 널 드린 거는 빈지.{이 벽을 요 높이로 널 드린 거는 빈지.}

10603 @1 그 노피로 널 드린 거는 빈지엔 허고예.{그 높이로 널 들인 것은 빈지라고 하구요.}

10603 #1 일로 우터레는 테기엔 허영 흑짚 현 거.{이리로 위로는 외라고 해서 흠질한 거.}

10603 @1 테기엔 흑짚현 거양. 흑짚허기 저네 뭘 설치헤살 께 아니우파?{외에는 흠질한 것이 구요. 흠질하기 전에 무엇을 설치해야 하지 않습니까?}

10603 #1 테기. 그 저 나무 세 게 영 문 헤냥 이젠 그거 가로 세로 방 노로 얼근 거.{외. 그 저 나무 세 개 이렇게 모두 한 다음 이제는 그것을 가로 세로 놔서 노로 얹은 것.}

10603 @1 그걸 대로 하기도 하고 기냥 가는 낭 허기도 하고.{그것을 대로 하기도 하고 그냥 가는 나무로 하기도 하고.}

10603 #1 보통 낭 깨영 현 거시 조추. 대 허며는 흑짚 할 때 미끄러왕 흑 떠러진덴 허명 보통은 낭으로.{보통 나무 깨서 한 것이 좋지. 대로 하면 흠질 할 때 미끄러워서 흠 떨어진다고 하면서 보통은 나무로.}

10603 @1 예 빈지해서 테기하고 흑짚허면 마감이우파?{예. 빈지하고 외하고 흠질하면 마감입니까?} @1 벼근.{벽은.}

10603 #1 어 벼근 마감.{아 벽은 마감.}

10603 @1 예. 계문 저 방에 벽들또 마찬가지로마씨?{예. 그러면 저 방에 벽들로 마찬가지로요?}

10603 #1 으 계난 이디서 빈지 우에 나물 흠지왕 영 더픈 건꼬라 가풀모겐헌디.{으. 그러니까 여기서 용지판 위에 나무를 흠 지워서 이렇게 덮은 것보고 가풀목이라고 하는데.}

10603 @1 아하 가풀목. 예예예. 케니까 결구근 저 테기와 그 흑파 그 아래 빈지 사이를 연결 해 주는 거네양.{아하 가풀목. 예예예. 그러니까 결국은 저 외와 그 흑파 그 아래 빈지 사이를 연결해 주는 거네요.}

10603 #1 저 막아준 거가 가풀목.{저 막아준 것이 가풀목.}

10603 @1 가풀목. 예예예.{가풀목. 예예예.}

10603 @1 거 헌 다으메 굴무글 양조글 헤살 꺼 아니우파? 굴무근 어떻 꾸밈니까?{그것 한 다
음에 굴목을 양쪽에 헤살 것 아닙니까?}

10603 #1 굴무근 공가느로 그레 도라강 쉼퐁이나 뭇똥 주서당 때도 똥고 문지락 케영 때도
똥고 굴목진는 건디. 굴목근대엔 헌게 요영 저 요마니 헌 똥에 구떡 똥랑 근대엔 헤그네 이걸로.
{굴목은 공간으로 그리 돌아가서 소똥이나 말똥 주워다가 때도 되고 검부러기 해서 때도 되고 굴
목 짙는 것인데. 굴목근대라고 한게 요영 요만큼 한 무엇에 구멍 뚫어서 근대라고 해서 이것으
로.}

10603 #2 호랑갱이 저 영 똥 똥 주서단 노록 문지락 다마 노록 호랑갱이가 일쭤게. 게민 그
레 놔네.{호랑갱이 저 이렇게 똥 말똥 주워다 놓고 검부러기 담아 놓고 호랑갱이가 있지. 그러면
그리로 놔서.}

10603 @1 거 호랑갱이?{그것 호랑갱이요?}

10603 #2 예.{예.}

10603 @1 거 호랑갱인 어떤 거우파?{그것 호랑갱이는 어떤 겁니까?}

10603 #1 무똥에서 좀 빈 자리. 굴목까지 도라가는 빈자리.{무똥에서 좀 빈자리. 굴목까지 돌
아가는 빈자리.}

10603 @1 아아 무똥에서 그 빈자리. 선생님 호랑가지. 혹시 호랑가지란 말 드러볼때까?{아아.
무똥에서 그 빈자리. 선생님 호랑가지? 혹시 호랑가지라는 말은 들어봤습니까?}

10603 #1 호랑가지엔 아녀고. 여기서 굳는 마리 다 틀리난 그자.{호랑가지라고 앓고 여기는
하는 말이 다 틀리니까 그저.}

10603 @1 그 지붕이 아니라 무똥에서 부엌 굴목때레 도라가는데.{그 지붕이 아니라 문밖에서
부엌 굴목으로 돌아가는데.}

10603 #1 도라가는 고비.{돌아가는 굽이.}

10603 @1 거기틀?{거기틀?}

10603 #2 호랑갱이.{호랑갱이.}

10603 #1 호랑갱이엔 헤부나네 그건 건 우리 굳는 마리고. 또 똥 디선 어떻 굳는지.{호랑갱이
라고 하니까 그것은 그것은 우리 하는 말이고. 또 똥 디선 어떻게 말하는지.}

10603 @1 호랑갱이예. 조쭈다. 게민 이제 저 지바네 지금 다 꾸며진 거우파?{호랑갱이요. 좋
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 집 안이 지금 다 꾸며진 겁니까?}

10603 #1 예. 이제 다 꾸며진 거.{예. 이제는 다 꾸며진 것.}

10603 @1 게민 결구근 지바네 무는 창무는 요거 헛나네.{그러면 결국은 집안의 문은 창문은
요거 하나네.}

10603 @1 나머지 다 무니니까.{나머지 다 문이니까.}

10603 #1 다 문. 대문. {다 문. 대문.}

10603 @1 대문.{대문.}

10603 #1 .{창문.}

10603 @1 창문.{창문.}

10603 #1 으. 구들 반문.{방 바깥문.}

10603 @1 구들반문.{방 바깥문.}

10603 #1 으. 계문 이거 안내문고라 뭐 기자 구들무넨 헤실 낀디.{으. 그러면 이거 안에 있는 문보고는 뭐 그저 방문이라고 했을 텐데.}

10603 @1 구들반무니 인꼬 구들안무니 인꼬 하여간양. 예. 그리고 정제무니 인꼬예.{방 바깥문이 있고 방 안문이 있고 하여튼요. 예. 그리고 부엌문이 있고요.}

10603 @1 그다음에 상방대무니 인꼬 상방 된문.{그다음에 마루대문이 있고 마루 뒷문.}

10603 #1 예. 된문.{예. 뒷문.}

10603 @1 상방 뒤는 뭘 꾸밈니까? 된문 뒤 저 뒤로.{마루 뒤에는 무엇으로 꾸미나요? 뒷문 뒤 저 뒤로}

10603 #2 뒤로 베껴떠는.{뒤로 바깥에는.}

10603 #1 뒤로는 빈자리. 이 문만 드라 글로 영 저 공기 통허렌 여름처레도 문 열고 그자.{뒤로는 빈자리. 이 문만 달아서 그리로 이렇게 저 공기 통하라고 여름철에도 문 열고 그저.}

10603 @1 장항은 어디 들떠까?{장독은 어디에 두나요?}

10603 #2 장항은.{장독은.}

10603 #1 장항은.{장독은.}

10603 #2 정짚 뒤편에.{부엌 뒤에.}

10603 #1 장항은 보통 정짚문 뒤에. 정제된문 뒤에.{장독은 보통 부엌문 뒤에. 부엌 뒷문 뒤에.}

10603 @1 정제된문 뒤에. 정제된문 뒤에는 뭐라고 험니까?{부엌 뒷문 뒤에. 부엌 뒷문 뒤에는 무엇이라고 험니까?}

10603 #2 안뒤.{안뒤결.}

10603 @1 안뒤엔 험니까? 정제된문 뒤.{안뒤결이라고 하나요? 부엌 뒷문 뒤.}

10603 #1 예. 안뒤.{예 안뒤결.}

10603 @1 그 안뒤는 정제 된문 두에 인는 집또 인꼬 저 상방 된문 뒤에 인는 디도 인꼬 험니까?{그 안뒤결은 부엌 뒷문 뒤에 있는 집도 있고 저 마루 뒷문 뒤에 있는 데도 있고 험니까?}

10603 #1 아니 거의가 이 안뒤엔 허영 마근 거 보며는 상방된문까지 합쳐 마근 디도 인꼬 정제 된문만 거 어디 장항 놀 떠만 마근 디도 인꼬.{아니 거의가 이 안뒤결이라고 해서 막은 것 보면 마루 뒷문까지 합쳐서 막은 데도 있고 부엌 뒷문만 그거 어디 장독 놓을 데만 막은 데도 있고.}

10603 @1 합쳐 마근 디도 인꼬 따로따로 험디도 인꼬예. 아아. 걸 안뒤예.{합쳐서 막은 데도 있고 따로따로 한데도 있고요. 아아. 안뒤결.}

10603 #1 예.{예.}

10603 #2 엔나른 중창이 어스난게 문 널무니나네 널무니난 뒤에 된문 으라도 저레 강 장 거

쭉 인꼬. 시방은 뭐 중창해부나네.{옛날은 중창이 없으니까 모두 널문이니까 뒤에 뒷문 열어
도 저리로 가서 장 떠 올 수도 있고. 지금은 중창해버리니까.}

10603 @1 예예. 그리고 아페 뭐 비오거나 뭐 구분해주기 위해서 뭘 도를 노거나 영 뭐 험니
까?{예예. 그리고 앞에 뭐 비오거나 뭐 구분해주기 위해서 무엇을 돌을 놓거나 이렇게 뭐 합니
까?}

10603 #1 아 풍채.{아 차양.}

10603 @1 아페는 풍채양. 풍채는 뭘 개 듭니까?{앞에는 차양요? 차양은 몇 개 다나요?}

10603 #1 풍채 장중허게 긴 냥 허영 구멍 딸랑으네 쌀 바그멍 저 느랍지나 뭐허영 여꺼그네
안전허게 허영. 물 발곡 빗름 방지 뉘곡 허게.{차양 장중허게 긴 나무 해서 구멍 뚫어서 살 박으
면서 저 이영이나 무엇 해서 엮어서 안전하게 해서. 물이 곁따라 흘러내리게 하고 바람 방지되도
록.}

10603 @1 전체 하나로마씨?{전체 하나로요?}

10603 #1 전체 하나.{전체 하나.}

10603 #2 하나 쫄르며는 두 개 이성 해도 그자 풍채 기자 두 겔 드라도 풍채나네게.{하나 짧
으면 두 개 이어서 해도 그자 차양 그자 두 개를 달아도 차양이니까요.}

10603 @1 예예.{예예.}

10603 @1 풍채. 풍채 미트론마씨?{차양. 차양 밑으로는요?}

10603 #1 풍채 작대기.{차양 작대기.}

10603 #2 작대기.{작대기.}

10603 @1 바치는 건 작대기.{바치는 것은 작대기.}

10603 #2 비 오쟁 허미는 족게 늘썩커게 허곡.{비 오려고 하면 낮게 드리우게 하고.}

10603 @2 예예.{예예.}

10603 #2 날 조아 가문 이 우터레 들르고.{날 좋아 가면 이 위로 올리고.}

10603 @2 예.{예.}

10603 @1 이 여기 가트민 좀 노자우다마는양 쪼끔 노핀다고 하면 여기도 뭐 만들고 혹씨 저
레도 뭐 만듭니까?{이 여기 같으면 좀 낮습시다마는 조금 높인다고 하면 여기도 뭐 만들고 혹씨
저리도 뭐 만듭니까?}

10603 #1 아 그건 뭐 안 만드라신디. 이치룩 그자 신 버성 어디 베피.{아 그것은 뭐 안 만들
었는데.}

10603 @1 아 경험니까? 난간 가튼 건 따로 안 만드렵쑤가?{아 그렇습니까? 난간 같은 것은
따로 안 만들었습니까?}

10603 #1 아.{아.}

10603 #2 거 텐마리이?{그것 툃마루.}

10603 #1 이거 일로 문 드랄쓸 때 안느로 뭐 해부런쓸 때 텐마리엔 행 바깥디.{이거 이리로
문 달았을 때 안으로 뭐 했을 때 툃마루라고 해서 바깥에.}

10603 @1 텐마리. 혹씨 텐마리를 뒤에 텐마리 현 지븐 안 봐납따가?{툃마루. 혹씨 툃마루를

뿔마루 한 집은 안 봤었습니까?}

10603 #1 이 안 봐난.{이 안 봤었어요.}

10603 @1 다 아페.{다 앞에.}

10603 #1 아페.{앞에.}

10603 @1 그걸 낭가나라곤 안힘니까? 거 텐마리.{그것을 난간이라고는 않습니까? 그것 뿔마루.}

10603 #1 낭간마리엔도 허고 텐마리엔도 허난 낭간마리엔 우리 보통 그란.{난간 마루라고도 하고 뿔마루라고도 하니까 난간 마루라 우리 보통 말했었는데.}

10603 @1 아 난간마리 텐마리에. 그리고 난간마리 압조그로 흑씨 신발 받기 위해서 도리나 흐그로 영.{아 뿔마루 뿔마루라고. 그리고 뿔마루 앞쪽으로 흑씨 신발 받기 위해서 돌이나 흙으로 이렇게.}

10603 #1 인뿔. 인뿔. 돌 가까당 건또 치레허는 지븐 깨끗터게 돌 가까당 방는 거. 인뿔.{디딤돌. 디딤돌. 돌 깎아서 그것도 치레하는 집은 깨끗하게 돌 깎아다가 박는 것. 디딤돌.}

10603 @1 뿔 깨 놓니까?{뿔 개 놓습니까?}

10603 #2 건 이녀마니.{그것 이녀만씩.}

10603 #1 저작 꼬테서 이꺼지 전부 방는 거.{그쪽 끝에서 여기까지 전부 박는 거.}

10603 @1 전부 방는 거 인뿔.{전부 박는 것 디딤돌.}

10603 #1 인뿔.{디딤돌.}

10603 @1 인뿔 말고 또 구들 아피나 상방 아피 특별리 신발만 받기 위해서 흑씨 뿔 도를 노커나 흐글 도드렁허게 올려노커난 아넘니까?{디딤돌 말고 또 방 앞에나 마루 앞에 특별히 신발만 받기 위해서 흑씨 뿔 돌을 놓거나 흙을 도드라지게 올려놓거나는 않습니까?}

10603 #1 돌 논게 이서나신디.{돌을 놓은 것이 있었는데.}

10603 @1 이서날찌양. 인뿔론 받떠니 짝 지 바피 영 간 거고.{있었었지요. 디딤돌은 봤더니 짝 집 앞에 이렇게 간 것이고.}

10603 #1 계민 구들 아피만.{그러면 방 앞에만.}

10603 @1 예예.{예예.}

10603 #1 보통 그 저 돌.{보통 그 저 돌.}

10603 #1 마주다.{맞습니다.}

10603 #1 까끈 돌 허영 툭커게 놔나신디.{깎은 돌 해서 툭하게 놔었는데.}

10603 @1 그건 뭐라고 허는 진 모르고예. 예예.{그것은 뭐라고 하는 지는 모르고요. 예예.}

10603 @1 경행 허민 지비 다 치레가 뿔쑤가?{그렇게 하면 집이 다 치레가 됐습니까?}

10603 #1 이젠 다 뿔 거.{이제는 다 된 거.}

10603 #2 예. 부억 부억 무똥에는 허벅 부리는 딴 물 물팡.{부억 부억 문 앞에는 허벅 부리는 데는 물 물팡.}

10603 #1 물팡.{물팡.}

10603 @1 물팡?{물팡?}

10603 #2 . 예. 물팡이엔 허벅 딱 저냥 그디 부리는.{물팡. 예. 물팡이라고 허벅 딱 저냥 다음 거기 부리는.}

10603 #1 허벅 물 지리오라난 그 우에 특커게 강 부리민 사두서 부리고 사두서 지게끔.{허벅 물 길어 온 다음 그 위에 특하게 가서 부리면 서서 부리고 서서 지게끔.}

10603 @1 물팡이자나양.{물팡이잖아요.}

10603 #2 예 물팡.{예 물팡.}

10603 @1 혹시 물팡 아래가 영 비지 아넘니까양.{혹시 물팡 아래가 이렇게 비지 않습니까?}

10603 #2 아래는 그자.{아래는 그저.}

10603 @1 그디는 뭤엔 부름니까?{거기는 무엇이라고 부르나요.}

10603 #2 뭤엔 부르진 아녀는디 굴 담게시리 양페느로 큰돌 낱으네 우의 녀짜킨 돌 놔불민 아랜 구리지게.{무엇이라고는 부르지 않는데 굴담게끔 양쪽으로 큰돌 놔서 위에 녀적한 돌 놔버리면 아래는 굴이지.}

10603 @1 아랜 뭤 구리고.{아래는 뭤 굴이고.}

10603 #1 아래 빈 허벅또 그레 놔나신디 뭤싼디 이르문 몰르고.{아래 빈 허벅도 거기에 났었는데 무엇인지 이름은 몰르고.}

10603 @1 예예. 구들에 고를 내면 연기 나가는 디가 이서살 꺼 아니우파?{예예. 방에 곶을 내면 연기 나가는 데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10603 #1 연기 나가는 디.{연기 나가는 데.}

10603 #2 곶뚝 곶뚝커영.{곶뚝 곶뚝해서.}

10603 #1 곶또겐 헤영 이선짜 연날 그 곶뚝근 요 그디 기냥 합쳐불민 곶목지영 네가 왁 헤가 민 지반 안네꺼지 문딱 왁왁해부러.{곶뚝이라고 해서 있었대야 옛날 그 곶뚝은 요 거기 그냥 합쳐버리면 곶목 질어서 연기가 왁 하면 집안 안에까지 전부 캄캄해.}

10603 @1 하여간 곶망은 어디레 내살 꺼고.{하여튼 구멍은 어디로 내야할 것이고.}

10603 #1 아 저건 내여사 무뚱디레. 그걸 안 내문 부리 안 부뜨니까.{아 저것은 내야 무뚱으로 그것을 안 내면 불이 안 붙으니까.}

10603 @1 그거 곶뚝?{그것이 곶뚝?}

10603 #1 예.{예.}

10603 @1 예예.{예예.}

10603 @1 지붕을 이기 위해서는 어떤 재료드리 주로 쓰입니까?{지붕을 이기 위해서는 어떤 재료들이 주로 쓰입니까?}

10603 #1 집 이는 거.{집 이는 것.}

10603 @1 예.{예.}

10603 #1 새. 줄.{띠. 줄.}

10603 @1 예.{예.}

10604 #1 게문 각판이로 줄 노코 새론 집 일고.{그러면 짧은 띠로 줄 놓고 띠로는 집 이고.}

10604 @1 예. 각따느로 길게 만든 줄도 인꼬 찰게 만든 줄도 인찌 아녀우파?{예. 짧은 띠로

만든 줄고 있고 짧게 만든 줄도 있지 않습니까?}

10604 #1 건줄 즈른줄.{긴줄 짧은줄.}

10604 @1 건줄 즈른줄.{긴줄 짧은줄.}

10604 @1 다 각따느로예?{다 짧은 띠로요?}

10604 #1 예.{예.}

10604 @1 그리고 아까 저 그순새가 업쓰며는 아까 어욱또 험다고 허니까 지붕도 처음 더끝 때는 어욱또 허고예?{그리고 아까 저 썩은새가 없으면 아까 억새도 한다고 하니까 지붕도 처음 덮을 때는 억새도 하고요?}

10604 #1 어웁.{억새.}

10604 흑씨 이 동네는 지세집 가튼 거슨 어션쭈가?{흑씨 이 동네는 기와집 같은 것은 없었습니까?}

10604 #2 지에집 지에집.{기와집 기와집.}

10604 @1 지에집.{기와집.}

10604 #1 그런 거 엇어.{그런 것 없어.}

10604 @1 지에집 어서서예.{기와집 없었다고요?}

10603 @1 엔나레 초가지블 초가지비엔 헨쭈가? 초지벤 헨쭈가?{옛날에 초가집을 초가집이라고 했습니까 초가라고 했습니까?}

10604 #1 초집.{초가.}

10604 @1 초집예?{초가요?}

10605 @1 지베 모양이나 크기나 카네 따라서 지블 구분허지 아넘니까?{집의 모양이나 크기나 칸에 따라서 집을 구분하지 않습니까?}

10605 #1 이칸집 삼칸집 스칸집. 스칸찌벤 헤신디.{이칸집 삼간갑 사간집. 사간집이라고 했는데.}

10605 @1 이칸집 삼칸집 스칸집. 혼칸집또 인쭈가?{이칸집 삼간집 사간집. 한간집도 있습니까?}

10605 #1 아 혼칸지비 인쭈 쭈가 언쭈. 포가 어시니까. 포로 수정 센거나네.{아 한간집이 있을 수가 없지. 보가 없으니까. 보로 숫자 센 거니까.}

10605 @1 이칸찌비 게문 오막싸리우파?{이칸집이 그러면 오막살이입니까?}

10605 #2 예. 막싸리.{예. 막살이.}

10605 #1 게 방 하나만 헨 거.{그래. 방 하나만 한 거.}

10605 #1 포 하나만 메운 거.{포 하나만 맨 거.}

10605 @1 막싸리?{막살이?}

10605 #1 이짜그론 방 이짜그론 저 부억.{이쪽으로는 방 이쪽으로는 저 부억.}

10605 @1 그게 이칸집 아니우파양. 그 이칸찌블 막싸리엔 험니까?{그것이 이칸집 아닙니까요. 그 이칸집을 막살이라고 하나요?}

10605 @1 뤼엔 불름니까?{무엇이라고 부르나요.}

10605 #2 .{이간집이라고.}

10605 @1 이간찌벤 험니까? 여기서는.{이간집이라고 하나요? 여기서는.}

10605 #1 이간지벤 불러.{이간집이라고 불러.}

10605 @1 아 여기선 주로 막싸리라는 마른 안 허는구나양?{아 여기서선 주로 막살이라는 말은 안 하는군요?}

10605 #1 예. 이간찹.{예. 이간집.}

10605 @1 으흠. 삼간찹 스칸찹. 좀 치레헌 지비가 스칸지비우파?{음. 삼간집 사간집. 좀 치레헌 집이 사간집입니까?}

10605 #1 이간지븐 포 두 개 메운 거.{이간집은 보 두 개 맨 거.}

10605 @1 포 두 개 메운 거.{포 두 개 맨 것.}

10605 #1 스칸찌븐 세 개 메운 거.{사간집은 세 개 맨 것.}

10605 @1 세 개 메운 거예?{세 개 맨 것이요?}

10605 #2 이간지븐 방 허나 허꼭게 늘근어른이나 살 거 영.{이간집은 방 하나 하고요 늙신네나 살 거 이렇게.}

10605 @1 예. 게문 삼칸찌븐 방이나 상방 구조가 어떻 나오니까?{예. 그러면 삼간집은 방이나 마루 구조가 어떻게 나오나요?}

10605 #1 이거시 삼칸찹 형상이나네. 이 방 상방 구들.{이것이 삼간집 형상이니까. 이 방 마루 방.}

10605 @1 조근구들.{작은방.}

10605 #1 저 원래는 정제 혼 쪼근 갈랑 조근구들 만드는 디도 인꼬.{저 원래는 부엌 한 쪽은 갈라서 작은방 만드는 데도 있고.}

10605 @1 나뉘양?{나뉘서요?}

10605 #1 그냥 정제로 내부는 디도 인꼬.{그냥 부엌으로 놔두는 데도 있고.}

10605 @1 그리고 게문 저 고팡도 만들고.{그리고 그러면 저 고팡도 만들고.}

10605 #1 고팡은 이쪽 큰 구들 혼 짜게.{고팡은 이쪽 큰방 한 쪽에.}

10605 @1 고팡은 큰구들 혼 짜게. 정지는 조근구들 혼 짜게.{고팡은 큰방 한 쪽에. 부엌은 작은방 한 쪽에.}

10605 #1 예.{예.}

10603 #1 여기서 그런 시그로 이 전부 마취나난 고팡은 오야 주이니 놓는 뒤에 이서야 웬덴 허영 꼭 큰구들 혼 쪼게 고팡을 만드라.{여기서 그런 식으로 이 전부 맞추어 고팡은 주인이 놓는 뒤에 있어야 된다고 해서 꼭 큰구들 한 쪽에 고팡을 만들어.}

10603 @1 예예. 스칸지븐?{예예. 사간집은?}

10603 #1 소칸찹또 그런 시그로 허는디. 스칸찌븐 옛날 보통 막구두렌 헤네 구들 이렇게 꾸며 부는 거라. 이쪼게도 구들 저쪼게도 구들 헤냥 저 웬쪼그로 가그넵에 정제 만들민 이 이디허고 상당히 거리 멀게 허영. 건 치레허는 지비라사.{사간집도 그런 식으로 하는데. 사간집은 옛날 보통 마지막방이라고 해서 방 이렇게 꾸미는 거야. 이쪽에도 방 저쪽에도 방 해서 저 왼쪽으로 가

부엌 만들면 여 여기하고 상당히 거리를 멀게 해서. 그것은 치레하는 집이야.

10603 @1 계문 그뻐 정지도 크꼭 경험니까?{그러면 그때는 부엌도 크고 그렇습니까?}

10603 #1 정지도 크는디 소님이 땡겨도 연기 연기 안 나게.{부엌도 큰데 손님이 다녀도 여기 연기 안 나게.}

10603 @1 아하.{아하.}

10605 @1 저쪽그로 따로 낸스니까.{저쪽으로 따로 냈으니까.}

10605 #1 따로 모라부난.{따로 몰아버리니까.}

10605 @3 찬빵은 어서마씨? 찬방.{찬방은 없습니까? 찬방.}

10605 #1 상방은 원래 한복과네 상방엔 마리.{마루는 원래 한복판에 대청엔 마루.}

10605 @1 따로 뵈 걸 무리 받떠니 안 헐짜나 저기서.{따로 된 것을 물어 봤는데 안 했잖아 저기서.}

10605 @1 계니 고팡 말고양. 무슨 쓰를 두거나 그르슬 두거나양 헐 꺼슬 지바네 또 마련허게 마련허기도 힘니까?{그러니까 고팡 말고요. 무슨 쌀을 두거나 그릇을 두거나 할 것을 집안에 또 마련허게 마련허기도 하나요?}

10605 #2 그런 거 어서.{그런 것은 없어.}

10605 #1 조근상방엔 허영 이서나신디. 스칸지비엔 헤영. 흥썰 기친디 쪼꼬만너게.{찬방이라고 해서 있었었는데. 사간집이라고 해서. 조금 잘라낸 데 조그만 하게.}

10605 @1 사간지베양? 사간지베 이제 구들 마리. 예. 마리.{사간집예요? 사간집에 이제 방 마루. 예. 마루.}

10605 #1 그다음 구들.{그다음 방.}

10605 @1 구들. 그다음에 정지.{방. 그다음에 부엌.}

10603 #1 예. 계난 구들 해불민 저쪼기 나무니까 조근상방.{예. 그러니까 방 해버리니까 저쪽이 남으므로 찬방.}

10603 @1 건 조근삼방이우파?{그것은 찬방입니까?}

10605 #1 거기서부터 정제에 통허고. 거기서 밤 먹꼬.{거기서부터 부엌으로 통하고 거기에서 밥 먹고.}

10603 @1 조근상방 연결뵈 거지.{찬방으로 연결된 거지.}

10605 @1 그러케 뵈 거예. 정지에 뵈 만들니까? 헐 게 뵈가 허면 정지를 쪼끔 쪼쟁양 곧간 고팡가치 만드랑 거기에 간단히 쓸도 노코 흑씨 이룬디 만들니켈 허는 거.{그러케 된 것이네요. 부엌에 무엇을 만드나요? 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부엌을 조금 쪼개서 곳간 고팡처럼 만들어서 거기에 간단히 쌀도 놓고 흑씨 이룬 데 만드냐고 하는 거.}

10605 #1 계난 고팡은 아예 크게 쳐지허영.{그러니까 고팡은 아예 크게 차지해.}

10605 @1 아니 정지예?{아니 부엌예요?}

10605 #1 아 정지에는 아녀고. 정지에는 거 뵈헌 지비는 쪼꼬만 허게 구들 흥나 멘드랑 아이라도 늑게시리 구들 흥나 마드랄꼬. 스칸지베는 구들 메당 나머지 비니까 건 조근삼방.{아 부엌에는 앓고. 부엌에는 거 뵈헌 집에는 자그마하게 방 하나 만들어서 아이라도 늑게끔 방 하나 만들

. 시간집에는 방 만들단 나머지 비니까 그것은 찻방.}

10605 @1 계난 스칸지베도 조근상방이 어실 쭈도 인꼬.{그러니까 시간집에도 찻방이 없을 수도 있고.}

10605 #1 어성은 안 돼영. 글로 나드러야 허난.{없어서는 안 되고. 그리로 나들어야 하니까.}

10605 @1 정지허고 나드러야 웨니까.{정지로 드나들어야 되니까.}

10605 #1 나드러야 웨니까. 건 푹 마리냥 딱로 글로 건너다니게. 그디서 밤먹꼬.{드나들어야 하니까 그것은 꼭 마루 놓아서 따로 그리로 건너다닐 수 있게.}

10605 @1 예예예예.{예예예예.}

10603 @1 조근상방.{찻방.}

10603 @3 계난 그제 침방. 우리 침방.{그러니까 그것이 찻방. 우리 찻방.}

10603 #1 게 요즈믄 거의가 거 식탁 딱로 어디 부엌 흔 쪼게라도 허는디 그때 시절 밥 멍는 거시 조근삼방.{그러면 요즘은 거의가 거 식탁 따로 어디 부엌 한 쪽에라도 하는데 그때 시절 밥 먹는 것이 찻방.}

10603 @1 조근상방. 예예예예. 그 조근상방을 방으로 꾸민디도 이시쿠다.{찻방. 예예예예. 그 찻방을 방으로 꾸민 곳도 있겠습니다.}

10603 #1 게 방으로 꾸며볼민 정제에 나드리를 무똥으로베끼 나가지 모터난 게믄 크닐 때는 아주 불편헌 거. 비나 오민 글로 문 뜨러오니까 그걸 꼭 냉기는 거.{그래 방으로 꾸미면 부엌 나 들이를 무똥으로밖에 나가지 못 하니까 그러면 큰일 때는 아주 불편한 거. 비나 오면 그리로 못 들어오니까 그것을 꼭 남기는 거.}

10603 @1 그다음 이제 집퍼면 집 주위로 안뒤가 인꼬양. 이 아피는 뭐우파?{그다음 이제 집 하면 집 주위로 안뒤곁이 있고요. 이 앞에는 무엇입니까?}

10605 #2 마당.{마당.}

10605 @1 마당?{마당?}

10605 #1 이거는 마당.{이것은 마당.}

10605 @1 그다음에 누를 놀 떠가 이서살 꺼 아니우파?{그다음에 가리를 지어야 할 곳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10605 #1 놀와시 인는다.{놀왓이 있는데.}

10605 @1 놀왓?{놀왓.}

10605 #1 놀와시엔 헤영으네 우연 흐뎡 기창 놔두는 거.{놀왓이라고 해서 텃밭 조금 끊어서 놔두는 것.}

10605 @1 이 여기 딸린 바순 뭐마씨?{이 여기 딸린 밭이 무엇이라고요?}

10605 #1 우연.{텃밭.}

10605 @1 우연. 그리고 우여네 우연 한쪼게 놀와슬 만드니까?{텃밭. 그리고 텃밭에 텃밭 한쪽에 놀왓 만드나요?}

10605 #1 놀와슬 조그마니 건 판 농사 아녕 놀 놀곡. 그자 뭐.{놀왓 자그맣게 그것은 판 농사는 앓고 가리 짓고. 그저 뭐.}

10605 #2 가라 먹꼬.{나물이라도 갈아서 먹고.}

10605 #1 출 드러 오기 저니 사용허는 농사만 허영.{꿀 들어오기 전에 사용하는 농사만 해서.}

10605 @1 아 놀와세 누물도 가라 먹꼬 놀 안 놀 때.{아 놀왔에 나물도 갈아서 먹고 가리 안 지을 때.}

10605 #1 게민 ㄱ슬 드러가문 그디 뭇 험땅도 다 치와야 조도 헤여오미 거기 놀고 출도 헤영 거기 놀고 이디 오곡 곡씩 다 헤오민 그 안네 다 놀어야.{그러면 겨울 들어가면 거기 무엇을 했 다가도 다 치워야 조도 거뒀들이면 거기 가리 짓고 꿀도 하면 거기 가리 짓고 여기 오곡 곡식 다 헤오면 그 안에 다 가리 지어야.}

10605 @1 게문 봄써양? 마당 우연 놀왓. 그다음은 또 뭇 피료허우파?{그러면 보세요? 마당 텃밭 놀왓. 그다음은 또 뭇 필요하나요?}

10605 #1 우연 아넨 또 다른 무신 거 이신고?{텃밭 안에 또 다른 무엇이 있을까?}

10605 @1 아 우리가 머그문 뭇 이러케 뭇 허기도 헤알 켜 아니우파?{아 우리가 먹으면 뭇 이렇게 뭇 하기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10605 #1 돈통. (웃음){돼지우리.(웃음)}

10605 #2 돈통. 어떻어뎡.{돼지우리. 어떻게 어떻게.}

10605 @1 그다음에 쉼 질루젠 허민 건 어디렌 헤마써?{그다음에 소 키우려고 하면 그것은 어디라고 하나요?}

10605 #1 쉼막.{외양간.}

10605 #2 쉼막.{외양간.}

10605 @1 쉼마글 딱로 마련헤양.{외양간을 따로 마련한다고요?}

10605 #1 게문 쉼마근 이 마당 근처에 부뎡으네 전부 헤신디. 요즈문 냄새 나덴 딱로 헤도. 그저네 전부 마당 안네 쉼막또 인꼬.{그러면 외양간은 이 마당 근처에 붙어서 전부 했었는데. 요즘은 냄새 난다고 따로 헤도. 그전에 전부 마당 안에 외양간도 있고.}

10605 #2 그때는. 시방.{그때는 시방.}

10605 #2 시방은 사료 메기난 냄새나쥬. 옛날은 출 머글 때는 경 냄새 안 나. 출만 주난. 옛날은 출만 줌니께.{지금은 사료 먹이니까 냄새나지. 옛날은 꿀 먹을 때는 그렇게 냄새 안 나. 꿀만 주니까. 옛날은 꿀만 주지요.}

10605 #1 게문 돈통은 정제 근처에 허민 도새기 시문 굳뎡 해서 흐쉴 멀리도. 정제에서 그릇 쏘리 달각 커민 돼야지가 꺽꺽커니까 조끔 멀리 해서.{그러면 돼지우리는 부엌 근처에 하면 돼지 성미가 나쁘다고 해서 조금 멀리도. 부엌에서 그릇 소리 달각 하면 돼지가 꺽꺽하니까 조금 멀리 해서.}

10606 @1 아까 집 안 쪼게 테기 아니우파?{아까 집 안 쪽에 외 아닙니까?}

10606 @1 사방에 도라가면서도 테기 험니까?{사방에 돌아가면서 외 하나요?}

10606 #2 다 테기.{다 외.}

10606 #1 테기 헤방. 일론 혹 불르고 절로 돌 싸고. 혹 노코 돌 싸코 헌 건 축짱. 뎡 도라간

.{외 헤두고. 이리로는 흙 바르고 저리로 돌 쌓고. 흙 놓고 돌 쌓고 한 것이 축집. 빙 돌아간 것.}

10606 @1 아 그걸 축집?{아 그것을 축집.}

10606 1 예.{예.}

10606 @1 그러니까 테기 헤그네 바깥뜨로 돌 쌓 거슨 축집?{그러니까 외를 해서 바깥으로 돌 쌓은 것이 축집.}

10606 @1 그거 안 헨 지븐?{그것 안 한 집은?}

10606 #1 그거 아넨 돌 돌집.{그것 않은 돌 돌집.}

10606 @1 아 그거 안헨 지븐 돌집.{아 그것 안한 집은 돌집.}

10606 #1 돌로민 싸그네게 그레 서리 걸청 그거 그냥.{돌로만 쌓아서 그리로 서까래 걸쳐서 그거 그냥.}

10606 @1 케니까 테기 안 헨 지비 돌집마씨?{그러니까 외 안 한 집이 돌집입니까?}

10606 #1 으.{으.}

10606 @1 그다음에 그 테기를 헨 지븐 축집.{그다음에 그 외를 두른 집은 축집.}

10606 #1 축집.{축집.}

10606 #2 아니 가끈 돌 허멍 엔나레 저 가끈 돌 헤영 허는 거는 이 안네 테기만 허주마는 엔날 돌치븐 돌 하나 노록 흑 아상 불량으네.{아니. 깎은 돌 해서 옛날에 저 깎은 돌 해서 하는 것은 이 안에 외만 하지만 옛날 돌집은 돌 하나 쌓고 흙 가져다가 발라서.}

10606 #1 게 아느로 테기헤낭. 돌 혼번 흑 혼번 노멍 싸아 올린 게 축집.{그래. 안으로 외 한 다음 돌 한번 흙 한번 놓으면서 쌓아 올린 것이 축집.}

10606 @1 게서 그걸 돌집 축집 허영 구분허는구나양.{그래서 그것을 돌집 축집 해서 구분하는군요.}

10606 #2 가끈 돌 허영으네.{깎은 돌 해서.}

10606 @1 케니까 초집 아네 초집 아네 돌찌비나 축찌비나 구별허는 거 아니우파야?{그러니까 초가 안에 초가 아네 돌집이나 축집이나 구별하는 거 아닙니까?}

10606 @1 아하.{아하.}

10606 #2 이딘 또 돌 벌렁으네 영허영 세멘 허곡 헨 거는.{여기는 또 돌 깨서 이렇게 해서 시멘트 바르고 한 것은.}

10606 #1 요즈미난 그런게주. 어디 엔날 그런 돌 벌르고 하간 거 헨 게 이서. 엔나른 치레헌 지븐 우에 테기 허영 올라가당 우에 영 톱 지와그넵에 담 올라가당 톱 지왕 우티레 영 올라가분다. 이디 무시 거 노케헌 거시.{요즘이니까 그런 거지. 어디 옛날 그런 돌 깨고 그런 특별한 것 한 게 있어. 옛날은 치레한 집은 위에 외 해서 올라가다가 위에 이렇게 톱 지워서 담 올라가다 톱 지워서 위로 이렇게 올라갔는데. 여기 어떤 거 놓게 한 것이.}

10606 #2 집가체레 가민.{처마로 가면.}

10606 #1 축찌빈디.{축집인디.}

10606 @1 아아 그게 축집?{아아 그것이 축집.}

10606 #1 .{예.}

10606 @1 아하.{아하.}

10606 @1 계난 그걸또 좀 치레하는 집.{그러니까 그것도 좀 치레하는 집.}

10606 #1 걷또 헛쓸 저 뭐 해사. 아무나 그걸또 허는 게 아니. 아무나 허는 거는 그자 돌 해당 담당 그 우티레 서리 거렁 허민. 그런게 얻꼬.{그것도 조금 저 뭐 해야. 아무나 그것도 하는 것이 아니. 아무나 하는 것은 그저 돌 해다가 담 쌓아서 그 위로 서까래 걸어서 하면. 그런 것이 없고.}

10606 @1 예예예예.{예예예예.}

10606 @3 그 이르른 뭐렌 해마씨? 이러케 올린 이름. 거 호미 영 노코 허는.{그 이름은 뭐라고 하나요? 이렇게 올린 이름. 거 낫 이렇게 놓고 하는.}

10606 #1 거 축지비나네. 거 저.{거 축집이니까. 거 저.}

10606 #2 집가제.{차마.}

10606 #1 돌 돌 다 안 싹 거난 그 이름 뭇싼디 해도. 그거.{돌 돌 다 아니 싹은 것이니까 그 이름은 무엇인지 해도. 그거.}

10606 @1 그 위로 간 거슨 테기고.{그 위로 간 것은 외고.}

10606 #1 우로 간 건 그자 테기에 흥만 불른 거고.{위로 간 것은 그저 외에 흥만 바른 것이 고.}

10606 @1 흥만 흥만 불른 거고.{흥만 흥만 바른 것이고.}

10606 @1 아래서부터는 돌. 돌 흥번 흥 흥번 노명 그꺼지 올라가지난 건 내분 거.{아래에서부터는 돌. 돌 한번 흥 한번 놓으면서 거기까지 올라가니까 그것은 놔둔 것이고.}

10607 @1 예예. 경허영 이제 지블 대강 지션찌 아녀파? 그 집 지슬 때 드러가는 연장. 어떤 연장드리 드러가마씨?{예예. 그렇게 이제 집을 대강 지었지 않습니까? 그 집 지을 때 들어가는 연장. 어떤 영장들이 들어가나요?}

10607 #1 연장이 그 토비엔 현 거시 인꼬 거두엔 현 게 인꼬.{연장이 그 톱이라고 한 것이 있고 거두라고 한 것이 있고.}

10607 @1 예예 계속 그라뵈씨?{예예. 계속 말해보십시오?}

10607 #1 계문 토브 흥쪼그로만 늘 도든 게 톱. 거두는 양쪽 늘 도든 게 거두. 저 아 양쪽 늘 도든 게 톱. 저 거두. 아 토비지 그계. 거두는 흥 쪽 늘 도든 거.{그러면 톱은 한 쪽으로만 날 돌은 것이 톱. 거두는 양쪽 날 돌은 것이 거두. 저 아 양쪽 날 돌은 것이 톱. 저 거두. 아 톱이지 그것이. 거두는 한 쪽 날 돌은 거.}

10607 #1 계문 그걸로 큰 낭은 토브로 기치고 거두는 뭐 뭐 알맞게 마추와 부찌쟁 허민.{그러면 그것으로 큰 낭은 톱으로 끊고 거두는 무엇 무엇 알맞게 맞춰서 붙이려고 하면.}

10607 #2 낭.{나무.}

10607 #1 그늘게 기차야 그거시 마지니까?{가늘게 끊어야 그것이 맞으니까?}

10607 #2 서리 가끄젠 허민 번자귀도 들곡께. 그거 그런 거 다 들엄쭈.{서까래 깎으려고 하면 손자귀도 들고. 그것 그런 것 다 필요하지.}

10607 #1 처음부터 낭 까끄는 거는 귀자귀부터. 귀자귀로 낭 까끄고.{그러면 처음부터 나무 깎는 것은 선자귀부터. 선자귀로 나무 깎고.}

10607 #1 낭 까끄는 건 낭 까끄는 거는 거의가 전부 귀자귀로 다 까깁쥬. 그거.{나무 깎는 것은 나무 깎는 것은 거의가 전부 선자귀로 다 깎았지. 그것.}

10607 #1 거 지슬 때 게민 그거시 다 까까노민 자 마련허곡 표시해서 집 집찬텐 헤신디. 집 처음 질젠 허문. 집찬텐헌 게 그 집 초가집 처음 마련허는 게 집찬텐.{집 지을 때 그러면 그것이 다 깎아 놓으면 자 마련하고 표시해서 집 집 마련한다고 했는데. 집 처음 지으려고 하면 집 마련한다고 한 것이 그 집 초가집 처음 마련하는 것이 집을 마련한다고.}

10607 @1 게민 톱 자귀 또 자 또 뭐 피료힘니까?{그러면 톱 자귀 또 자 또 뭐 필요하나요?}

10607 #1 끝{끝.}

10607 @1 게민 말씀하십써?{그러면 말씀하십시오?}

10607 #1 끝. 그때는 망치가 어려우난 나무마께. 그 저 끝마께엔 헤영 나무마께.{끝. 그때는 망치가 어려우니까 나무방망이. 그 저 끝방망이라고 해서 나무방망이.}

10607 @1 망치는 췌로 만든 걸 망치엔 험쭈과?{망치는 쇠로 만든 것을 망치라고 하고 있습니까?}

10607 #1 예.{예.}

10607 @1 마께 나무마께는 나무로 만든 거?{망치 나무망치는 나무로 만든 거예요?}

10607 #1 낭마께.{나무방망이.}

10607 @1 낭으로 만든 거는 망치엔 아념니까{나무로 만든 것은 망치라고는 않습니까?}

10607 #1 아녕 그디 끝마께 나무 영 영 동매여그네 일로 구멍 뚫랑 때리는 거.{얹고. 거기 끝방망이 나무 이러 이러하게 동여매서 이리로 구멍을 뚫어서 때리는 것.}

10607 #1 게민 끝.{그러면 끝.}

10607 @1 게난 낭마께 나무마께 끝마께는 낭양.{그러니까 나무방망이 나무방망이 끝방망이는 나무요.}

0607 #1 예.{예.}

10607 @1 게난 망치 아정오라 허민 췌가 달려 인는 거?{그러니까 망치 가져오라 하면 쇠가 달려 있는 거.}

10607 #1 췌.{쇠.}

10607 #1 게난 이 그 저네는 췌마께가 그러케 어려우니까 보기도 힘들고 거 초집 진는 목씨는 거의가 그 낭마께. 게민 나문 보통 나무가 아니라 보문 어디서 하주 오무근 조롱낭이나 아니면 그 저 아주 췌낭 헤사. 그걸로 계속 끝 때려짜 벌러지지 아녀고 다이지 아녀게.{그러니까 이 그 전에는 쇠망치가 그렇게 어려우니까 보기도 힘들고 거 초가 짓는 목수는 거의 그 나무방망이. 그러면 나무는 보통 나무가 아니라 보면 어디서 많지. 오래된 조록나무나 아니면 그 저 아주 췌 나무해야. 그것으로 계속 끝 때려도 깨지지 않고 닳지 않게.}

10607 @1 거 또 뭐 피료함니까?{그것 또 뭐가 필요한가요?}

10607 @1 게민 마리 노첸 허민 낭도.{그러면 마루 놓으려고 하면 나무도.}

10607 #1 . 그 저 훔치는 거 훔베기.{대패. 그 저 훔파는 것은 개탕대패.}

10607 #1 먹통.{먹통.}

10607 @1 예.{예.}

10607 #1 줄 땡기는 거. 거 곧추해야 돼니까.{줄 당기는 거 그것 곧게 해야 하나까.}

10607 @1 예.{예.}

10607 @1 먹통 이시민 먹쫄 이시컨게예.{먹통 있으면 먹쫄 있겠네요.}

10607 #1 예.{예.}

10607 @1 예허면 안 돼양. ㄹ라줍써?{예 하면 안 돼요. 말씀해 주십시오.}

10607 # 먹쫄. 먹통.{먹쫄. 먹통.}

10607 @1 그다음에 이제 아까 흑쫄 가튼 건 어썬쫄까? 흑 올릴 때 손 소느로만.{그다음에 이제 아까 흑쫄 같은 것은 없었습니까? 흑 올릴 때 손 손으로만.}

10607 # 소느로만 그대로. 흑쫄 요 중간이주. 이제 뭐 그런 게.{손으로만 그대로. 흑쫄 요 중간이지.}

10607 @1 흑쫄니고 카리고 그거 언꼬. 장도리라고 허는 건 언쫄까?{흑쫄이고 칼이고 그것은 없고. 장도리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까?}

10607 #1 장도리는 그자 구멍 딸르는 거. 저 문 이런 구들문 들젠 허민 도절귀에 꿰야 돼니까 장도리로 때리멍 구멍 딸랑 그디 도절귀 방는 거.{장도리는 그저 구멍 뚫는 것. 저 문 이런 방문 달려고 하면 들썬귀에 꿰야 하나까 장도리로 때리면서 구멍 뚫어서 들썬귀 박는 것.}

10607 @1 거 이놈들 허러 가며는 쫄 갈기도 해야 되고.{그것 이놈들 헐어 가면 쫄 갈기도 해야 하고.}

10607 #1 아 건 굴이지 아녀도 그건 그냥 그냥 ㄹ지나네 우로 때리는 거. 마개로.{아 그것은 갈지 않아도 그것은 그냥 그냥 온전하니까 위로 때리는 거. 방망이로.}

10607 @1 아니 싹뿔 가튼 데 굴기도 허지 아녘니까?{아니 싹뿔 같은 데 갈기도 하지 않습니까?}

10607 #1 굴지 아녀도 그냥 막 때리고 거 오래 쓰는 거 아니나네. 문 흐 지비 헐짜 문 흐 서너 네 번 들 꺼나네 다이게 쓰도 아녀는 거고.{갈지 않아도 그냥 막 때리고 거 오래 쓰는 것 아니니까. 문 한 집에 했자 문 한 서너 번 다니까 닥게 쓰지도 않는 것이고.}

10608 @1 예예. 이제는 지붕을 다 만드런찌 아녀우파양. 게영 연날 초집 생각케서양. 아페서부터 딱 드러왕 부분 부분 부분 부부네 이르를 흐나씩 ㄹ라줍써?{예예. 이제는 지붕을 다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옛날 초가 생각해서요. 앞에서부터 딱 들어와서 부분 부분 부분 부분의 이름을 하나씩 말씀해 주십시오?}

10608 #1 놈 소니미 드러올 때 요 집까제 발란 솜씨 조은 사르미여 허고.{남 손님이 들어올 때 요 처마 바른 것을 보니 솜씨 좋은 사람이여 하고.}

10608 @1 예.{예.}

10608 #1 게문 이제는 거 거왕때를 잘 매야 줄 멘 거시 보기가 조니까. 거왕때엔 허영 이 줄 줄라매는 데. 그저네 대나무 허니까 대를 일정한 거로 아피 놈 보기 조케는 그거로 매여방 줄 그

매머는 아주 보기조케.{그러면 이제는 거 평고대로 쓰는 대나무를 잘 매야 줄 맨 것이 보기 가 좋으니까 평고대로 쓰는 대라고 해서 이 줄 줄라매는 대. 그전에 대나무 하나까 대를 일정한 것으로 앞에 남 보기 좋게는 그것으로 매어 놓아서 줄 그것에 매면 아주 보기 좋게.}

10608 @1 예.{예.}

10608 #1 거왕때.{평고대.}

10608 @1 예.{예.}

10608 #1 게문 누계 저 지비 거왕때 조은 거로 잘 매어서라.{그러면 누가 저 집은 평고대 좋은 것으로 잘 땀더라.}

10608 @1 가제도 잘 허고 거왕때도 잘허고예. 그다음예.{처마도 잘 하고 평고대도 잘하고요. 그다음에}

10608 #1 그다음은 놈 보기 조케 허젠 허민 가제 기치는 걸 깨끄시 헤사. 늘 쓴 호미로 이거 꺾듯허게 기차 가야 돼.{그다음은 남 보기 좋게 하려고 하면 처마 끊는 것을 깨끗이 해야. 날이 선 낮으로 이거 가지런하게 끊어 가야 해.}

10608 @1 예. 그다음은예?{예. 그다음은요?}

10608 #1 그다음에 우의는 건줄 잘 맨 게 최고고. 줄. 그 줄 잘 어울려서라 허민 주리 깨끄시 어울린 사르미 인꼬 그자 헐레헐레 어울린 사르미 이시나네. 우리 여기서 보면 대정 쪽 강 보민 주를 깨끄시 어울렷허는디 여긴 싸르민 제멋대로 어울링 기자 확확 줄라매시메.{그다음에 위에는 건줄 잘 맨 것이 최고고. 줄. 그 줄 잘 어울렸더라 하면 줄이 깨끗이 어우르게 한 사람이 있고 그 저 헐레헐레 어울린 사람이 있으니까. 우리 여기서 보면 대정 쪽에 가서 보면 줄을 깨끗이 어우러지게 하는데 여기 사람은 제멋대로 어울려서 그저 확확 줄라매고.}

10608 @1 무사 경 헤신고마씨?{왜 그렇게 했을까요?}

10608 #1 대정 쪼기 브르미 쉼니까 거고. 또 이너네 흥번 이니까 안전하게 허기 위해서 그러케 쉼케 허고. 여기는 매년 이니까 그차지건 따시 허젠 아무러케나 허고.{대정 쪽이 바람이 세니까 그렇고. 또 이년에 한번 이니까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세게 하고. 여기는 매년 이니까 끊어지면 다시 하려고 아무렇게나 하고.}

10609 @1 지블 초지블 지을 때 터 다지기 허거나 상냥할 때 어떤 의시글 행험니까?{집을 초가를 지을 때 터 다지기 하거나 상량할 때 어떤 의식을 행하나요?}

10609 #1 그런 거 원 어서나신디 요 증가네야. 서냥. 상냥식또 허곡 뭐 상냥 무신 겐또 허곡 그 전엔 그냥.{그런 것은 전혀 없었는데 요 중간에야. 상량. 상량식도 하고 뭐 상량 무슨 것도 하고 그전에는 그냥.}

10609 @1 아 그저넨 그냥예.{아 그전에는 그냥요.}

10608 @1 지베 각 부분 명칭을 따야 텔텐데.{집에 각 부분 명칭을 따야 할텐데.}

10608 @1 아까 다시 흥 번만 마르쿠다양. 게니까 지블 처음 지을 때에. 에 포 지등 세우고. 주춧돌 세우고양. 지등 세우고 그다음에 포를 걸고. 게그네 이젠 지봉 꾸미면 흑씨 옌나레는 마리에 이러케는 만들지 안헬쭈과?{아까 다시 한번만 말씀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집을 처음 지을 때에. 보 기등 세우고. 주춧돌 세우고요. 기등 세우고 그다음에 보를 걸고. 그러니까 이제는 지봉 꾸미

혹시 옛날에는 마루에 이렇게는 만들지 않았습니까?)

10608 #1 처나반.{천장.}

10608 @1 예.{예.}

10608 #1 이러케 안 마드렁 치레허는 지븐 그대로 낭 거리놔네 그 우터레 대나 뭐 노명 훅 시끄는 거.{이렇게 안 만들어 치레하는 집은 그대로 나무 걸어 놓고서 그 위로 대나 뭐 놓으면서 훅 바르는 거.}

10608 @1 시끄는 거. 게난 그 처나바는 요새시그로 허민 천장이라양. 천장.{바르는 것. 그러니까 그 천장은 요즘식으로 하면 천장이지요. 천장.}

10608 #1 천장.{천장.}

10608 @1 천장을 저 저 구들 우에는 처나반 헐찌만 마리는 포도 다 보이고.{천장을 저 저 방 위에는 천장 했지만 마루는 보도 다 보이고.}

10608 #1 아니 포 알로 망는 거.{아니 보 아래로 막는 거.}

10608 @1 망는 거. 건 훅찝허거나 허는 거 아니우파?{막는 거. 그것은 훅찝하거나 하는 것 아닙니까?}

10608 #1 흐그로 다 망는 거.{훅으로 다 막는 거.}

10608 @1 이러케 처나바느로 망는 건 아니고.{이렇게 천장으로 막는 것은 아니고.}

10608 #1 아 이걸로 다 마강.{아 이것으로 다 막아서.}

10608 @1 아 마라도 이걸로 다 마감니까? 초집또?{아 마루도 이것으로 다 막습니까? 초가도?}

10608 #1 망는 수도 인꼬 아니 마강허는 거는 그냥 앙토허는 거 허고 저 포와 포 사이도 문도리나 뭐 나무 노명 흐그로 멘짜 블라부는 거.{막는 수도 있고 아니 막아서 하는 것은 그냥 앙토하는 것 하고 저 보와 보 사이도 모두 도리나 뭐 나무 놓으면서 훅으로 미끈하게 바르는 것.}

10608 @1 경 행으네 인는 걸또 인꼬 이치룩 헉 거도 인꼬 켈장히 거문 치레헌 지비다양.{그렇게 해서 있는 것도 있고 이처럼 한 것도 있고 굉장히 그러면 치레한 집이네요.}

10608 #1 게문 그저네 앙토허곡 서리나 포 보이게 허는 걸또 치레헌 지비라사.{그러면 그전에 앙토하고 서까래나 보 보이게 하는 것도 치레한 집이어야.}

10608 @1 아하.{아하.}

10608 #1 깨뜨터게 거 저 앙토허고 거 손질 잘 헉 거.{깨끗하게 그것 저 앙토하고 거 손질 잘 한 것.}

10608 @1 아하. 안쪼그로 봐도 깨뜨터게 헤져야 돼니까양.{아하. 안쪽으로 봐도 깨끗하게 해야 되니까요.}

10608 #1 안쪼그로 깨뜨터게 저 서리만 똥그라케 보이고 포 보이고.{안쪽으로 깨끗하게 저 서까래만 동그랗게 보이고 보 보이고.}

10608 @1 포 보이고.{보 보이고.}

10608 #1 그나마 깨끗터게.{그나마 깨끗하게.}

10608 @1 메끄너게.{매끈하게.}

10608 #1 양토한 지비고 이런 건 양토 안 허영 고대만 허영 그냥 올린 걸또 인꼬.{그것은 양토한 집이고 이런 것은 양토 안 해서 고새우만 해서 그냥 올린 것도 있고.}

10608 @1 예예.{예예.}

10608 #2 엔나른 서리 허영 그치룩 커영 내불민 우의 췌이통도 막 지성 췌이 새끼도 깨왕 알 더레 터리지곡 베여미도 나서 처나반 우의 막 바라 땡이곡 헐쭈게게. 경혜영 노래영. 이젠 그런 거 보젠 해도 어신디.{옛날은 서까래 해서 그렇게 해서 놔두면 위에 쥐통도 막 지어서 쥐 새끼도 깨서 아래로 떨어지고 뱀도 나와서 천장 위에 마구 기어다니고 했지요. 그렇게 놀라서. 이제는 그런 것을 보려고 해도 없는데.}

10608 @1 이걸 처나반 아니우파?{이것 천장 아납니까?}

10608 #2 예. 처나반.{예. 천장.}

10608 @1 베여미 어떻 바라땡김니까?{뱀이 어떻게 기어다납니까?}

10608 #2 영 허연쭈가게.{이렇게 했습니다.}

10608 #1 엔날 초가지벤 베여미 여상 바끄로 도라다녕.{옛날 초가지에는 뱀이 예상 밖으로 돌아다녀서.}

10608 #2 아이고 그 췌이 다울령양. 췌이통.{아이고 그 쥐 쫓아서요. 쥐통.}

10608 @1 포 위로 포 위로.{보 위로 보 위로.}

10608 #1 서리.{서까래.}

10608 @1 보다 서리 위로.{보다 서까래 위로.}

10608 #2 서리 우로게.{서까래 위로요.}

10608 #1 서리 서리 트므로.{서까래 서까래 틈으로.}

10608 @1 트므로예.{틈으로요?}

10608 #2 테길 테기만 혜영 집 이러노나넨게 저 새 혜연 인 거난 그 고냥으로 허영으네 그 췌이통 지서노민 그 베여민 그 내 마청으네. 그 췌이 물레 도라땡이므로 그치룩 도라땡경.{외 외 만 해서 집 이니까요 저 띠 해서 인 것이니까 그 구멍으로 해서 그 쥐통 지어놓으면 그 뱀이 그 냄새 맡아서. 그 쥐 물러 돌아다니므로 것처럼 돌아다녀서.}

10608 @1 서리양?{서까래요?}

10608 @1너스리우파? 너스리우파?{발비입니까? 발비입니까?}

10608 #1 너스리엔 허난. 그거는 영 줄 흘려놔 허는 사람도 인꼬 노 흘렷 허는 사람도 인꼬 그거 헉나헉나 노명 노로 꼬진 거. 너스리.{너스리라고 하니까. 그것은 이렇게 줄 늘어뜨려 하는 사람도 있고 노 늘어뜨려서 하는 사람도 있고 그것 하나하나 놓으면서 노로 꼴은 것. 발비.}

10608 @1 산자라고 헉 마른 안 드러납띠가? 산자.{산자라고 한 말은 안 들어봤습니까? 산자.}

10608 @1 흐근 주로 어떤 흐글 썰쭈과?{흙은 주로 어떤 흙을 썼습니까?}

10608 #1 그대로 여기 집 짓는 건 그냥 마당에서 흑 뛰어난 마당에 흙쓸 노짐척커게 허영 사용허게 허영.{그대로 여기 집 짓는 것은 그냥 마당에서 흙 이겨나면 마당에 조금 나즈막하게 해서 사용하게 해서.}

10608 @1 마당 흐그로양.{그냥 마당 흙으로요.}

10608 #1 마당 흙 그대로 꾸영. 게문 그거 막 가라냥 동넨싸름 다 비러당 물 주꼭 쉼 비러당 불리꼭 케사 여깁 흐게는 거 흐쫘 전디나네.{마당 흙 그대로 이겨서. 그러면 그거 막 갈아서 동네 사람 다 빌려다가 물 주고 소 빌려다 밟고 해야. 여기 흙에는 그것 조금 건디니까.}

10608 #2 남즈 상뒤는 흑찔히고 여자 상뒤는 물 지고 흑 즈바내고 그때는 동네가 문 모다드 런 헐쭈게게.{남자 향도는 흙질하고 여자 향도는 물 지고 흙 집어내고 그때는 동네가 모두 모여 들어서 했지요.}

1.6.2. 조상 숭배 신앙

10611 @1 예예. 경 이제 지블 지선찌 아녀우짜? 그민 그 집 지스민 그 집 모든 끝. 케니까 뭐 문도 인꼬 조왕도 인꼬 저 이런 걸 지키는 시니 이신덴 힘니까? 지베.{예예. 그렇게 집을 지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집 지으면 그 집 모든 곳. 그러니까 뭐 문도 있고 조왕도 있고 저 이런 것을 지키는 신이 있다고 하나요?}

10611 #2 신 그런 건 어서.{신 그런 것은 없어.}

10611 @1 그런 건 어서. 뭐 조왕 귀시니여 뭐 이런 거 일뎨 아님디까?{그런 것은 없어. 뭐 조왕 귀신이어 뭐 이런 것 있다고 않습니까?}

10611 #1 그런 거 위허는 위허는 사람도 인꼬.{그런 것 위하는 위하는 사람도 있고.}

10611 @1 삼춘넌 안 해 봄떠가?{삼춘네는 안 해 봤습니까?}

10611 #1 조왕에 위허고 뭐 성주 내고 무신 거.{조왕에 위하고 뭐 성주 내고 무슨 것.}

10611 @1 예.{예.}

10611 #1 다 허는다.{다 하는데.}

10611 #1 아녀는 사르믄 아녀고. 허는 사르믄.{않는 사람은 앓고 하는 사람은.}

10611 @1 삼춘네 성주 내꼭 헤나지 아님떠가?{삼춘네 성주받이하지 않았습니까?}

10611 #2 예. 성주는 헐쭈다.{예. 성주는 했습니다.}

10611 @1 그 성주 낼 때 그걸 쯤 얘기를 쯤 헤줍써?{그 성주받이할 때 그것을 쯤 얘기를 쯤 해주십시오?}

10611 #2 성주 낼 때 뭐 심방이 허나네. (웃음) 그걸 본푸릴 헤져? (웃음){성주 받을 때 뭐 심방이 하나까. (웃음) 그걸 본풀이를 할 수 있나? (웃음)}

10611 @1 게문 지바네 하여간 그러케 그런 신드리 어떤 신드리 일뎨 힘니까? 지바네.{그러면 집안에 하여튼 그렇게 그런 신들이 어떤 신들이 있다고 하나요?}

10611 #2 아이 그건 성주푸리나네 무신 지베 뭐.{아니. 그것은 성주풀이니까 무슨 집에 뭐.}

10611 #1 성주만 헐쭈 무신 거.{성주받이했지 무엇.}

10611 #2 성주허영 낭 낭 비꼭게. 영등사네 덕덜 람 베자. 심방 오란 상므르도 베자 중므르도 베자 뭐 지등도 베자 허멍 그거 굳터영 그거 허는 거나네.{성주 받아서 나무 나무 베고. 영등산에 덕덜 나무 베자. 무당 와서 용마루도 베자. 중도리도 베자. 뭐 기등도 베자 하면서 그것 갖해서

하는 것이니까.}

10611 @1 삼촌 식계 험수과?{삼촌 제사 하고 있습니까?}

10611 #2 아녜서.{안해.}

10611 @1 안 험수가?{안 하나요?}

10611 #2 예.{예.}

10611 @1 계란 그런 거는 저 성주만 내보고. 혹시 저 쉼마게 지서가지고 뭐 제 지내거나 그 디 뭐 그런 건 아녀 보고양?{그러니까 그런 것은 저 성주만 받아보고. 혹시 저 외양간 지어 가지고 뭐 제 지내거나 거기 뭐 그런 것은 안 해 보고요?}

10611 #2 흐는거 여긴 어심니다.{하는 것은 여기는 없지요.}

10611 @1 돌통 뭐 아녀보고양?{돼지우리 뭐 안 해 보고요?}

10611 @1 이 지역 싸람드른 시낭은 주로 뭐 미듭니까?{이 지역 사람들은 신앙은 주로 뭐 믿 습니까?}

10611 #2 절간 하영 미듭니다. 절.{절 많이 믿습니다. 절}

10611 @1 절간 하영 미더마씨? 절간 믿끼전 그저닌마씨?{절을 많이 믿나요? 그 전에는요?}

10611 #2 그저네.{그전에.}

10611 #1 그저네 어디.{그전에 어디.}

10611 #2 절간 안 미들 때는 그자 일 러네 혼번 올레코시엔 허여양. 올레코시엔 허영 심방 비 러당으네 영 그 그해 운수 기자 잘 돼여 줍쎄 그자 비렁으네.{절 안 다닐 때는 그저 일 년에 한 번 올레고사라고 해서요. 올레고사라고 해서 무당 빌어다가 이렇게 그 그해 운수 그저 잘 되게 해 달라고 그저 빌어서.}

10611 #1 건 저 모관더레도 헨게. 문전쎄엔.{저 저 목안 쪽으로도 하던데. 문전제라고.}

10611 #2 문전코시 문전코시 문전코시허멍 경 허영으네 험니다마는. 이젠 대중은 절간덜 미더 부나네 그런 거 아녀는 지비 하고. 또 시방도 허는 지븐 허고.{문전고사 문전고사 문전고사 하면 서 그렇게 해서 합니다만. 이제는 대중은 절들 믿어버리니까 그런 것은 안 하는 집이 많고. 또 지 급도 하는 집은 하고.}

10611 올레코시는 일러네 혼번 험니까?{올레고사는 일 년에 한번 하나요?}

10611 #2 예.{예.}

10611 @1 문전코시도 일러네 혼번 험니까?{문전고사도 일년에 한번 하나요?}

10611 #1 그거나 그거 ㄴ튼 거고.{그것이나 그것이 같은 것이고.}

10611 @1 제사 지낼 때 인찌아녀우파양. 따로.{제사 지낼 때 있지 않습니까? 따로.}

10611 #2 건 문쎄 문쎄.{그것은 문쎄. 문쎄.}

10611 @1 건 문쎄고양. 게서 올레코시나 문전코시는 일러네 혼번.{그것은 문쎄고요. 그래서 올레고사나 문전고사는 일년에 한번.}

10611 #2 예.{예.}

10611 @1 이건 언제 험니까?{이것은 언제 하나요?}

10611 #2 건 저 정월뜨레 아니민 막쌍 느저도 삼월똥깍장 다 험니다. 건 일런 운수 춤 영 페

허는 거나네.{그것은 저 정월달에 아니면 막상 늦어도 삼월달까지는 다 하지요. 그것은 일 년 운수 참 이렇게 편안하게 해주십사 하는 것이니까.}

10611 @1 정월레서 사뭇 사이 조은 날 잡꼭 심방 올 쭈 인는 날 자방양.{정월에서 삼월 사이 좋은 날 잡고 무당 올 수 있는 날 잡아서요.}

10611 #2 예예.{예예.}

10611 @1 게서 올레코시 문전코시.{그래서 올레고사 문전고사.}

10611 #2 예.{예.}

10611 @1 그리고 제사를 할 때 허는 거는 문제.{그리고 제사를 할 때 하는 것은 문제.}

10611 #2 문제.{문제.}

10611 @1 혹시 저 당에는 안 텡경뽕따가?{혹시 저 당에는 안 다녀봤나요?}

10611 #2 당에도 여기도.{당에도 여기도.}

10611 #1 여기.{여기.}

10611 #2 원 시에 강 사는 사르미나 이딴 짜르미나 이 가시리 본냥이엔 헤영 구성무리엔 헌 디 막 크게 헤영 올케 곧꺾치록 오랑 힘니다. 정월.{원 제주시에 가서 사는 사람이나 여기 사람이나 이 가시리 본향이라고 해서 구성물이라고 한데 막 크게 해서 옹게 곳처럼 와서 하지요. 정월.}

10611 @1 삼촌 안 텡겨 보고양?{삼촌 안 다녀 보고요?}

10611 #2 아니 우리도 텡염쭈다. 정월 그믐에.{아니 우리도 다니고 있습니다. 정월 그믐에.}

10611 @1 정월 그무메?{정월 그믐에?}

10611 #2 막 사진덜 찌그레 옵니다. (웃음){막 사진들 찍으러 옵니다. (웃음)}

10611 @1 가시리 본냥 저 본냥예? 구성무례예? 본냥은 헉나우파?{가시리 본향 저 본향요? 구성물예요? 본향은 하나입니까?}

10611 #2 예.{예.}

10611 #1 여기 하나. 손당 할 때 허고 비스툰 거.{여기 하나. 송당 할 때 하고 비슷한 거.}

10611 @1 그디는 누굴 신주로 모신덴 힘니까?{거기는 누구를 신으로 모신다고 하나요?}

10611 #1 누굴 신주로 아녀고.{누구를 신주로 앓고.}

10611 #1 신주. 이기는 그 저 그 부라게 최고 저 뭐. 저 먼저 드리오란 정착킨 사르미 그 주이니 웨는 거.{신주. 여기는 그 저 그 마을에 최고 저 뭐. 저 먼저 들어와서 정착한 사람이 그 주인이 되는 것.}

10611 @1 할망당이우파? 하르방당이우파?{할머니당인가요? 할아버지당인가요?}

10611 #2 할망이엔 꺾름니다. 저.{할머니라고 합니다. 저.}

10611 @1 무슨 할망엔 꺾름니까?{어떤 할머니라고 하나요?}

10611 #2 손당으로 너머온 영 심방덜 허는 거 보민.{송당에서 건너 온 이렇게 무당들이 하는 것 보면.}

10611 #2 이 대중은 가시린 오치비 하나네. 기자 오칩 상단꺾 김치븐 중단꺾 또 강치븐 하단꺾 게민 수산 단꺾헤영 기자 심방 여꺾 때 허민. 오칩 거느령 뇌뺩 김칩 거느리고 기자 경 헤그네 대중은 이디서 상단꺾 중단꺾.{이 대중은 가시리는 오씨 댁이 많으니까. 그저 오씨 집 상단꺾

집은 중단골 또 강씨 집은 하단골 계민 수산 단골 해서 그저 무당 엮을 때 하면. 오씨집 거느린 다음 김씨 집 거느리고 그저 그렇게 해서 대중은 이디서 상단골 중단골.

10611 #1 먼저 설촌헌 디가 오야난.{먼저 설촌한 곳이 대장이니까.}

10611 @1 오첩 김첩 그 다오메.{오씨 집 김씨 집 그다음에.}

10611 #2 강첩.{강씨 집.}

10611 @1 강첩?{강씨 집.}

10611 #2 경헌 건 그 마랑 계민 수산?{그런 것 말고 그러면 수산?}

10611 @1 여기 가시오름 강당장도.{여기 가시오름 강당장도.}

10611 #2 예.{예.}

10611 @1 유명한데 강치비 세번째구나. 계민 상단골 중단골 하단골양?{유명한데 강씨 집이 세 번째구나. 그러면 상단골 중단골 하단골요?}

10611 @1 흑씨 집 아네 이 가리시 싸름 집 아네 뭘 줌 모시는 지바니 인쭈가?{흑씨 집 안에 이 가리시 사람 집 안에 무엇을 줌 모시는 집안이 있습니까?}

10611 #1 집 안넬 모시질 아녀고.{집 안에 모시지 않고.}

10611 #1 집 바깥띠.{집 바깥에.}

10611 @1 우여네.{텃밭에.}

10611 #1 우여네.{텃밭에.}

10611 #2 우리 우리 지바네는 그런 거 원 어쭈다마는 이 스방에도 면 받띠 이신디.{우리 우리 집안에는 그런 것이 전혀 없습니다마는 이 사방에도 몇 군데 있는데.}

10611 #1 이제 땡기다 보민 그런 거 봐지고.{이제 다니다 보면 그런 것 보이고.}

10611 #2 연나래 저 막 몸 아팠 췌끼나네 칠췌 칠췌이엔 헤네 그 일러네 그 올레코시헐 때 놀 ㄱ라 더끄곡. 놀 ㄱ라 더끄는 건 영 주지 흐나 툃 더경으네 무신 돌담 냥 아래 심니다게.{옛날에 저 막 몸 아파서 시달리니까 칠성 칠성이라고 해서 그 일 년에 그 올레고사할 때 가리 갈아 덮고. 가리 갈아 덮는 것은 이렇게 주저리 하나 툃 덮어서 무슨 돌담 나무 아래 있지요.}

10611 #2 냥 아래 시민 놈더른 건 피료헌 거엔 막 무신거 민는 거에 무시거 헤도 저 무신 시엔 가민 무신 춤 저 도체비구신 정인 은넨도 곧꼭 헌덴 헤도. 그게 아니고 칠췌이엔 허멍 그냥 밥 혼 그릇 제스 때에도 거려노코. 경 행으네 저 올레코시헐 때 오랑으네 주지 저 새 새 혼 단 비어당 주지 멘그랑으네 ㄱ라 더경으네 따시 새 주지 더끄곡 허영 그 칠췌 그런 그런 거 이십니다. 이디서.{나무 아래 있으면 남들은 그것 필요한 것이라고 막 무슨 믿는 것에 무슨 것 헤도 저 무슨 시에 가면 무슨 참 저 도깨비귀신 정의는 없다고 말하고 한다고 헤도. 그것이 아니고 칠성이라고 하면서 그냥 밥 한 그릇 제사 때에도 떠놓고. 그렇게 해서 저 올레고사 할 때 와서 주저리 저 띠 띠 한단 베어다가 주저리 만들어서 갈아 덮어서 다시 새 주저리 덮고 해서 그 칠성 그런 그런 것 있지요. 여기서.}

10611 #1 거 쏘고베 보난.{그것 속에 보니까.}

10611 @1 지금도 이십니까?{지금도 있습니까?}

10611 #1 아 지금도 이신디.{아 지금도 있는데.}

10611 @1 봐납띠가?{속에 봤었습니까?}

10611 #1 쏘고베 아무 걷또 아니 기왓짱 하나.{속에 아무 것도 아니고 기왓장 하나.}

10611 #2 아무 걷또 아니. 기왓짱이나 무신 돌 뒤흔 돌.{아무 것도 아니. 기왓장이나 무슨 돌 뒤흔 돌.}

10611 @1 기왓짱이나 도리나 낱 양?{기왓장이나 돌이나 놓아서요?}

10611 @1 경허영으네 그자 저 요건까 구시니엔 허민 구시니 돼는고라게. 경허연 엔나레 하도 췌경으네 허나네 이녁찌비 어서도 칠썰을 모셔사케 허문. 예기더리라도 키우지 못터는 사르문 그런 거 해단 모셔날췌. 경허난 대대이 물려오는 거라. 이거.{그렇게 해서 그저 저 요것이 귀신이라고 하면 귀신이 되는 모양이고. 그렇게 해서 옛날에 매우 시달리고 하니까 자기 집에 없어도 칠성을 모셔야겠다 하면. 아기들이라도 키우지 못하는 사람은 그런 것을 해다가 모셨다고. 그러니까 대대로 물려오는 것이야. 이거.}

10611 @1 그제 조상을 모시는 건 아니?{그것이 조상을 모시는 것은 아니?}

10611 #2 조상은 이녁 조상.{조상은 이녁 조상.}

10611 @1 아니지양.{아니지요?}

10611 #1 아니다. 이 조처느로 저쪽더렌 보나네. 저 이 지비 이시민 이 집 떠날 땐 내버텨 가민 다음 드러운 사르미 그거 위허는 거. 거 계속 마타가는 거.{아닌데. 이 조천으로 저쪽에는 보니까. 저 이 집에 있으면 이 집 떠날 때는 내버려두고 가면 다음 들어온 사람이 그것을 위하는 것. 그것 계속 말아가는 거.}

10611 #2 견디 시에는 이 저 베여밀 보고 칠썰 칠썰 허는디 이디는 베여미는 알땅엔 허곡 알땅이엔 허영 저 토사니 알땅 알땅 허곡. 거는 이딘 칠썰이엔 행으네.{그런데 제주시에는 이 저 뺨을 보고 칠성 칠성 하는데 여기는 뺨은 알당이라고 하고 알당이라고 해서 저 토산이 알당 알당 하고. 하는 것은 여기는 칠성이라고 해서.}

10611 @1 계난 제주시는 칠썰을 베미렌 허는디 여긴 계민 칠썰 그러민 뒤 뒤고마씨?{그러니까 제주시는 칠성을 뺨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그러면 칠성 그러면 무엇일까요?}

10611 #2 계난 그제 모셔 주지 마라 더끄는 게 그제 칠썰이엔 허명 주지 마라 더끄는 거.{그러니까 그제 모셔서 주저리 갈아 덮는 것이 그것이 칠성이라고 하면서 주저리 갈아 덮는 거.}

10611 @1 베염 베여른 아니고양?{뺨 뺨은 아니고요?}

10611 #1 베여른 알땅.{뺨은 알당.}

10611 #2 베여른 알땅.{뺨은 알당.}

10611 @1 알땅이고.{알당이고.}

10611 #2 알땅이엔 행으네 저 므슬 이녁 저 그거세라도 걸렁 아이더리라도 아프민 바당에 무신 거 저감니다게.{알당이라고 해서 저 마을 이녁 저 그것에라도 걸려서 아이들이라도 아프면 바다에 무슨 것을 저가지요.}

10611 @1 계난 엔날 할망덜 그제 칠썰이여 허민 그건 뒤 마린고마씨?{그러니까 옛날 할머니들 그제 칠성이라 하면 그것은 무슨 말일까요?}

10611 #2 경허난 건 몰라. 우리.{그러니까 그것은 몰라. 우리.}

10611 @1 건 보면 돌맹이 하나나 기왓장 하나나 경 낡 이서양?{놓은 것을 보면 돌맹이 하나나 기왓장 하나나 그렇게 놓아 있지요?}

10611 #2 경헌디. 계난 그 올레코시 문전코신가 헐 때에 그거를 그거 따무네 심방 비러네 허는 집떠른. 흥뽀 저들. 요새더른 다 설러볼 때난. 춤 늘근 어른.{그런데. 그러니까 그 올레고사 문전고사인가 할 때에 그것을 그거 때문에 무당 빌려서 하는 집들은. 조금 저들. 요새들은 다 그만 뒤버리니까 참. 늙은 어른.}

10611 #1 이 토산쪽 싸르미 시에 가머는 잘 안 **** 토산땅에.{이 토산쪽 사람들이 제주시에 가면 잘 안 **** 토산당에.}

10611 @1 예예예예.{예예예예.}

10611 #2 저 저드라 저드라지는 어른덜토 인쭈게. 늘근 모른 늘거지고 예기더른 새새에 그거 아녀꼭 허니까. 그거 아녀민 아이더리나 췌낄 건가 해서. (웃음) 흥쭈 저드라지는 지비 이서도 우리 오첩 지바넌 그런 거 윈 어서.{저 걱정 걱정되는 어른들도 있지. 늙은 몸은 늙어지고 아기들은 사이사이 그것을 앓고 하니까. 그것을 앓으면 아이들이라도 시달릴 것인가 해서. (웃음) 조금 걱정되는 집이 있어도 우리 오씨 집 집안에는 그런 것이 전혀 없어.}

10612 @1 케민 조상시늘 모시는 경우에는 어떤 경우드리 이신고마씨?{그러면 조상신을 모시는 경우에는 어떤 경우들이 있을까요?}

10612 #2 조상.{조상.}

10612 #1 조상시넌 허영 딱로 제사베핀.{조상신이라고 해서 따로 제사밖에.}

10612 @1 조상베피양? 게 말 그대로 식계 멩질.{제사밖에요? 그래 말 그대로 제사 명절.}

10611 #2 예. 식계 멩질베피.{예. 제사 명절밖에.}

10611 @1 조상신 위허는 거슨양?{조상신 위하는 것은요?}

10612 @1 이 저 당에 가서는 조상시늘 위허진 아념니까?{이 저 당에 가서는 조상신을 위하지는 않습니까?}

10612 #2 당에 강은 아녀.{당에 가서는 앓아.}

10611 @1 당에 강 아녀양? 당에 강 비는 거슨 우리 사라인은 즈식뜰 우리 건강허게 해줍써? 이런 시기우파?{당에 가서 앓아요? 당에 가서 비는 것은 우리 살아있는 자식들 우리 건강허게 해주십시오? 이런 식입니까?}

10611 #2 기자 그계 그거지요.{그저 그것이 그거지요.}

10611 @1 그거라양.{그거지요?}

10611 #2 예.{예.}

10611 @1 계난 조상신 위허는 거슨 식계 멩질.{그러니까 조상신 위하는 것은 제사 명절.}

10611 #1 예.{예.}

10611 @1 예.{예.}

10612 #1 조상을 위해서 뭐 허는 거슨 윈 식계 멩질.{조상을 위해서 무엇 하는 것은 윈 제사 명절.}

10612 @1 여기선 혹씨 지바네 그 조상에 그 위패라고 해서 영 새경양 그 지방 하지 아념양.

경 허는 디는 어십니까?{여기서는 혹시 집안에 그 조상에 그 위패라고 해서 이렇게 새겨서
요 그 지방 하지 않고요. 혹시 그렇게 하는 데는 없습니까?}

10612 #1 그런 건 봐나도 아녀고. 이 여기.{그런 것은 보지도 않고 이 여기.}

10612 @1 언꼬.{없고.}

10612 #1 예.{예.}

10612 @1 제사 때 헐 땀 지방 써그네 스라불곡.{제사 때 할 때는 지방 써서 살라 버리고.}

10612 #2 지방도 아념니다. 우리 지방는.{지방도 않습니다. 우리 집안은.}

10612 @1 지방도 아녀고예. 예예예.{지방도 않고요. 예예예.}

10613 @1 옛날 어른신들 그 조상신 어떻 모셨다는 얘기나 혹시 드른 거슨 어쭈가?{옛날 어른
신들 그 조상신 어떻게 모셨다는 얘기는 혹시 들은 것은 없습니까?}

10613 그런 건뎜 벨로 언꼬 저 뭐가 인는디 안칠썩엔 허는 가 무신 거 헤그넵에{그런 것도 별
로 없고 저 무엇이 있는데 안칠성이라고 하는 무슨 거 해서.}

10613 #2 안칠썩 기자 옛날에 곡썩 헤먹는 게 곡썩 비는 게 안칠썩이주. 무신.{안칠성 그저
옛날에 곡식 헤먹는 것 곡식 비는 것이 안칠성이지. 무슨.}

10613 #1 무신거?{무엇.}

10613 #2 어디.{어디.}

10613 @1 무슨{무엇.}

10613 #2 받칠썩엔 현 거는 그 칠썩이라. 받칠썩은.{바깥칠성이라고 한 것은 그 칠성이라. 바
깥칠성은.}

10613 #1 뭐 헤 날썩 허영 지금도 저 자꾸 뭐 말허는디.{무엇 헤 났다고 해서 지금도 저 자
꾸 뭐 말하는데.}

10613 @1 계난 받칠썩은 아까와가치 그러케 바께 모신 거고. 그다음 안칠썩 모시지 아념니까
양. {바깥칠성은 아까처럼 밖에 모신 것이고. 그다음 안칠성 모시지 않나요?}

10613 #2 안칠썩에 언는 지방는 언넵 험썩게. 그거는 이 곡썩 헤영 고펡에 제기곡 그걸 잘 제
겨썩썩 허는 그.{안칠성에 없는 집안은 없다고 하지요. 그것은 이 곡식 해서 고펡에 썩고 그것을
잘 썩아주십사 하는 그.}

10613 @1 삼춘도 헤뵈뵈가?{삼춘도 헤뵈셨습니까?}

10613 #2 아냐. 우린 윈 제사 안 허난 거세기가 어시난.{아냐. 우리는 전혀 제사 안 하니까
거시기 없으니까.}

10613 @1 혹시 계민 삼춘네 친척 중에 그러케 해서 제사할 때 보면 부어기나 고펡이나. {혹
시 그러면 삼춘네 친척 가운데 그렇게 해서 제사할 때 보면 부엌이다 고펡이나.}

10613 #2 제사할 때 혼 그른 놈니다. 다른 제사허는 거.{제사할 때 한 그릇 떠놓습니다. 다른
제사 하는 거.}

10613 @1 고펡에 놈니까? {고방에 놓습니까?}

10613 #2 예. 고펡에가 어서부니까 윈 이제는 구들 혼썩기라도.{예 고펡이 없어버리니까 이제
는 방 한쪽에라도.}

10613 @1 한쪽이라든 그게 안칠성이고 그다음에 바깥에 받칠성이고. 예예.{방 한쪽이라든 그것이 안칠성이고 그다음에 밖에 바깥칠성이고. 예예.}

10613 #2 계란.{그러니까.}

10613 @1 계서 이제 그거는 저기는 베여미라 베여문 아니고.{그래서 이제 그것은 저기는 뱀이라 뱀은 아니고.}

10613 #2 예. 받칠성 안칠성 허는 지븐 바블 두 그릇 거러노코 우리 지바넨 거 어스난 그자 안칠성 혼 그릇.{예. 바깥칠성 안칠성 하는 집은 밥을 두 그릇 떠놓고 우리 집안에는 그것 없으니까 그저 안칠성 한 그릇.}

10613 @1 흥나만. 예예예예.{하나만. 예예예예.}

10613 #2 토산서 베여미렌 허는 건 알땅.{토산에서 뱀이라고 하는 것은 알땅.}

10613 @1 알땅. 예예.{알땅. 예예.}

10613 #2 여기는 원.{여기는 원.}

10613 #1 여기 싸름도 어디 알땅 위허는 사름 어디 실 켜디. 가시리도.{여기 사름도 어디 알땅 위하는 사름 어디 있을 텐데. 가시리도.}

10613 #1 거 보통 이 토산 사름도 그거 아니 위해도 뭐가 지나는 때무네 안 *** 거. 토산땅 예.{거 보통 이 토산 사름도 그거 아니 위해도 뭐가 지나는 때문에 안 *** 거 토산땅에.}

10613 #2 벨건까 아넛꾸게. 저 육찌 싸름더른 오민 베여미도 심꼭 아무 거 잡또 아녀도 여기서는 주거나 그런거 절때 아넛니다. 절때 흙불로 허당 운 나쁘민 거 다치는 수가.{별것이 아니지요. 저 육지 사름들은 오면 뱀도 잡고 아무 거 잡지 않아도 여기서는 죽이거나 그런 것 절때 않습니다. 절때 함부로 하다가 운 나쁘면 그것 다치는 수가.}

10613 @1 삼촌네도 그 베여물 위험니께?{삼촌네도 그 뱀을 위하잖아요?}

10613 #2 위허나 마나.{위하나 마나.}

10613 #1 위힐 꺼 이서?{위할 것이 있나요?}

10613 #2 이땅으네 아프미나 허민 알땅에 그 저가레 경.{이따금 아프거나 하면 알땅에 지어 가서 그렇게.}

10613 @1 삼촌도 가넛떠가?{삼촌도 갔었습니까?}

10613 #1 예. 저니 맨뻐 가와쭈다.{예. 전에 몇 번 다녀왔습니다.}

10613 @1 경허난 삼촌 머리에 베염 무러도. (웃음) 거 켜차는겁쭈. (웃음) 거 위허지 아녀시민.{그러니까 삼촌 머리에 뱀 물어도. (웃음) 그거 켜쌌은 거지요. (웃음) 그것 위하지 않았으면.}

10613 #2 그때는 총각인 때 경.{그때는 총각인 때 그렇게.}

10613 @1 계란 삼추는 그걸 모르는 거라. 삼추는 강 경허지 아넛떠가?{그러니까 삼촌은 그것을 모르는 거야. 삼촌은 가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1.6.3. 생활

10614 @1 음력 정월초나 하여간 그 세시 세 바쁘고 헐 그럴 때에야. 뭐 허지 말라 뭐 허지 말라허는 흑씨 금기사향이 이십니까?{그 음력 정월초나 하여튼 그 세시 세 바쁘고 할 그럴 때에요. 무엇 하지 말라 무엇 하지 말라 하는 흑시 금기사향이 있습니까?}

10614 #2 예. 그거게. 심방이나.{예. 그거요. 무당이나.}

10614 @1 어떤 거 이십니까? ㄹ라봄씨예?{어떤 것이 있습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10614 #2 무신 거 아이. 그디 강 그 해에 운에 따라랑 뭐 문직찌 말네늘 허나 뭐 허주. 무신. 기자.{무슨 거 아니. 거기 가서 그 해에 운에 따라서 뭐 만지지 말라고 하나 뭐 하지. 무슨. 그 저.}

10614 @1 그거 말고 옛날 할망덜부터 흑씨 뭘.{그거 말고 옛날 할머니들부터 흑시 무엇을.}

10614 #2 그런 거는 업꼬.{그런 것은 없고.}

10615 @1 뭐 어디 저 새철 드는 날 아치미 노미 지비 게문 가지 말고.{뭐 어디 저 입춘날 아침에 남의 집에 그러면 가지 말고.}

10615 #1 그런 마른 허는다.{그런 말은 허는다.}

10615 @1 바농 빌리레.{바늘 빌리러.}

10615 #1 견디.{그런데.}

10615 #2 그거는 뭐 요새.{그거는 뭐 요새.}

10615 #1 새철 드는 날 여자는 여잔 노미 지비 가문 뭐 여잔 젼물 꿰왕 치대겨별젠 허고 남잔 가민 곶밥 해준데 해나신디.{입춘날 여자는 여자는 남의 집에 가면 뭐 여자는 젼물 꿰어서 끼었어버렸다고 하고 남자는 가면 흰밥 해준다고 했었는데.}

10615 @1 그걸 한번 더 천천니 ㄹ라봄씨. 천천니.{그것을 한번 더 천천히 말씀해 주십시오. 천천히}

10615 #1 옛날을 새철 드는 날 여자는 노미 지비 가시든 젼물 꿰왕 치대겨분덴 허는다. 그 저 검질 난덴 허멍.{옛날은 입춘날 여자는 남의 집에 갔으면 젼물 꿰어서 끼었어버리다고 하는데. 그 저 검질 난다고 하면서.}

10615 #2 게문 남잔 가문 저 지서아방 오락젠헤영 곤밥 해질젠허고.{그러면 남자는 가면 저 남편 왔다고 해서 흰밥 해주고.}

10615 @1 그거와가치 또 다른 건마씨?{그것처럼 또 다른 것은요?}

10615 #1 또 다른 건 뭐가 어신디. (웃음){또 다른 것은 무엇이 없는데. (웃음)}

10615 @1 뭐가 어서마씨?{무엇이 없나요?}

10615 #1 예.{예.}

10615 @1 건 완전한 유교사상에 저즌 거고. 남즈 여즈에 따라 가지고 아까 헐 게 그거 가튼데. 정초에 여자는 함부로 나텅기지 말고 나미 누네 띠지 말고 이러케 하라고.{그것은 완전한 유교사상에 져은 것이고. 남자 여자에 따라서 아까 한 것이 그거 같은데. 정초에 여자는 함부로 나다니지 말고 남의 눈에 띠지 말고 이렇게 하라고.}

10615 #2 게난 그 시가네 그날도 아니랑 그 시가네 따주왕으네 시간도.{그러니까 그 시간에 그날도 아니고 그 시간에 따져서 시간도.}

10615 #1 그저넨 거의다 입춘날 여자는 놀레 못 땡기게 요즈믄 아무 때나 땡겨도.{아니 그전에는 거의다 입춘날 여자는 놀레 못 다니게 요즈믄 아무 때나 다녀도.}

10615 #2 시방.{시방.}

10615 #2 시방도 경 썩짜커게 가쟁 허지 아넘니다게. 새철 드는 날.{시방도 그렇게 선뜻 가려고 하지 않지요.}

10615 @1 썩짜커게. (웃음){선뜻. (웃음)}

10615 #2 또 바당에 가머는 그날 뉘.{또 바다에 가면 그날 뉘.}

10615 #1 아 새철 드는 날 바늘질허믄 솔치 쏘은덴 허명 엔날 ㄱ라난쥬.{아 입춘날 바늘질 하면 쥬기미 쏘다고 하면서 옛날 말했었지.}

10615 @1 한번만 더 ㄱ라쥬썩양.{한번만 더 말씀해 주십시오?}

10615 #1 새철 드는 날 바늘질 허면 바다에 강 솔치 쏘은데 허연 그때 걸 모터게.{입춘날 바늘질하면 바다에 가서 쥬기미에 쏘인다고 해서 그때 그것을 못하게.}

10615 @1 그때는 바늘질 허지마랑 바늘질헙썩양?{그때는 바늘질 하지 말고 바늘질 하세요?}

10615 #1 바늘질허지 말렌.{바늘질하지 말라고.}

10615 @1 솔치 썩운덴양? 하여간 겐또 안 조은 거구나양?{쥬기미 쏘인다고요? 하여튼 그것도 안 좋은 거네요?}

10615 #2 안 조은 거.{안 좋은 거.}

10616 @1 그리고게. 겨론헐 때 팔런헐가지고양? 새각씨나 새스방이나 실랑아방이나양 신랑어명이나 신부아방이나 신부어명안티 또 뉘 조심허라 뉘 흑씨 이런 겐뜨른 언쥬강?{그리고요. 결혼할 때 팔런헐해서요? 신부나 신랑이나 신랑 아버지나 신랑 어머니나 신부 아버지나 신부 어머니한테 또 뉘 조심하고 뉘 흑씨 이런 것들은 없습니까?}

10616 #2 그런 거는 베랑 엇고. 여긴.{그런 것은 별로 없고. 여기는.}

10616 #1 그런 건 얼꼬 새각씨 오라그네게 어디레 도라아지닌 잘 살키여. 어디레 도라아지닌 안 살키여 겐꼭 헐날쥬.{그런 것은 없고 신부 와서 어느 쪽으로 돌아왔으니까 잘 살겠다. 어느 쪽으로 돌아왔으면 안 살겠다 해서 말하곤 했었지.}

10616 @1 어디레 도라아지닌 잘 삼니까?{어데로 돌아왔으면 잘 사나요?}

10616 #2 새각씨엔 드러오랑으네 영 구드레 앓찌미는.{신부 들어와서 이렇게 방에 앓히면.}

10616 #1 고폡 쪽띠레 도라아진 건.{고방 쪽으로 돌아왔은 것은.}

10616 #1 아이고 고폡띠레 도라아지머는 고폡띠레 도라아잔 잘 살키라 허꼭 베곁띠레 도라아지머는 아이고 새각썩 베곁띠레 도라아자네 (웃음) 어디 황당허커라라. 영허영 겐꼭.{아이고 고폡 쪽으로 돌아왔으면 고폡쪽으로 돌아왔아서 잘 살겠다고 하고 바깥 쪽으로 돌아왔으면 아이고 신부는 바깥으로 돌아왔아서 (웃음) 어디 황당하겠더라 이렇게 말하고.}

10616 #1 경헌디 거의가 그 시저레 보민 경헌 사름 씨집 안 사랑 가부러. (웃음){그런데 거의가 그 시절에 보면 그런 사람 시집에 안 살아서 가버려. (웃음)}

10616 @1 바깥띠레 본 사름마씨?{바깥으로 본 사람요?}

10616 #2 경헌디게. 연나른 새스방 흥번 얼굴도 안 뺑으네 겨론 씨집 오꼭 씨어명도 밥쌍 받

저네는 당초 메느리 보며는 귀인버서정으네 그 메느리 못 싹텐 허곡 경헤날쑈게. 경허난.{그런 데요. 옛날은 신랑 한번 얼굴도 안 봐서 결혼 시집 오고 시어머니도 밥상 받기 전에는 당최 며느리 보면 귀인성 떨어져서 그 며느리 못 산다고 하고 그랬었지요. 그러니까.}

10616 @1 그리고 이제 그러케 날 바당 오며는 초상찌비도 가지 말곡 그런 말도 인찌 아념니까?{그리고 이제 그렇게 날 받아서 오면 초상집에도 가지 말고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10616 #1 다른 딴 그런 거 콜리는게 여긴 그런 거 콜리지 아녀.{다른 데는 그런 것을 가려도 여기는 그런 것 가리지 않고.}

10616 #1 육찌는. 아시날까지 아무디 도라헿겨도.{육찌는. 전날까지 아무데나 돌아다녀도.}

10616 @1 케민 내일 제산나리라도 아시날까지 저 초상찌비 감니까?{그러면 내일 제삿날이어도 전날까지 저 초상집에 가나요?}

10616 #1 아 초상집 그런 거는 콜리고.{아 초상집 그런 것은 가리고.}

10616 @1 아 제사 때는 콜리고.{아 제사 때는 가리고.}

10616 #2 예. 제사때는.{예. 제삿날은.}

10616 #1 저 초상찌베 부정헌 이튼.{저 초상집에 부정헌 일은.}

10616 #2 콜리고.{가리고.}

10616 #1 겨론식 때도 그 무리에 안 가.{결혼식 때도 그 즈음에는 안 가.}

10616 @1 한 일쭈이리나 이쭈 저네 안 가고.{한 일쭈일이나 이쭈 전에 안가고.}

10616 #1 경 아녕 놀레 탱기는 거나 노미지찌 저 무튼 잔치도 탄딘 보난 머그레 안 간텐 허는디 그런 거 여상도 도라다니고.{그렇지 않아서 놀러 다니는 것이나 남의집에 저 같은 잔치도 다른 데는 보니까 먹으러 안 간다고 하는데 그건 것은 예상 돌아다니고.}

10616 #1 잔치허젠 허믄 허믄 잔치 테기리 나미는 잔치 머그레 안 간텐 허는디 이디는 널 잔치라도 오닐 잔치는 강 머겨주고. 서로서로.{잔치하려고 하면 사뭇 잔치 택일이 나면 잔치 먹으로 안 다닌다고 하는데 여기는 내일 잔치라도 오늘 잔치는 가서 먹어주고. 서로서로.}

10616 #1 내가 당사자로 저 겨론허거나 식계허는 사라믄 한 일쭈일 시빌 지키고.{내가 당사자로서 저 결혼허거나 제사하는 사람은 한 일쭈일 십일 지키고.}

10616 #2 예.{예.}

10616 #1 그러치 아녕 허는 사르믄 오늘 영장받띠 가땅도 내일 잔치찌비 가불곡.{그렇지 않고 하는 사람은 오늘 장지에 갔다가도 내일 잔치집에 가고.}

10616 #1 거 가도 관찬는 거.{그것은 가도 괜찮은 것.}

10616 @1 건 관찬는 거예?{그것은 괜찮은 거요?}

10616 #2 경헤도게 영 무시겨게 우시나 들러리나 갈.{그래도 이렇게 무슨 것 위요나 들러리나 갈.}

10616 @1 갈 싸름도 조심허고.{갈 사람도 조심허고.}

10616 #1 그 사르믄 빼여 노추게.{그 사람은 빼놓지요.}

10616 @1 예예예.{예예예.}

10617 @1 케민 장례식 팔런헤가지고 흑씨 그런 금기사항 가튼 건 일쭈가?{그러면 장례식 관

혹시 그런 금기사항 같은 것은 있나요?}

10617 #1 장네시게 뭐 금기히는 거 벨로 언는다.{장례식에 뭐 금기하는 것은 뭐 별로 없는데.}

10617 @1 관 위로 무슨 머 개가 지나가민 안 조타. 고병이가 지나가민 안 조타 뭐.{관 위로 무슨 뭐 개가 지나가면 안 좋다. 고양이가 지나가민 안 좋다 뭐.}

10617 #1 그런 거.{그런 거.}

10617 @1 영장 나가는데 뭐 지나가불민 뭐 안 조타 뭐 그런 거 혹시 어십니까?{영장 나가는데 뭐 지나가면 뭐 안 좋다 뭐 그런 것 혹시 없습니까?}

10617 #1 지금도 잔치 때나 새스방 갈 때나 영장 갈 때 놈보다 먼저 가렐은 허는다.{지금도 잔치 때나 신랑 갈 때나 영장 갈 때 남보다 먼저 가라고는 하는데.}

10617 @1 놈 보다 먼저 가라.{남 보다 먼저 가라.}

10617 #1 놈 건너간 다음 가지 마랑 어쩔튼 먼저 가라.{남 건너간 다음 가지 말고 어쩔튼 먼저 가라.}

10617 #2 질칼르지 마랑.{길을 가로지르지 말고.}

10617 @1 질칼르지 마랑. 한마디로 질칼르지 마랑. 영장 갈 때도 그러코. 저 겨룬식 때도 그러코예?{길을 가로지르지 말고. 한마디로 길 가로지르지 말고. 영장 나갈 때도 그렇고 저 결혼식 때도 그렇고요?}

10617 @ 그런 그런 저 옛날 할머니들 속따미나 이제 건 우리 잘 꿩게 가르쳐주는 거 아니우 파악? 그런 거 말고 또 따른 거 뭐 이신가마씨?{그런 그런 저 옛날 할머니들 속담이나 이제 우리 잘 되게 가르쳐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 말고 또 다른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10617 #1 막상 가르주젠 허난 튼내지.{막상 말해주려고 하니까 생각나지.}

10617 #2 가르내젠 허민. 경 아널 때는 튼내지고.{말씀해 주려고 하면. 그렇지 않을 때는 생각나고.}

10617 @1 잠시 여기까지 하고 좀 쉬언땅 하겔씀니다예.{잠시 여기까지 하고 좀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1.7. 민간요법

1.7.1. 질병과 민간요법

10701 @1 삼춘 마라냥 혹시 저 삼추니 다 튼내지 모던 거 이시민 여청 삼춘 마라줍씨예. 이 겨우다양. 예저네 마니 발생헐면 질병에 종류에는 어떤 걸뜨리 이션쑤가?{삼춘 말씀하다가 혹시 저 삼춘이 다 생각하지 못한 것 있으면 여자 삼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런 것입니다. 예전에 많이 발생헐던 질병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10701 #1 옛날 호열짜.{옛날 괴질.}

10701 @1 호열짜. 또예? 경헤영 계속 마라줍씨?{괴질. 또요? 그렇게 해서 계속 말씀해 주십시오}

?)

10701 #1 호열짜히고 또 뭐 이따마는.{괴질하고 또 뭐 있다만.}

10701 #1 병 이르믄 다 아라지커라?{병 이름은 다 알겠나?}

10701 @1 예. 게믄 삼춘 엔나레 이선편 병 이르믄 어떤 걸뜨리 이선힐까?{예. 그러믄 삼춘 옛날에 있었던 병 이름은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10701 #2 뺱 일름 머 홍역. 아이덜 홍역커는 거. 그런.{병 이름 뭐 홍역. 아이들 홍역하는 거. 그런}

10701 @1 이젠 그러믄양. 제가 자세히 여쭈보쿠다양. 피부뺱과 팔런헌 병드른 어떤 걸뜨리 이선힐까?{이제 그러믄요. 제가 자세히 여쭈겠습니다. 피부병과 팔런헌 병들은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10701 #2 피부뺱은 뭘엔 헨다마는 이저별쎄. 곧젠허난.{피부병은 뭘라고 헨다만 잇었네. 말하고 하려니.}

10701 @1 뭘 버짐도 이실꺼고.{뭘 버즘도 있을 것이고.}

10701 #2 아니. 비리 비리 비리 비리 비리허멍 걸까라 비리 올란젠 허멍 가스새 과당으네 이디서는 저 흐믄 무시 거 담뺱제영 무시거 낵으네 막커영 그거 약 약 아니우파? 비리가 그때는 초집 살 때는 그때 막 비리 하영 올라나쭈다게. 비리.{아니. 음 음 음 음 음하면서 그것보고 음 올랐다고 하면서 과리폴 과다가 여기서는 저 사뭇 무슨 거 담뺱제 하고 무슨 거 놔서 마구해서 그거 약 약 아닙니까? 음은 그때는 초가 살 때에는 그때 막 음 많이 올랐었지요.}

10701 @1 비리는 어떠케 알른 병이우파?{음은 어떻게 앓는 병입니까?}

10701 #1 손꺼림도 막 꺾랍꼭 발꺼림도 막 꺾랍꼭{손살도 막 가렵고 발살도 막 가렵고.}

10701 #1 몸 온체.{몸 전체.}

10701 #2 온체 막 꺾라왕.{전체가 마구 가려워서.}

10701 #1 꺼림는다. 그거시 물 부뜨멍 더 쎅기고 더 쎅기고 허는다. 이 그 비리가 요즈믄 업는다 그 저니는 그 뭘가 나쁘다고 이 저 살기가.{가렵는데. 그것이 진물나면서 더 쎅기고 더 쎅기고 하는데. 이 그 음이 요즘은 없는데 그 전에는 그 뭘가 나쁘다고 이 저 살기가.}

10701 #2 다른 마른 아너고. 비리엔만 허멍.{말은 말은 앓고 음이라고만 하면서.}

10701 #1 비리엔 헤신디 비리는 글거가민 점점 올라오멍 다 쎅기는 거.{음이라고 했는데 음은 굵으면 점점 올라오면서 다 쎅기는 것.}

10701 @ 오늘날에 음과 가튼 건가?{오늘날의 음과 같은 것입니까?}

10701 #1 오믄 칠 올란젠허영 건 뜰로 불르고.{음은 칠 올랐다고 해서 그것은 따로 부르고.}

10701 @1 뜰로 불러양? 그 엔나레 음이라는 걸또 이선힐까?{따로 부른다고요? 그 옛날에 음이라는 것도 있었습니까?}

10701 #1 오미 아니라 저 치리엔.{음이 아니라 저 칠이라고.}

10701 @1 건 칠예. 피부뺱이 한 종류예?{그것은 칠요. 피부병이 한 종류인가요?}

10701 #1 걸또 피부뺱이 한 종인디 음이나 여기 저 치리나 꺾트낭 이르민디이.{그것도 피부병의 한 종인데 음이나 여기 저 칠이나 같은 나무 이름인데.}

10701 @1 경허우파? 칠도 인꼬 비리도 인꼬양. 버짐도 이실꺼고.{아 그랬습니까? 칠도 있고 움도 있고요. 버즘도 있을 텐데.}

10701 #1 버즘 인꼬 도리버즘 인꼬 그냥 백빠즘 인꼬 뭐 버즈미 겐또 두 가지.{버짐 있고 진버짐 있고 그냥 마른버짐 있고 뭐 버짐이 그것도 두 가지.}

10701 #2 도리빠즈른 시방도 인쭈마는 도리버즈미 그거 허며는 뭐 누룽냥을 돌르나 또.{진버짐이 지금도 있지만 진버짐이 그것 하면 뭐 느릅나무를 도리나.}

10701 #1 머귀냥 돌란쭈. 무신 머.{머귀나무 도렸지. 무슨 뭐.}

10701 #2 저 달팽이들 불르나 그걸로 약커영으네.{저 달팽이를 바르나 그것으로 약을 해서.}

10701 @1 도리버즘허민 머귀냥 돌라마씨?{진버짐 하면 머귀나무 도렸나요?}

10701 #1 머귀 버짐 둘레 제여당 똑커게 썰로 무경 그디 강 또 낭에 강 그 둘레 돌라그넵에.{머귀나무 버짐 둘레 재다가 똑하게 실로 묶어서 거기 가서 또 나무에 가서 그 둘레 도려서.}

10701 #2 경허민 조아마씨. 그런 거.{그렇게 하면 좋습니다. 그런 것.}

10701 #1 거 떼어네 그 물 불르꼭 허민 그거시 존네허멍 그걸떨 경.{그것 떼어내서 그 물 바르고 하면 그것이 좋다고 하면서 그것들 그렇게.}

10701 @1 머귀냥예? 게서 버지른 아까 도리버즘허고 백빠즘마씨?{머귀나무요? 그래서 버짐은 아까 진버짐하고 마른버짐하고요?}

10701 #2 예. 백빠즈른 기자 바작바작커멍.{예. 마른버짐은 그저 바작바작하면서.}

10701 #1 백빠즈른 이 허영케 이 저 얼구레도 부뜨고 이땅 모메도 허영케 나온 거.{마른버짐은 이 하얗게 이 저 얼굴에도 생기고 이따금 몸에도 하얗게 나오는 것.}

10701 @1 땀띠도 이쓸 꺼고요?{땀띠도 있을 거고요?}

10701 #2 예. 땀띠 여르메게.{예. 땀띠 여름에요.}

10701 @1 두드레기도 이실 꺼고.{두드레기도 있을 것이고.}

10701 #2 두드레기 질투드레기 막 흥물 일허레라도 가땅 막 그라왕 흥물 온 모메 허는 거. 질투드레기 망 낭. 출 무끝 때 팔뉘레 질투드레기 막 흥물 두드레기 파당으네 온 모미 다.{두드레기. 길두드레기 막 사뭇 일하러라도 갔다가 마구 가려워서 사뭇 온 몸에 하는 것. 질투드레기 마구 나서. 풀 묶을 때 팔월에 길두드레기 막 사뭇 두드레기 굽다가 온 몸에 다.}

10701 @1 그걸 질투드레기엔 허는구나양.{그것을 길에서 만난 두드레기라고 하는군요?}

10701 #2 예.{예.}

10701 #2 질 촌장 가렌 허멍 질 촌장 가렌 허멍 막 그때는 비치라그로 막 썰꼭 험띠다. 어른덜.{길 찾아서 가라고 하면서 길 찾아서 가라고 하면서 마구 그때는 빗자루로 막 쓸고 함띠다. 어른들.} (웃음)

10701 @1 어디 베꼈디 탕기당 올른 거네.{어디 바깥에 다니다가 올른 거네.}

10701 #2 예.{예.}

10701 @1 질 촌장 가분게 아니고.{길 찾아서 가버린 것이 아니고.}

10701 #2 질 촌장 간.{길 찾아서 갔고.}

10701 @1 그다으메 막 머리 버서지꼭 뭐 현 경우도 인찌 아넘니까?{그다음에 막 머리 벗어지

뭐 한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10701 #1 뉘볼랴쨌 허는디.{두부백선이 올랐다고 하는데.}

10701 @1 뉘볼랴쨌.{두부백선이 올랐다고.}

10701 #1 뉘볼랴 머리 몬 빠전.{두부백선이 올라서 머리 전부 빠졌네.}

10701 #2 머리꼬근 히뜩히뜩합니다게. 뉘볼른 머리에.{정수리가 희뜩희뜩하지요. 그거 두부백선 두부백선 오른 머리에.}

10701 @1 득골랴쨌 험니까? 게몬 드기네양. 득 경허영으네.{득 올랐다고 합니까? 그러면 득이 네요. 득 그렇게 해서.}

10701 #1 드비에만 허난 뉘.{두부백선이라고만 하니까.}

10701 @1 아 뉘. 아아.{아 두부백선. 아아.}

10701 #2 뉘피고.{두부백선하고.}

10701 @1 게서 그거케 허는 거슨 뉘 올랴쨌예.{그래서 그렇게 한 것이 두부백선 올랐다고 요.}

10701 @1 그 뉘 올른 뉘피고 이발총이니 기계총이니 험 낀 틀린 거우파?{그 두부백선 오른 두부백선 하고 이발총이니 기계총이니 한 것은 다른린 것입니까?}

10701 #2 그거케. 그거 ㄱ튼 걸꺼라.{그거야. 그거 같은 것 아닐까?}

10701 #1 거 비스툰디 뉘볼른 거는 진짜 가주기 막 두틀두틀허고 머리가 빠져부리고 기계총 이난.{그것 비슷한데 두부백선 오른 것은 진짜 가죽이 막 두틀두틀 하고 머리가 빠지고 기계총이니.}

10701 #2 기계총이 더허주.{기계총이 더하지.}

10701 #1 기자 허영행 ㄱ르우민 글그민 저 뉘 비듬.{그저 하얗게 되어서 가려우면 굵으면 저 뉘 비듬.}

10701 @1 가튼 게 떠러지고.{같은 것이 떨어지고.}

10701 #1 어.{어.}

10701 @1 그건 기계총이고.{그것은 기계총이고.}

10701 #1 으.{으.}

10701 #1 거 드븐 아예 두틀두틀 헤그네 글그민 소게 피날 정도로 그 뉘가 나오고.{그것 두부백선은 아예 두틀두틀 해서 굵으면 속에 피날 정도로 그 뉘가 나오고.}

10701 @1 아 예 예 예.{아 예예예.}

10701 @1 비리도 인꼬. 호열짜는 어떠케 허는 거우파?{옴도 있고. 호열자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10701 #1 호열짜엔 험 거 연날 여기서 저 질레에 다 근무허멍 웨리 싸름 몬 뜨러오게도 헤나 신디. 호열짜엔 험 낀 갑짜기 아프면 그자 아판헌 허민 주거분 거 급썰.{괴질이라고 한 것은 옛날 여기에서 저 길에 다 보초서면서 다른 동네 사람 못 들어오게도 했었는데. 괴질이라고 한 것은 갑짜기 아프면 그자 아팠다고 하면 죽어버리는 것. 급썰.}

10701 @1 예예예예.{예예예예.}

10701 @1 이선쭈과?{눈병도 있었습니까?}

10701 #1 눈병도 이디서 거 돌림 무신 눈 풀리미여 무신 거여 허멍 그거 헨짜. 요즘마니 심머 지 아녀고. 요즘 그거 걸리민 아주 우터는다.{눈병도 여기서 거 돌림 무슨 눈 돌림병이다 무슨 거 다 하면서 그거 했지만 요즘만큼 심하지 않고. 요즘 그거 걸리면 아주 위태하는데.}

10701 @1 눈떨림예? 그다음 요러케 영 나는 거. 이진 뭤엔 험니까?{눈 돌림병요? 그다음 요렇게 이렇게 나는 거. 이것은 뭤라고 하나요?}

10701 #2 개썩. 돌림.{아랫눈시울에 난 다래끼, 윗눈시울 난 다래끼.}

10701 @1 돌림?{윗눈시울에 난 다래끼.}

10701 #2 우차근 돌림 알착은 개썩. 경허영 무신 거 깨 허영으네 그디 블르민 존넹 허멍 오쭈 쌍 거 블르고.{위쪽은 돌림 아래쪽은 개썩. 그렇게 해서 무슨 거 버캐 해서 거기 바르면 좋다고 하면서 오쭈 싸서 그거 바르고.}

10702 @1 깨 허영 블르민 존넹마씨? 돌림또 깨 허영 줘니까?{버캐 해서 바르면 좋다고요? 돌림도 버캐 하면 좋습니까?}

10702 #2 둘러슨 눈 잔뜩 ㄱ망 강 돌통땀 둘러노민 좋넹.{돌림은 눈 질끈 감아서 가서 돼지 우리 담 뒤집어 놓으면 좋다고.}

10702 #1 옛날 그자 뭤. (웃음){옛날 그자 뭤. (웃음)}

10702 @1 장간만양. 그다음 눈 팔련헌 거슨 눈풀리미 인꼬 둘러시 인꼬 개씨비 인꼬. 둘러슨 어떻 아프는 거우파?{잠간만요. 그다음 눈 팔련헌 것은 눈돌림병이 있고 윗눈시울에 난 다래끼가 있고 아랫눈시울에 난 다래끼가 있고. 윗눈시울에 난 다래끼는 어떻게 아프는 것입니까?}

10702 #1 돌림 막 이디 민짱.{윗눈시울에 난 다래끼 마구 여기 전부.}

10702#2 부성으네 허떨나는 거.{부어서 종기 나는 것.}

10702 #1 허게 허떨낭 막 부성으네 별경허곡 눈 탁 부트는 거.{하계 헌데나서 마구 부어서 별짱고 눈 딱 붙는 거.}

10702 @1 그 둘러슬 치료허젠 허민마씨?{그 윗눈시울에 난 다래끼를 치료하려고 하면요?}

10702 #2 계난 치료허젠 허민 눈 ㄱ망 돌통땀 둘러노렌 헤나서. 돌통땀 둘러노렌.{그러니까 치료하려고 하면 눈 감아 돼지우리의 담을 뒤집어 놓으라고 했었어. 돼지우리 담 뒤집어 놓으라고.}

10702 @1 개씨븐 어떻 아프는 거우파?{아랫눈시울에 난 다래끼는 어떻게 아프는 것입니까?}

10702 #2 개씨븐 허떨낭으네 올케 독꼐란.{아랫눈시울에 난 다래끼는 올케 독 올라서.}

10702 @1 건.{그것은.}

10702 #1 이 알착.{이 아래쪽.}

10702 #2 알차게 호뎀 난 거. 그거는 옛날 꺾뽀리 꼭지로도 꼭꼭 침주곡 뭤 헤나신디.{아래쪽에 조금 난 것. 그것은 옛날 꺾보리 꼭지로 꼭꼭 침을 주고 뭤 했었는데.}

10702 #2 바당에 꺼 먹지 말렌 그건또 헤날쭈. 바당에 꺼 머그민 물때마다 그 개썩난덴.{바다에 것 먹지 말라고 그것도 했었지. 바다에 것을 먹으면 물때마다 그 아랫눈시울에 다래끼 난다고.}

10702 @1 어떻 치료합니다?{그것은 어떻게 치료하나요?}

10702 #2 그건또 저 보린빵울로도 콕콕커게 일곱 번 그거 영 콕콕 질렁으네 물르레 물빵울러 레 커불렌 허영으네 경허민 존넨 흥는 거고.{그것도 저 보리알로 콕콕 일곱 번 그것 이렇게 콕콕 찢러서 물에 물방울에 담그라고 했어. 그러면 좋다고 하는 것이고.}

10702 @1 눈뜰리른 어떻 뱅이우파?{눈 돌림은 어떤 병입니까?}

10702 #2 눈뜰리른 놈신디 강으네 놈 아픈 거 보나 어떻허민 돌리미엔 흥몰 아팡으네 허난. 그때는 어떻사 허연 병원에 간 조아신디. 병원도 어신디.{눈 돌림은 남한테 가서 남 아픈 것을 보나 어떻게 하면 돌림병이라고 사뭇 아파 하니까. 그때는 어떻게 해서 병원 가서 좋았는지. 병원도 없는데.}

10702 @1 그걸 치료허젠 허민마씨?{그것을 치료하려고 하면요?}

10702 #1 연날 그거 치료허젠 허민 여기 미나리 백상으네 거문 험버게 쌍 눈 우의 더경 자는 거. 바메.{옛날 그것을 치료하려고 하면 여기 미나리 빵아서 김정 형곶에 싸서 눈 위에 덮어서 자는 것. 밤에.}

10702 @1 계절별로 겨우리 뉘면 잘 걸리는 병이 뭐파?{계절별로 겨울이 되면 잘 걸리는 병이 무엇이 있습니까?}

10702 #2 고뿔.{감기.}

10702 @1 고뿔. 고뿌른 어떻 걸리는 건파?{감기. 감기는 어떻게 걸리는 것입니까?}

10702 #1 요즘 감기난 기침허곡 심허민 모게서 할그랑할그랑 소리내곡.{요즘 감기니까 기침하고 심하면 목에서 할그랑할그랑 소리나고.}

10702 @1 걸 치료허젠 허민 어떻합니다?{그것을 치료하려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10702 #1 그거 치료 엔나른 뭐 모멸추게 그 저 뭐 낭 죽 썰도 메기곡 그 약 어신 때나네 그건또 헤영 메기곡. 또.{그것 치료 옛날은 뭐 메밀죽에 그 저 뭐 넣어서 죽 쑤어서도 먹이고 그 약 없을 때니까 그것도 해서 먹이고. 또.}

10702 #2 저.{저.}

10702 #1 무신건또 슬망 메긴다마는.{무엇도 삶아서 먹인다만.}

10702 #2 배.{배.}

10702 #1 콩누모레 또 무신건또 슬망 메기다마는.{콩나물에 또 무엇도 삶아서 먹인다만.}

10702 #2 요센 땡유지에 요세 생강이여 무시거. 요세는 그건또 딸령 머꼬. 약이 한한허나네. {요새는 당유자에 요세 생강이다 무엇 요새는 그것도 달여서 먹고. 약이 많고 많으니까.}

10702 @1 홍여근 어떻 알른 병이우파?{홍역은 어떻게 앓는 병입니까?}

10702 #1 홍여근 그 저 뭐이나네 그게 저 여기서 열병이주. 그거시. 막 아이가 열 올르고 모 메 막 뭐 피어 올라가든{홍역은 그 저 무엇이니까 그것이 저 여기서 열병이지. 그것이. 막 아이가 열 올르고 몸에 막 뭐 솟아 나고.}

10702 #2 홍여근 아이 애기 때 아녀머는 늘경 주거도 흥번 흥 덴 험띠다. 사름 다 그거 헤야 허는 거난.{홍역은 아이 아기 때 앓으면 늙어서 죽어도 한번 한다고 하데요. 사름들 다 그것을 헤야 하는 것이니까.}

10702 #1 방지는 그저네 우두 논 게 홍역 방지.{홍역 방지는 그전에 우두 놓은 것이 홍역 방지.}

10702 #1 요새는 워낙 약 조양으네 미룬 방치해부난 그거주. 연나른 거 방치아녀나네 그거 허여내젠 허민 흥물 아이덜토 주거내곡 어른도 주거내곡.{요새는 워낙 약 좋아서 미리 방지하니까 그거지. 옛날은 그것 방지 않으니까 그거 하려고 하면 사뭇 아이들도 죽어나고 어른도 죽어나고.}

10702 #2 그거 허당 봄처레 아이덜 중는 아이가 하주.{그것 하다가 봄철에 아이들 죽는 아이가 많지.}

10702 @1 그거슬 치료허젠 허민마씨?{그것을 치료하려고 하면요?}

10702 #2 치료가 이선쑤가? 그뎨 기자 일쭈일 뉘며는 촛촛촛촛 소상으네.{치료가 있었습니까? 그때는 그저 일쭈일 되면 차차차차 솟아서.}

10702 #1 그저넨 치료 아녀도 좀 멩 진 아인 살고 경 아넨 건 죽꼭 허나네 그저네 이 봄 낭강 보민 드르에 몬 무덤. 새로. 어제 어선판 거 오늘 강 보민 인쪽 허멍.{그전에는 치료 안 해도 좀 멩이 긴 아이는 살고 그렇지 않은 것은 죽고 하니까 그전에 이 봄 나서 가 보면 들판에 모두 무덤 새로. 어제 없었던 것이 오늘 가서 보면 있고 하면서.}

10702 #2 아는 뱅이난 기자 경허영.{아는 뱅이니까 그저 그렇게 해서.}

10702 @1 홍역파 비스툰디 또 다른 뱅이 이쑤과?{홍역과 비슷한데 또 다른 뱅이 있습니까?}

10702 @1 어린아이드리 알코. 혹씨 막 얼어그네 터는 병도 인쪽 험니까?{어린아이들이 앓고. 혹씨 막 추워서 떠는 병도 있고 하나요?}

10702 #2 거 터러귀뎡.{그것 학질.}

0702 #1 말라리아디 터러귀뎡 터러귀엔.{말라리아인데 학질 학질.}

10702 @1 건 터러귀뎡은 어떻 알른 뱅이우파?{그것 학질은 어떻게 앓는 뱅입니까?}

10702 #1 이런 뎡난디 아자도 막 그 뱅이 오면 막 어러그네 곧 주거지뎡 박박 털민 그게 여러 쟁장이. 건또 열병 모양이라. 여리 심헌.{이런 별 바른 데 앓아도 막 그 뱅이 오면 마구 추워서 곧 죽겠다고 박박 떨어. 그것이 열이 굉장히. 그것도 열병인 모양이야. 열이 심한.}

10702 #1 여름처레도 얼덴 막 이불 더경 녹젠 허곡.{여름철에도 춥다고 마구 이불 덮어서 누우러 하고.}

10702 @1 걸 치료허젠 허민마씨?{그것을 치료하려면요?}

10702 #1 연날 우리 놀래와나신서.{옛날 우리 놀라게 했었는데.}

10702 #2 그거게. 잘락 강으네 어떻 주건젠 허나 아방 주건젠 허나 그 아픈 사름신디 강 잘락 노래우민 잘락 노래미는 그거 덜헌덴 허곡. 경 아녀며는 우리는 그런 게라네 불근알 빠뒤네 그 금자락인가 무신 거 놔네 허여네 아버지 산 때에 그 약 케네 줘네 그거 머거네 그거 흥번 사라나신디. 막 지독커게 쓰는 거란게. 그거 연나른게 뱅위나나 무시 거 어스나네 기자 그런 조뎡야그로만 쓰난.{그거게. 잘락 가서 어머니가 돌아가셨다고 하나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하나 그 아픈 사람한테 가서 잘락 놀라게 하면 놀라면 그것 덜한다고 하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그런 달갈에 노른자 빼서 그 금자락인가 무엇 놔서 해서 아버지 살아계실 때에 그 약 해서 주니까 그것 먹어서 그거 한번 살았었고. 막 지독하게 쓴 것이던데. 그거 옛날은 병원이나 어떤 거 없으니까 그저

조제약으로만 쓰니까.}

10702 @1 두드레기가 막 날 꺼 아니우파양? 계민 그 두드레기를 치료허젠 허민마씨?{두드리기가 마구 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두드레기를 치료하려고 하먼요?}

10702 #1 건 소금무리나 무슨 장이나 허영으네 두드레기 파드민 엔나른 싹싹 밀멍 씨스민 막 억씩 헐땅으네 출 무끄레 강 대중 출 무끄레 강 그 두드레기 바둑띠다게. 경허며는 지비 오랑 소그무레 막 시스민 혼동안 와싹 헐땅 기어드러.{그것은 소금물이나 무슨 장이나 해서 두드레기 나면 옛날은 박박 밀면서 씻으면 막 억씩 했다가 풀 묶으러 가서 대중 풀 묶으러 가서 그 두드레기 나대요. 그러면 집에 와서 소금물에 마구 씻으면 한동안 와싹 했다가 기어들어.}

10702 @1 미네기물 허영 먹쩐 아넘니까?{미나리물 해서 먹지는 않습니까?}

10702 #2 미네기는 건 약뚝 체허는 거난 미나리도 행 먹쭈마는.{미나리는 그것은 약독을 없애는 것이니까 미나리도 해서 먹지만.}

10702 @1 똥똥기가 어린아이덜 마니 나지 아녀우까양. 그 똥똥기가 마니 나면 치료허젠 허민예?{똥똥기가 어린아이들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 똥똥기가 많이 나면 치료하려고 하먼요?}

10702 #2 그건 산디받 엔나렌 산디덜 하영 가나네. 뒷날 아처기 강으네 박세기 강 산디 이슬강 탁탁 터러당으네 그건 메기곡 그거 블르곡 허민 단작 조앙.{그것은 발벼 발에 가서 옛날에는 발벼들 많이 심으니까. 뒷날 아침에 가서 바가지에 가서 발벼 이슬 가서 탁탁 떨어다가 그것을 먹이고 그것을 바르고 하면 단박 좋아.}

10702 @1 단작 조아양 그게. 다시 한번만 ㄹ라쭈썸. 똥똥기가 나민양?{단박 좋아요? 그것이.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십시오. 똥똥기가 나먼요?}

10702 #2 똥똥기가 나민 산디받띠 강 그 이슬을 뒷날 아처기 막 바레기 진 때 강 툽툽툽툽하게 알려레 박세기 바트렌 허민 그 이슬 터러당 그거 슬슬 블라주곡 메기곡 허미는 단작 그.{똥똥기가 나면 발벼발에 가서 그 이슬을 뒷날 아침에 막 젖을만큼 흠뻑 내렸을 때 가서 툽툽툽툽하게 아래로 바가지 받으라고 하면 그 이슬 떨어다가 그것 살살 발라주고 먹이고 하면 단박 그.}

10702 #2 거 이슬 잘 질 땀 박세기더레 영 후리멍 계속 비와가민 하영 바다지니까 그거로 모욕시키고 허민 웨는 거.{그것 이슬 잘 질 때는 바가지에 이렇게 후리면서 계속 비위가 먼 많이 받으니까 그것으로 목욕시키고 하면 되는 것.}

10702 @1 엔나레 용다리뽕도 마니 인찌 아녀우파?{옛날에 문둥병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10702 #1 달병엔 허영 용달뽕 이디. 거 그거 고치젠 허민 도라뎡기멍 노미 멍는 무레 강 모욕커영 드라나블곡 허는 그거.{문둥병이라고 해서 문둥병 여기. 그 그것 고치려고 하면 돌아다니면서 남이 먹는 물에 가서 목욕해서 달아나버리고 하는 그것.}

10702 @1 그걸 달병이라고도 허여마씨? 용다리라고도 허고.{그것을 문둥병이라고도 합니까? 문둥병이라고 하고.}

10702 #2 용달병 용달병.{문둥병. 문둥병.}

10702 @1 용달병?{문둥병?}

10702 #2 예. 용달뽕 걸리민.{예. 문둥병 걸리면.}

10702 @1 건 어떻 증세가 나타납니까?{그것은 어떤 증세가 나타납니까?}

10702 #2 눈썹비 어서 갑쭈게. 거 영 보며는. 저 토사네도 이서네 가이 저 서메 시꺼간 쭈다마는 이젠 주거별젠사 헨디 해도. 거 기자 영 보며는 눈썹비 윈 으서. 눈썹 일꼬 이 손콧 그 틈 걷또 보며는 영 몽그라지고.{눈썹 눈썹이 없어지지요. 그거 이렇게 보면. 저 토산에도 있어서 그애 저 섬에 태워갔습니다만. 이제는 죽었다고 하기도 하고. 그거 그저 이렇게 보면 눈썹이 전혀 없어. 눈썹 없고 이 손톱 같은 것도 보면 이렇게 모지라지고.}

10702 #1 요즘 문둥병엔 현 거.{요즘 문둥병이라고 한 것.}

10702 #2 영 암시작허나네 시꺼가변. 시꺼가부난 어디 서메 서메 경헌 사름 질루는 디 막 인넨 허멍.{이렇게 알기 시작하니까 실어가 버렸어. 실어가니까 어디 섬에 섬에 그런 사람 키우는 데 있다고 하면서.}

10702 @1 건 엔나레 그런 병 걸리민 치료허는 방버비 어서신가마씨?{그것은 옛날에 그런 병 걸리면 치료하는 방법이 없었을까요?}

10702 #1 치료 방버비 어신고라 바메 놉 저 대중 멍는 무레 강 모욕커영 드라나불민 하루 아침에 백 싸름 메기민 존넨 허멍 그거 막 멍는 무레 모욕커영 드라나부는 거.{치료 방법이 없는 지 밤에 남 저 대중이 먹는 물에 가서 목욕해서 달아나버리면 하루 아침에 백 사람 먹이면 좋다고 하면서 그거 막 먹는 물에 가서 목욕해서 달아나버리는 것.}

10702 @1 아. 아 그런 무를 백 싸르미 머그민 내가 병이 조타고 헤가지고.{아. 아 그런 물을 백 사람이 먹으면 내가 병이 좋다고 해서.}

10702 #1 게문 그거 백 싸름 흐루 아침미 몸 그문 거 백 싸름 메기기 간단허여. 이디 스방 문 딱 그 물 흐와 나서 온 부라기 다 멍는 무리고.{그러면 그것 백 사람 하루 아침에 몸 감은 거 백 사람 먹이기 간단하지. 여기 사방 모두 그 물 하나로 온 마을이 다 먹는 물이고.}

10702 #1 여길 스방은 경 올랐젠 허는 사르문 어신디. 그 낸무른게 가메기 망 몸 김쭈. 여르메. 경허영 굳찌락 허며는 물 질레 가땅으네 의심도스러울 때 이서. 어떻헌 일인고허영. (웃음) 막 가메기 생이덜게 더우미는 내창물 연나레 내창물만 머그난 질레 강 보며는 부그레기 버끔 트민.{여기 사방은 그렇게 올랐다고 하는 사람은 없는데. 그 냇물은 까마귀 마구 목욕하지. 여름에. 그렇게 해서 굶은 것 같으면 물 길으러 갔다가 의심스러울 때 있어. 어떻게 된 일인가 해서. (웃음) 마구 까마귀 새들 더우면 냇물 옛날에 냇물만 먹으니까 길으러 가서 보면 물거품 거품 뜨면.}

10702 @1 풍이라고도 허는 거시 인찌아넘니파?{풍이라고도 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10702 #1 풍. 웨살풍.{풍. 구안괘사.}

10702 @1 웨살풍. 그 웨살풍은 어떠케 아릅니까?{구안괘사. 그 구안괘사는 어떻게 아릅니까?}

10702 #1 이비 요쭈게 강 부터부는 거. 트라저그네.{입이 요쪽으로 가서 붙어버리는 것. 비뿔어져서.}

10702 @1 아아. 거 치료허는 방법또 이서마씨?{아아. 그것 치료하는 방법도 있습니까?}

10702 #1 거 침주는 사람덜 침도 주곡 뭐 행덜.{그것 침 주는 사람들 침도 주고 뭐 해서.}

10702 #2 침주민 대중 도라가는 겁따다게.{침 주면 대중 돌아가는 거대요.}

10702 @1 생기기도 하지 아녀양. 고름.{고름 생기기도 하지 않습니까? 고름.}

10702 #1 고르믄 알리는 거?{고름은 아리는 것?}

10702 @1 알리는 거. 그 알리는 거 치료할 때는 어떻 험니까?{아리는 것. 그 아리는 것 치료할 때는 어떻게 하나요?}

10702 #1 고름 빼는데 여기서 그 막 심메갈 때는 거 큰 굽벙이 짜영 그디 낱 처매면 건또 조아지고.{고름 빼는데 여기서 그 막 심해질 때는 그것 큰 굽벙이 짜서 거기 놔서 처매면 그것도 좋고.}

10702 #2 애옥 빠불민 고르믄 곱른 중 아랑 짝 눌뜨렁 애옥 빠물민 재게 줍니다.{고름 빠버리면 고름은 고인 줄 알아서 짝 눌러서 고름 빠버리면 빨리 좋지요.}

10702 #1 애옥 빠지게 허젠 허민 여기 저 뭐. 여기서 무이낭엔 헤신디 그 나무가 뭐이라. 저 무슨 나무엔 헨다마는. 육찌에서 보민 그 저 뭐 누룽 누룽나무. 그거 행 따려 먹는 거. 뭐 여러가지 병에 보민 그 낱 쓰는 모양이란게. 여기서는 그거 그거 껌떼기 허영 독독 뺏사그네게{고름 빠지게 하려고 하면 여기 저 뭐. 여기서 느릅나무라고 했는데 그 나무가 뿔이야. 저 무슨 나무라고 한다만. 육지에서 보면 그 저 뭐 누릅 누릅나무. 그거 해다가 달여 먹는 거. 뭐 여러가지 병에 보니까 그 나무 쓰는 모양이던데. 여기서는 그것 그것 껌떼기 해서 독독 뺏아서.}

10702 #2 무이낭 무이낭.{느릅나무 느릅나무.}

10702 #1 거 특커게 부치민 싹 팽겨붙고 고름도 빼여지곡.{그것 특하게 붙이면 싹 당겨버리고 고름도 빠지고.}

10702 #1 거 여기서 거 아메 딸렁 명넌 헤영 여기 싸름덜토 거죽 베껴 가부러나신디 육찌에서는 그거 아주 최고. 그거 시장에 강 보믄 문 그거 폰라. 그 낱.{그것 여기서 그것 암에 달여서 먹는다고 해서 여기 사람들도 껌질 벗겨 갔었는데 육지에서는 그것 아주 최고. 그것 시장에 가 보면 모두 그것 팔아. 그 나무.}

10702 @1 옛날 어른덜 담쥬이엔 헨 건또 이서날썩가?{옛날 어른들 담쥬이라고 한 것도 있었습니까?}

10702 #2 예.{예.}

10702 @1 건 어떻 알른 거우파?{그것은 어떻게 앓는 겁니까?}

10702 #2 담쥬엔 헨 거 기자 메 차 이땅 지침허젠 허민 이디도 와썩 저디도 와썩 헨 거. 담쥬.{담쥬이라고 한 것은 그저 맺혀 있다가 기침하려고 하면 여기도 와썩 저기도 와썩 한 거. 담쥬.}

10702 @1 건 치료허젠 허민마씨?{그것은 치료하려고 하먼요?}

10702 #2 치료허젠 허민 담쥬약. 무신 거 타당 무신 땡유지촌가 무신 건또 타당 처매곡 옛날레 무신 치료 치료가 그자 야그로만. 너삼 뿌리도 파당 처매고 그디.{치료하려고 하면 담쥬약. 무슨 거 따다가 무슨 땡유지초인가 무슨 것도 따다가 처매고 옛날에 무슨 치료 치료가 그저 약으로만. 너삼 뿌리도 파다가 처매고 거기.}

10702 @1 음식 잘몬 머경 생기는 병이 인썩과?{음식 잘못 먹어서 생기는 병이 있습니까?}

10702 @1 그건 연친 건또 인꼬. 체 그냥 저 식쥬도겐 헤영 뭐 나쁜 거 머경 걸리는 병도 인

.{그것은 없힌 것도 있고. 체. 그냥 저 식중독이라고 해서 뭐 나쁜 것 먹어서 걸리는 병도 있고.}

10702 #1 식중독에는 요새는 양에물 허영 메경 퀘고엔 합니다. 연나른 몰라서 뭐 헨쥬.{식중독에는 요새는 양하물 해서 먹이면 최고라고 합니다. 옛날은 몰라서 뭐 했지.}

10702 @1 식중독에는 양에물양?{식중독에는 양하물요?}

10702 #1 양에물도 메기고 식초를 무래 흐끔 쟈게 탕 머거도 내려가고.{양하물도 먹이고 식초를 물에 조금 세게 타서 먹어도 내려가고.}

10702 @1 연친 건마씨?{없힌 것은요?}

10702 #1 연친 거는 위가 나쁜 거니까 보통 요기 멩팡. 이 요기 요기 말랑말랑한 팡고라 멩팡이엔 허는다. 그 미테 체헌 때는 영 꼭 커게 손가락으로 눌르민 와썩허게 아프주. 게민 거기 아니 아플 때까지 이거 눌러주면 내려가는 거.{없힌 거는 위가 나쁜 것이니까 보통 여기 멩치빠. 이 여기 여기 말랑말랑한 빠보고 멩치빠라고 하는데. 그 밑에 없힐 때는 이렇게 꼭 하게 손가락으로 누르면 와썩하게 아프지. 그러면 거기 아니 아플 때까지 이거 눌러주면 내려가는 것.}

10702 @1 아이덜 체헨텐 허지 아념니까?{아이들 없히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10702 #1 아이덜 체헨텐 헨 거는 그건 아이더른 그걸 눌르지 모더게 허곡. 우러서 모더니까 그때는 어떠케 병워넬 가던가 여기서라도 소느로 영 툭툭허게 때려주멍 어떻 허당보민 이땅 내려가는 건도 인꼭 안 내려 강 오래 걸리는 건도 인고.{아이들 없히었다고 한 것은 아이들은 그것을 누르지 못하게 하고. 울어서 못하니까 그때는 어떻게 병원에 가든지 여기서라도 손으로 이렇게 툭툭하게 때려주면서 어떻게 하다보면 이따금 내려가는 것도 있고 안 내려 가서 오래 걸리는 것도 있고.}

10702 @1 게난 아이는 체헨젠 허고 어르는 연친젠 허고 그래서 어르는 눌러줄 썬가 인는데 아이는 거기 함부로 눌르지는 모테양.{그러니까 아이는 체했다고 하고 어른은 없히었다고 하고 그래서 어른은 눌러줄 수가 있는데 아이는 거기 함부로 누르지는 못하지요?}

10702 #1 아파그넵에 눌르지 못더게 허는 거.{아파서 누르지 못하게 하는 거.}

10702 #1 체 아년 사라미 이디 아멩 눌러도 아무 이상 언는디 체헌 사르른 여기 썬 눌르민 아파.{없히지 않은 사람은 여기 아무리 눌러도 아무 이상 없는데 없힌 사람은 여기 꼭 누르면 아파.}

10702 @1 뵐 잘몬 머경 설싸 날 쥬도 인썬가?{무엇을 잘못 먹어서 설사 날 수도 있습니까?}

10702 #1 아 그건또 상헌 음식 머경 설싸.{아 그것도 상헌 음식 먹어서 설사.}

10702 @1 상헌 음식. 설싸를 치료허는 방버븐예.{상헌 음식. 설사를 치료하는 방법은요?}

10702 #1 그거는 미네기무리나 거 뭐 머그렌 헤신디. 양에.{그것은 미나리물이나 그것 뭐 먹으라고 했는데. 양하.}

10702 @1 설싸에도 미네기무리나 양에물 머그렌 험니까?{설사에도 미나리물이나 양하물 먹으라고 하나요?}

10702 #1 머거서 이상된 거. 설싸는 판 거. 그자 설싸나 거 대장여미엔 헿 걸린 거는 여기 그초기 이르미 뵐라. 여기 우린 물지렁이엔 허는다.{먹어서 이상된 거. 설사는 다른 거. 그저 설사

그것 대장염이라고 해서 걸린 것은 여기 그 버섯 이름이 뭐야. 여기 우리는 목이버섯이라고 하는데.}

10702 @1 물지랭이.{목이버섯.}

10702 #1 예.{예.}

10702 @1 초기가예?{버섯이요?}

10702 #1 오.{오.}

10703 #1 뱅위네 가도 거 얼른 못 고치는데 그건 머경 직속 도라가.{병원에 가도 그것 얼른 못 고치는데 그것은 먹어서 즉각 돌아와.}

10703 @1 아아 대장염에. 아하.{아아 대장염에. 아하.}

10703 #1 거 물지랭이 물지랭이 허는데 이 중국 싸름더른 거의가 그 저 짜장에 그거 마니 논는데. 그저.{그것 목이버섯 목이버섯 하는데 이 중국 사람들은 거의가 그 저 자장에 그거 많이 넣는데. 그저.}

10703 @1 아하 물렁 물렁 물렁한 거예.{아하 물렁물렁 물렁한 거요?}

10703 #1 툇각툇각행. 아멩 물렁정 생각엔 머그민 밀락킴직헌디 씨브민 툇각툇각 해.{툇각툇각해서. 아무리 물렁해도 생각에 먹으면 밀락할 것 같아도 씹으면 툇각툇각 해.}

10703 @1 케니까 씨근 낭에 습끼 이신디 영 나곡 허는 거. 걸 물지랭이 그러는구나예.{그러니까 썩은 나무에 습기 있는데 이렇게 나고 하는 것. 그것을 목이버섯 그러는군요.}

10703 #2 거 뭐 저 거시기 풍낭에나 불레낭에나 헌 거 멩넨 험디다. 아무 낭에 꺼난 먹.{그거 뭐 저 거시기 팽나무에나 보리수나무에나 한 것 먹는다고 하대요. 아무 나무에 것을 먹는.}

10703 #1 거 독썩 인는 낭에 꺼 말허주. 거 아무 거 머거도 관계 어신디 중국 싸름더른 거의가 불레낭에 꺼만 먹꼬.{그것 독성 있는 나무에 것을 말하지. 그것 아무 것을 먹어도 관계 없는데 중국 사람은 거의가 보리수나무에 것만 먹꼬.}

10703 @1 아하.{아하.}

10703 #1 우린 여기서 복닥낭이나 풍낭에 겐또 먹꼬 허는데.{우리 여기서 예덕나무나 팽나무에 것도 먹고 하는데.}

10703 @1 예예.{예예.}

10703 #1 그거는 여간 뱅위네서 거 얼른 못 고치는 겐또 여기서 두 번만 머그민 직작 도라가 부는 거.{그것은 여간해서 병원에서 그것 얼른 못 고치는 것도 여기서 두 번만 먹으면 즉시 돌아오는 거.}

10703 @1 예예.{예예.}

10703 @3 그 게민 물지랭이 초기가 여기도 하영 나마씨? 여기도.{그 그러면 목이버섯 여기도 많이 나나요? 여기도.}

10703 #1 하영 나는데 요즘 이.{많이 나는데 요즘 이.}

10703 #2 서근나무에만.{썩은나무에만.}

10703 #1 과수원 에염에는 살균제 치는 딴 잘 안 나고. 살균제 안 치는 디는 제뵈 잘 나고. 게 이 스팅도 씨근 낭에 날 꺼디. 이 과수원이여 뭐여 허멍 살균제 치는 때문 안 나.{과수원 옆에

살균제 치는 곳은 잘 안 나고. 살균제 안 치는 곳은 제법 잘 나고. 그래 이 근처도 썩은 나무에 날 텐데. 이 과수원이다 뭐다 하면서 살균제 치는 때문 안 나.

10704 @1 머글 꺼 머거그네 나타나는 생리저긴 현 현상드리 어떤 거시 이신고마씨?{먹을 것 먹어서 나타나는 생리적인 현 현상들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10704 #1 생리적 현상?{생리적 현상?}

10704 @1 툄국찌리나 뭐 이런 시그로. 방귀나.{딸국질이나 뭐 이런 식으로. 방귀나.}

10704 #1 방귀는 위가 조아서 방귀고 툄국찌는 그걸 지금 의약저그로 고쥔텐 현 거 어신디 나가 그거 하나 연구해 난 그거는 고쥔신디.{방귀는 위가 좋아서 방귀이고 딸국질은 그것을 지금 의약적으로 고친다고 한 것이 없는데 내가 그거 하나 연구해서 그거는 고쥔는데.}

10704 #1 걸 고쥔는 사름 업떠라고. 아무디 간 봐도. 하도 내 헉뿔뿔 하루 해흔 그거 헉 얼머 거네. 보건소엔 간 허난 어디 뱅위네나 가봄써마는 어디 이약찌그로 약또 언꼬 고치텐 현 건또 어쥔텐 허연.{그것을 고치는 사람이 없더라고. 아무데 가서 봐도. 하도 내가 하룻밤 하루 해전 그것으로 고생했어. 보건소에 가니까 어디 병원이나 가보십시오마는 어디 의학적으로 약도 없고 고친다고 한 것도 없다고 해서.}

10704 #1 지비 오란 그마니 뭐에 보다 보니까 이 동맥. 귀 뒤에 어디 동맥 인젠 헤네 그걸 설명서를 나왔건. 이젠 그 체글 츠잔 동맥 동맥글 츠즌 거라. 귀 뒤에. 게난 그걸 꼭꼭 누르뜨단 보난 어느 때 줌드러버신디 깨언 보난 그건또 언꼬 조아부난.{집에 와서 가만히 무엇을 보다보니까 이 동맥. 귀 뒤에 어디 동맥 있다고 해서 그것을 설명서에 나왔길래. 이제는 그 책을 찾아서 동맥 동맥을 찾은 거야. 귀 뒤에. 그러니까 그것을 꼭꼭 누르다 보니까 어느새 잠들었는지 깨서 보니까 그것도 없고 좋았어.}

10704 #1 게연 놔도 그걸 알려줘신디 그거 허난 직작 조아렌 허고.{그래서 남도 그것을 알려줬더니 그렇게 하니까 즉각 좋더라고 하고.}

10704 @1 아이덜 정끼헨젠 허지 아넘니까?{아이들 경기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10704 #1 건또 열뚝.{그것도 열뚝.}

10704 @1 건또 열뚝. 그 정끼를 치료허젠 허민 어떻 헨쭈가?{그것도 열뚝. 그 경기를 치료하려고 하면 어떻게 했습니까?}

10704 #1 연나른 침 준 거.{옛날은 침 준 것.}

10704 #2 정끼 해가문.{경기 해 가면.}

10704 #1 지금도 정끼 허는 아이 어린아이는 여기서부터 요레 보며는 파랑헌 심쭈 요레 간 거 언꼬 요레 간 거 이신디 요 마디 우터레 올르민 사십또가 너므니까 위엄머고 요 마디 우에 올르기 저니 봐서 거기 데가리 침 꼭 쥐불며는 그 피 빼여불민 그냥 조아부는 거.{지금도 경기 하는 아이 어린아이는 여기서부터 요레 보면 파란 힘줄 요기 간 것 있고 요기 간 것이 있는데 요 마디 위로 오르면 사십 도가 넘으니까 위험하고 요 마디 위에 오르기 전에 봐서 거기 머리에 침 꼭 주면은 그 피 빼버리면 그냥 좋은 거.}

10704 @1 의사 헤도 조쿠다. (웃음) 너미 잘 아란. 트림허거나 헉 때도 뭐 뵤 방버비 이서실 건가마씨?{의사 헤도 좋겠습니까? (웃음) 너무 잘 알아서. 트림하거나 할 때도 뭐 무슨 방법이

?}

10704 #2 트립할 때.{트립할 때}

10704 #1 트립할 때는 뭐 방버비 업는다.{트립할 때는 뭐 방법이 없는데.}

10704 @1 방버비 언찌양?{방법이 없지요?}

10704 #2 등 두려주미나베끼는.{등 두드려주는 것밖엔.}

10704 @1 예.{예.}

10704 #2 등 두르리미나베끼. 트립하는 건싸.{등 두려주는 것이나밖에. 트립하는 것이야.}

10704 @1 하이엄할 때는?{하품 할 때는?}

10704 #1 하위엄 할 때도 뭐 헌덴 헌 거 아직 다 안 봐신디. 책 보단.{하품할 때도 뭐 한다고 한 것 아직 다 안 봤는데. 책 보다가.}

10704 @1 다 안 받.{다 안 받.} (웃음)

10704 @1 썬빠농일면 어떻 험니까?{헛바늘 돋으면 어떻게 합니까?}

10704 #1 어.{어.}

10704 #2 썬까시 일면?{헛바늘 돋으면?}

10704 @1 예. 썬까시.{예. 헛바늘.}

10704 #1 썬까시 일민 이디. 썬까시 인 거시 일면 밤만또 언쪽 모든 거 뭐 헌디. 건 항시 까 까줘사. 썬빠닥.{헛바늘 돋으면 여기 헛바늘 돋은 것이. 돋으면 밤맛도 없고 모든 거 뭐 하는데 그것은 항상 까아줘야. 헛바닥.}

10704 @1 아 까까줘사. 치료방버븐?{아 까아줘야. 치료 방법은?}

10704 #2 치료 방버븐 새우리에 소금 해영으네 소네 가망 짹짹 민덴 허주.{치료 방법은 부추에 소금 해서 손에 감아서 짹짹 민다고 하지.}

10704 #1 새우리에 소금해영 몽겐데도 허는디 이거 까까주민 안 생기니까. 거 저 뭐로 일쭈. 거 까끄는 거 어디 보건소에서 그런 거 영해영 까끈덴 허멍 허나 쥘게. 나도 그런 겐또 이신디. 그저네 우리 대막맹이 깨영 영 동그락커게 오그령 칙칙커게 둥기믄.{부추에 소금해서 몽겐다고도 하는데 이거 까아주면 안 생기니까. 거 저 무엇으로 있지. 그것 짹는 거 어디 보건소에서 그런 거 이렇게 해서 짹은다고 하면서 하나 주던데. 나도 그런 것도 있는데. 그전에 우리 대막대기 깨서 이렇게 둥그렇게 오그러서 칙칙하게 당기면.}

10704 #1 공나미 아방 산 때가 느랑 경 가까렌 헨게.{공남이 아버지 산 때가 늘상 그렇게 짹 더라고 하던데.}

10705 @1 학짚도 이선찌 아녀우파양. 건 어떻 알른 병이우파?{학짚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은 어떻게 앓는 병입니까?}

10705 # 학짚도 그거 저.{학짚도 그거 저.}

10705 #2 학질이나 터러귀병이나 ㄱ튼 거 아니라?{학질이나 말라리아나 같은 거 아닌가?}

10705 #1 그 저 저 거시기주게. 저.{그 저 저 거시지요. 저.}

10705 @1 터러귀?{학질.}

10705 #1 그거 터러귀병.{그것 학질.}

10705 @1 터러귀를 폰터는 병이라고도 험니까?{이 학질을 팔터는 병이라고도 하나요?}

10705 #1 폰.{팔.}

10705 #1 폰터럼쩌 폰터럼쩌 허는디 엔나른.{팔 툃다 팔 툃다 하는데 옛날은.}

10705 #2 벨 거옌 ㄹ라도 그거 험 시작허며는 원원.{별 것이라고 말해도 그거 하기 시작하면 원원.}

10705 #1 뜯뜯틴 고망에 아자야 전디지 거 전디지 몬터난. 거도 열뺩이라부난.{따뜻한 곳에 앉아야 견디지 저 견디지 못하니까. 그것도 열병이니까.}

10705 #2 이부를 멘 깨 더꺼도 탁탁탁탁 터는 거나네. 요새는 춤. 그거 원 어서전.{이불을 몇 개 덮어도 탁탁탁탁 떠는 것이니까 요새는 참. 그거 원 없어져서.}

10705 @1 이제까지 얘기하지 아는 병 중에 어떤 병드리 주로 주버네서 보 거나 드리납띠가? 아까 곧찌 아년똥 건뜰 중에.{이제까지 얘기하지 않은 병 가운데 어떤 병들이 주로 주변에서 보 거나 들었었습니까? 아까 말씀하지 않은 것들 가운데.}

10705 #1 켈 고생 마니 허는 병이 또 방광염. 여기선 저 무신 거.{켈 고생 많이 하는 병이 또 방광염. 여기서는 저 무슨 것.}

10705 #1 여기말로 뭘엔 험다마는. 그거.{여기 말로 무엇이라고 한다만. 그거.}

10705 #1 뭘여마는. 엔날 어르더른 그거 방치허므로 노미 발치기 창 그 우터레 오줌싸불곡 무신 험덴허멍. 저.{뭘더라. 옛날 어른들은 그거 방치함으로 남 발뒤축을 차서 그 위로 오줌 싸버리고 무슨 한다고 하면서. 저.}

10705 #2 생기?{생기?}

10705 #1 으. 생김뺩. 그거 제일 우턴 거. 그건또.{으. 오줌소태. 그거 제일 위태한 거.}

10705 @1 생김뺩?{오줌소태?}

10705#1 예.{예.}

10705 @1 그게 방광염예. 헤서예. 그걸 치료허젠 허민마씨?{그것이 방광염요? 헤서요 그것을 치료하려고 하먼요?}

10705 #1 그 치료허는 건 이 스방 약 하신디. 나 서울대학뺩위네 강 사을 이뺩 험판 온 사람도 나가 고쳐쥬신디 그건또 흥번 머그민 조아부는 거.{그것 치료하는 것은 이 사방 약 많은데. 내가 서울대학병원에 가서 사흘 입원 했다가 온 사람도 내가 고쳐쥬는데 그것도 한 번 먹으면 좋아버리는 것.}

10705 @1 아 건 뭘 약 머그민 조음니까?{아 그것은 무슨 약 먹으면 좋습니까?}

10705 #1 아 이디 저 뭘 약초 푸습쨌디 그거 중에 그거 흥번 머그민 조아부는 거.{아 여기 저 뭘 약초 푸새인데 그것 가운데 그거 한번 먹으면 좋아버리는 것.}

10705 @1 건 어떻허연 압띠가? 그 푸습쨌 흥번 머그민 조아부는 거.{그것은 어떻게 해서 알았습니까? 그 푸새 한번 먹으면 좋아버리는 것.}

10705 #1 나가 흥 쓰물 뺩꼬르에 시에 그 저 무신 문의원인가 뭘 의원 이서나신디 하르방. {내가 한 스물다섯살 쯤에 제주시에 그 저 무슨 문의원인가 무슨 의원 있었는데 할아버지.}

10705 #1 저 부두에 그 저 방직공장 무신 공장 그 그 여피. 그 하르방 이서나신디 그디 강 영

베리난 그거 허민 존넨 허연.{저 부두에 그 저 방직공장 무슨 공장 그 그 옆에. 그 할아버지 있었는데 거기 가서 이렇게 놀면서 보니까 그거 하면 좋다고 해서.}

10705 #1 말만 그딴 들꼬 그디서는 침도 안 맡꼬 이쪽 절라도 똥산 우의 올라오란 어떤 할망 안티 침 며칠 마자보고 그 스방서 그자 멘 차 도라다니명 그 거 헐디. 그거 하나 알안 그거 여기서 헤보난 건 윈 직작 듣는 거.{말만 거기서는 들고 거기서는 침도 안 맞고 이쪽 전라도 동산 위에 올라와서 어떤 할머니한테 침 며칠 맞아보고 그 사방에서 그저 몇 차 돌아다니면서 그거 했는데. 그거 하나 알아서 그거 여기서 헤보니까 그것은 윈 즉시 듣는 거.}

10705 #2 푸숨쭈. 푸숨쭈.{남오미자쭈. 남오미자쭈}

10705 @1 푸숨쭈?{남오미자?}

10705 #2 푸숨쭈 헤다네 거 빼정 물 허영 머건. 건또 하영 머그른 독쟁 인넨.{남오미자 헤다가 그것 으개서 물 해서 먹인. 그것도 많이 먹으면 독성 있다고.}

10705 #1 아이 독쟁이 아니라 하영 머근 거. 헐 사발 헤연 머그난 누니 헤뜩케렌 허멍 헤도 그날 썩낙 조안 된날 일 간 사름도 인꼬. 계난게 고뿌로 하나만 머그른 그 저 커피잔 정도로 하나만 머그민 거 흰 뒤 번 머그민 그냥 조니까. 그거는. 건 그건 영 독독 백상 물 낱 놔두민 문딱 헐 덩어리 돼. 풀로. 계민 그 푸를 접찌랑 멍는 거.{아니 독성이 아니라 많이 먹은 거. 한 사발 해서 먹으니까 눈이 희뜩거리더라고 하면서도 그날 저녁 좋아서 뒷날 일 간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컵으로 하나만 먹으면 그 저 커피잔 정도로 하나만 먹으면 그것 한 두어 번 먹으면 그냥 좋으니까. 그거는. 그것은 그것은 이렇게 독독 뿡아서 물 넣어서 놔두면 모두 한 덩어리 되어. 풀로. 그러면 그 풀을 짜서 먹는 거.}

10705 @1 절라도 똥사나라고 허는 디가 인쭈가?{전라도 동산이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까?}

10705 #1 시에 그 저 산진물 내리는 그 우에 꼬작헌 동산 우의가.{제주시에 그 저 산짓물 내리는 그 위에 곧게 솟은 동산 위에.}

10705 @1 걸 절라도 똥사니엔 험니까?{그것을 전라도 동산이라고 합니까?}

10705 #1 거 절라도 싸람들만 사난 절라도 똥산.{그것 전라도 사람들만 사니까 전라도 동산.}

10705 @1 예 예 예.{예 예 예.}

10706 @1 흑씨 심방이 병을 치료하기 위해 굳터는 거 봐납띠가?{흑씨 무당이 병을 치료하기 위해 굿하는 것을 봤었나요?}

10706 #2 빙 아픈 아파네 굳터는 디사 봐납쭈마는.{병 아픈 아파서 굿하는 데야 봤었지만.}

10706 @1 어떤 병을 걸리면 그 심방 헤연 굳터니까?{어떤 병에 걸리면 그 무당 해서 굿하나요?}

10706 #1 도체비 구신이사 무신.{도깨비 귀신이야 무슨.}

10706 #2 도체비 구시니사.{도깨비 귀신이야.}

10706 #1 춤추는 병이 도체비구신.{춤추는 병이 도깨비 귀신.}

10706 #1 아무 거시기라도 어떻 무신 걸리어네 무신거 걸리영 걸리며는게 심방 비렁 굳헤테 날쭈 뭐.{아무 거시기라도 어떻게 무슨 걸려 무엇 걸려서 걸리면 무당 빌려다가 굿했었지.}

10706 @1 지반네서는 안 헤 납띠가?{집안에서는 안 했었습니까?}

10706 #2 .{우리는.}

10706 @1 친척뜰 증엔마씨?{친척들 가운데요?}

10706 #1 그런 그런 귀신부텅 허끄는 사름 구슬 무신 서낭구시엔도 허곡 도체비 구시넨 헤영 그거.{그런 그런 귀신 붙어서 나대는 사름 곳을 무슨 서낭곳이라고도 하고 도깨비 귀신이라고 해서 그거.}

1.7.2. 캐는 과정과 주변 이야기

10707 @1 계난 삼추는 약초로써 케젠 이 드르에 하영 텡겨나신게양?{그러니까 삼춘은 약초로써 캐려고 이 들판에 많이 다녔었겠네요?}

10707 #1 약초 케젠 오나리푸리엔 현 거 케젠 장너네는.{약초 캐려고 오나리풀이라고 한 거 캐려고 작년에는.}

10707 @1 무슨 풀마씨?{어떤 풀요?}

10707 #1 오나리풀.{오나리풀.}

10707 @1 아 예.{아 예.}

10707 @1 이걸 케라고 목짱에 강 하도 도라텡겨도 그저넨 흐나 어신디 어려워게 우리 손지 줍 아판뎨 허연 그걸 헤줍쎬 허연 흐루 조물 역빠련 요마닌 허연 오란 머거도 가이 병이 조아시니까.{이것을 캐려고 목장에 가서 많이 돌아다녀도 그전에는 하나 없어서 어려웠는데 우리 손지 줍 아팠다고 해서 그것을 해주십사고 하니까 하루 종일 노력해서 요만큼 해 와서 먹어도 그 아이 병이 나왔으니까.}

10707 @1 건 뒤에 조은 겨우파?{그것은 무엇에 좋은 것입니까?}

10707 #1 으라 가지로. 건또 대장염도 조코 모든 거 조아. 우선 우리 손지는 그때 상혈. 저 상혈. 위로 피 나는 거. 그거 자꾸 흘림뎨 헤연 그거 헤연 메기난 조아신디.{여러 가지로. 그것도 대장염도 좋고 모든 것 좋아. 우선 우리 손지는 그때 상혈. 저 상혈. 위로 피 나는 거. 그거 자꾸 흐른다고 해서 그거 해서 먹이니까 나왔는데.}

10707 @1 그거 말고 또 약초는 어떤 거 케레 텡겨납따까? 트키 기영나는 거 중에.{그것 말고 또 약초는 어떤 것을 캐러 다녔었습니까? 특히 기억나는 것 중에.}

10707 #2 시우초도 허레 텡기고.{시우초도 하러 다니고.}

10707 #1 시우. 시우초는 가네 조텐 현 거 일쭈.{시우. 시우초는 간에 좋다고 한 것 있지.}

10707 #1 시우초는 거 행 머그른 아주 가니.{시우초는 그것 해서 먹으면 아주 간이.}

10707 #2 시방은 잘 아라질꺼라? 그거.{시방은 잘 알아지겠지? 그것.}

10707 #1 가봐신디 아이 어려워. 간 보난 어선게. 톨시우엔 현 거베피 엇어. 제라헌 춤시우는 엇어. 시우는 비슬턴디 톨시우엔 현 건 남텡이가 슬치곡 큰디 그거 제라헌 야기 안 되는 거.{가봤는데 아니 어려워. 가 보니까 없었어. 말시우라고 한 것밖에 없어. 제대로 된 참시우는 없어. 시우는 비슷한데 말시우라고 한 것은 줄기가 굵고 큰데 그거 제대로 약이 안 되는 것.}

10707 @1 그 약초 케면서 특별리 생각나는 약초 쨌뎨 거 이시민 하나만 한 줍 마라줍씨?{그

개면서 특별히 생각나는 약초 캬던 거 있으면 하나만 한 조금 말해 주십시오?}

10707 #1 특별리 무슨 야기 시우허고 오나리풀 허고.{특별히 무슨 약이 시우허고 오나리풀 하고.}

10707 #2 가시새 허고.{파리풀 하고.}

10707 #1 다른 건 뭐 벨론디.{다른 것은 뭐 별로인데.}

10707 #1 저 뭇 푸리에 헨 거. 그 풀 이르미 확실히 모른다.{저 무슨 풀이라고 한 것. 그 풀 이름이 확실히 모르겠는데.}

10707 #2 광나니풀 허고.{할미꽃 하고.}

10707 #1 광나니풀도 그거 뭇에 존넨 헨 거다마는. 거.{할미꽃도 그거 뭇에 좋다고 하는 거 인데. 그것.}

10707 #1 무슨 푸리에마는. 그거 허영 잘 딸렁 머그민 애기 몬 나는 사름 난덴 허멍 그거 허 연 그 풀. 그 푸른 기자 딸려 머거도 조아. 그 풀 파당 딸리며는 무리 노랑헨 게 아주 보기 조 아.{무슨 풀이지? 그거 해다가 잘 달여서 먹으면 야기 못 낳는 사람도 낳는다고 하면서 그거 했 어 그 풀. 그 풀은 그저 달여 먹어도 좋아. 그 풀 파다가 달이면 물이 노란 것이 아주 보기 좋아.}

10707 @1 익모초는 아니고양?{익모초는 아니고요?}

10707 #1 익모초?{익모초?}

10707 #1 익모초는 여기덜 하는 거난.{익모초는 여기 많은 것이니까.}

10708 @1 이 마을 가까이서 특별리 약초를 재배하는 게 인쑤과?{이 마을 가까이에서 특별히 약초를 재배하는 것이 있습니까?}

10708 #2 재배허는 사름덜 뭇 하신디 무슨 약 재배허는 지도 모르고.{재배하는 사름들 뭇 많은데 무슨 약 재배하는 것도 모르고.}

10708 @1 모르고예?{모르고요?}

10708 @1 예저네 주로 글래에 보다도 특별리 업써? 약초 재배는양.{예전에 주로 근래에 보다도 특별히 없쑤? 약초 재배는요?}

10708 #1 특별헨 거 얻꼬 요즘덜 보면 허는디. 지금도 어디 인진쑤기엔 헨 거 허는 사르미 이 신디 그거 조은 야긴디 그거 그 쑤 허는 디가 어디 가시리 어디 인젠 허는디.{특별한 것은 없꼬 요즘덜 보면 하는데. 지금도 어디 인진쑤이라고 하는 것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거 좋은 약인데 그것을 그 쑤 하는 데가 어디 가시리에 어디 있다고 하는데.}

10709 @1 인직쑤예. 아까 그 오다리풀 시우초 광다니풀 시우 이런 풀드를 해당. 그럼 이거 머 글 쑤 인게 할려고 허며는 하여간 삼추니 만드라실께 아니우파?{인직쑤요? 아까 그 오다리풀 시우초 할미꽃 시우 이런 풀들은 해다가. 그럼 이것을 먹을 수 있게 하려고 하면 하여튼 삼춘이 만 들었을 것 아닙니까?}

10709 @1 마드는 과정 좀 ㄱ라봅써?{만드는 과정 좀 말씀해 보십시오.}

10709 #1 마드랑으네 어디 누게 주나 뭇 허민 특별뻬베 걸리니까 난 나만 헨 멩는 거. (웃음){만들어서 어디 누굴 주나 뭇 하면 특별뻬베 걸리니까 나는 나만 해서 먹는 거. (웃음)}

10709 @1 그걸 이제 마드런던 방버블 그라줍써?{그것을 그것을 이제 만들었던 방법을 말씀해 주십시오?}

10709 #1 아 건 깨끄시 행으네 그냥 잘 우러나게 즈지리 썬렁 주전자에 딸리든 무리 아주 그 새기 아 조케 나오니까 그거 멩는 거.{아 그것은 깨끗이 해서 그냥 잘 우러나게 자잘하게 썰어서 주전자에 달이면 물이 아주 그 색이 아 좋게 나오니까 그것 먹는 것.}

10709 @1 다우파? 오나리풀 시우초 광다니풀 시우 다 해다그네 즈지리 썬렁.{전부입니까? 오나리풀 시우초 할미꽃 시우 다 해다가 자잘하게 썰어서.}

10709 # 계난 거 자기 머글거만씩. 계난 시우초는 간 나쁜 싸름 그거 허영 머겨주민 조코. 오나리푸른 또 판 대장이 나쁘던가 뭐 현 사름.{그러니까 그것 자기 먹을 만큼씩. 그러니까 시우초는 간 나쁜 사람 그것을 해다 먹으면 좋고 오나리풀은 또 판 대장이 나쁘던가 뭐 한 사람.}

10709 @1 계난 딸려그네 이제 물 우러나게 허영 멩는 거예? 예예. 다른 트버리 머허는 방법 없꼬.{그러니까 다려서 물 우러나게 해서 먹는거요? 예예. 다른 특별히 뭐하는 방법도 없고.}

10709#1 다른 트버리 뭐 노는 건도 아니고.{다른 특별히 뭐 놓는 것도 아니고.}

10709 @1 예예. 이제랑예. 그 저 해 잠시 중단하겐씁니다.{이제는요. 그 저 해. 잠시 중단하겠습시다.}

2편 어휘

2.1. 농경

2.1.1.

20101	나룩
20102 이삭	나룩 고고리
20103 뱀씨	나룩씨
20104 못자리	모종판
20105 모판	*
20106 쟁기	잠데, 쟁기
20107 보습	보섭
20108 벼	벼
20108-0-1 -이	베시 언 저 언따
20109 극쟁이	골가리쟁기, 걸근는쟁기 이거 골 치는 거나네, 걸근는쟁기, 골근는잠데
20110 씨레	*
20111 번지	*
20112 모내기	*
20113 흙덩어리	멍덩이, 흑뽕덩이
20114 고무래	날렌저수웨, 날레근데옌도 허곡, 근데옌도 허고 저수웬도 허고
20114-1 고무래(곡식용도)	날렌근데, 날레저수웨, 날레근데
20114-2 고무래(재 용도)	걸또 근데옌, 굴묵근데
20114-3 고무래(흙 용도)	*
20114-4 고무래(미는 데 사용)	*
20114-5 고무래(당기는 데 사용)	*
20115 쇠스랑	췌스렁
20116 곡괭이	몬괭이, 목괭이
20117 괭이	요건 췌괭이, 괭이, 췌괭이
20118 삽	갈레죽, 췌로 만든 건 철싸비옌, 삽
20119 호미	골갱이 , 골각찌

20120	연장
20121 김	김질
20122 김매다	김질 메는 거 , 김질 메엄쩌 영
20123 애벌 매다	초불김질 메레 가깁 헤영 가민
20123-1 두벌 매다	두불김질, 두불김질 메레 가계
20123-2 마지막(세벌) 김매기	막뽕김질 메영 실러볼게 영 행
20124 논두둑	*
20125 밭둑	담 받땀
20126 밭두둑	파니
20127 밭고랑	받꼬랑, 고랑
20128 밭이랑	받파니
20128-1 (밭이랑을) 타다/갈다/째다/파다	고랑 잘 다끄라, 파니 곱게 갈라 영 행
20128-2 이랑밧기	*
20129 보리	솔보리
20129-1 가을보리	*
20129-2 봄보리	*
20130 보리쌀	거핀 보리솔, 거핀 보리쌀
20131 가을갈이	*
20132 깎부기	간비역, 감비역
20133 두엄	독까레, 독끼레, 췌겉름, 겉름
20134 거름	겉름 뒤비 헤영으네

2.1.2. 작

20201 추수하다	ㄱ슬 험쩌, ㄱ슬 험쟁
20202 벧단	단 나룩땀
20202-1 벧단(한 줌정도)	나룩단
20202-2 벧단(타작할 정도)	나룩땀
20202-3 벧단(한 아름정도)	나룩단
20203 가리(積)	늘 누능 거, 나룽늘, 뒤미능 거
20204 가리다(積)	늘 놀라
20205 벧가리	*
20206 날가리	*

20207	마당질, 마당질헌텐 헤어
20208 벼훑이	집깨
20208-1 그네	보리클, 저건 나룩클로 나오는다
20209 개상	*
20209-1 자리개	지께로, 지께엥 허는다
20209-2 자리개질	*
20210 도리개	독께
20210-1 도리갯장부	독께즈룩
20210-2 도리갯열	독께아덜
20210-3 도리개꼭지	틀레
20211 벗질	찍, 나룩찍, 소독
20211-0-1 -을	*
20211-0-2 -에	산디찌게 불 부쳐베찌
20212 새패기	미뿌쟁이, 미 아니파
20213 쪽정어	조나 머는 휘시리엥 행 이신디, 휘시리 거 여물 업뎡 행
20214 티	메가미, 누네 가시드러찌 영 행
20215 까끄라기	ㄱ스락
20216 풍구	요거 풍기
20217 원두막	저거 여기선 웬마기엥 해나신디, 웬막
20218 허수아비	허재비, 허수애비
20219 흥년	승년 드런찌
20220 머슴	머서미엥도 허곡 장남, 노미 집 장남사리 영 헤그네 처음 ㄱ라신디
20221 놉	놉 놉 빠리사
20221-0-1 -을	놉 강 비렁오라 혀그네
20221-1 (놉을) 사다/얻다/부리다	*
20222 품앗이	수누렁 허는 거 수누렁 수누렁그네 수눌레 감찌 영, 수누렁허게 수누렁허게
20223 품삯	일품 받는다, 품 바드레 감찌
20223-0-1 -으로	*

2.1.3. 찡기

20301 방아	저거는 방에고
20302 디딜방아	드들방에주
20303 방앗공이	*

20304	방에혹
20305 물레방아	저거 물레방안딘
20306 연자방아	물그레
20307 절구	방에, 남방에, 돌방에
20308 절구통	*
20309 절굿공이	방액귀
20310 절구질	방에지능 거
20311 겨	체
20312 보릿겨	등괘뜨르, 등게뜨르
20313 왕겨	보미
20314 등겨	*
20315 검불	검질, 므른검질
20316 껌질	거적 빼경 머그라, 미깡 껌떼기 베껴둥 머그라

2.1.4. 물

20401 곡식	쌀 떠러저저
20402 찹쌀	측쌀, 측쌀
20403 멥쌀	찹쌀, 모인쌀, 멥쌀
20404 쌀보리	술보리, 아 그거시 술루리
20405 조	조
20406 차조	흐린존디
20407 메조	모인조
20408 좁쌀	좁쌀, 좁쌀
20409 작다	좁싸리 존존형 거
20410 조이삭	조고고리, 조코고리
20411 수수	대축
20411-1 붉은색 수수	쌀대추기엿 허멍 뜯
20411-2 장목수수	비대축, 살레대추기엿 형 거
20411-3 찰수수	*
20411-4 메수수	모인대축
20412 수수깡	남뎡이, 대축남뎡이
20413 옥수수	강낭대축, 대충낭 대충낭 허는디 건
20413-1 찰옥수수	출대축
20413-2 메옥수수	*
20414 귀리	테우리

20415	모물, 모물
20416 콩	콩
20417 콩깍지	콩깍찌
20418 메주	메주 슬망
20419 매달다	드라메민 그딤 드라멘 냥
20420 띄우다	트나네 그때 그때는 따시 장 드물 꺼
20421 곱팡이	곱팡이
20422 강낭콩	강낭콩
20423 콩기름	콩지름
20424 깨	꽤, 께
20424-1 참깨	츨께
20424-2 들깨	유
20425 고소하다	거문꺼가 코송흔 념새도 조코 머그믐 만또 조코

2.1.5. 소

20501 채소	늑물
20502 나물	풀늑물, 드른 푼늑물, 드른늑물 케레가게 드른늑물 케레가게
20502-1 "나물(밭 재료)"	늑물
20502-2 "나물(밭 반찬)"	드른늑물
20502-3 "나물(들 재료)"	*
20502-4 "나물(들 반찬)"	*
20502-5 "나물(산 재료)"	드른늑무리엥도 허곡 풀늑무리엥도 허곡
20502-6 "나물(산 반찬)"	*
20503 푸성귀	푸습쌌
20504 다듬다	써궁 거 다드마두곡 께 시칭으네
20505 반찬	반찬
20506 무	늑삐
20507 썰다	써능 거
20508 무청	늑물쌌, 늑삐쌌, 츨늑물쌌
20509 시래기	쓰레기 쓰레기
20510 무말랭이	왕거리엥도 허곡 쟁거리엥도 허곡, 중거리, 왕거리
20511 장다리무	*
20512 배추	베치

20513	쫄까자찌
20514 오이	오이, 웨, 물뤼엥 허주
20515 오이지	*
20516 오이소박이	*
20517 가지(茄子)	가지
20518 호박	호박
20519 고구마	감저
20520 감자	지슬
20520-1 잘다	*
20521 우엥	*
20522 파	페마농
20522 파	페마농쌌
20523 고추	고치
20524 시금치	시금치, 시금추엥 힘니다
20525 미나리	요건 미나리, 민네기
20526 부추	요건 새우리
20527 상추	부루
20528 마늘	콍떼사니
20529 생강	생강
20530 냉이	저거 난생이
20531 달래	드름마농, 꿩마농이엥 허고, 존존헌 건 드름마농
20532 도라지	도라지
20533 더덕	더덕, 던덕

2.2. 음식

2.2.1. 부식

20601 쌀밥	곤밥, 나룩빱, 산디밥
20602 찬밥	시근밥
20602-1 더운밥	더운밥
20603 조밥	좁쌀밥, 서숙빱 건, 조빱
20604 누룽지	누렁이
20605 늘은밥	누렁이, 깡빱
20606 승냥	누렁이물, 승냥물

20607	틴물
20608 김(蒸氣)	김
20609 갱죽(羹粥)	풀떼죽 , 국죽
20610 싱겁다	싱겁따
20611 국수	우동
20612 칼국수	칼로 써른 긴 칼국수
20612-1 기계국수/틀국수	우동
20613 건더기	건지
20613-1 국물	공물
20614 고명	*
20615 꾸미	양념 노라
20616 미역	메역, 머역
20617 김(海苔)	김, 짐
20618 수제비	긴 수제비, 저베기
20619 끼니	때 걸런찌
20620 미움	미움
20620-1 (미움을) 끓이다/쭈다/삶다	미움 딸리라, 미움 딸리라
20621 옛기름	골
20622 식혜(食醢)	스케 , 시케 골감지
20623 식혜(食醢)	*
20624 달다(甘)	들다
20625 가루	골민 마로, 마루, 마로
20625-0-1 -에	마루에 무를 더 노라
20625-0-2 -을	*
20625-0-3 -도	*
20626 밀가루	밀까루, 밀까루, 밀까로
20627 밀기울	헝쨌리, 헝쨌어리, 헝떼
20628 미숫가루	개역

2.2.2. 별식

20701 간장	장물, 장무리 맛쨌 장물
20702 된장	웁장에 쨌경 머거라, 웁장에 쨌경 머그라
20703 고춧가루	고칠까로, 고칠까루, 고칠까루

20704	고치장
20705 소금	소고메 저리는 거
20706 김치	김꾸, 짐치
20707 김장	김장, 저을김치도 우리 몬 드마사키여 저을찜치 드마사키여
20708 깍두기	각떼기짐치
20709 나박김치	거 줄게 씨렁 헨 거 물짐치 물짐치
20710 담그다	아 김치 드므라 행, 김치 드므라
20710-0-1 -고	드맘서라
20710-0-2 -어라	드맘서라
20711 양념	양념 무쳐 낱찌, 양념
20712 버무리다	버무리라
20713 버섯	버섯, 보섭 동메기, 낭에 나는 건 초기
20713-0-1 -이	목장에 나는 건 버서시고
20714 콩나물(재료)	콩나물, 콩지름 키웁찌 헤여, 콩지름
20714-1 콩나물(반찬)	콩나물무침, 콩나물, 콩나물반찬
20714-2 숙주(나물)	녹띠지름, 녹띠에지름, 녹띠나물 무침
20715 두부	둠비
20716 비지	비제기
20716-1 비지떡	*
20717 달걀	득썰기
20718 가래떡	떡꾸 빠오렌만 헨쭈 그거 머, 침떡
20719 시루떡	시리떠기엔도 헤나수다
20720 송편	*
20721 빻다	만디 텅 저브라
20722 흰떡	*
20723 고물	쉬
20724 팔죽	동지죽, 폰죽
20725 새알심	알맹이, 촛솔알맹이
20726 백설기	제편, 제펜떡
20727 튀밥	보꿈 거엔 헨꼬 요즈믄 뽕티기엔 허고 썰 보꿈 거, 과일썰
20728 술	술
20729 막걸리	막걸리
20730 소주	끄려서 만등 건 소주고 그냥 걸릉 건 청주고
20731 부침개	부짱개 , 지진떡

2.2.3. 그릇

20801	화덕
20802 가마솥	무쇄솥, 가메
20802-0-1 -을	솥 시스라, 가메 시스라
20802-0-2 -에	솥떡 밥 프라
20803 아궁이	솥짱아리고
20803-0-1 -이	솥짱아리 크다
20804 그을음	그스랭이, 그스랭이 올란찌
20805 불쏘시개	소슬개, 불쏘슬개, 불쏘수개
20806 연기	네 나왓찌, 네 드런찌
20806-1 내(煙氣)	네 남찌
20807 그을리다	치나반 그스런찌
20808 부지깅이	부질뎡이
20809 부삽	불갈레죽
20810 냅다	네 드런 눈 아프다
20811 냄비	냄비
20812 그릇	그릇, 반찬끄름, 뚜껑이
20812-0-1 -을	*
20813 뚜껑	뚜껑, 냄비 뚜껑이
20814 주발 뚜껑	수박피, 계질깅이
20815 사발 뚜껑	사발뚜껑
20816 술뚜껑	술뚜껑이
20817 밥주걱	밥짜
20818 숟가락	수꾸락, 수까락, 숟까락, 수꼬락
20819 젓가락	저붐, 절까락
20820 종지	종재기
20821 보시기	보시, 짐친뽀시
20822 툇배기	사바린디, 독싸발
20823 접시	접쌩가
20824 조리	조리, 쏘 신는 조리
20825 이남박	보통 죽은 건 남박 콩 건 도고리
20826 바가지	꼭쌩끼, 박쌩끼
20827 행주	행주, 상뽀

20828	혜우라
20829 설거지	그를 썰르라, 설거지 허라
20830 개숫물	사발 신는 물
20831 찌꺼기	틔꺼리, 틔거리
20832 화로	정등화리, 그자 화린디, 화린뿔, 화리네
20833 화룻불	화린뿔
20834 부짓가락	불하시, 불찌뿔, 불쩍까락 불쩍까락, 불저뿔
20834-0-1 -이	*
20834-1 불순가락	불쑥까락
20835 다리쇠	적 엔마른 적쨌 적쨌 헤신디, 세발수
20836 석쇠	궤기 굶는 바드랭이, 요즘은 석쨌엿 허는디 엔날 바드랭이 저 궤기 굶는 바드랭이, 석쨌
20837 도시락	익 이긴 밥땅석, 밥땅석
20838 바구니	구덕
20839 뒤주	두지
20840 찬합	*
20841 강판	간판
20842 개다리소반	도리상

2.3. 가 옥

2.3.1. 가구

20901 안방	안꾸두리주
20902 벽	빈지, 백백름
20903 다락	*
20904 벽장	스렁, 스렁 우에 곱쩌불라
20905 감추다	곱쩌다, 숨지다
20906 흙	그문 나쩌 , 타절쩌
20907 돌쩌귀	도절귀
20907-1 암짜	암토절귀
20907-2 수짜	수토절귀 헨는디
20908 미달이	밀장문
20909 여달이	*
20910 덧문	*
20911 열다	올라 허곡

20912	문뜰새
20913 자물쇠	거슴통새
20914 갇히다	가도와전쩌
20915 열쇠	개철, 요즈문 열췌엥 헌디 전
20916 잠그다	대문 증그라
20917 구멍	고망 뜯활쩌
20917-1 쥐구멍	췌이고망
20918 찢다	종이 문 브레 베쩌
20919 구들	구들
20920 흙받기	고대판
20921 흙손	남손, 낭소니엥 헤신디
20922 흙칼	췌손
20922-1 흙칼(나무로 만든 것)	*
20922-2 흙칼(쇠로 만든 것)	*
20923 부르다	흑 빨르라, 흑 블르라
20924 장판	장판 깃란췌 허는디
20925 종이	종이 장판
20926 도배	*
20927 구석	구석
20928 굽도리	바위돌르미엥 행가 귀돌르미엥 행가 바위돌름
20929 깨끗하다	고와전쩌, 깨끄텐쩌
20930 문지방	문찌팡 문지방 문찌팡 우의 올라사지 말라
20930-0-1 -에	*
20931 틈	문트멍 베옥 췌쩌
20932 가장자리	널분 데는 여피엥 허곡 혼췌 머는 모탱이
20933 가운데	가운디
20934 시렁	멍석꺼리, 간지
20935 살강	살레
20936 선반	선반
20937 서랍	설랍
20938 경대	빈쩍, 췌대
20939 거울	거울, 섯췌 밤쩌
20940 걸다	거울 거덜쩌
20941 호롱	초롱, 초롱뵤 싹쩌 헤근네

2.3.2. 물

21001	지붕
21001-0-1 -에	*
21002 기와	지에
21003 기와집	지에집
21004 수키와	암치에 순찌에
21005 암키와	암치와 순찌완디
21006 대들보	포
21007 서까래	서리
21008 추녀	추녀는 네 귀에 짹짹 나간 게 추녀니고
21009 처마	집까재, 가재
21010 오두막	초막싸리, 어디 막싸리에 사는 사람 영 헤영
21011 초가집	이건 초집
21012 이엉	늑람지
21012-0-1 -에서	*
21013 용마름	므르, 상므르 중므르
21014 기스락	집가재
21015 낙숫물	지순물
21015-1 기스락물	지순물
21016 사닥다리	연나른 산테 난 올랐젠 헨디
21017 용마루	저 연날 상므로고 요즈믄 용므르 영 행
21018 토방	무똥
21019 댓돌	인뜰
21020 마루	마리, 산방, 상방, 산방마리
21020-0-1 -에	마리 위에 올라사지말라게
21021 텃마루	그건 낭간마리
21022 기둥	쏟찌둥이고 그 다으믄 개원찌둥 기둥 중에 개웠지둥 쏘찌둥 생깁찌둥 경헤그네
21023 주춧돌	지둥꿍, 주춧뜰
21023-0-1 -을	주춧뜰을 놀 때
21024 굴뚝	굴뚝긴디 무시거

2.3.3. 마 당

21101	*
21102 마당	이건 마당이고
21103 넓다	큼 거온 널른 건뽀고 크덴 흐난
21103-0-1 -어서	널르난 조텡
21104 넓히다	거 흐썸 늘화시미 조키여, 물 낡 늘화사 허키여
21105 곳간	고팡
21106 외양간	쉐마귀
21107 마구간	물막
21108 광	연장 논는 디
21109 헛간	헛간 아무 건또 어신디나네
21110 쓰레기	씨레기
21111 장독대	안튀에 장항논는 디
21112 장독 뚜껑	장테
21113 변소	도통
	칙간 칙간
21113 변소	도통시에 강 보라 영헝
21113-1 똥장군	오좁허버기온도 허는디
21114 울타리	장풍이온 허능 거 , 장풍, 울타리, 울창
21115 담	똥땀, 기자 모두 다미나네, 똥땀 커져서라
21115-0-1 -에	*
21115-0-2 -도	*
21116 사립문	올레에 득릉 게 살채기문 영 고망 똥르멍 이디 몬딱 쌀 질러근넵에
21117 뒤꼍	안튀
21117-0-1 -에	장독때에 놀지말라, 장항 에메서 놀지 말라
21118 바깥	베깁띠, 바깥띠
21118-0-1 -에	베깁띠 강 놀라
21119 모퉁이	*
21120 모서리	*

2.3.4 가계

21201 마을	므슬 캉 오마, 가르메 강 오키여 하영 사는 디 가르미온 허곡
21202 윗마을	운똥네 강 오키여 영
21203 이웃	*

21203-0-1 -	*
21203-0-2 -에	*
21204 마을가다	*
21205 우물	무를 안찌시니까 물통, 물통
21206 두레박	바가지로, 두루박 두레박
21207 샘(泉)	새미
21208 가(邊)	엔둘레 , 웬둘레
21208-0-1 -을	*
21208-0-2 -에	*
21209 물지게	물찌게
21210 가게	상점 , 전빵 전빵
21211 싸다	싸다
21212 비싸다	빈싸다
21213 흥정	*
21214 중매인(거간꾼)	*
21215 잔돈	즌돈 바파줍써, 요 즌돈 바당 가
21216 에누리	*
21217 거스름돈	우수리 줍써
21218 거스르다	*
21219 꾸다(借)	꺽줍쌩도 허고 빈쥼와 줍쌩 돈 마년만 빈쥼와 쥼 영 헤근넝에
21219-0-1 -어야	*
21220 구두쇠	뽳쌩이엿 허고 거자
21221 말기다	머처줍써
21222 나머지	남지기엿도 ㄱ르
21223 덩	*
21224 몫	나 짝쌩랑 날 도라, 나 짝쌩, 나 모기랑
21224-0-1 -을	*
21225 빚	빈 비시 마니 전따, 진 비슬 가파사 허주
21225-0-1 -을	비슬 가파야주
21225-0-2 -에	가난해서 비세 쫓달린다
21226 이자(利子)	벨리
21227 심부름	부름씨
21228 두름	도름
21228-1 축	*

21228-2	*
21228-3 접	흔 접
21228-4 씹	흔 씹
21228-5 두름	*
21228-6 단/못(작은 묶음)	흔 줄래
21228-7 단/못(서너 개 묶음)	흔 따바리
21228-7 단/못(서너 개 묶음)	흔 다발
21228-8 툇	흔 타
21228-8 툇	흔 소기엔 흔 디
21228-9 모숨	머리 흔 줌
21229 켈레	양발 흔 배
21230 마지막	여 연날 말지기
21230 마지막	두 말지기여 서 말 지기여
21230-1 한 마지막의 넓이	삼백 평을 흔 말지기라고 헤여
21231 꾸러미	흔 줄
21232 그루	열 보니엔도 허기 허는디 열 개
21233 포기	흔 퍼기 두 퍼기 세 퍼기
21234 저울	저울
21234 저울	목저울
21235 자루(布袋)	푸대, 흔 마다리, 쓸 짚리
21235-0-1 -을	쓸 짚리 아정 오라
21235-0-2 -에	쓸 짚리 아정 오라
21236 하나	흐나
21236-1 한-개	흔 개
21236-2 한-되	흔 돼
21236-3 한-말	흔 말
21237 둘	둘
21237-1 두-개	두 개
21237-2 두-되	두 돼
21237-3 두-말	두 말
21238 셋	셴
21238-1 세-개	세 개
21238-2 세-되	석 돼
21238-3 세-말	서 말
21239 넷	넨
21239-1 네-개	네 개

21239-2	-되	넉 꿩
21239-3	네-말	너 말
21240	다섯	다승
21240-1	다섯-개	다승 개
21240-2	다섯-되	다승 꿩
21240-3	다섯-말	단 말
21241	여섯	으승
21241-1	여섯-개	으승 개
21241-2	여섯-되	으승 꿩
21241-3	여섯-말	은 말
21242	일곱	일곱
21242-1	일곱-개	일곱 개
21242-2	일곱-되	일곱 꿩
21242-3	일곱-말	일곱 말
21243	여덟	으덟
21243-1	여덟-개	으덟 개
21243-2	여덟-되	으덟 꿩
21243-3	여덟-말	으덟 말
21244	아홉	아홉
21244-1	아홉-개	아홉 개
21244-2	아홉-되	아홉 꿩
21244-3	아홉-말	아홉 말
21245	열	열
21245-1	열-개	열 개
21245-2	열-되	열 꿩
21245-3	열-말	열 말
21246	스물	수물
21246-1	스무-개	쭈므 개
21246-2	스무-되	스무 꿩
21246-3	스무-말	스무 말
21247	서른	서른
21247-1	서른-개	서릉 개
21247-2	서른-되	서른 꿩
21247-3	서른-말	서른 말
21248	마흔	마은
21248-1	마흔-개	마홍 개

21248-2	-되	마흔 꿩
21248-3	마흔-말	마흔 말
21249	썩	썩
21249-1	썩-개	썩 개
21249-2	썩-되	썩 꿩
21249-3	썩-말	썩 말
21250	예순	예순
21250-1	예순-개	예순 개
21250-2	예순-되	예순 꿩
21250-3	예순-말	예순 말
21251	이른	이른
21251-1	이른-개	이른 개
21251-2	이른-되	이른 꿩
21251-3	이른-말	이른 말
21252	으든	으든
21252-1	으든-개	으든 개
21252-1	으든-개	예술굽 깨
21252-2	으든-되	으든 꿩
21252-3	으든-말	으든 말
21253	아흔	아흔
21253-1	아흔-개	아흔 개
21253-2	아흔-되	아흔 꿩
21253-3	아흔-말	아흔 말
21254	백	백
21254-1	백-개	백 개
21254-2	백-되	백 꿩
21254-3	백-말	백 말
21255	이백	이백 개
21256	한둘	한둘
21256-1	한두-개	한두 개
21256-2	한두-되	한두 꿩
21256-3	한두-말	한두 말
21257	두셋	둘셋
21257-1	두세-개	두세 개
21257-2	두세-되	*
21257-3	두세-말	두서 말

21258	*
21258-1 두서너-개	두서너 개
21258-2 두서너-되	두서너 꿩
21258-3 두서너-말	두서너 말
21259 서넛	썬넛
21259-1 서너-개	서너네 개
21259-2 서너-되	서너너 꿩 , 서너 꿩
21259-3 서너-말	서너너 말 , 서너 말
21260 네댓	넛다습
21260-1 네댓-개	너넛 개
21260-2 네댓-되	대요습 꿩
21260-3 네댓-말	*
21261 대여섯	다습 ^느 습, 대요습
21261-1 대여섯-개	대요습 개
21261-2 대여섯-되	예수굽 꿩
21261-3 대여섯-말	대은 말
21262 예닐곱	으스떨굽, 예슬굽
21262-1 예닐곱-개	*
21262-2 예닐곱-되	일고으듭 꿩
21262-2 예닐곱-되	예수굽 때
21262-3 예닐곱-말	*
21263 일여덟	일금 ^느 듭, 일고으듭
21263-1 일여덟-개	으답아옴 개
21263-2 일여덟-되	으듭아옴 때
21263-3 일여덟-말	이고으듭 말
21264 여덟아홉	으다빠옴
21264-1 여덟아홉-개	어나문 개
21264-2 여덟아홉-되	*
21264-3 여덟아홉-말	으듭아옴 말
21265 여남은	아홉넛
21265-1 여남은-개	어나문 개
21265-2 여남은-되	어나문 꿩
21265-3 여남은-말	어나문 말

2.4. 의 복

2.4.1. 장식

21301	통치마, 치메, 치메가 즐르다
21302 길이	통치마 찌르기가 쪼르다, 지러기가 즐르다
21303 저고리	저고리
21304 색동저고리	새똥저고리
21305 두렁이	베부레기
21306 무너	무니 농 거시 곱따
21307 고쟁이	고장중의
21308 바지	채 연날 바지구나계, 바지
21309 두루마기	이건 후루마기 아닝가 후루메 두루막 두루마기 두루마기 허난, 후루메
21310 의복	*
21311 구겨지다	꼬기메기 전찌, 주부레미 전찌, 에 다 부벼징 거
21312 옷고름	후루멘 곱 후르메 곱, 곱, 저구릴 곱 후루멘 곱
21313 단추	단추
21314 동정	동전
21315 걸	거적
21315-0-1 -에	거저게 때 무덜찌
21315-0-2 -을	*
21316 홉옷	홉똥
21317 겹옷	두 겨브로 뎡 거 접뵈
21318 잠방이	정뱅이는 이 저 연날
21319 누더기	노빈 놀, 두데온, 끌레온
21320 거지	동녕바치
21321 구걸	동녕허레
21322 조끼	쥬께
21323 내의	쑥꼰
21324 껌입다	막 포 이버서라
21325 소매	*
21326 주머니	주멩기
21327 호주머니	계와
21328 허리띠	허리띠
21328 허리띠	험버그로 멩드랑 형 걷또 허리띠
21329 뎡기	뎡기 대신 모자
21329 뎡기	뎡기

21330	창온, 도복
21331	삿갓
21331-0-1	-에 삭까스로 마가전 얼굴 안 보엿찌
21332	고깔
21333	사모
21334	유건
21335	대님
21336	감발 *
21337	짚신
21338	미투리
21338-1	(짚신을) 삼다/만들다/트다/결다 초신 사맘찌 헤영
21339	나막신
21340	설피
	저 새알, 새알 탕 감찌

2.4.2. 세탁

21401	명주	멩지
21401-1	명주실	멩지실
21402	목화	멘네
21402-1	목화다래	멘네드래
21403	무명	미녕
21403-1	무명실	멘네실, 미녕실
21404	씨아	물래, 물루래
21405	자새	물래
21406	물레	즈수예고, 썰즈수에, 즈수에
21407	베	베 짜는 건 베참젠 허고
21408	길쌈	길쌈허는 거옌 허는 디
21409	골무	송꿀메, 송꿀메
21410	반진고리	바농쌍지
21411	가위	ㄱ세
21411-0-1	-을	ㄱ세 아정오라
21411-0-2	-에	ㄱ세로 손 베엿찌
21412	마르다(裁)	본 난 몰랏찌
21412-0-1	-고	몰람찌 허는 건 그저 쫄른 덴 말린디
21412-0-2	-어라	보선 몰람서라 헿

21413	저 험병 낱 주라, 험병 낱 주라
21413-0-1 -을	*
21413-0-2 -에	*
21414 바늘	바눔, 바눔
21415 꿰다	바눔귀 꿰라, 바눔귀 꿰라
21415-0-1 -고	할망이 바눔귀 목팸서라
21415-0-2 -어라	바눔귀 꿰라 나 목팸키어
21416 바느질	바눔질 허라
21417 재봉틀	즈봄틀, 자봉틀
21418 끈	*
21419 노끈	삼노, 삼베, 세 가달로 드린 거는 삼베
21420 참바	베나네 삼베, 긴 세안베, 쉼안베
21421 매듭	므작
21421-1 (매듭을) 맺다/짓다/엮다/묶다	므작 지우라
21422 보자기	포, 포따리
21423 이불	이불
21424 솜	솜, 소개
21425 포근하다	폭싼궁게 드뜨터다
21426 홑이불	호띠불
21427 겹이불	겹베불
21427-1 솜이불	소개이불
21428 누비이불	궁 레이불
21429 베개	베개
21430 베갯잇	호칭
21430 베갯잇	베갯넝
21430-0-1 -에	베개호칭에 때 무더네 뵁라사키어
21431 목침	모탕
21432 퇴침	*
21433 방석	요광석
21434 담요	담노, 담뉴
21435 빨래하다	세답퍼라
21436 빨랫방망이	세답마궁
21437 빨래터	세답광
21438 빨랫줄	빨렘베, 세답베
21439 다리미	다루웨, 다리웨
21439-1 다림질	다리웨질 험찌

21440	윤디
21441 다듬잇방망이	마께 세담마께, 다드미마께엥 허는 디 저건
21442 다듬잇돌	세담똥베
21443 다듬이질	다드미 햅저, 멩지푸답햅저

2.5 민 속

2.5.1 풍속

21501 설날	멩질랄, 정월초흐를랄, 정월초흐루, 멩질랄
21502 설	*
21503 선달 그믐날	선떨구똥날
21504 목은세배	*
21505 올해	올리, 올히 흐저 장게 가라
21505-0-1 -는	*
21505-1 작년	무근혜에 가라, 장년
21505-2 재작년	재장년
21505-3 내년	새해, 내년, 멩년
21505-4 후년	우멩년
21505-5 내후년	*
21506 작은설	*
21507 옷	은
21507-0-1 -을	은까라글 던지는데
21507-0-2 -에	은까라게 도멩이 마잔져, 유세 도멩이 마잔져
21507-1 옷놀이	넉똥베기
21508 옷가락	은까라
21508-1 도	토
21508-2 개	캐
21508-3 걸	겘
21508-4 옷	순
21508-5 모	모
21509 단동	웨등메
21509 단동	흐 지만 가렝도 쓰주
21509-1 외동무니	웨등메, 웨지엔 웨지엥도 그라, 웨진메, 흐 지
21509-2 두동무니	두 지, 두 개 두등메 흠치 가라
21509-3 석동무니	석똥메 흠치 가라, 석 쯤

21509-4	막 찌 시경 ㄱ찌 가라, 녀찐메, 녀찌메
21509-5 막동	녀 찌 막찌, 녀똥메, 막찐메, 막찌
21509-6 단동무니	퀘지막찌에 끈난뎨 험쭈게, 무지막찌로 이결따 행 무 지는, 무지막찌
21510 보름	보름날, 보름, 보름, 보름날, 보름날
21510-1 삭망	초흐루보름, 상망
21511 추석	추성날, 추서기엔도 허도
21512 망월	*
21513 쥐불놀이	*
21514 자치기	잔치기, 자치기
21514-1 작은막대	저건 치, 치
21514-2 긴막대	자
21515 수수께끼	길룰락
21516 호미씻이	*
21517 팽과리	땡가리
21518 장구	장귀
21519 결두리	육진말로 차므로 해도 여긴 간식
21520 무당	킨 무당 아니라, 연날 말론 심방이주
21520 무당	여자심방
21520-1 박수	소나의심방
21521 고수레	케우리능 거
21521-1 고수레!	*
21522 점쟁이	점쟁이
21523 상여(喪輿)	생여
21524 굴건	건데
21525 제사	제사, 제 식계
21526 제기	멕끄른, 제기
21527 귀신	헨깨
21527 귀신	그슨새 그신새영
21528 도깨비	도채비

2.5.2.

21601 고삐	가리석
21602 굴레	무저미

21603	명예
21604 길마	길메, 쉼길메
21605 부리망	망울 쉼망우리지
21606 구유	*
21607 작두	작뚜
21608 꿀	출
21609 여물	긴초
21610 쇠죽	췌죽
21611 쇠죽바가지	박췌기로 떠날췌
21612 수레	바레기, 바레기 메왕 간덴
21613 끌다	이거 췌가 바레기 끄선 감췌
21613-0-1 -고	췌바레기 끄선 감췌
21614 바퀴	바코
21615 새끼(繩)	췌 메능 긴 줄레고, 췌줄레, 노, 스끼
21615-1 새끼(짐승의)	새끼
21616 망태기	이건 멜망텡이, 그대로 조궁 긴 망텡이
21617 떡둥구미	요건 멕, 킁 거는 창멕
21618 거적	여쟁이 아닌가 여쟁이 답따, 여쟁미, 여제미
21619 가마니	가맹이
21619-1 가마니틀	가맹이클, 가마니클
21620 돛자리	초석
21621 자리틀	초석클
21621-1 (자리틀) 짜다/치다/만들다/결다	초석 참췌
21622 왕골	새
21623 삼태기	골체, 줄골체
21623-1 췌 삼태기	*
21623-2 싸리 삼태기	*
21624 명석	명석
21625 어레미	얼맹이
21625-1 고운체	*
21625-2 굵은체	막 홀궁 긴 대체
21626 대장장이	대장, 불미대장
21627 대장간	불미까네 강 오렌 허는 디, 거 불미간
21628 풀무	불미
21629 모루	모ړ똥
21630 모루채	막깨, 췌막깨, 막깨

21631	글쟁이
21632 집게	집궤
21633 장도리	몸빼기막깨, 막깨가 안부트니까 몸빼기
21633-1 노루발	몸빼기
21634 툽	툽
21634-0-1 -에	토브로 토브로 기찬쨌
21635 도끼	도치
21636 자루(柄)	도칠쨌룩
21636-0-1 -을	도칠쨌룩 시멍
21636-0-2 -에	도칠쨌루게 뚝 부뎀
21637 갈고리	공쟁이
21638 췌기	섹 세역, 세역 바그라
21639 송곳	송곤
21639-0-1 -에	송고세 손 찢르지 말게 흐라
21640 뽀족하다	쫓쨌커다
21641 솟들	췌똥
21641-0-1 -에	췌똥레 글라
21642 멧들	ㄱ레
21642-1 수쇠	알착
21642-2 암쇠	온착
21643 지게	지게
21644 밭채	바지게
21645 지게 작대기	지궤쨌똥기
21646 막대기	그다음 ㄱ능 건 막똥이
21647 몽둥이	몽똥이

2.5.3.

21701 빗자루	빈치락 빈차락, 빈차락 스리비
21702 광주리	광주리
21703 소쿠리	소코리, 송코리
21704 함지	도고리
21705 풀비	집뻐
21705-1 귀알	*
21706 독	독

21706-0-1 -	*
21707 물독	물항, 지새독
21708 향아리	향, 김칠탕, 콩 건 기자 향이옌만 허고
21709 단지	헝썰 콩 거시 오가리
21710 물동이	물뚱이
21711 빠리	*
21712 옹기	옹기, 옹기장시
21713 표주박	웁빠, 박썰기 꼭빠썰기 박썰기 웁빠
21714 키(箕)	푸는체
21715 떡살	질벤뽀, 떡뽀, 본
21716 다식판	*
21717 시루	시리
21717-0-1 -을	시리 아정 오라
21717-0-2 -에	씨리에 썰야 한다
21718 시룻밑	그자 시리 마개 마그라, 시룻꼬냥 마개
21718-0-1 -에	*
21719 시룻번	시룬마개
21720 부싯돌	부싯뽀, 부들, 부들
21720-0-1 -을	부드리 어스면 사그막치리라도 아정 오라
21721 부시	부시
21722 부싯깃	불썰
21723 담배	담배
21724 담뱃대	담뱃때
21725 담배설대	담뱃때
21726 담배통	통머리
21727 물부리	물목, 통
21728 담배쌈지	담뱃쌈지
21729 부채	선재
21730 토시	손또매
21731 벼루	베리, 먹통
21732 가락지	가락썰, 까락썰
21733 비녀	빈네
21734 참빗	챙빔
21734-0-1 -을	챙빔따정 오라

21734-0-2 -	챙비세 마니 끼얼찌
21735 얼레빃	얼레기
21736 세숫대야	대양, 대양, 세숫때양
21737 비누	세순삐누, 비누, 비노 세순삐노
21738 도투마리	독꼬마리
21739 활대	눈벨레기
21740 잉앗대	잉엔때
21741 부티	허리양개
21742 도롱이	우장

2.6. 인 체

2.6.1. 머리

21801 이마	임텅인디 요즘 근는 말로 이마 압또멩이 임텅이
21802 이마빼기	*
21803 눈자위	눈똥자 거문동자 힌동자 경혜영
21804 검은자위	거문동즈
21805 흰자위	저 힌동즈
21806 눈꺼풀	눈뚜께
21807 거적눈	더께누니, 더께눈
21808 눈썹	눈썹
21808-0-1 -이	눈써비 빠전 눈 난네 드럴찌
21809 속눈썹	*
21809-0-1 -이	*
21810 눈두덩	눈통어리가 거멍 헤서라 헹
21811 안경	메가네, 눈
21812 안경집	메가네집, 눈집
21813 돋보기	돋빼기, 돋뽀기
21814 주름살	주름쌀, 주름

21814-0-1 -	*
21815 옛되다	어리게 뵈얌찌 나이로 뵈
21815 옛되다	짐께 바점찌
21816 수업	쉬엄 ㄱ사뵈찌
21817 구레나룻	녹떼시엄
21817-0-1 -을	녹떼쉬엄 ㄱ사뵈찌
21818 코	코
21818-0-1 -이	*
21819 콧수염	콧썩엄
21820 코딱지	코페랭이
21821 콧구멍	콧꾸녕, 콧꼬망
21821-0-1 -을	*
21821-0-2 -에	*
21822 콧물	콘물
21823 입술	입썰, 입빠위
21823-0-1 -에	*
21824 다물다	입 즈그무런찌
21825 어금니	*
21826 덧니	뵈빠리, 덧빠리
21827 휘파람	*
21828 침	춤, 꿈 나와
21829 삼키다	꿈 숨겨블라
21829 삼키다	꿈 숨지라
21830 가래(痰)	게춤, 게침
21831 빨다	게침 바따블라, 게춤 바따블라
21832 혀	새, 썬빠닥
21833 혓바늘	색까시
21834 콧볼	권짜락
21835 귀고리	귀거리
21835-1 귀걸이	귀마기
21836 귀지	권뺨
21837 귀이개	귀오개
21838 소리	소리가 잘 난다
21839 엇듣다	연보능 거, 어 연든능 거, 여상 든능 거
21840 귀청	귀창 터지키여, 권꼬망 터지키여
21841 귀밑	권짜락, 귀똥

21841-0-1 -	귀똥에 사막 부똥찌
21842 관자놀이	*
21843 기미	지미, 주근사막
21844 주근깨	사막
21845 턱	아굴탁
21846 턱수염	턱씨염
21847 뺨	양지, 뺨, 귀똥베기 때똥찌, 뺨얇치라 허곡계
21847-1 볼	볼뺨
21848 가름하다	얼구리 수름허다
21849 보조개	보지개
21850 머리카락	머리카락
21851 비듬	비듬
21852 기계충	기계충, 그계충
21853 정수리	상감, 요기가 숨꼐
21854 대머리	대머리
21855 고수머리	뽑쓸머리
21855 고수머리	ㄱ시랑머리, 곱쓸머리
21856 가르마	악갈름
21856-1 가르마 타다/가르다/하다	웬납칼르라 ㄴ난납 칼르라
21857 가마	가메
21857-1 가마(鼎)	겉또 가메, 무췌가메
21857-2 가마(轎)	가마, 가메
21857-3 가마(질그릇)	가마
21857-4 가마(가마니)	가멩이 원 건
21858 뒤통수	똥또멩이, 그딘 거문곡똥엿도 허곡 머
21859 뒷덜미	똥꼬개, 거문곡똥, 똥꼬개 때리지 말렌, 똥냐개
21860 목	모가지, 야개기, 그거시 모기간 이
21861 멧살	모가지 차반

2.6.2. 체

21901 어깨	득찌, 억깨
21902 밀치다	득찌로 받찌 말라, 득찌로 치지말라
21903 겨드랑	적쟁이
21904 등	등어리

21905	가슴
21906	결리다 *
21907	갈비뼈 이디 역갈리뼈인디, 갈리뼈, 갈리
21908	허과 엄통더레, 북빼기
21909	쓸개 쓸개, 슬개
21910	콩팥 두태
21910-0-1	-에 두태가 고장이엔
21910-0-2	-을 두태를 도라바야 데
21911	팔 폴
21912	팔꿈치 팔꿈찌
21913	팔짱끼다 폴 끼얌찌
21914	손톱 손콧
21915	오른손 ㄴ단손
21916	왼손 웬손
21917	다르다 색 따름 거 입찌사 마, 딱나게 입찌서
21917-0-1	-아서 오시 딱나난
21917-1	틀리다 기사니 비얌찌
21917-1	틀리다 기사니 끌렷찌게
21918	왼손잡이 웬쟁이, 웬손재비, 웬손재비
21919	엄지손가락 엄지송까락, 예 엄지얌
21920	집게손가락 *
21921	가운뎃손가락 상송까락
21922	약손가락 노네기
21923	새끼손가락 새끼송까락
21924	생인손 베접
21925	사마귀 말축
21926	손아귀 툃기 썸다, 손터기 썸다, 손맥 조텡 헝
21927	손목 흘목
21928	뺨 흔 뺨
21929	허리 허리
21930	지팡이 지팡이 , 주랑, 왕대주랑
21931	옆구리 역갈리, 엽갈리
21932	간지럽다 저급따, 저굴루라, 저굴루지 말라
21933	간지럼 저급 타, 보통 저급 타는 사람 저급 타는 사람
21934	잔허리 *
21935	근육 주술, 주스리 빵끄랑 헐찌 헝

21936 뽕도롱
21937 목물 *

2.6.3. 체

22001 복사뼈 귀마리
22002 발가락 발까락
22003 발바닥 발창 발창 발빠닥
22004 발톱 발콧
22005 넘새 발넘새, 발내움새, 내움새, 발내, 내
22006 고린내 발창내, 고랑내고추룩 남찌
22007 굳은살 썩이
22008 정강이 정쟁이빠, 정쟁이, 정쟁이
22009 종아리 종에
22010 장딴지 주술
22011 회초리 휘추리
22012 무릎 동모릅 , 무릅, 동모릅, 절뚰짱
22012-0-1 -을 아이고 무릅 다친찌
22012-0-2 -에 무러베 딱찌 생겜젠
22013 오금 토고마리, 똥토고마리, 똥토곰, 토고마리, 토곰
22014 엉덩이 엉치, 궁둥이
22016 볼기 잠지, 잠지엥 허고 볼기엔 헤신디, 볼기
22017 명 명 멩쭈시, 멩 드런찌, 멩얼
22018 명울 *
22019 가랑이 안짱지, 강알로 기여감찌
22020 사이 트멍에 , 그거시 강알트멍인디
22021 살 샴툼
22021-0-1 -이 *
22021-0-2 -을 *
22022 사타구니 *
22023 가래툼 느진돌
22023-0-1 -을 느진도를 문지가보라 이거 샴트메 아이구
22024 허벅다리 허벅따리, 허벅찌
22025 넓적다리 넓작따리 우리 이디서 마리주 넓작다리는
22026 가부좌(跏趺坐) 복썩테왕 아잠찌, 발에우 걸천 아잠찌 영 현

22026-1 (跏趺坐) 치다/앉다/트다/꼬다/하다

2.6.4. 생리

22101	감기	곧뿔
22102	기침	지침
22103	채채기	학깁이 할깁이
22104	사레	살레예 드린찌
22104-1	(사레) 들리다/만나다/걸리다	*
22105	딸꾹질	틀고지 , 틀구지, 틀꼭찌
22106	트림	게트레기
22107	곰보	곰보, 얼근사름
22108	천연두	한집, 큰한집
22109	여드름	늑싸움, 늑싸우미엥 허는 디 그건
22110	학질	엔나른 터러귀 터러귀엔 헤나신디, 터러귀엥 허는 디,
22110	학질	학짚뽕
22110-1	하루거리	*
22110-2	이틀거리	*
22110-3	매일 앓는 학질	*
22111	홍역	*
22112	볼거리	권똥치기
22113	땀띠	땀떼기
22114	두드러기	두드레기
22115	버짐	버춤
22115-1	마른버짐	*
22115-2	진버짐	*
22115-3	도장 버짐	도립뼈춤 도리버춤
22116	문둥이	문둥이
22116-1	문둥병	문둥뽕
22116-1	문둥병	용다리
22117	부스럼	부스레미
22117-1	종기	허물, 거 엉덩이에 나능 거 종기
22118	고름	고름, 예옥 예옥
22119	곰기다	제 골문다 헤영
22120	난쟁이	난쟁이

22121	골리누니
22122 언칭이	칭보
22123 소경	봉서 봉서, 눈봉서
22123-1 당달봉사	*
22124 애꾸	*
22125 눈곱	눈꼽째기
22126 다래끼	둘런(상), 개씹(하)
22126-1 다래끼(눈 위쪽)	둘런*
22126-2 다래끼(눈 아래쪽)	개씹
22127 절름발이	절룩빠리
22128 곱사등이	곱쌌, 등곱쌌
22129 귀머거리	귀마근사름, 귀마구리
22130 말더듬이	반버버리, 버버리는
22131 병어리	말몰래기
22132 잠꾸러기	줍꾸레기 줍꾸레기
22133 졸리다	즈랍따
22134 하품	하위염 하위염
22135 졸음	*
22135-0-1 -을	*
22135-0-2 -에	*
22136 잠꼬대	*

2.7. 육 아

22201 입덧	육떼기
22201-0-1 -을	육떼기를 심허게 현다
22202 갓난아이	물래기
22203 어린아이	어린내기 두런내기
22204 경기(驚氣)하다	아이구 정끼험저
22205 눅히다	방에 강 눅찌라
22206 계집아이	제집빠이 제집빠이, 제집빠이 곱딱퀸 아이
22207 예쁘다	예쁘다
22208 사내아이	스나이눔, 스나눔
22209 아우	아시
22209-1 아우보다	아시 봉그젠 허난

22209-2	타다	*
22210	야위다	막 주렁쩌
22211	쌍둥이	쌍둥이, 글레기, 쌍둥이
22212	오줌	오줌 하영 싨다
22213	똥	똥 싨다
22214	기저귀	사빠, 뜨더디
22215	뉘다(排便)	오조믈 쉼와 주라
22216	방귀	똥뀌는 내 헨 똥내
22216-1	뀌다	똥뀌는 거엿 헤싨디 *
22217	구린내	똥내
22218	구리다	구리작작커다
22219	포대기	뜨더기, 걸레 애기 업는 걸레 걸레
22220	기지개	질텀쩌
22220-1	기지개를 켜다/하다/쓰다/펴다	*
22221	거짓말	거진말
22222	남부끄럽다	비꺼렵따 놈비꺼렵따
22223	겹쟁이	겹쟁이
22224	불쌍하다	풀쌍헨 아이
22225	죄암죄암	조매조매
22226	곤지곤지	*
22227	따로따로	선달선달. 섬메섬메허멍 거러나싨디
22228	도리도리	마니마니
22229	짹짹	던데던데
22230	부라부라	*
22231	걸음마	*
22232	아장아장	자글자글 거렁쩌
22233	넘어지다	씨러전쩌
22234	곤두박질	꼰작산쩌, 꼰쭈웁산쩌, 아 건 꼰쭈웁
22235	안기다	드라전쩌
22236	바람개비	븨름또레기
22237	호드기	버들피리, 뺨뺨기
22238	숨바꼭질	고블락
22239	소꿉놀이	바폴락
22240	사금파리	사그막쭈지, 사그막쭈리
22241	연	연
22241-1	방패연	들런

22241-2	가오리연
22242 걸리다	낭에 걸렬져
22243 고누	꼰 뒤능 거, 꼰작꼰도 인꼬 머
22244 땅뺏기	*
22245 팽이	팽이
22246 딱지치기	받찌치기
22247 구슬	그냥은 다마, 구슬튼 고망냥 게 구슬
22248 그네	그네 굴메 뜨기, 그네뛰기
22248-1 그네를 뛰다/타다/구르다	이건 굴메 뜨기, 그네 뛰라 굴메 뜨라
22249 밀신개	그네판
22250 굴렁쇠	요즈멘 굴렁췌엔 허곡
22251 굴리다	굴렁췌 굴리능 거
22251-0-1 -고	둥그럼췌 둥그런감췌
22251-0-2 -어야	누는 둥그려사
22252 자전거	즈전차, 자정거
22253 목말	정개고개
22254 말타기	*
22255 달음박질	드를락 잘험췌, 드름박질 잘험췌
22256 썰매	저 썰매타긴디
22256-1 얼음을(썰매를) 지치다/타다	*
22256-2 송곳	*
22257 엄살	엄살험췌, 꽤험췌
22257-1 (엄살) 부리다/피우다/떨다/하다	*
22258 부아	용심날췌, 부에남췌

2.8. 친 족

22301 아버지	우리 아바지안테 옥 드런췌
22301-1 아버지(호칭)	아버지
22302 어머니	어머니라고 허지
22302-1 어머니(호칭)	어머니
22303 할아버지	하르방
22303-1 할아버지(호칭)	하르버지 하라바지
22304 할머니	할머니 할머니
22304-1 할머니(호칭)	할머니
22305 남편	우리집싸르미우다

22305	우리집싸르미우다 헐 꺼주
22305-1 남편(호칭)	누구 아방이우다 헤야주
22305-1 남편(호칭)	상종이 아버지 헤영으네
22306 아내	우리 각씨여 헉나네
22306-1 아내(호칭)	누게 어떻 행
22306-1 아내(호칭)	상종이 어떻
22307 형	우리 형님
22307 형	이디 우리 형니미여 영 ㄱ랑
22307-1 형(호칭)	형님
22308 아우	우리 아시
22308-1 아우(호칭)	아시야 영행
22309 누나	우리 누님
22309-1 누나(호칭)	그대로 누님
22310 누이	우리 누이 동생
22310-1 누이(호칭)	*
22311 자식	우리 아들뜨리여
22312 맏아들	큰나덜
22313 맏딸	큰딸
22314 오라버니	우리 오라바니우다
22315 오빠	예숙 아널 때는 오리 오라방이우다
22315-1 오빠(호칭)	오라바니 행
22316 언니	언니 언니 허나 성님 허나
22316-1 언니(호칭)	*
22317 아버지	애비
22317-1 아버지(호칭)	자시기난 일름으로 불르곡
22317-1 아버지(호칭)	애기난 후제는 누게 아빠여
22317-1 아버지(호칭)	누게 아방
22318 어머니	원서기어멍인다 영, 메누린다 영 행
22318-1 어머니(호칭)	메누리야
22319 손자	손지 손지, 여자손지 남저손지 지
22320 손녀	딸손지 봉가서 영 헤영 허곡
22321 사위	사위
22321-1 사위(호칭)	애기 어슨 때는 기자 사위하 허지 머
	애기 신 때는 누게 아빠야 허주마는
	누구 아방아 지금끄지는 부르는 디
22322 외손자	웨손, 웨손지

22323	웨손지 이레 오라 헤나네
22324	야단허능 거, 옥켄찌
22324-0-1	-고 따시 경허지 말라 옥 옥켄찌
22324-1	나무라다 *
22325	총각
22326	처녀
22327	혼인
22327-1	혼인식
22328	혼인 잔치
22329	장가가다
22329-1	시집가다
22330	혼삿감
22331	함
22332	곁사돈
22333	새색시
22333-1	새색시(호칭)
22334	시아버지
22334-1	시아버지(호칭)
22335	시아머니
22335-1	시아머니(호칭)
22336	비위
22337	아주버니
22337-1	아주버니(호칭)
22338	서방님
22338	서방님
22338-1	서방님(호칭)
22339	도련님
22339-1	도련님(호칭)
22340	형님
22340-1	형님(호칭)
22341	시누이
22341-1	시누이(호칭)
22341-2	아가씨
22341-3	아가씨(호칭)
22342	올케
	우리 막똥이 아지방이민 막똥이아지방이우다 헤영
	그 사람 불를 때는 아지방
	동세우다 온똥세우다 아랫 똥세는 우리 아랫똥세우다 허곡
	성님
	우리 씨누이우다
	형니미영 헤야주
	우리 조근 씨우이우다 영허나
	아래사 일르므로도 불를 쑈 인꼬 머 허주게
	거 오래비각시영 헤야 구분찌그로 ㄱ라가능 거난,
	우리 오래비각씨

22342-1 (호칭)	썩따지망 조근아지망
22343 매형	매부, 큰매부
22343-1 매형(호칭)	아이 형니미앵 허는 디 거
22344 매제	매부, 조근매부
22344-1 매제(호칭)	부를 땀 인땅 이르므로도 보고 경 아녀며는 어느 매부
22345 큰아버지	큰나바지
22345-1 큰아버지(호칭)	큰나바지 혜영 불러
22345-2 (아버지의 둘째 형)	썩따바지
22345-3 (아버지의 셋째 형)	말썩따바지
22346 큰어머니	크너머지 크너머니
22346-1 큰어머니(호칭)	크너머니
22346-2 (아버지의 둘째 형의 아내) 썩따머니	
22346-3 (아버지의 셋째 형의 아내) 말썩따머니	
22347 큰집	큰지베 감짜
22348 작은아버지	조그나바지
22348-1 작은아버지(호칭)	겉또 역시 조근마바지앵 불러
22349 작은어머니	조근너머니
22349-1 작은어머니(호칭)	겉또 역시 조근너머니 행 불러
22350 삼촌	우리 삼추니우다
22350-1 삼촌(호칭)	삼추니라고 조근 삼촌
22351 아저씨	오춘
22351-1 아저씨(호칭)	불를 때는 그자 삼추니앵 행
22352 아주머니	여자도 삼추니라고 불르주
22352-1 아주머니(호칭)	여자삼촌
22353 조카	우리 조캐우다, 다 조캐
22354 조카딸	우리 여자조캐우다
22355 고모	고모
22355-1 고모(호칭)	고모님
22356 고모부	고모부
22356-1 고모부(호칭)	콩고모부 조근고모부나
22357 고종	고종스춘
22358 이모	이모
22358-1 이모(호칭)	이모 혜영 불르주 우율띠모는 이모님 허곡 아랜띠모는 이모
22359 이모부	이모부
22359-1 이모부(호칭)	부를 때도 역시 이모부

22360	이성스춘
22361 외삼촌	웨삼춘
22361-1 외삼촌(호칭)	구분째그로 기자 웨삼춘
22362 외숙모	웨송모
22362-1 외숙모(호칭)	어멍은 웨송모엥 허고
22363 외종	웨스춘
22364 외할아버지	웨하르버지
22364-1 외할아버지(호칭)	부를 때도 웨하르버지
22365 외할머니	웨할마니
22365-1 외할머니(호칭)	차별 아니민 할머니 헐 꺼 기냥허미 웨할머니 헐 꺼
22366 장인	처부, 가시아방
22366-1 장인(호칭)	아버지 헤영 불르고
22367 장모	가시어멍
22367-1 장모(호칭)	어머니 허주
22368 처남	처남
22368-1 처남(호칭)	우리 큰처남 썬처남 헤그네 기영
22369 처남댁	처아주망
22369-1 처남댁(호칭)	처아주망인디 그대로 아주망 헤영 븐딘 디서 아주망 영 헝 불르고
22370 홀아버	홀라방
22371 홀어미	홀러멍
22372 계모	조근너멍, 다슴머멍
22372-1 계부	다슴마방
22373 아저씨	그런 어르는 삼추니라고 보통
22373-1 아저씨(호칭)	나이가 하민 삼추니엔 경아니민 형 아우 헤영 설러볼곡 경허민 삼추니라고
22374 아주머니	동넨따지망이엔 기잔
22374-1 아주머니(호칭)	헝쟁허민 다 삼추니주게 여청삼춘 소나이삼춘 영 헤부니까
22375 사나이	청년, 절문청년
22376 영감	요 하르방 헤영 불르나 우리지빔떠룬 헤영 불르는 사름 하르방 요 하르방 헤영 불르는 사름 허나네 우리지빔 따방 헤영 불르는 사름도 익꼭 허난
22376-1 할망구	저집 할망
22377 나이	나이 머검쟁 허주 머

22377-0-1 -	나 하영 머건 영 행
22378 환갑	환갑, 한갑
22378-1 환갑 잔치	환갑잔치
22379 사투리	사투리

2.9. 동 물

2.9.1 사는 동물

22401 물고기	물떼기
22402 민물고기	민물떼기
22403 피라미	*
22404 지느러미	늘개
22405 아가미	아구미 저건, 아우생이, 아궁이
22406 창자	베설, 창자, 베설창지
22407 송사리	*
22408 해엄	꼬리를 영영 해엄치능 거
22409 메기	*
22410 자라	자래
22411 거북	거북
22412 미꾸라지	미꾸라지
22413 개구리	개구리
22414 올챙이	강베룩
22415 두꺼비	두꺼비
22416 거머리	거덜
22417 다슬기	*
22418 우렁이	우렁이
22419 고둥	구쟁기, 구쟁기
22420 달팽이	들벙이, 이건 집들벙이고, 민들벙이, 은뺨순들벙이, 집뺨벙이
22420 달팽이	
22421 새우	새워
22421-1 새우(민물 대)	*
22421-2 새우(민물 소)	*
22421-3 새우(바다 대)	*
22421-4 새우(바다 소)	*

22422	새위절
22422-0-1 -이	새위절 짜다
22422-0-1 -이	적까리 짜다
22423 가재	*
22424 갈치	갈치
22425 고등어	고등에 고등아
22426 가오리	가오리
22427 가자미	납쌌미
22428 멸치	멜
22429 명태	멘태 멘태
22429 명태	멩태
22429-1 동태	동태
22429-2 황태	*
22429-3 노가리	*
22429-4 북어	부거
22429-5 생태	*
22430 조기	조기
22431 도미	오통생선, 오통생성 , 오토미, 생성, 오토미생성
22432 뱀장어	베염장어
22433 낚시	낙쭈
22434 미끼	너깍
22435 낚싯대	침때, 낙썰때
22436 얼레	얼레엥 허는가
22437 조개	이디선 모살조개, 조개
22438 소라	구쟁기, ᄇ메기

2.9.2. 벌레

22501 벌레	베랭이
22502 날벌레	*
22503 파리	프리
22503-1 쉬파리	똥프리, 쉬프리
22504 쉬슬다	쉬 쌀찌
22505 가시	베랭이, 장베랭이
22506 진딧물	진쉬
22506-1 (진딧물이) 까다/얏다/생기다	진쉬 하영 이럴찌

22507	즌자리, 물짜리
22508 방아깨비	상동, 상동말축
22508-1 암컷	*
22508-2 수컷	게들레기
22509 매뚜기	난 여긴 꺼는 심방말축
22510 여치	이건 공쟁이
22511 사마귀	당앵이, 당행이
22512 벌	벌, 칭빨
22512-1 (벌을) 치다/기르다/키우다	벌 질랍찌
22513 땅벌	땅빨
22514 나비	나비
22515 하루살이	허루사리, 누니누니
22516 풍뎡이	두메기
22517 모기	모기
22518 장구벌레	고노리
22519 매미	재
22520 개똥벌레	불란디, 불란지, 똥꼭짜기, 똥뽕짜기
22521 반딧불	*
22522 거미	거미
22523 굼벵이	굼벵이
22524 구더기	장빠렝이, 베렝이 똥빠렝이
22525 노래기	구래기
22526 그리마	*
22527 지네	지냉이
22528 개미	게에미, 게엠지, 게염지, 툄캄지
22529 바구미	좁
22530 진드기	부구리, 허썰 커가민 진독
22531 벼룩	벼룩
22532 이	너
22532-1 서캐	쉬
22532-2 빈대	빈대
22533 송충이	충, 소낭충
22534 귀뚜라미	모물콩쟁이
22535 누에	누에 누에
22536 고치	고치, 누엘꼬치
22537 번데기	고주어리

22537	고주위리, 누엔꼬주위리
22538 지렁이	물찌냉이, 게우리
22539 회충(蛔蟲)	게우리, 휘충
22540 소금쟁이	*
22541 방개	물빵개, 물빵석

2.9.3. 축

22601 가축	므시
22602 암소	암췌
22603 송아지	송애기, 어린 낀 금승송애기
22604 송아지 부르는 소리	그대로 매앵 맵 허멍
22605 황소	부랭이, 박갈췌
22606 길들이다	췌 ㄱ리쳐사 데키여
22606-1 소 모는 소리(앞으로 가라)	허
22606-1 소 모는 소리(앞으로 가라)	허췌 허췌
22606-2 소 모는 소리(그 자리에 서라)	화아앙 항
22606-3 소 모는 소리(오른쪽으로 돌아)	어랴어려 허
22606-4 소 모는 소리(왼쪽으로 돌아)	*
22606-5 소 모는 소리(뒤로 물러나라)	물 물
22607 쇠고기	췌게기, 췌퀘기
22608 고기(肉)	퀘기 상 오라
22609 들치	지지렁이
22610 꼬리	꼴리, 총댕이, 꼴렁이, 췌꼴렁이
22611 망아지	몽생이
22612 당나귀	당나귀
22613 갈기	갈귀
22614 돼지	도새기, 되아지
22614-1 멧돼지	산또새기, 산뿔야지, 산뿔야지
22615 주둥이	주둥이, 주댕이
22616 돼지 머리	머리 도멩이, 예 뿔야지머리, 뿔야지머리 올리라 돌또멩이
22617 돼지우리	돌통, 뿔야지통
22617-1 오래오래	식 식
22618 개(犬)	개
22618-1 수캐	승캐

22618-2	암캐, 양캐
22619 강아지	강생이
22620 염소	염송애기, 염소
22621 고양이	고냉이
22621-1 수고양이	승코냉이
22621-2 암고양이	암코냉이
22622 토끼	토끼, 툽끼
22623 거위(鵞)	거위
22624 암탉	암퇘
22625 병아리	비아기 비아기
22626 모오다	꼬꼭꼭 커미 모이능 거
22627 수탉	장득
22627-0-1 -이	득 올면 새벽 온다
22628 벼슬(鷄冠)	고달
22629 부리	주댕이 득쭈댕이엥
22630 모이	득꼭씩
22630-0-1 -을	꼭씩 주서머겘쨌
22630-1 모이다	모엿쨌
22631 닭털	득털, 득터럭
22632 닭똥	득똥
22633 어리	득꼬리
22634 닭장	득짹
22635 등우리	득텅에
22636 날개	늘개
22637 깃	늘깁진, 진, 꿩진
22637-0-1 -을	*

2.9.4. 날짐승

22701 호랑이	호랭이
22702 살췍이	숙
22703 여우	여우
22704 원숭이	원송이, 원숭이
22705 사슴	사스미 사슴
22706 노루	노리
22706-0-1 -이	노리가 만헐따

22706-0-2 -	노리 자발파 *
22707 고슴도치	고슴도치
22708 두더지	*
22709 족제비	족제비
22710 뱀	베여미, 버여미
22711 도마뱀	이건 장쿨레비, 장칼레비
22712 구렁이	구렁이
22713 살모사	물폐기
22714 생쥐	새양지
22715 박쥐	이건또 득람지
22716 거꾸로	꺼꿀로, 꺼꾸로
22717 다람쥐	득람지
22718 새(鳥)	늘쫑승
22719 꿩지	꿀랭이
22719 꿩지	꿀랑지
22720 솔개	똥수레기
22721 독수리	어염수레기
22722 제비(燕)	제비새
22723 두루미	두루미, 흰가메기
22724 소쩍새	*
22725 평	평
22726 장평	장평, 웅치, 웅줄레
22727 까투리	암평, 즈치, 즈줄레
22727-1 꺼병이	평빙에기
22727-1 꺼병이	평비에기
22728 종달새	주중머리, 그거시 주주머리
22729 빼꾸기	빼꾸기, 빼꼭샌디
22730 기러기	그레기
22731 뜰부기	*
22732 올빼미	온뺨, 오뺨
22733 까치	이거 이디 까친디
22734 딱따구리	고냥득쌔
22735 덧	덧
22735-0-1 -을	헝이더슬 논다
22736 올가미	코, 콧꺼리, 코걸레기, 코골레기 코

2.10. 식 물

2.10.1. 풀

22801	진달래꽃
22802 철쭉꽃	*
22803 민들레	민들레, 고름풀
22804 맨드라미	만드레기 이거 만도레기가 마자 만도레기
22805 봉선화	봉선화
22806 파리	하늘푸께, 푸께 이거 푸께
22807 해바라기	해바라기 헤바레기
22808 꽃봉오리	동메기, 동지
22809 시들다	들람찌, 소드람찌
22810 질경이	베채기, 베차기
22810-1 질경이(식물이름)	*
22810-2 질경이(식용이름)	*
22811 빨기	뽕이
22812 비름	비눔
22813 쇠비름	췌비눔
22814 씌바귀	고름풀
22815 고들빼기	수에풀, 토끼푸리엔 불런쭈
22815-1 고들빼기(식물이름)	*
22815-2 고들빼기(식용이름)	*
22816 고사리	저건 고사리네
22817 고비	*
22818 도깨비바늘	개바능
22819 도꼬마리	개제밤, 개저밤
22820 억새	어왁, 어웁
22821 갈대	짐낭, ㄱ대
22822 이끼	보통 늪이런찌도 허곡 늪 또다젠도 허는디
22823 아주까리	피만지 피만지 허난
22824 담쟁이	담쟁이
22825 수세미	스가웨
22826 덩굴	출, 줄, 넌출
22827 덩불	덤벌
22827-1 가시덤불	가시덤벌

22828

테역, 테

2.10.2. 무

22901 소나무	소낭
22902 솔방울	이건 솔똥
22903 관솔	송진, 솔각
22904 솔가리	솔넙
22905 그러모으다	글쟁이로 글그라, 글쟁이로 그느라
22906 뽕나무	뽕낭
22907 오디	오동
22908 도토리	저 이진 툄토리 츄낭으름
22909 떡갈나무	츄가시낭
22910 상수리	상수리낭이 저 소리낭 아닌가 츄낭으름도 가시낭으름도 도토리
22911 옷	칠
22911-0-1 -으로	칠 메기라
22912 버드나무	버디낭
22913 느티나무	굴무기, 느끼낭
22914 그림자	굴메
22914-1 그늘	그늘
22915 숲	곧, 고지
22915-0-1 -을	어디 곧 다 불카비언
22915-0-2 -에	고지에 갠떠니 동서남부글 몰라라
22916 시원하다	시원허다, 씨원허다
22917 짙레	독뽕리낭 고방권낭, 독꼬린낭
22918 칩	꼭
22918-0-1 -에	*
22919 가지(枝)	가쟁이
22920 끝	엽까지끝, 낭까지끝
22920-0-1 -이	소독 꺼꺼질찌
22920-0-2 -에	소독 쫄랄찌
22920-0-3 -을	맨 꼭쟁이에 아잔찌
22921 삭정이	주끈가지 주근가지, 삭따리
22921-1 삭정이를 따다/꺾다/하다	주근가지 꺼꺼베사키여 아니 삭따리 거덩오라
22922 나무	그전에 낭

22922-0-1 -	낭 헤여온텐 나무 베에온다
22922-0-2 -에	짐낭을 그차와야 데케여 허곡
22922-0-2 -에	낭에 걸렬찌
22923 나무하다	낭 거드레 가게, 지들랑 헤오란찌
22924 그루터기	낭굽뎡이 낭꿍뎡이, 그르
22924-1 그루터기(베어내고 남은 부분)	굽뎡이
22924-1 그루터기(베어내고 남은 부분)	보린끄르 산디끄르 코크르
22925 등걸	굽뎡
22926 장작	장작
22927 패다	낭 벌린뎡, 낭 깨라
22928 부스러기	주체기
22929 숯	숯
22929-0-1 -이	숯 만타
22929-0-2 -을	수숯 구워서 팔지
22929-0-3 -에	수세 불 부찌라
22930 불잉걸	망굴, 망구리 왕강헨찌, 망굴 순망굴, 불망굴
22931 짝	새순
22931 짝	고보미, 고부미
	처음 쌍 남서라 허는디
	보리날 뎡 낭 건 짝
22932 잎	썩, 잎
22932-0-1 -을	꼭썩 툃다오라
22932-0-1 -을	콩넙 툃다오라
22932-1 잎사귀	*
22933 가랑잎	낭썩 떠러진 썩은 허는디
22934 뿌리	빨리

2.10.3. 열매

23001 능금	능금ㄹ라 사과엔 허는디
23002 돌배	돌배
23003 복숭아	복썩개
23004 곱감	곱감 곱감
23005 홍시	홍실감, 홍실
23006 고욤	돌감
23007 살구	*

23008	앵두
23009 차두	차두
23010 오얏	*
23010-0-1 -을	*
23011 석류	*
23012 모과	모과
23013 과일	과일
23014 꼭지	꼭지
23015 밤	밤
23015-1 밤송이	방까시
23015-2 풋밤	신밤
23015-3 알밤	켄밤
23015-4 쌍동밤	*
23016 보늬	속꺼죽
23017 호두	호도
23018 가래(楸子)	*
23019 개암	개저밤
23020 머루	멀리
23021 다래	드래
23022 청미래덩굴	멩게낭
23023 으름	유름
23024 참외	츨메
23025 딸기	딸기, 탈
23025-1 "딸기(밭 재배)"	*
23025-2 "딸기(밭 야생)"	보리탈 이꼬
23025-2 "딸기(밭 야생)"	밀탈 이꼬
23025-3 "딸기(들 재배)"	줄탈 이꼬
23025-3 "딸기(들 재배)"	가무탈
23025-4 "딸기(들 야생)"	*
23025-5 "딸기(산 재배)"	*
23025-6 "딸기(산 야생)"	한탈 이꼬
23026 뱀딸기	쥐탈, 쥐탈 게염지탈
23027 마름(菱)	*

2.11. 자 연

2.11.1. 들

23101	상꼭때기, 산뽕오지
23102 기슭	산뽕
23102-0-1 -에	산빠레 집
23103 골짜기	골짜기, 산꼴재기
23104 메아리	*
23105 고향	*
23105-1 (고향) 치다/지르다/하다	*
23106 묘	봉분, 산
23107 밧자리	산터 보레
23107-1 광중	광중, 광중
23108 구덩이	구덩이 광
23109 비탈	중턱, 비크래기
23110 가파르다	*
23111 언덕	늑진 건 동산
	언더기엔 형 건 파진 디ㄴ라 언더기엔
23112 낭떠러지	엉이라고 허는데
	늑잡게 기피 파징 거 엉
23112 낭떠러지	엉덕, 아이고 엉덕 절찌
23113 들(野)	드르 씌니다
23113-0-1 -에	야외 나가능 걸ㄴ라 드르캄찌 흥곡
23113-0-1 -에	드르칼 때는 드르
23114 벌	벙디엔 해부는 디
23115 갈림길	세갈랴찐 세거림찐, 거림, 세거림찐, 거림찐 거림찐에서 양쪽뜨레 그레 갈라사능 거
23116 헤어지다	*
23117 바위	왕돌, 왕석
23117-0-1 -을	*
23117-0-2 -에	*
23118 돌(石)	도를 딸를 때는 큰돌 들런찌
23118-0-1 -을	왕돌 우의 걸쳐 아잔찌
23118-0-1 -을	돌 우의 걸터아잔찌
23118-0-2 -에	도레 마잔찌
23119 자갈	작찌 주서사허키여
23120 모래	몰래, 몰레

23120-0-1 -	물래 다망오라
23121 진흙	핀흙, 낀흙, 편흙
23121-1 찰흙	춘흙, 춘늑, 춘후

2.11.2. 바다

23201 물	물
23202 거품	버꿈 버꿈
23203 개운하다	씨원허다 씨원허다, 혁씩허다
23204 도랑	내꼴
23204-1 붓도랑	*
23205 독	물마기, 물매기
23206 잠기다	물 찰찌, 논받띠 물 그드간, 물 듬천찌, 물 등가전찌
23207 개울	물꼬레 해당테능 거, 물꼴
23208 내(川)	내 큰내, 고랑챙이
23209 미역 갑다	몸 김맘찌
23210 발가숭이	온 빠슨 나이
23211 목욕하다	몸 김능 거
23212 수채	물또랑
23213 개골창	*
23214 시궁창	구진물통인디 저겐
23215 웅덩이	싱피, 몬
23216 수렁	*
23217 늪	대사니홀
23217-0-1 -에	*
23218 배(船)	베
23219 나루터	추캉
23220 돛	돈
23220-0-1 -에	도슬
23221 돛대	돈때
23222 돛배	돈빼지, 나룩빼
23223 돛 줄	돈쫄
23224 닻 줄	단쫄
23225 거루	테위
23226 상앗대	찬때
23227 개(펼)	펼

23228	거 옥찌
23228-0-1 -으로	옥찌로 난간 헨는디
23229 밀물	드는물 들물
23230 썰물	싸는물
23231 가라앉다	ㄱ라 아잠찌
23232 그물	구물
23233 해너	즘수, 즈너

2.11.3. 후

23301 새벽	새벼기
23302 새벽밥	새 벵쫈반, 새 뵤쫈반
23303 아침	조바너 때, 아침 조바너 때, 아침
23304 아침밥	조반빤, 아침빤
23305 점심	정심빤
23306 저녁	저냐게 지능 거
23307 설핏하다	헤가 빨구렁이 저감찌 헨빠리 북뻬 허는 디
23308 노을	헤야지가 벌경허다 아이고 에야지가 벌경헤연 비 오키여
23308-0-1 -을	*
23309 불그레하다	*
23310 해거름	어스름
23311 땅거미	헤 떠러저분 다음 초어스름
23312 봄	봄
23313 여름	여름
23314 더위	더위가 오래 감찌
23315 추위	추우미 오래 감찌
23316 가을	가을, ㄱ슬 트런찌
23316-0-1 -에	ㄱ슬리, 가으레
23317 겨울	저을, 눈노는 겐또 저슬리, 저슬
23317-0-1 -에	저슬리 저슬리 오민 눈 논다
23318 얼음	어름
23319 오늘	오늘
23320 내일	내일 널
23321 모래	모래 모리

23322	글피
23323	그글피
23324	어제
23325	그저께
23326	그그저께
23327	훗날
23328	하룻날
23329	이튿날
23330	사흘날
23331	나흘날
23332	닷셋날
23333	엿셋날
23334	이렛날
23335	여드렛날
23336	아흐렛날
23337	열흘날
23338	하루
23339	이틀
23340	사흘
23341	나흘
23342	닷새
23343	엿새
23344	이레
23345	여드레
23346	아흐레
23347	열흘
23348	한나절
23348-1	반나절
23349	그믐
23349-1	그믐께
23350	지금
23351	아직
23352	이제
	글피
	정날
	어제
	그지게
	그직까지날, 그직까지날, 그직까지날 그직까지날
	널 모리랑 만나게
	다음 만나게 아니 메칠 후에
	메칠 후에랑 또 만나게
	다음 만나게
	초하루, 초하로
	초이틀
	초사흘 초사흘
	초나을
	초단췌
	초은췌
	초일레 초일뤼
	초으드레
	초아으레
	초열를 초열르
	흐로, 흐루
	이틀
	사흘, 사을
	나흘, 나을
	단췌
	은췌
	일뤼
	으드레
	아으레, 아흐레
	열흘
	날췌, 날췌
	반나절
	구믐날, 구믐
	*
	지금 허라
	아직 안 머거수다
	이제 먹췌 햐수다

23353	이미 느껴빈찌
23354	요즘 어떻 사람시니 요새에 어떻 사람시니 요새엔 어떻 사람시니
23355	금방 곤 머거수다

2.11.4. 방향

23401	별	저 헤뻬뻬 물류라 뻬 잘나는 디
23401-0-1	-이	뻬 잘 뻬람찌
23401-0-2	-을	헨뻬 썬와사
23402	따스하다	따뜨터다
23403	아지랑이	ㄱ맹이 썬찌
23404	응달	그늘친 디
23405	양달	뻬 바른 디엥
23406	비(雨)	비
23407	가랑비	ㄱ랑비 가랑비
23408	이슬비	앙개비
23409	안개	안개 앙개
23410	눈개	으남 끼얼찌 으남 썬찌
23411	무지개	향고지
23412	소나기	소나귀, 더럭뻬, 소낙뻬 쏘나기가 겁뻬 아닝가
23413	갑자기	갑짜기 오능 걸ㄱ라 더럭뻬 오람썬
23414	홍수	시위 터절뻬 허는 디
23415	번개	편개
23416	천둥	천둥 천둥
23417	벼락	베락
23418	무섭다	ㄱ수웅 거
23419	함박눈	함방눈
23420	싸락눈	스레기눈
23421	발자국	발짜국
23422	진눈깨비	물눈, 물진뻬이
23423	우박	우박
23424	고드름	동곤

23425	간 썬져 간
23426 달무리	드레 갠썬 비 오젠 험싱구라 헤영
23427 둥글다	보롬뜰른 둥글락코
23428 은하수	미런내
23429 금성	샌뵐
23430 가뭇	꺾뭇 드런져
23431 마르다	갈 들르키여
23431-0-1 -어서	뵐래 갈 들란 조키여
23432 위	우
23433 아래	아래
23434 왼쪽	웬뵐쥬로 갠썬
23435 오른쪽	늑단뵐쥬로 갠썬
23436 곁	나 적곁띠 오라
23436-0-1 -에	*
23437 회오리바람	독뵐인쥬제
23438 북풍	하니브름
23439 남풍	든브름, 마브름, 마뵐름
23440 동풍	샌뵐름
23441 서풍	서갈, 서갈브름

3편 음운

3.1 음운 목록

3.1.1

31001-0-1 (輪)-이/가	이 안경테가 느 안경테보단 더 슬지다
31001-0-2 테(輪)-보다	이 안경테가 느 안경테보단 더 슬지다
31002-0-1 태(胎)-이/가	이 태가 더 질다아
31002-0-2 태(胎)-보다	큰놈 난 때 태본단 조근 놈 난 때 태가 더 질게 즐라질찌
31003-0-1 때(群)-이/가	가마귀 때가 기러기 때보단 족따
31003-0-2 때(群)-보다	가마귀 때가 기러기 때보단 족따
31004-0-1 때(時)-이/가	정심 때 테엔찌
31004-0-2 때(時)-보다	정심 때보단 아침 때가 중요하다
31005-0-1 틀(機)-이/가	이 베크리 막 조타아
31005-0-2 틀(機)-보다	이 베클보단 저 베크리 크다아
31006-0-1 털(毛)-이/가	나 머리터러기 느 머리터럭뻘다 더 걸다아
31006-0-2 털(毛)-보다	나 머리터러기 느 머리터럭뻘다 더 걸다아
31007-0-1 글(文)-이/가	이 그리 저 글보단 더 잘썩찌
31007-0-2 글(文)-보다	이 그리 저 글보단 더 잘썩찌
31008-0-1 걸(鬣)-이/가	이버넌 순뽀단 거리 훅썩 날따
31008-0-2 걸(鬣)-보다	걸보다 모가 날따
31009-0-1 기(旗)-이/가	이 기가 저 더 노프다
31009-0-2 기(旗)-보다	이 기가 저 기가 더 크다
31010-0-1 귀(耳)-이/가	느 귀보다 나 귀가 더 크다
31010-0-2 귀(耳)-보다	느 귀보다 나 귀가 더 크다
31011-0-1 시(生時)-이/가	나 난 날 난 시가 느 나 난 날 난 시보단 조 타
31011-0-2 시(生時)-보다	나 난 날 난 시가 느 나 난 날 난 식보단 조 타
31012-0-1 쉬(蠅卵)-이/가	이 시가 썩 베랭이 툴다
31012-0-2 쉬(蠅卵)-보다	쉬보다 베랭이가 더 크다

31013-0-1	(鐵)-이/가	이 췌가 저 췌보단 강허다
31013-0-2	쇠(鐵)-보다	이 췌가 저 췌보단 강허다
31014-0-1	외:국(外國)-이/가	왜구기 우리나라마니 모테라
31014-0-2	외:국(外國)-보다	우리나라가 왜국보단 더 잘 사람서라
31015-0-1	왜국(倭國)-이/가	왜구기 더 잘 썬다
31015-0-2	왜국(倭國)-보다	저 왜국보단 우리나라가 더 잘 쌀고
31016-0-1	쉬:다(休)-더라	*
31016-0-2	쉬:다(休)-어서	*
31017-0-1	쇠:다(설을~)-더라	*
31017-0-2	쇠:다(설을~)-어서	*
31018-0-1	베(布)-이/가	*
31018-0-2	베(布)-보다	*
31019-0-1	배(船)-이/가	*
31019-0-2	배(船)-보다	*
31020-0-1	배(腹)-이/가	*
31020-0-2	배(腹)-보다	*
31021-0-1	(떡)메-이/가	*
31021-0-2	(떡)메-보다	*
31022-0-1	매(鞭)-이/가	*
31022-0-2	매(鞭)-보다	*
31023-0-1	메:다(擔)-이/가	*
31023-0-2	메:다(擔)-보다	*
31024-0-1	매:다(繫)-이/가	*
31024-0-2	매:다(繫)-보다	*
31025-0-1	떼:다(分離)-이/가	*
31025-0-2	떼:다(分離)-보다	*
31026-0-1	때:다(炊)-이/가	*
31026-0-2	때:다(炊)-보다	*
31027-0-1	베:다(切斷)-이/가	*
31027-0-2	베:다(切斷)-보다	*
31028-0-1	배:다(孕胎)-이/가	*
31028-0-2	배:다(孕胎)-보다	*
31029-0-1	세:다(算)-이/가	*
31029-0-2	세:다(算)-보다	*
31030-0-1	새:다(漏泄)-이/가	*
31030-0-2	새:다(漏泄)-보다	*

31031-0-1	(後)-이/가	*
31031-0-2	뒤(後)-보다	*
31032-0-1	되(升)-이/가	*
31032-0-2	되(升)-보다	*
31033-0-1	게:(蟹)-이/가	*
31033-0-2	게:(蟹)-보다	*
31034-0-1	개:(犬)-이/가	*
31034-0-2	개:(犬)-보다	*

3.1.2

31035-0-1	여럿(多)-이/가	저디 간 보난 여라이 이서라
31035-0-2	여럿(多)-보다	*
31035-0-3	여럿(多)-을/를	강 여라이 도라오라
31036-0-1	물결(波)-이/가	저리 막 썬얌썬
31036-0-2	물결(波)-보다	*
31036-0-3	물결(波)-을/를	*
31037-0-1	예:의(禮儀)-이/가	이 아윈 예의가 얌따
31037-0-2	예:의(禮儀)-보다	예의보단 예저리 조타
31037-0-3	예:의(禮儀)-을/를	사라믄 예의를 잘 츠려야 혼단
31038-0-1	계:획(計劃)-이/가	일헐 계획기 어따 영
31038-0-2	계:획(計劃)-보다	계획뽀다 실처니 중요헌다
31038-0-3	계:획(計劃)-을/를	경 마랑 계획글 잘 세와보라
31039-0-1	규칙(規則)-이/가	어디든 규칙기 이서야 헌다
31039-0-2	규칙(規則)-보다	이 규칙기 저 규칙뽀단 날따
31039-0-3	규칙(規則)-을/를	규치글 잘 멘드라사 헌다
31040-0-1	휴일(休日)-이/가	노는 휴리이 휴이리 막 조타
31040-0-2	휴일(休日)-보다	이런 휴일보단 더 조은 날 시카
31040-0-3	휴일(休日)-을/를	이 휴이를 어떻 지내코오
31041-0-1	교통(交通)-이/가	교통이 막 혼자포다
31041-0-2	교통(交通)-보다	교통보단 질씨를 잘 지켜야 혼다
31041-0-3	교통(交通)-을/를	이 사르미 교통을 마비시켜뽀썬
31042-0-1	효:자(孝子)-이/가	효자가 날썬
31042-0-2	효:자(孝子)-보다	효자보다 효녀가 더 조타
31042-0-3	효:자(孝子)-을/를	효자를 멘드라사 허주
31043-0-1	웬일(何事)-이/가	*

31043-0-2	(何事)-보다	*
31043-0-3	웬일(何事)-을/를	*
31044-0-1	퀘:(짹)(櫃)-이/가	이 퀘가 조타
31044-0-2	퀘:(짹)(櫃)-보다	이 퀘가 저 퀘보다 크다
31044-0-3	퀘:(짹)(櫃)-을/를	이 퀘를 가져가라
31044-0-3	퀘:(짹)(櫃)-을/를	이 퀘를 아정 가라
31044-0-3	퀘:(짹)(櫃)-을/를	이 퀘 아정 가라
31045-0-1	왜란(倭亂)-이/가	왜라니 터진찌
31045-0-2	왜란(倭亂)-보다	왜란보단 병라니 몬져여
31045-0-3	왜란(倭亂)-을/를	왜라늘 만나서
31046-0-1	헛대(鷄架)-이/가	*
31046-0-2	헛대(鷄架)-보다	*
31046-0-3	헛대(鷄架)-을/를	*
31047-0-1	원망(怨望)-이/가	무신 원망이 나신디 저영 험싱고 헤여
31047-0-2	원망(怨望)-보다	원망보다 친차늘 허라
31047-0-3	원망(怨望)-을/를	노미 원망을 허지 말라
31048-0-1	권:투(拳鬪)-이/가	권투가 박치기마니 모테여
31048-0-2	권:투(拳鬪)-보다	권투보다 추꾸가 조타
31048-0-3	권:투(拳鬪)-을/를	권투를 어떻헤여
31049-0-1	의논(議論)-이/가	쉐눈보다 이노니 크다
31049-0-2	의논(議論)-보다	이논보다 더 조은 거 언따
31049-0-3	의논(議論)-을/를	이논 허당보민 아라진다
31050-0-1	무늬(紋)-이/가	이 무늬가 막 조타
31050-0-2	무늬(紋)-보다	이 무늬가 저 무늬보단 크다
31050-0-3	무늬(紋)-을/를	이 무늬를 머엿 곤는지 모르키여
31051-0-1	왕(王)-이/가	이 왕이 이를 하여 험찌
31051-0-2	왕(王)-보다	이 왕이 저 왕보단 날따
31051-0-3	왕(王)-을/를	저 왕을 본바당 험다
31052-0-1	과자(菓子)-이/가	사탕보단 과자가 조타
31052-0-2	과자(菓子)-보다	과저보다 사탕이 조타
31052-0-3	과자(菓子)-을/를	이 과자 머거라

3.1.3 . 성조

31053-0-1	일(一)-이/가	이보다 이리 족따
31053-0-2	일(一)-보다	일보다 이가 크다

31054-0-1	:(事)-이/가	이리 하다
31054-0-2	일:(事)-보다	이 일보다 저 이리 수월하다
31055-0-1	매(鞭)-이/가	이 매가 조타
31055-0-2	매(鞭)-보다	매보다 친차니 조타
31056-0-1	매:(驚)-이/가	이 매가 더 크다
31056-0-2	매:(驚)-보다	이 매보다 저 매가 더 나빠
31057-0-1	밤(夜)-이/가	오늘 빠미 더 질다
31057-0-2	밤(夜)-보다	나지 밤보다 질다
31058-0-1	밤:(粟)-이/가	깐 바미 더 빔싸다
31058-0-2	밤:(粟)-보다	이 밤보다 저 바미 더 훅따
31059-0-1	눈(眼)-이/가	나 누니 크다
31059-0-2	눈(眼)-보다	나 눈보다 저 아이 누니 더 크다
31060-0-1	눈:(雪)-이/가	이 누니 더 허영하다
31060-0-2	눈:(雪)-보다	이디 눈보다 저 디 누니 더 허영하다
31061-0-1	말(馬)-이/가	이 므리 더 크다
31061-0-2	말(馬)-보다	조근 물보단 큰 므리 더 겁따
31062-0-1	말(斗)-이/가	두 말보다 혼 마리 족따
31062-0-2	말(斗)-보다	혼 말보다 두 마리 크다
31063-0-1	말:(言)-이/가	저 사름 마리 조타
31063-0-2	말:(言)-보다	이 사름 말보다 저 사름 마리 더 조타
31064-0-1	손(客)-이/가	손니미 하다, 소니미 하다
31064-0-2	손(客)-보다	이 소니물 저 소님보단 몬저 드리라
31065-0-1	손(手)-이/가	나 소니 더 크다
31065-0-2	손(手)-보다	나 손보단 느 소니 더 곱따
31066-0-1	손:(孫)-이/가	이 사는 소니 한 사니로고
31066-0-2	손:(孫)-보다	십 때 손보다 시빌 때 소니 더 하다
31067-0-1	배(梨)-이/가	이 배가 저 배보다 크다
31067-0-2	배(梨)-보다	저 배가 이 배보다 크다
31068-0-1	배:(倍)-이/가	혼 배가 두 배보다 족따
31068-0-2	배:(倍)-보다	두 배가 혼 배보다 크다
31069-0-1	벌(罰)-이/가	이 버리 더 무겁따
31069-0-2	벌(罰)-보다	나 벌보다 느 버리 더 무겁따
31070-0-1	벌:(蜂)-이/가	이 버리 저 벌보다 더 크다
31070-0-2	벌:(蜂)-보다	이 버리 버 벌보다 더 훅따
31071-0-1	솔(松)-이/가	이 솔보다 저 소리 솔니비 만타, 이 소리 크다
31071-0-2	솔(松)-보다	이 소리 저 솔보다 더 조타

31072-0-1	: (刷)-이/가	이 소리 더 조타
31072-0-2	술: (刷)-보다	이 술보다 저 소리 조타
31073-0-1	줄(鉉)-이/가	이 주리 더 훅따
31073-0-2	줄(鉉)-보다	이 주리 저 줄보단 더 무겁따
31074-0-1	줄:(연장)-이/가	이 수리 저 술보다 더 질다
31074-0-2	줄:(연장)-보다	이 주리 저 불보다 느쓸다
31075-0-1	돌:(石)-이/가	이 도리 더 무겁따
31075-0-2	돌:(石)-보다	이 도리 저 돌보단 더 무겁따
31076-0-1	담(牆)-이/가	이 다미 더 노프다
31076-0-2	담(牆)-보다	이 담보다 저 다미 더 노프다
31077-0-1	담:(膽)-이/가	*
31077-0-2	담:(膽)-보다	*
31078-0-1	들:(野)-이/가	이 드리 더 널르다
31078-0-2	들:(野)-보다	이 들보다 저 드리 더 널르다
31079-0-1	달-(懸)-고	문패도 들곡 문또 바그라
31079-0-2	달-(懸)-더라	문패도 들곡 문또 바가라
31080-0-1	달-(甘)-고	들고 쓰고 머그라
31080-0-2	달-(甘)-더라	들고 쓰고 머거라
31081-0-1	달:-(熱)-고	그 야근 딸리곡 딸리곡 허주
31081-0-2	달:-(熱)-더라	저 지빈 약 딸럼서라
31082-0-1	갈-(換)-고	이거 골곡 저걸로 쓰라
31082-0-2	갈-(換)-더라	이거 골곡 저걸로 쓰라 영
31083-0-1	갈-(磨)-고	이거 ㄱ라주곡 저거 아정 가라
31083-0-2	갈-(磨)-더라	*
31084-0-1	갈:-(耕)-고	*
31084-0-2	갈:-(耕)-더라	받디 간 보난 받 가람서라 헤영
31085-0-1	걷-(收)-고	*
31085-0-2	걷-(收)-더라	여물 인는 거 거두왓서라
31086-0-1	걷:-(步)-고	자인 잘 걷곤 허주
31086-0-2	걷:-(步)-더라	자인 잘 거림서라
31087-0-1	적-(書)-고	공채게 적꼭 케영 오라
31087-0-2	적-(書)-더라	공채게 적꼭 케영 오라라
31088-0-1	적:-(小)-고	우리 집 고친 족꼬 맴나
31088-0-2	적:-(小)-더라	우리 지비 고친 맵꼬 종나

3.2 음운 과정

3.2.1

32001-0-1	-(防)[ㄱ]-지	쉐 잘 막찌 모터키여
32001-0-2	막-(防)[ㄱ]-고	쉐 막꼬테영 이시라
32001-0-3	막-(防)[ㄱ]-더라	어린나이가 쉘 잘 마가라
32001-0-4	막-(防)[ㄱ]-으니까	쉐 잘 마그난 차커다
32001-0-5	막-(防)[ㄱ]-아/어(왔/었다)	쉐 잘 마강 시라
32002-0-1	흐르-(流)[ㅡ]-지	물 흘르지 모터게 마그라
32002-0-2	흐르-(流)[ㅡ]-고	물 흘르곡 케라
32002-0-3	흐르-(流)[ㅡ]-더라	넌물 잘 흘럼서라
32002-0-4	흐르-(流)[ㅡ]-으니까	잘 흘르난 질 난쭈
32002-0-5	흐르-(流)[ㅡ]-아/어(왔/었다)	막 크게 흘런 막찌 모터키여
32003-0-1	오-(來)[ㅍ]-지	지비 빨리 오지 모테수다
32003-0-2	오-(來)[ㅍ]-고	지비 오곡 말곡 흘 털 아니쭈
32003-0-3	오-(來)[ㅍ]-더라	매날 지비 오라라
32003-0-4	오-(來)[ㅍ]-으니까	매날 지비 오난 차켄 이리쭈
32003-0-5	오-(來)[ㅍ]-아/어(왔/었다)	지비 왕 시라
32004-0-1	듣-(聞)[ㄷ변]-지	잘 듣찌 모터키여
32004-0-2	듣-(聞)[ㄷ변]-고	말 잘 듣꼭 대곡 흘 리리파
32004-0-3	듣-(聞)[ㄷ변]-더라	자이 말 잘 드러라
32004-0-4	듣-(聞)[ㄷ변]-으니까	말 잘 드러난 효자쭈
32004-0-5	듣-(聞)[ㄷ변]-아/어(왔/었다)	말 잘 드렁 소내 아이 본다
32005-0-1	많:-(多)[ㅁ]-지	올린 쿵 하지 아녀크라
32005-0-2	많:-(多)[ㅁ]-고	쿵 하곡 즐래도 하크 하우다
32005-0-3	많:-(多)[ㅁ]-더라	폴또 하주마는 쿵도 하다
32005-0-4	많:-(多)[ㅁ]-으니까	쿵이 하난 돈 베흥 거쭈
32005-0-5	많:-(多)[ㅁ]-아/어(왔/었다)	쿵도 하영 버런꾸나
32006-0-1	말-(任)[ㅌ]-지	이장 마트지 말라
32006-0-2	말-(任)[ㅌ]-고	이장 마트곡 일 흐주게
32006-0-3	말-(任)[ㅌ]-더라	말넝 흐명도 이장 마타라
32006-0-4	말-(任)[ㅌ]-으니까	이장 마트난 일 헤에사 허쭈
32006-0-5	말-(任)[ㅌ]-아/어(왔/었다)	이장 마탄 소감꼬
32007-0-1	알:-(知)[ㄹ]-지	잘 알지 모터키여
32007-0-2	알:-(知)[ㄹ]-고	잘 알곡 말곡
32007-0-3	알:-(知)[ㄹ]-더라	몬딱 잘 아라라
32007-0-4	알:-(知)[ㄹ]-으니까	잘 아난 선생이쭈

32007-0-5	:- (知)[ㄹ]-아/어(았/었다)	잘 아랑 바다 먹짜
32008-0-1	감:- (閉眼)[ㄱ]-지	눈 감찌 말라
32008-0-2	감:- (閉眼)[ㄱ]-고	눈 감꼭 즈물 자저게
32008-0-3	감:- (閉眼)[ㄱ]-더라	흐끔만 눈 ㄱ마라
32008-0-4	감:- (閉眼)[ㄱ]-으니까	눈 ㄱ므난 생이 누니주
32008-0-5	감:- (閉眼)[ㄱ]-아/어(았/었다)	눈 ㄱ망 시민 텐다
32009-0-1	벗-(脫)[ㅅ]-지	온 활딱 벌찌 말라
32009-0-2	벗-(脫)[ㅅ]-고	온 버꼭 이불 더끄곡케영 즈 자라
32009-0-3	벗-(脫)[ㅅ]-더라	술 흐끔 취허민 온 잘 버서라
32009-0-4	벗-(脫)[ㅅ]-으니까	온 버스난 씨원허주
32009-0-5	벗-(脫)[ㅅ]-아/어(았/었다)	온 버성 사라지카
32010-0-1	옴-(可)[ㅇ]-지	그 말 올치 아녀다
32010-0-2	옴-(可)[ㅇ]-고	말 올코 그르믈 몰라부런
32010-0-3	옴-(可)[ㅇ]-더라	자이 마리 오라라
32010-0-4	옴-(可)[ㅇ]-으니까	말 오르난 천냥 뺨 가프주
32010-0-5	옴-(可)[ㅇ]-아/어(았/었다)	*
32011-0-1	입-(着衣)[ㅍ]-지	온 입찌 말라
32011-0-2	입-(着衣)[ㅍ]-고	온 뽕곡 신 시녕 먼저 나사라
32011-0-3	입-(着衣)[ㅍ]-더라	막 큰 놀또 이버라
32011-0-4	입-(着衣)[ㅍ]-으니까	온 이브난 득뜯터다
32011-0-5	입-(着衣)[ㅍ]-아/어(았/었다)	온 띠병 나산 지드렘서라
32012-0-1	바꾸-(換)[ㅈ]-지	즌 돈느로 바꾸지 마랑 시라
32012-0-2	바꾸-(換)[ㅈ]-고	돈 바꾸곡 말곡 흘 꺼 어수다
32012-0-3	바꾸-(換)[ㅈ]-더라	아까 즈 돈도 바파라
32012-0-4	바꾸-(換)[ㅈ]-으니까	즌 돈 바꾸난 서지키여
32012-0-5	바꾸-(換)[ㅈ]-아/어(았/었다)	즌 돈 바팡 씨라
32013-0-1	덮-(覆)[ㄷ]-지	더운 디 이불 더프지 말라
32013-0-2	덮-(覆)[ㄷ]-고	이불 더프곡 행 자라
32013-0-3	덮-(覆)[ㄷ]-더라	일런내냥 이불 더퍼라
32013-0-4	덮-(覆)[ㄷ]-으니까	이불 더프난 든뜯터다
32013-0-5	덮-(覆)[ㄷ]-아/어(았/었다)	이불 더평 추우카
32014-0-1	묻:- (問)[ㅁ]-지	말 묻찌 말라
32014-0-2	묻:- (問)[ㅁ]-고	그 사람신디 말 묻꼭 대곡 허지 말라
32014-0-3	묻:- (問)[ㅁ]-더라	보른 매날 말 무러라
32014-0-4	묻:- (問)[ㅁ]-으니까	말 무르난 데답헐주
32014-0-5	묻:- (問)[ㅁ]-아/어(았/었다)	말 무렁 손해 보카

32015-0-1	:- (癒)[八변]-지	빨리 날찌 아넘수다
32015-0-2	낫:- (癒)[八변]-고	빨리 날꼭 케영 이러삽써
32015-0-3	낫:- (癒)[八변]-더라	거 부치난 잘 나사라
32015-0-4	낫:- (癒)[八변]-으니까	잘 나스난 야기주게
32015-0-5	낫:- (癒)[八변]-아/어(왔/었다)	병 나상 이러나십쭈
32016-0-1	닫-(閉)[ㄷ]-지	문 더끄지 말라
32016-0-2	닫-(閉)[ㄷ]-고	문 더끄곡 케영 줌 자라
32016-0-3	닫-(閉)[ㄷ]-더라	그 시가니민 문 더꺼라
32016-0-4	닫-(閉)[ㄷ]-으니까	문 더끄난 그냥 오라수다
32016-0-5	닫-(閉)[ㄷ]-아/어(왔/었다)	문 더깁 아자시라
32017-0-1	쫓-(追)[ㅈ]-지	어멍 조치지 말라
32017-0-2	쫓-(追)[ㅈ]-고	어멍 조치곡 우렁 모쌀키여
32017-0-3	쫓-(追)[ㅈ]-더라	불 때마다 어멍 바짝 조차라
32017-0-4	쫓-(追)[ㅈ]-으니까	어멍 조치난 머글 꺼 나왓쭈
32017-0-5	쫓-(追)[ㅈ]-아/어(왔/었다)	어멍 조창 가라
32018-0-1	베:- (枕)[ㅂ]-지	베게 모로 베지 말라
32018-0-2	베:- (枕)[ㅂ]-고	베게 베곡 이불 더평 자라
32018-0-3	베:- (枕)[ㅂ]-더라	노픈 베게 베에라
32018-0-4	베:- (枕)[ㅂ]-으니까	노픈 베게 베난 고개 아프주게
32018-0-5	베:- (枕)[ㅂ]-아/어(왔/었다)	베게 베영 자라
32019-0-1	깨:- (破)[ㅈ]-지	좁지리 깨지 말라
32019-0-2	깨:- (破)[ㅈ]-고	냥 깨곡 데미곡 ㅋ라
32019-0-3	깨:- (破)[ㅈ]-더라	냥 좁지리 깨여라
32019-0-4	깨:- (破)[ㅈ]-으니까	냥 깨난 바블 먹쭈게
32019-0-5	깨:- (破)[ㅈ]-아/어(왔/었다)	냥 깨연 돈 버럴찌
32020-0-1	펴-(伸)[ㅍ]-지	잘 페우지 모터키여
32020-0-2	펴-(伸)[ㅍ]-고	페우곡 고비치곡 컵써
32020-0-3	펴-(伸)[ㅍ]-더라	강 보문 맨날 페와라
32020-0-4	펴-(伸)[ㅍ]-으니까	잘 페우난 곱딱허다
32020-0-5	펴-(伸)[ㅍ]-아/어(왔/었다)	잘 페왕 안쭈게
32021-0-1	밝-(明)[?]-지	날 북찌 아넬찌
32021-0-2	밝-(明)[?]-고	*
32021-0-3	밝-(明)[?]-더라	그때문 헤 불가라
32021-0-4	밝-(明)[?]-으니까	날 불그난 빨리 나사사키여
32021-0-5	밝-(明)[?]-아/어(왔/었다)	날 불강 지빅 아잔찌
32022-0-1	삶:- (烹)[?]-지	손 쪼간 잘 슴찌 모터키여

32022-0-2	:- (烹)[?]-고	너미 조간 슝꼭 대곡 킨 께 언찌
32022-0-3	삶:- (烹)[?]-더라	궤기 하영 슝마라
32022-0-4	삶:- (烹)[?]-으니까	하영 슝므난 남쭈게
32022-0-5	삶:- (烹)[?]-아/어(았/었다)	슝망 머궤썸
32023-0-1	읷:- (吟)[ㄷ]-지	*
32023-0-2	읷:- (吟)[ㄷ]-고	사설 읷프곡 때곡 흘 께 언따
32023-0-3	읷:- (吟)[ㄷ]-더라	사설 읷핍서라
32023-0-4	읷:- (吟)[ㄷ]-으니까	매날 읷프난 돈도 나왓쭈게
32023-0-5	읷:- (吟)[ㄷ]-아/어(았/었다)	매날 읷핍 도니 나오카
32024-0-1	밧:- (踏)[?]-지	진반 밧썸 말라
32024-0-2	밧:- (踏)[?]-고	끈꼭 불르곡 커라
32024-0-3	밧:- (踏)[?]-더라	반만 잘 블라라
32024-0-4	밧:- (踏)[?]-으니까	잘 블르난 곡썸기 똤쭈게
32024-0-5	밧:- (踏)[?]-아/어(았/었다)	잘 블렁 손해 안 본다
32025-0-1	하-(爲)[ㅏ 변]-지	말 흥지 말라
32025-0-2	하-(爲)[ㅏ 변]-고	일 흥곡 말곡 흘 궤 서
32025-0-3	하-(爲)[ㅏ 변]-더라	일 잘 헤라
32025-0-4	하-(爲)[ㅏ 변]-으니까	일 하영 허난 부제로 사람쭈게
32025-0-5	하-(爲)[ㅏ 변]-아/어(았/었다)	일 하영 흥 문 썸는 사름 어서
32026-0-1	밧-(結)[ㅈ]-지	홀라흥게 믰치지 말라
32026-0-2	밧-(結)[ㅈ]-고	홀라흥게 믰치곡 돈 바다지카
32026-0-3	밧-(結)[ㅈ]-더라	가인 궤딱흥게 믰지라
32026-0-4	밧-(結)[ㅈ]-으니까	궤딱흥게 믰치난 돈 쭈쭈게
32026-0-5	밧-(結)[ㅈ]-아/어(았/었다)	몬 믰청 가궤
32027-0-1	없:- (無)[?]-지	돈 언찌 아니영 서어
32027-0-2	없:- (無)[?]-고	돈 너꼬 사람도 어꼬
32027-0-3	없:- (無)[?]-더라	갈 때마다 돈 어서라
32027-0-4	없:- (無)[?]-으니까	돈 어스난 쭈거지키어
32027-0-5	없:- (無)[?]-아/어(았/었다)	돈 어성 사라지카
32028-0-1	앉-(坐)[ㄴ]-지	무똥에 안찌 말라
32028-0-2	앉-(坐)[ㄴ]-고	보난 앞쪽 사궤 헤서라
32028-0-3	앉-(坐)[ㄴ]-더라	방서궤만 안자라
32028-0-4	앉-(坐)[ㄴ]-으니까	방석 우의 아지난 궤난허다
32028-0-5	앉-(坐)[ㄴ]-아/어(았/었다)	이디 아장 시라
32029-0-1	비비-(刮)[ㅣ]-지	손 보비지 말라
32029-0-2	비비-(刮)[ㅣ]-고	손 보비궤 발 보비궤 커명 사라사 허쭈

32029-0-3	-(刮)[ㅣ]-더라	뿐 쟁마다 손 잘 부벼라
32029-0-4	비비-(刮)[ㅣ]-으니까	손 부비난 노픈 자리 올라싱가
32029-0-5	비비-(刮)[ㅣ]-아/어(왔/였다)	보리 보비영 머거라
32030-0-1	끄-(消)[ㅡ]-지	불 끄지 말라
32030-0-2	끄-(消)[ㅡ]-고	불 끄곡 아자서라
32030-0-3	끄-(消)[ㅡ]-더라	불 끄곡 아자서라
32030-0-4	끄-(消)[ㅡ]-으니까	불 끄난 사랑쭈
32030-0-5	끄-(消)[ㅡ]-아/어(왔/였다)	불 쟁 즘 자라
32031-0-1	꺾-(折)[ㄱ]-지	경 우으로 꺾끄지 말라
32031-0-2	꺾-(折)[ㄱ]-고	고사리 꺾끄곡 숨꼭 물리곡
32031-0-3	꺾-(折)[ㄱ]-더라	그 할망은 고사리 잘도 꺾꺼라
32031-0-4	꺾-(折)[ㄱ]-으니까	곱게 꺾끄난 돈 하영 바단쭈게
32031-0-5	꺾-(折)[ㄱ]-아/어(왔/였다)	고사리 꺾쟁 풀게
32032-0-1	신:-(履)[ㄴ]-지	신 신찌 말라
32032-0-2	신:-(履)[ㄴ]-고	신 신곡 케영 어디가젠 험디
32032-0-3	신:-(履)[ㄴ]-더라	초신도 시너라
32032-0-4	신:-(履)[ㄴ]-으니까	신 시느난 든젠만 헤라
32032-0-5	신:-(履)[ㄴ]-아/어(왔/였다)	신 잘 시녕 걸라
32033-0-1	보-(視)[ㅇ]-지	보지 말라
32033-0-2	보-(視)[ㅇ]-고	보곡 먹꼭 안 데엔져
32033-0-3	보-(視)[ㅇ]-더라	가인 테레비 밤서라
32033-0-4	보-(視)[ㅇ]-으니까	어멍보난 지꺼진
32033-0-5	보-(視)[ㅇ]-아/어(왔/였다)	할망도 바양 가라
32034-0-1	추-(舞)[ㅈ]-지	경 나상 추지 말라
32034-0-2	추-(舞)[ㅈ]-고	춤 추곡 헤염쟁 헤라
32034-0-3	추-(舞)[ㅈ]-더라	춤 잘 춰라
32034-0-4	추-(舞)[ㅈ]-으니까	춤 추난 기분 조아라
32034-0-5	추-(舞)[ㅈ]-아/어(왔/였다)	춤 춰 기분 나빠
32035-0-1	피우-(吸煙)[ㅈ]-지	담배 피우지 말라
32035-0-2	피우-(吸煙)[ㅈ]-고	담배 피우곡 술 먹꼭 헤라
32035-0-3	피우-(吸煙)[ㅈ]-더라	집바너서도 담배 피와라
32035-0-4	피우-(吸煙)[ㅈ]-으니까	담배 피우난 욱 든쭈게
32035-0-5	피우-(吸煙)[ㅈ]-아/어(왔/였다)	담배 피왕 욱 든나
32036-0-1	서-(立)[ㅅ]-지	그디 사지 말라
32036-0-2	서-(立)[ㅅ]-고	강 보난 사곡 안쪽 헤서라
32036-0-3	서-(立)[ㅅ]-더라	무똥에 사서라

32036-0-4	- (立)[ㄴ]-으니까	무뚝에 사난 욱 들쭈
32036-0-5	서- (立)[ㄴ]-아/어(았/었다)	무뚝에 상 베레 보라
32037-0-1	기- (匍腹)[ㅣ]-지	경 기지 말라
32037-0-2	기- (匍腹)[ㅣ]-고	기곡 곁쪽 들쪽 커멍 크능겨여
32037-0-3	기- (匍腹)[ㅣ]-더라	이젠 잘 기여라
32037-0-4	기- (匍腹)[ㅣ]-으니까	잘 기난 곧 거르키여
32037-0-5	기- (匍腹)[ㅣ]-아/어(았/었다)	그디랑 기영 드리가라
32038-0-1	이- (戴)[ㅣ]-지	머리에 이지 말라
32038-0-2	이- (戴)[ㅣ]-고	머리에 이곡 등에 지곡 헐찌
32038-0-3	이- (戴)[ㅣ]-더라	욕찌 사르미난 머리에 이여라
32038-0-4	이- (戴)[ㅣ]-으니까	머리에 이난 머리가 아파라
32038-0-5	이- (戴)[ㅣ]-아/어(았/었다)	이영 가라
32039-0-1	아니- (否)[ㅣ]-지	그게 아니지 아녀파
32039-0-2	아니- (否)[ㅣ]-고	그게 아니고 이거라마쭈
32039-0-3	아니- (否)[ㅣ]-더라	사라보난 그게 아니라라
32039-0-4	아니- (否)[ㅣ]-으니까	그게 아니난 이거라 마리주게
32039-0-5	아니- (否)[ㅣ]-아/어(았/었다)	아니여 경 말라
32040-0-1	되- (升)[꺠]-지	짐자그로 웨지 말라
32040-0-2	되- (升)[꺠]-고	거 웨곡 말곡 흘 껴 시파
32040-0-3	되- (升)[꺠]-더라	소느로도 잘 웨여라
32040-0-4	되- (升)[꺠]-으니까	웨로 웨난 정웁 쉼 껴여
32040-0-5	되- (升)[꺠]-아/어(았/었다)	웨로 웨영 아정 갑썸
32041-0-1	있- (有)[ㅅ]-지	지비 일찌 마랑 나갑썸게
32041-0-2	있- (有)[ㅅ]-고	그 집 돈 인퐁 말곡
32041-0-3	있- (有)[ㅅ]-더라	강 보민 신디 서라
32041-0-4	있- (有)[ㅅ]-으니까	강 보난 이신 디 이서라
32041-0-5	있- (有)[ㅅ]-아/어(았/었다)	도니 이성 부제여
32042-0-1	놓- (放)[ㅎ]-지	이디 쉼 노치 말라
32042-0-2	놓- (放)[ㅎ]-고	쉐 노콧 썸 갑썸
32042-0-3	놓- (放)[ㅎ]-더라	그 받떠도 쉼 뇌서라
32042-0-4	놓- (放)[ㅎ]-으니까	쉐 노난 도라바삽썸게
32042-0-5	놓- (放)[ㅎ]-아/어(았/었다)	쉐 노양 메기라
32043-0-1	훤- (扱)[ㅍ]-지	보리 홀트지 말라
32043-0-2	훤- (扱)[ㅍ]-고	보리 홀트게 테작커곡 헤사주게
32043-0-3	훤- (扱)[ㅍ]-더라	강 보난 보리 훤탐서라
32043-0-4	훤- (扱)[ㅍ]-으니까	보리 홀트난 밥 지성 머거야주게 머거사주게

32043-0-5 -(扱)[扱]-아/어(았/었다) 보리 훔탕 가게
 32044-0-1 곱:-(麗)[麗]-지 가원 곱찌 아녀다
 32044-0-2 곱:-(麗)[麗]-고 새각씨난 곱꽁 말곡
 32044-0-3 곱:-(麗)[麗]-더라 가의 고와라
 32044-0-4 곱:-(麗)[麗]-으니까 가의 고우난 씨집 조은 디 씨집 갠쭈게
 32044-0-5 곱:-(麗)[麗]-아/어(았/었다) 딸 고완 조키여
 32045-0-1 쥐:-(握)[握]-지 짝 췌지 말라
 32045-0-2 쥐:-(握)[握]-고 췌곡 꿔우곡 케 보라
 32045-0-3 쥐:-(握)[握]-더라 애기 손도 짝 췌에라
 32045-0-4 쥐:-(握)[握]-으니까 짝 췌난 빼지 모터키여
 32045-0-5 쥐:-(握)[握]-아/어(았/었다) 짝 췌영 시라
 32046-0-1 가-(去)[去]-지 그디랑 가지 말라
 32046-0-2 가-(去)[去]-고 가곡 오곡 ㅋ명 만납쭈게
 32046-0-3 가-(去)[去]-더라 가의도 제주시레 감서라
 32046-0-4 가-(去)[去]-으니까 가난 올 쭈 몰라라
 32046-0-5 가-(去)[去]-아/어(았/었다) 그디 강 바양 시라
 32047-0-1 "떡-(食)-지 -고 -더라" 밥 파영 떡찌 말라
 32047-0-2 "떡-(食)-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밥 파영 머저도 베가 고프다
 32048-0-1 "뜯-(摘)-지 -고 -더라" 경 하영 툃찌 말라
 32048-0-2 "뜯-(摘)-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하영 툃다도 나곡 험찌
 32049-0-1 "갈-(如)-지 -고 -더라" 아들 지레 아방 ㄱ뜨곡 말곡
 32049-0-2 "갈-(如)-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성제가 얼구리 ㄱ따도 안 조아라
 32050-0-1 "얕-(淺)-지 -고 -더라" 강 사 보난 무리 야파라
 32050-0-2 "얕-(淺)-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물 야팡 몸 곱찌 모터키여
 32051-0-1 "홀-(散)-지 -고 -더라" 잘 허끄지 아니민 모쓴다
 32051-0-2 "홀-(散)-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잘 허꺼도 용만 드런찌
 32052-0-1 "날:-(飛)-지 -고 -더라" 그 가오리연 잘만 ㄴ라라
 32052-0-2 "날:-(飛)-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그 가오리연 잘 ㄴ란 노피노피 소사라
 32053-0-1 "울:-(泣)-지 -고 -더라" 경 울지 말라
 32053-0-2 "울:-(泣)-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우렁 조은 날 시카
 32054-0-1 "일:-(洵)-지 -고 -더라" 이제랑 일지 마랑 건집서

32070-0-1 "-(切)-지 -고 -더라" 너무 질건 기치지 모터키여
 32070-0-2 "끓-(切)-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머땅 거주만 기창 머그라
 32071-0-1 "괜찮-(無妨)-지 -고 -더라" 이 정도민 켈글치 아니여
 32071-0-2 "괜찮-(無妨)-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
 32072-0-1 "읽-(讀)-지 -고 -더라" 이 책 꺼려완 익찌 모터키여
 32072-0-2 "읽-(讀)-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이긴 외왕 도라사민 곧 이저부러
 32073-0-1 "뽏-(澆)-지 -고 -더라" 이 가문 조락찌지 아니
 32073-0-2 "뽏-(澆)-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이 가문 너무 쪼락쩨 몬머키여
 32074-0-1 "옮-(遷)-지 -고 -더라" 마근 방에 집 웅기지 말라
 32074-0-2 "옮-(遷)-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마근 방에 집 웅경 덕 볼 툄 언따 언나
 32075-0-1 "똥-(貫)-지 -고 -더라" 먹또른 고망 툄르지 모턴다
 32075-0-2 "똥-(貫)-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고망 큰큰너게 툄랑 모쓴다
 32076-0-1 "끓-(蝸)-지 -고 -더라" 흙불로 꼴리지 말라
 32076-0-2 "끓-(蝸)-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오래 꼴렁 아지민 발 자린다
 32077-0-1 "닿-(扞 연필 심이)-지 -고 -더라" 하영 다이지 모트게 허라
 32077-0-2 "닿-(扞 연필 심이)-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너미 다영 모쓰키여
 32078-0-1 "닿-(煎 술에서 장이)-지 -고 -더라 하영 딸리지 말라
 32078-0-2 "닿-(煎 술에서 장이)-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하영 딸런 나맡찌
 32079-0-1 "짜-(鹽)-지 -고 -더라" 장맡또 짜고 손맡또 짜고 몬머키여
 32079-0-2 "짜-(鹽)-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너미 짱 물레 헤와사키여
 32080-0-1 "말-(捲)-지 -고 -더라" 그 명석 물지 마랑 페우라
 32080-0-2 "말-(捲)-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툄툄 므랑 저디 잘 세와두라
 32081-0-1 "쓰-(書)-지 -고 -더라" 이젠 글 잘 쓰지 모트키여
 32081-0-2 "쓰-(書)-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글 썩 놔두민 어서지곡 어서지곡 헤여
 32082-0-1 "오르-(登)-지 -고 -더라" 울르지 모터는 낭 쳐다보지 말라
 32082-0-2 "오르-(登)-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오르메 올랑 보민 가스미 다 씨원헤여
 32083-0-1 "바쁘-(忙)-지 -고 -더라" 살당 보민 손도 바쁘곡 입또 바쁘곡 헤
 여
 32083-0-2 "바쁘-(忙)-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요센 바쁘 경 모테여마썸
 32084-0-1 "고프-(餓)-지 -고 -더라" 베 고프지 아녀걸렁 먹찌 말라
 32084-0-2 "고프-(餓)-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베 고프 갠찌 모터쿠다

32085-0-1 " (射)-지 -고 -더라" 조근 꿩이랑 쏘오지 말라
32085-0-2 "쏘-(射)-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총으로 쏘양 자븐 꿩은 화약 냄새 난다
32086-0-1 "꾸-(夢)-지 -고 -더라" 자당 보든 꿈도 꾸꼭 혜 집디다
32086-0-2 "꾸-(夢)-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오닐랑 조은 꿈 꿩 십씨
32087-0-1 "머무르-(留)-지 -고 -더라" 그디 가걸랑 오래 머지지 말라
32087-0-2 "머무르-(留)-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그리 오래 머정 이익텔 꺼 어수다
32088-0-1 "다듬-(整)-지 -고 -더라" 잘 다듬찌 아녕 풀지 모터쿠다
32088-0-2 "다듬-(整)-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사가커메 잘 다드망 놔둬씨
32089-0-1 "견디-(忍)-지 -고 -더라" 오래 전디지 모터쿠다
32089-0-2 "견디-(忍)-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경해도 오래 전디어 보라
32090-0-1 "말리-(裁)-지 -고 -더라" 운 잘 몰르지 모터키여
32090-0-2 "말리-(裁)-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잘 몰랑 남능 게 얻찌
32091-0-1 "끼-(烟鎖 안개가)-지 -고 -더라" 으나미 지지아녀민 흰 혈 건디
32091-0-2 "끼-(烟鎖 안개가)-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안개가 지지 아녀민 흰혈 건디
32092-0-1 "마시-(飲)-지 -고 -더라" 그피게 마시지 마랑 천처니 머거라
32092-0-2 "마시-(飲)-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경 마성 베타탈 나라
32093-0-1 "세:-(強)-지 -고 -더라" 싸울 때 췌지 모터민 중는 겁쭈
32093-0-2 "세:-(強)-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벼름 췌영 바당에 모가쿠다
32094-0-1 "포개-(重疊)-지 -고 -더라" 포 노꼭 포 노코 커당 씨러진다
32094-0-2 "포개-(重疊)-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그르슨 포 낭 먹찌 아년다
32095-0-1 "두드리-(敲)-지 -고 -더라" 노픈 디랑 두드리곡 두드리곡 크라
32095-0-2 "두드리-(敲)-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경 두두령 카지카 마씀
32096-0-1 "켜-(點燈)-지 -고 -더라" 불 흰너게 싸지 모테수다
32096-0-2 "켜-(點燈)-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불 흰허게 쌍 시민 막 풀라옴네게
32097-0-1 "췌:-(바람을)-지 -고 -더라" 노픈 디 올라강 벼름 잘 췌우곡 크라
32097-0-2 "췌:-(바람을)-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노픈 디 올라강 벼름 잘 췌우곡 크라

췌왕 드리라

- 32098-0-1 "쇠-(老)-지 -고 -더라" 이 받떡 새우리는 세지 아네여
- 32098-0-2 "쇠-(老)-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너미 새영 몬 먹키여
- 32099-0-1 "취:-(醴)-지 -고 -더라" 밥 취지 말게 브름 발랑 놔 두라
- 32099-0-2 "취:-(醴)-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이 밥 취영 몬머키여
- 32100-0-1 "희-(白)-지 -고 -더라" 손도 혜영 허고 양지도 혜영 허고
- 32100-0-2 "희-(白)-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연날 눈 노민 세상 천지가 허영헤 나서
- 32101-0-1 "볶-(炒)-지 -고 -더라" 보리 보끄지 모터키여
- 32101-0-2 "볶-(炒)-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콩도 보깡 먹꼭 꿩도 보깡 먹꼬 헤나수
다
- 32102-0-1 "안:-(抱)-지 -고 -더라" 너미 켌 안찌 모터키여
- 32102-0-2 "안:-(抱)-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잘 아낭 시민 텐다
- 32103-0-1 "묻-(埋)-지 -고 -더라" 잘 묻찌 아녀민 써거분다
- 32103-0-2 "묻-(埋)-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땅에 잘 무덩 놔두라
- 32104-0-1 "불:-(吹)-지 -고 -더라" 이부로 불곡 부체로 푸꺼도 부리 꺼저
- 32104-0-2 "불:-(吹)-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불미 부렁 담배 먹게
- 32105-0-1 "빨-(洗濯)-지 -고 -더라" 이 이불 너미 켌 빨지 모터키여
- 32105-0-2 "빨-(洗濯)-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잘 빨랑 너러두라
- 32106-0-1 "죽-(死)-지 -고 -더라" 이 보린 죽찌 아녀수다
- 32106-0-2 "죽-(死)-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이 보린 너미 주건 깡 안주키여
- 32107-0-1 "걸:-(步)-지 -고 -더라" 너미 거런 더 이상 걸찌 모터쿠다
- 32107-0-2 "걸:-(步)-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버데 거렁 걸라
- 32108-0-1 "가물-(旱)-지 -고 -더라" 올린 ㄱ물지 아네수다
- 32108-0-2 "가물-(旱)-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올린 너미 ㄱ무랑 농사가 안 데에수다
- 32109-0-1 "졸:-(睡)-지 -고 -더라" 자인 아잠따 허민 졸지 아녀민 자는 거
라
- 32109-0-2 "졸:-(睡)-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조랑 졸 툷 언나
- 32110-0-1 "쓸-(掃)-지 -고 -더라" 오스로 코 쓸곡 켜찌
- 32110-0-2 "쓸-(掃)-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구둑 광광 나는 디 쓰렁 무시거 헐 티
- 32111-0-1 "감:-(捲)-지 -고 -더라" 얼레예 썰 감꼭감꼭 커라
- 32111-0-2 "감:-(捲)-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썰패에 썰 가망 나누라
- 32112-0-1 "더듬-(摸)-지 -고 -더라" 이레저레 더듬찌 말라
- 32112-0-2 "더듬-(摸)-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거 더드멍 츠자지민 다행이주

- 32113-0-1 "굽:-(炙)-지 -고 -더라" 이 불로 굽찌 모터키여
32113-0-2 "굽:-(炙)-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잘 구웁 머급써
32114-0-1 "무겁-(重)-지 -고 -더라" 베지 아녀민 들렁 갈 건디
32114-0-2 "무겁-(重)-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베영 저지카
32115-0-1 "잇:-(連)-지 -고 -더라" 너미 졸란 인찌 모터키여
32115-0-2 "잇:-(連)-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혼 가다그로 이성 놔두라
32116-0-1 "빗-(梳)-지 -고 -더라" 얼레기 어선 빗찌 모터키여
32116-0-2 "빗-(梳)-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머리 비성 이시라
32117-0-1 "까망-(黑)-지 -고 -더라" 머리가 어떻 까망허지 아녀다
32117-0-2 "까망-(黑)-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머리도 가망 눈도 가망
32118-0-1 "넣-(入)-지 -고 -더라" 그디도 노코 노콕커단 보난 ㄹ드가비런
32118-0-2 "넣-(入)-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문 넣 아정 가라
32119-0-1 "고:-(煮)-지 -고 -더라" 그디가 노콕 노콕커단 보안 다 ㄹ드가비
연
32119-0-2 "고:-(煮)-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문 노양 아정 가라
32120-0-1 "엎-(載)-지 -고 -더라" 술 다끄곡 풀곡 켜 사람찌
32120-0-2 "엎-(載)-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술 다간 사람찌
32121-0-1 "귀찮-(囑)-지 -고 -더라" 소님 오민 귀차녀곡 하주마는 흘 쑤 어
따
32121-0-2 "귀찮-(囑)-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소님 오민 귀차녀 흥지 말라
32122-0-1 "바르-(剔 생선 뼈를)-지 -고 -더라" 커부난 불르지 모터키여
32122-0-2 "바르-(剔 생선 뼈를)-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가시 불랑 소곰헐땅 구웁 머급써
32123-0-1 "맑-(淸)-지 -고 -더라" 하느리 물간 나리 조키여
32123-0-2 "맑-(淸)-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하느리 목찌 모터다
32124-0-1 "굵:-(膿)-지 -고 -더라" 아직 곱찌 아녜찌
32124-0-2 "굵:-(膿)-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이제사 곱망 터절찌
32125-0-1 "굵:-(太)-지 -고 -더라" 존준형 게 혹찌 아녀다
32125-0-2 "굵:-(太)-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너미 훌건 벌러사 머그키여
32126-0-1 "얇:-(薄)-지 -고 -더라" 이 판테긴 얇꼬 걸다
32126-0-2 "얇:-(薄)-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이 판테긴 알루곡 걸다

32126-0-2 " :- (薄) -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이 판데긴 알방 모씨키여

32127-0-1 "쑤- (春) -지 -고 -더라" 방에 지지 모터키여

32127-0-2 "쑤- (春) -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잘 백상 머급썰

32128-0-1 "잃- (失) -지 -고 -더라" 이버니랑 여불지 말라

32128-0-2 "잃- (失) -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자주 여비영 안테키여

32129-0-1 "핥- (舐) -지 -고 -더라" 할트지 마랑 뽀랑 머그라

32129-0-2 "핥- (舐) -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몬 할탕 머그라

32130-0-1 "짧- (短) -지 -고 -더라" 이서도 졸르곡 허난 모쓰키여

32130-0-2 "짧- (短) -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너미 졸란 모쓰키여

32131-0-1 "놀라- (驚) -지 -고 -더라" 경 놀래지 말라

32131-0-2 "놀라- (驚) -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너미 놀래영 모쌀쿠다

32132-0-1 "자- (宿) -지 -고 -더라" 자지마랑 일협썰

32132-0-2 "자- (宿) -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경 장 어평허젠 험수과

32133-0-1 "못:하- (不爲) -지 -고 -더라" 일 모트곡 기냥 와수다

32133-0-2 "못:하- (不爲) -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일 모테영 어평허코마썰

32134-0-1 "모르- (不知) -지 -고 -더라" 알카부텐 허난 경도 몰라라

32134-0-2 "모르- (不知) -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그건 몰랑 조수다

32135-0-1 "아프- (痛) -지 -고 -더라" 아프지 맵썰

32135-0-2 "아프- (痛) -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아팡 조을 이리 이수과

32136-0-1 "크- (大) -지 -고 -더라" 경 크지 아너우다

32136-0-2 "크- (大) -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너미 썩 모띠부쿠다

32137-0-1 "꼬- (索 새끼를) -지 -고 -더라" 웬스끼 꼬지 말라

32137-0-2 "꼬- (索 새끼를) -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스끼 팡 놔두라

32138-0-1 "쭈- (造粥) -지 -고 -더라" 아직 깰장 미음 쭈지 모테수다

32138-0-2 "쭈- (造粥) -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오늘랑 폰쭈 썰 머급쭈

32139-0-1 "맞추- (組合) -지 -고 -더라" 잘 마추우지 모터키여

32139-0-2 "맞추- (組合) -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잘 마썰 놔두라

32140-0-1 "데우- (悟) -지 -고 -더라" 데우곡 뉘치우곡 헤영 먹게

32140-0-2 " -(焔)-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이싱 거만 데왕 먹계

32141-0-1 "이:-(盖 지붕을)-지 -고 -더라" 빚름 부렁 집 빨지 모터키여

32141-0-2 "이:-(盖 지붕을)-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초집 잘 이렁 뇌두라

32142-0-1 "갈기-(打)-지 -고 -더라" 비당 버치몬 ㄱ리곡 커주

32142-0-2 "갈기-(打)-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경 ㄱ령 힘든다

32143-0-1 "기다리-(待)-지 -고 -더라" 경 오래 지드리지 말라

32143-0-2 "기다리-(待)-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지드령 올 싸르미몬 조케

32144-0-1 "세:-(算)-지 -고 -더라" 너미 한 세지 모터키여

32144-0-2 "세:-(算)-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문드리지 마랑 세영 나누라

32145-0-1 "빼-(拔)-지 -고 -더라" 지피 드리간 빠지 모터키여

32145-0-2 "빼-(拔)-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출 무채로 빵 줍써

32146-0-1 "켜-(툽을)-지 -고 -더라" 너미 싸지 맵써

32146-0-2 "켜-(툽을)-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너미 알롭게 싸지 맵써

32147-0-1 "되:-(硬)-지 -고 -더라" 그 낭 잘 쌍 뇌두라

32147-0-2 "되:-(硬)-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물 비우멍 돼지 아녀게 험써

32148-0-1 "쉬:-(休)-지 -고 -더라" 너미 돼연 질찌 모터쿠다

32148-0-2 "쉬:-(休)-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일 한 쉬지 모터키여

32149-0-1 "할퀴-(搔)-지 -고 -더라" 어디서 쉬영 가게

32149-0-2 "할퀴-(搔)-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ㄱ쭈왕 텔 마리우파

32150-0-1 "놀이:-(焦)-지 -고 -더라" 놀지 모터게 저스라

32150-0-2 "놀이:-(焦)-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자꾸 누렁 몬 찌지쿠다

32151-0-1 "깨달-(覺)-지 -고 -더라" 잘 깨뜰찌 모터키여

32151-0-2 "깨달-(覺)-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잘 깨드랑 다음부터 멩심헨라

32152-0-1 "마렵-(오줌이)-지 -고 -더라" 아지근 오줌 ㄱ렵찌 아녀다

32152-0-2 "마렵-(오줌이)-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오줌 ㄱ르완 흠찌 모터키여

32153-0-1 "부끄럽-(恥)-지 -고 -더라" 이젠 부치렵찌 아녀다

32153-0-2 "부끄럽-(恥)-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경 비치루왕 씨집 가지카

32154-0-1 "가깝-(近)-지 -고 -더라" 가깝찌 아녀다

32154-0-2 "가깝-(近)-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경 가차왕 조쿠다

32155-0-1 " -(深)-지 -고 -더라" 경 지푸지 아녀다
 32155-0-2 "깊-(深)-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물 지평 몬 너무쿠다
 32156-0-1 "긔:- (劃)-지 -고 -더라" 줄바로 글찌 모터키여
 32156-0-2 "긔:- (劃)-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그믐 잘 그성 놔두라
 32157-0-1 "씻-(洗)-지 -고 -더라" 잘 씨찌지 모터키여
 32157-0-2 "씻-(洗)-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잘 시청 놔두라
 32158-0-1 "짱-(搗)-지 -고 -더라" 이젠 방에 질찌 모터키여
 32158-0-2 "짱-(搗)-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갈 올똥안 방에 지영 놔두라
 32159-0-1 "꺠:- (擻)-지 -고 -더라" 잘 글그지 모터키여
 32159-0-2 "꺠:- (擻)-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잘 글경 놔두라
 32160-0-1 "꺠:- (飢)-지 -고 -더라" 때랑 굶찌 말라
 32160-0-2 "꺠:- (飢)-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경 골멍 사라지느냐
 32161-0-1 "달:- (似)-지 -고 -더라" 아방 달찌 아녀다
 32161-0-2 "달:- (似)-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어멍 달망 곱딱허다
 32162-0-1 "싫-(厭)-지 -고 -더라" 일 실프지 아노민 부제로 산다
 32162-0-2 "싫-(厭)-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일 실평 어멍 살코
 32163-0-1 "꺠:- (輓)-지 -고 -더라" 소고메 놔두민 고리지 아녀다
 32163-0-2 "꺠:- (輓)-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고령 몬먹키여
 32164-0-1 "붓:- (注)-지 -고 -더라" 잘 비우지 모터키여
 32164-0-2 "붓:- (注)-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몬 비왕 놔두라
 32165-0-1 "타-(乘)-지 -고 -더라" 잘 타지 모터키여
 32165-0-2 "타-(乘)-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뭇 잘 탕 가라
 32166-0-1 "마르-(乾)-지 -고 -더라" 비 완 뭇류지 모터키여
 32166-0-2 "마르-(乾)-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잘 뭇류왕 다무라
 32167-0-1 "쓰-(苦)-지 -고 -더라" 이 야근 쓰지 아녀다
 32167-0-2 "쓰-(苦)-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이베 썩 조은 야기여
 32168-0-1 "슬프-(哀)-지 -고 -더라" 이젠 슬푸지 아녀다
 32168-0-2 "슬프-(哀)-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막 슬평 모쌀키여
 32169-0-1 "기쁘-(喜)-지 -고 -더라" 막 지꺼지지 아녀다
 32169-0-2 "기쁘-(喜)-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막 지꺼진 추미라도 취사키여
 32170-0-1 "쏘-(蝨 벌이)-지 -고 -더라" 벌초 갈똥 버레 쏘이지 말라
 32170-0-2 "쏘-(蝨 벌이)-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막 버리 쏘완 모쌀쿠다

32171-0-1 " -(與)-지 -고 -더라" 하영 주지 모터키여
32171-0-2 "주-(與)-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하영 췌 놔두민 다 도라온다
32172-0-1 "키우-(飼育)-지 -고 -더라" 이젠 버친 질루지 모터키여
32172-0-2 "키우-(飼育)-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잘 질루왕 프라살 꺾디
32173-0-1 "가두-(囚)-지 -고 -더라" 도새기 기어난 가두우지 모트키여
32173-0-2 "가두-(囚)-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잘 가두왕 놔두민 귀어나곡 귀어나곡
32174-0-1 "부수-(碎)-지 -고 -더라" 잘 부수우지 모터키여
32174-0-2 "부수-(碎)-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잘 부왕 놔두라
32175-0-1 "나누-(分)-지 -고 -더라" 골고루 갈르지 모터키여
32175-0-2 "나누-(分)-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고로로 욱 뜯찌 아넨다
32176-0-1 "속이-(欺)-지 -고 -더라" 놉 췌기지 말라
32176-0-2 "속이-(欺)-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뵈 세경 프랑 잘 뵈는 버비 어따
32177-0-1 "끼-(插)-지 -고 -더라" 그 추겐 끼지 모터쿠다
32177-0-2 "끼-(插)-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그 추게 끼영 무신 일을 허젠 햄싱고
32178-0-1 "튀-(跳)-지 -고 -더라" 잘 튀지 모터키여
32178-0-2 "튀-(跳)-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경 튀영 도망가도 자필 꺼
32179-0-1 "괴:-(滄)-지 -고 -더라" 물 골르리 아넨다
32179-0-2 "괴:-(滄)-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물 하영 골라 놔두민 췌들 멩나
32180-0-1 "여위-(癩)-지 -고 -더라" 경 줄지 안헐찌
32180-0-2 "여위-(癩)-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경 주렁 사라지느냐
32181-0-1 "맵-(辛)-지 -고 -더라" 경 맵찌 아너다
32181-0-2 "맵-(辛)-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너미 메완 몬먹쿠다
32182-0-1 "뀌:-(屁)-지 -고 -더라" 똥 꾸지 말라
32182-0-2 "뀌:-(屁)-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똥 꾸영 시원허키여
32183-0-1 "고치-(改)-지 -고 -더라" 잘 고찌지 모터키여
32183-0-2 "고치-(改)-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잘 고청 쓰라
32184-0-1 "싣:-(載)-지 -고 -더라" 잘 시끄지 모터키여
32184-0-2 "싣:-(載)-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잘 시경 가라
32185-0-1 "얻:-(得)-지 -고 -더라" 이젠 어서부난 얻찌 모터키여

- 32185-0-2 " :-(得)-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거 어덩 무시거 허쿠과
- 32186-0-1 "뿡-(粉碎)-지 -고 -더라" 급딱허게 뿡찌 모터키여
- 32186-0-2 "뿡-(粉碎)-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잘 뻥상 머급써
- 32187-0-1 "파랑-(碧)-지 -고 -더라" 경 파랑허지 아노다
- 32187-0-2 "파랑-(碧)-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치메 파랑헨 막 곱따
- 32187-0-2 "파랑-(碧)-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경 파랑허지 아너다
- 32187-0-2 "파랑-(碧)-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치메 파랑헨 막 곱따
- 32188-0-1 "다르-(異)-지 -고 -더라" 생가기 나광 트나지 아너다
- 32188-0-2 "다르-(異)-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부베 생가기 딱냥 테쿠과
- 32189-0-1 "푸-(汲)-지 -고 -더라" 잘 푸지 모터키여
- 32189-0-2 "푸-(汲)-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잘 평 갑써
- 32190-0-1 "누-(尿)-지 -고 -더라" 머금 거 어션 잘 싸지 모터키여
- 32190-0-2 "누-(尿)-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잘 뉘동 갑써, 잘 쌍 갑써
- 32191-0-1 "더:럽-(汚)-지 -고 -더라" 경 더럽찌 아너다
- 32191-0-2 "더:럽-(汚)-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경 더러왕 모띠부키여
- 32192-0-1 "거두-(收)-지 -고 -더라" 잘 거두우지 모터키여
- 32192-0-2 "거두-(收)-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잘 거두왕 가라
- 32193-0-1 "끓-(沸)-지 -고 -더라" 아직 꿰지 아널찌
- 32193-0-2 "끓-(沸)-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잘 꿰영 두깁이 더경 놔두라
- 32194-0-1 "이기-(勝)-지 -고 -더라" 즌식 이기지 모턴다
- 32194-0-2 "이기-(勝)-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즌식 이경 머 혈 꺼라
- 32195-0-1 "부시-(照)-지 -고 -더라" 봄빼시라도 경 저급따너다
- 32195-0-2 "부시-(照)-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눈 저구완 눈 모뜨키여

32196-0-1 " -(後倒)-지 -고 -더라" 세왕 뒤도 잘 자빠지지 아넨다
32196-0-2 "자빠지-(後倒)-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자꾸 자빠정 모헤여보쿠다
32197-0-1 "일으키-(使起)-지 -고 -더라" 경 빨리 일리지 말라
32197-0-2 "일으키-(使起)-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일령 안쩌두민 또 드러녕 자부려
32198-0-1 "당기-(引)-지 -고 -더라" 바짝허게 등기지 모터키여
32198-0-2 "당기-(引)-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잘 등경 무끄라
32199-0-1 "버리-(捨)-지 -고 -더라" 이걸랑 데끼지 마랑 시라
32199-0-2 "버리-(捨)-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이긴 데경 새로 사게
32200-0-1 "훔치-(盜)-지 -고 -더라" 아저가지 모터게 지커라
32200-0-2 "훔치-(盜)-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노미 꺼 아저 강 절 모싼다
32201-0-1 "지-(負)-지 -고 -더라" 문딱 지게에 낵 지지 모터키여
32201-0-2 "지-(負)-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문 정 걸라, 문 지영 걸라
32202-0-1 "외:-(暗誦)-지 -고 -더라" 글 잘 에우지 모터키여
32202-0-2 "외:-(暗誦)-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에왕 시탕도 이저부려
32203-0-1 "사귀-(交際)-지 -고 -더라" 놉광 잘 사귀지 모터키여
32203-0-2 "사귀-(交際)-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놉 잘 사경 두라
32204-0-1 "씩-(腐)-지 -고 -더라" 소곰 쏘고베 놉두민 썩찌 아넨다
32204-0-2 "씩-(腐)-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시상에 썩정 조응 게 시카
32205-0-1 "질-(泥)-지 -고 -더라" 비 와도 이 바순 질지 아너다
32205-0-2 "질-(泥)-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너미 지령 목깔키여
32206-0-1 "까불-(箕)-지 -고 -더라" 븃름 어성 푸지 모터키여
32206-0-2 "까불-(箕)-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잘 평 푸데에 다무라
32207-0-1 "드물-(稀)-지 -고 -더라" 경 등글지 아너다
32207-0-2 "드물-(稀)-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경 등구령 농사 데카
32208-0-1 "줄:-(縮)-지 -고 -더라" 머거도 머거도 줄지 아넨찌
32208-0-2 "줄:-(縮)-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주령 인꾸나

- 32209-0-1 "심:-(植)-지 -고 -더라" 낭 잘 싱그지 모터키여
32209-0-2 "심:-(植)-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이제 싱경 살카
- 32210-0-1 "쓰다듬-(撫)-지 -고 -더라" 머리 느르쓸지 아네도 조타
32210-0-2 "쓰다듬-(撫)-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머리 느리쓰렁 말텡 허카이
- 32211-0-1 "사:납-(猛)-지 -고 -더라" 경 싸무랍찌 아녀다
32211-0-2 "사:납-(猛)-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경 싸무라왕 씨집 까지카
- 32212-0-1 "가볍-(輕)-지 -고 -더라" 정 보난 계법찌 아녀다
32212-0-2 "가볍-(輕)-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너무 게벼완 모미 항걸허다
- 32213-0-1 "젓:-(擄)-지 -고 -더라" 경 막 질찌 말라
32213-0-2 "젓:-(擄)-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경 저성 놀지 아녀크나
- 32214-0-1 "두껍-(厚)-지 -고 -더라" 경 막 두답찌 아녀다
32214-0-2 "두껍-(厚)-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경 두더왕 드리가지 아녀다
- 32215-0-1 "무르-(軟)-지 -고 -더라" 저 사름 경 몰르지 아녀다
32215-0-2 "무르-(軟)-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경 물렁 사라지카
- 32216-0-1 "분지르-(折)-지 -고 -더라" 둘로 분질르지 모터키여
32216-0-2 "분지르-(折)-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둘로 딱 분질런 가부런
- 32217-0-1 "배우-(學)-지 -고 -더라" 배우지 모턴 사라미로고
32217-0-2 "배우-(學)-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배왕 놉 주지 아녀다
- 32218-0-1 "다리-(躄)-지 -고 -더라" 잘 다리지 모터키여
32218-0-2 "다리-(躄)-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은 잘 다령 이브라
- 32219-0-1 "후비-(窠 귀를)-지 -고 -더라" 귀 쭈시지 말라
32219-0-2 "후비-(窠 귀를)-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귀 경 쭈성 아푸지 아녀냐
- 32220-0-1 "아리-(痛)-지 -고 -더라" 손 알리지 아네수다
32220-0-2 "아리-(痛)-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알런 밤새낭 혼나수다
32221-0-1 "그리-(畵)-지 -고 -더라" 그림 잘 그리지 모터키여
32221-0-2 "그리-(畵)-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그림 잘 그렁 저레 걸라
32222-0-1 "저리-(癡)-지 -고 -더라" 경 오래 아장 다리 자리지 아녀냐
32222-0-2 "저리-(癡)-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흐끔 흐믄 다리 자령 모쌀쿠다
32223-0-1 "불리-(擧)-지 -고 -더라" 수정 불리지 모터키여
32223-0-2 "불리-(擧)-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수정 불령 프라 먹께
32224-0-1 "뜨시-(濶)-지 -고 -더라" 구드리 경 뜨시지 아녀다
32224-0-2 "뜨시-(濶)-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날 뜨산 굴 낄찌 아녀도 테키여
32225-0-1 "끓이-(使沸)-지 -고 -더라" 물리 부작케연 잘 췌우지 모터키여
32225-0-2 "끓이-(使沸)-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물 잘 췌왕 머그라
32226-0-1 "누비-(縫)-지 -고 -더라" 잘 누비지 모터키여
32226-0-2 "누비-(縫)-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운 잘 누병 이부라
32227-0-1 "구기-(皺)-지 -고 -더라" 운 꾸기지 말라
32227-0-2 "구기-(皺)-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운 꼬부레미 지게 말라
32228-0-1 "비:-(空)-지 -고 -더라" 그 집 아직 비지 아넬찌
32228-0-2 "비:-(空)-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집 비왕 나텡이지 말라
32229-0-1 "식히-(使冷)-지 -고 -더라" 이거 시기지 마랑 머그라
32229-0-2 "식히-(使冷)-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잘 시경 먹어사 허주
32230-0-1 "매-(除草)-지 -고 -더라" 조침 아장 검질 메지 모터키여
32230-0-2 "매-(除草)-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재기 검질 메영 가께
32231-0-1 "매:-(結)-지 -고 -더라" 잘 매지 모터쿠다
32231-0-2 "매:-(結)-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잘 매영 두라
32232-0-1 "뛰-(走)-지 -고 -더라" 경 뛰지 말라

32232-0-2 " -(走)-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경 뛰영 조아혈 싸름 언따
32233-0-1 "담:-(盛)-지 -고 -더라"	경 하영 담찌 말라
32233-0-2 "담:-(盛)-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경 다망 저 지카
32234-0-1 "가렵-(癢)-지 -고 -더라"	경 ㄱ릅찌 안헌다
32234-0-2 "가렵-(癢)-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막 ㄱ르완 모쌀키여
32235-0-1 "때리-(打)-지 -고 -더라"	경 딱리지 말라
32235-0-2 "때리-(打)-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경 딱령 아프느냐
32236-0-1 "어둡-(暗)-지 -고 -더라"	아직 경 어둑찌 아니헨찌
32236-0-2 "어둡-(暗)-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눈 어두경 잘 베리지 모터키여
32237-0-1 "잡-(執)-지 -고 -더라"	하영 심찌 모터키여
32237-0-2 "잡-(執)-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하영 시멍 먹찌 모턴다
32238-0-1 "차-(蹴)-지 -고 -더라"	멀리 차지 모터키여
32238-0-2 "차-(蹴)-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멀리 창 드르라
32239-0-1 "모자라-(不足)-지 -고 -더라"	하영 모지레지 아너다
32239-0-2 "모자라-(不足)-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흐솔 모지레영 부작کمذ 커다
32240-0-1 "부르-(呼)-지 -고 -더라"	사름 잘 불루지 모터키여
32240-0-2 "부르-(呼)-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불미 부령 담배 먹께
32241-0-1 "따르-(注)-지 -고 -더라"	사름 잘 불루지 모터키여
32241-0-2 "따르-(注)-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저 사름 불령 가게
32242-0-1 "쫓:-(啄)-지 -고 -더라"	주룩커게 잘 비우지 모터키여
32242-0-2 "쫓:-(啄)-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잘 비왕 아정 오라
32243-0-1 "두-(置)-지 -고 -더라"	잘 좃찌 모터키여
32243-0-2 "두-(置)-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잘 조상 머그라
32244-0-1 "시키-(使)-지 -고 -더라"	잘 두지 아너민 일러분다

32267-0-1 " (被折)-지 -고 -더라" 두 도마그로 뿌러지지 말게 흡써
32267-0-2 "부러지-(被折)-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이젠 뿌러전 모쓰쿠다
32268-0-1 "다치-(傷)-지 -고 -더라" 크게 다치지 말게 험써
32268-0-2 "다치-(傷)-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손 다친 일 모터쿠다
32269-0-1 "느리-(緩)-지 -고 -더라" 사름 따랑 늘리곡 백르곡 킵니다
32269-0-2 "느리-(緩)-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너미 느런 모쌀쿠다
32270-0-1 "무치-(和 나물을)-지 -고 -더라" 너무 싸게 무치지 맵써
32270-0-2 "무치-(和 나물을)-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이 애기노물랑 무칭 머급써
32271-0-1 "죄:-(縮)-지 -고 -더라" 확 췌지 맵써
32271-0-2 "죄:-(縮)-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확 췌영 아저 가븍써
32272-0-1 "팔-(賣)-지 -고 -더라" 너무 싸게랑 풀지 맵써
32272-0-2 "팔-(賣)-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싸게 푼랑 갑써
32273-0-1 "뽑-(選)-지 -고 -더라" 이 아푸게 븍찌 맵써
32273-0-1 "뽑-(選)-지 -고 -더라" 그 사름 이장으로 뽑찌 맵써
32273-0-2 "뽑-(選)-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그 사름 이장으로 뽑방 읍써
32274-0-1 "뒤지-(索)-지 -고 -더라" 막 뒤이지 맵써
32274-0-2 "뒤지-(索)-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여기저기 막 뒤영 가서라
32275-0-1 "마치-(終)-지 -고 -더라" 오늘 다 모끄지 모터미여
32275-0-2 "마치-(終)-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경해도 다 모깡 가삽주
32276-0-1 "절이-(鹽)-지 -고 -더라" 베치 잘 주기지 모터키여
32276-0-2 "절이-(鹽)-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베치 잘 주경 짐치 흡써
32277-0-1 "휘-(曲)-지 -고 -더라" 막 휘지 모터쿠다
32277-0-2 "휘-(曲)-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막 휘양 자바 무깝써
32278-0-1 "줍:-(拾)-지 -고 -더라" 이석 하영 준찌 모터키여
32278-0-2 "줍:-(拾)-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하영 주성 거름씨

32279-0-1 "빼앗-(奪)-지 -고 -더라" 아이 꺼 빼여안찌 맵씨
32279-0-2 "빼앗-(奪)-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아이꺼 빼아상 가미파

32280-0-1 "기울-(傾)-지 -고 -더라" 잘 자울지 모터키여
32280-0-2 "기울-(傾)-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잘 자우령 비우라

32281-0-1 "아깝-(惜)-지 -고 -더라" 웨아드리난 아깝지 아녀쿠과
32281-0-2 "아깝-(惜)-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을큰헨 주거지키여

32282-0-1 "반갑-(歡)-지 -고 -더라" 자주 오난 반갑찌 아녀다
32282-0-2 "반갑-(歡)-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막 방가완 마당까지 나오란 인사혜연

32283-0-1 "찌-(蒸)-지 -고 -더라" 설게 치지 말라
32283-0-2 "찌-(蒸)-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설게 청 먹찌 모턴다

32284-0-1 "노랑-(黃)-지 -고 -더라" 노랑허지 아녀다
32284-0-2 "노랑-(黃)-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양지도 노랑 손도 노랑 어디 아풍 거라

32285-0-1 "푸르-(靑)-지 -고 -더라" 막 푸리지 아녀다
32285-0-2 "푸르-(靑)-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막 푸런 어떻 이상허다

32286-0-1 "서두르-(忙)-지 -고 -더라" 경 서둘르지 말라
32286-0-2 "서두르-(忙)-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경 서둘령 웰 리리 아녀여

32287-0-1 "서투르-(不熟)-지 -고 -더라" 일 경 서툴지 아녀다
32287-0-2 "서투르-(不熟)-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일 서투령 일 시기지 모터키여

32288-0-1 "게으르-(怠)-지 -고 -더라" 게을리지 밀 하여 시기라
32288-0-2 "게으르-(怠)-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게을령 일 시기지 모터키여

32289-0-1 "따뜻하-(溫)-지 -고 -더라" 딱딱터고 브름도 연찌
32289-0-2 "따뜻하-(溫)-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등이 딱딱테연 보미 완찌

32290-0-1 "춡-(寒)-지 -고 -더라" 얼지 아녀게 잘 끄리라
32290-0-2 "춡-(寒)-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어린 모쌀키여

32291-0-1 "뜨겁-(極熱)-지 -고 -더라" 막 뜨겁찌 아녀다
32291-0-2 "뜨겁-(極熱)-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너미 뜨거완 몬먹키여

32292-0-1 "미지근하-(微溫)-지 -고 -더라" 국또 미지근허고 맘또 미지근허다
32292-0-2 "미지근하-(微溫)-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미지근헨연 재기 머거사키여

32293-0-1 "차갑-(寒)-지 -고 -더라" 막 실릅찌 말게 끌리라
32293-0-2 "차갑-(寒)-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너미 실르완 몬먹키여

32294-0-1 "부럽-(羨)-지 -고 -더라" 이젠 놈 불릅찌 아녀다
32294-0-2 "부럽-(羨)-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그 사름 불르완 주거지크라라
32295-0-1 "알밋-(憎)-지 -고 -더라" 너미 알밋찌 아녀민 조키여마는
32295-0-2 "알밋-(憎)-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너미 알미언 주거지키여

32296-0-1 "비슷하-(類似)-지 -고 -더라" 이걸팡 저걸팡 비스터지 아년팡
32296-0-2 "비슷하-(類似)-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너미 비스테연 바파가키여

32297-0-1 "새롭-(新)-지 -고 -더라" 씨집오난 집또 새롭꼬 사름도 새롭꼭 케
라
32297-0-2 "새롭-(新)-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새 사르미난 새로왕 조추

32298-0-1 "서:럽-(悲痛)-지 -고 -더라" 누게나 서릅찌 말게 허라
32298-0-2 "서:럽-(悲痛)-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너미 서르완 모쌀키여

32299-0-1 "까다롭-(難)-지 -고 -더라" 경 까드랍찌 말랭 허라
32299-0-2 "까다롭-(難)-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너미 까드라완 번 터는 사라미 얼쭈

32300-0-1 "외롭-(孤)-지 -고 -더라" 너무 웨릅찌 말게 홉써
32300-0-2 "외롭-(孤)-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너미 웨로완 주거지쿠다

32301-0-1 "아쉽-(不滿)-지 -고 -더라" 이제 아습찌 아녀다
32301-0-2 "아쉽-(不滿)-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아수완 주거지키여

32302-0-1 "단단하-(固)-지 -고 -더라" 간수헨능 게 든든헨지 아녀다
32302-0-2 "단단하-(固)-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든든해연 몬싸는 사름 얼찌

32303-0-1 " -(晩)-지 -고 -더라" 늘찌 말게 흐라
32303-0-2 "늦-(晩)-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오너른 느저도 조추
32304-0-1 "남:-(餘)-지 -고 -더라" 떡판 냉기지 말라
32304-0-2 "남:-(餘)-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하영 냉경 옥 든나
32305-0-1 "남기-(使餘)-지 -고 -더라" 하영 냉건 옥뜨러 싸
32305-0-2 "남기-(使餘)-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하영 냉경 옥 드러 싸
32306-0-1 "넘어뜨리-(使倒)-지 -고 -더라" 너무 킨 너머뜨리지 모터쿠다
32306-0-2 "넘어뜨리-(使倒)-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낭 너머뜨런 비연 와수다
32307-0-1 "쭈그리뜨리-(使凹)-지 -고 -더라" 경 뻔르지 말라
32307-0-2 "쭈그리뜨리-(使凹)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경 뻔랑 쓰리지크나
32308-0-1 "견주-(比)-지 -고 -더라" 농광 비교허지 말라
32308-0-2 "견주-(比)-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
32309-0-1 "외우-(誦)-지 -고 -더라" 잘 에우지 모터키여
32309-0-2 "외우-(誦)-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잘 에왕 상 마타짜
32309-0-2 "외우-(誦)-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잘 에완 상 마타짜
32310-0-1 "문지르-(摩)-지 -고 -더라" 경 막 문질르지 말라
32310-0-2 "문지르-(摩)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거문세다분 문질렁 뻔라사 헨다
32311-0-1 "가리키-(指)-지 -고 -더라" 아피 왓팍켄 ㄱ리치지 모터키여
32311-0-2 "가리키-(指)-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줄바로 ㄱ리칭 읍써
32312-0-1 "가르치-(教)-지 -고 -더라" 잘 ㄱ리치지 모터키여
32312-0-2 "가르치-(教)-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잘 ㄱ리쳐도 잘 몰라마씀
32313-0-1 "겨누-(照準)-지 -고 -더라" 잘 쟁역꺄지 모터키여
32313-0-2 "겨누-(照準)-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잘 쟁역케도 만찌 아네여
32314-0-1 "겨루-(競)-지 -고 -더라" 성제끼린 슴벙커지 말라
32314-0-2 "겨루-(競)-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스벙케영 누게 조을 일고
32315-0-1 "달래-(慰撫)-지 -고 -더라" 너미 우런 달래지 모터키여

- 32315-0-2 " -(慰撫)-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잘 달래영 도랑 가라
- 32316-0-1 "본받-(效)-지 -고 -더라" 그런 사르믄 본 바찌 맵썸
- 32316-0-2 "본받-(效)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경 본바당 조은 이립쭈
- 32317-0-1 "어지르-(散)-지 -고 -더라" 경 어지리지 말라
- 32317-0-2 "어지르-(散)-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경 어지리왕 욱 든나
- 32318-0-1 "달리-(走)-지 -고 -더라" 이젠 들찌 모터키여
- 32318-0-2 "달리-(走)-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막 드랑 재기 와수다
- 32319-0-1 "우기-(拗)-지 -고 -더라" 경 बे기우지 맵썸
- 32319-0-2 "우기-(拗)-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경 बे기왕 이겨지카마썸
- 32320-0-1 "중얼거리-(獨言)-지 -고 -더라" 경 중얼거리지 맵썸
- 32320-0-2 "중얼거리-(獨言)-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중중 중얼거렁 아라드른 사름 셔
- 32321-0-1 "지꼴이-(騷)-지 -고 -더라" 경계 지끄리지 말라
- 32321-0-2 "지꼴이-(騷)-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경 지껴렁 조아할 싸름 시카*
- 32322-0-1 "다니-(行)-지 -고 -더라" 나텡기지 말라
- 32322-0-2 "다니-(行)-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나동경 팡 무리온다
- 32323-0-1 "떨어뜨리-(使落)-지 -고 -더라"
 찰찰 흘치지 말라
- 32323-0-2 "떨어뜨리-(使落)-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찰찰 흘청 조은 닐 아너
- 32324-0-1 "깨-(覺)-지 -고 -더라" 춤 깨지 마라시민 조아실 꺽디
- 32324-0-2 "깨-(覺)-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춤 깨왕 일리라
- 32325-0-1 "시-(酸)-지 -고 -더라" 너무 시지 말게 다무라
- 32325-0-2 "시-(酸)-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
- 32326-0-1 "숯-(湧)-지 -고 -더라" 너미 솔찌 모터게 허라
- 32326-0-2 "숯-(湧)-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너무 시영 몬떡키여
- 32326-0-2 "숯-(湧)-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노피 소산 마찌 모터키여

32327-0-1 "중:-(好)-지 -고 -더라" 이 정도민 조치 아년가

32327-0-2 "중:-(好)-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너미 조양 주거지키여

32328-0-1 "빨강-(赤)-지 -고 -더라" 이긴 빨강허지 아너다

32328-0-2 "빨강-(赤)-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빨강헨 너미 곱따

32329-0-1 "끝:-(曳)-지 -고 -더라"

잘 끝찌 모터키여

32329-0-2 "끝:-(曳)-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잘 끄성 걸라

32330-0-1 "얇:-(薄)-지 -고 -더라"

마당 망 널르지 아너다

32330-0-2 "얇:-(薄)-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마당 널린 조키여

32331-0-1 "하양-(白)-지 -고 -더라"

눈도 하양허지 아너다

32331-0-2 "하양-(白)-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너미 하양헨 약커게 보염찌

3.2.2 용

32332-0-1 국(羹)-이/가

구기 짜다

32332-0-2 국(羹)-을/를

이 구글 머그라

32332-0-3 국(羹)-에(서)

구게 녹물 놔시냐

32332-0-4 국(羹)-으로

구그로 머그라

32332-0-5 국(羹)-도

국또 머그라

32333-0-1 논(沓)-이/가

노니 널르다

32333-0-2 논(沓)-을/를

노늘 잘 달루라

32333-0-3 논(沓)-에(서)

노네 물 대라

32333-0-4 논(沓)-으로

노느로 걸라

32333-0-5 논(沓)-도

논도 널르다

32334-0-1 쌀(米)-이/가

쓰리 하영 인찌

32334-0-2 쌀(米)-을/를

이 쓰를 다끄라

32334-0-3 쌀(米)-에(서)

쓰레 너 인찌

32334-0-4 쌀(米)-으로

쓸로 떠 커라

32334-0-5 쌀(米)-도

쓸도 하다

32335-0-1 봄(春)-이/가

보미 왈찌

32335-0-2 봄(春)-을/를

이 보를 잘 녑겨사 헨다

32335-0-3 (春)-에(서)	보메 고장 된다
32335-0-4 봄(春)-으로	보므로 ㅁ실까지 간다
32335-0-5 봄(春)-도	봄도 여름도 게저리여
32336-0-1 집(家)-이/가	지비 크다
32336-0-2 집(家)-을/를	저 지블 보라
32336-0-3 집(家)-에(서)	지베 이서냐
32336-0-4 집(家)-으로	지부로 걸라
32336-0-5 집(家)-도	집또 크다
32337-0-1 옷(衣)-이/가	이 오시 크다
32337-0-2 옷(衣)-을/를	이 오슬 이버 보라
32337-0-3 옷(衣)-에(서)	오세 무니가 인찌
32337-0-4 옷(衣)-으로	오스로 더프라
32337-0-5 옷(衣)-도	온또 신발도 인찌
32338-0-1 방(房)-이/가	이 방이 널르다
32338-0-2 방(房)-을/를	방을 널르게 헤사 허켜
32338-0-3 방(房)-에(서)	방에 드리오라
32338-0-4 방(房)-으로	저 방으로 가라
32338-0-5 방(房)-도	방도 널르다
32339-0-1 낮(晝)-이/가	나시 질다
32339-0-2 낮(晝)-을/를	나슬 바무로 아랑
32339-0-3 낮(晝)-에(서)	나지랑 놀라
32339-0-4 낮(晝)-으로	나스로 밤까지 일험찌
32339-0-5 낮(晝)-도	날또 질다
32340-0-1 낮(顔)-이/가	이 아이 늑시 곱따
32340-0-2 낮(顔)-을/를	늑슬 잘 다끄라
32340-0-3 낮(顔)-에(서)	늑세 밥풀 무던찌
32340-0-4 낮(顔)-으로	늑스로 마 거거서
32340-0-5 낮(顔)-도	늑또 고아라
32341-0-1 부엌(廚)-이/가	부어기 널르다
32341-0-2 부엌(廚)-을/를	부어글 잘 쓸라
32341-0-3 부엌(廚)-에(서)	부어게 강 보라
32341-0-4 부엌(廚)-으로	부어그로 걸라
32341-0-5 부엌(廚)-도	부엌또 널르다
32342-0-1 밭(田)-이/가	바시 크다
32342-0-2 밭(田)-을/를	이 바슬 잘 갈르라
32342-0-3 밭(田)-에(서)	바세 콩 시무라

32342-0-4 (田)-으로	저 바스로 걸라
32342-0-5 밭(田)-도	이 밭도 널르다
32343-0-1 앞(前)-이/가	아피 훤히다
32343-0-2 앞(前)-을/를	아플 보라
32343-0-3 앞(前)-에(서)	아페 걸라
32343-0-4 앞(前)-으로	아푸로 걸라
32343-0-5 앞(前)-도	그 압또 잘 보라
32344-0-1 녀(魂)-이/가	아이 녀 나가찌
32344-0-2 녀(魂)-을/를	녀 드러사 허키여
32344-0-3 녀(魂)-에(서)	*
32344-0-4 녀(魂)-으로	*
32344-0-5 녀(魂)-도	녀또 드러사 허키여
32345-0-1 흙(土)-이/가	흐기 조타
32345-0-2 흙(土)-을/를	흐글 더프라
32345-0-3 흙(土)-에(서)	이 흐게 노라
32345-0-4 흙(土)-으로	흐그로 멘드랄찌
32345-0-5 흙(土)-도	이 흐또 조타
32346-0-1 여덟(八)-이/가	으드비 아홉뿐다 죽따
32346-0-2 여덟(八)-을/를	으드블 세여보라
32346-0-3 여덟(八)-에(서)	악드베 두를 더허라 *
32346-0-4 여덟(八)-으로	*
32346-0-5 여덟(八)-도	으덱또 하다
32347-0-1 돌(週歲)-이/가	도리 도라왈찌
32347-0-2 돌(週歲)-을/를	도를 행 먹께
32347-0-3 돌(週歲)-에(서)	도레 떠커라
32347-0-4 돌(週歲)-으로	*
32347-0-5 돌(週歲)-도	돌도 생이리여
32348-0-1 값(價)-이/가	물까비 빔싸다
32348-0-2 값(價)-을/를	까블 흐쓸 내리웁써
32348-0-3 값(價)-에(서)	*
32348-0-4 값(價)-으로	꾼 까브로 말 석 떼
32348-0-5 값(價)-도	깁또 빔싸다
32349-0-1 속:(內)-이/가	소기 지픈 사라미여
32349-0-1 속:(內)-이/가	쏘기 지픈 사라미여
32349-0-2 속:(內)-을/를	소글 놉 주지 모턴다
32349-0-3 속:(內)-에(서)	소게 먼싸 드러산 디

32349-0-3	:(內)-에(서)	쏘게 먼싸 드러신 디
32349-0-3	속:(內)-에(서)	쏘게 먼싸 드러신 디
32349-0-4	속:(內)-으로	쏘그로 생가커라
32349-0-5	속:(內)-도	썩또 지푸다
32350-0-1	돈:(錢)-이/가	도니 하영 인찌
32350-0-2	돈:(錢)-을/를	돈 하영 버스런찌
32350-0-3	돈:(錢)-에(서)	도네 돈 부터
32350-0-4	돈:(錢)-으로	도느로 살 쭈 인찌
32350-0-5	돈:(錢)-도	돈도 하영 버런찌
32351-0-1	발(足)-이/가	바리 아프다
32351-0-2	발(足)-을/를	바를 잘 씨스라
32351-0-3	발(足)-에(서)	바레 헐리 날찌
32351-0-4	발(足)-으로	발로 차라
32351-0-5	발(足)-도	발도 크다
32352-0-1	짐(荷物)-이/가	지미 무겁따
32352-0-2	짐(荷物)-을/를	이 지물 싸라
32352-0-3	짐(荷物)-에(서)	이 짐메 먼싸 드러산 디
32352-0-4	짐(荷物)-으로	지므로 정 걸라
32352-0-5	짐(荷物)-도	짐도 배다
32353-0-1	입(口)-이/가	이비 걸다
32353-0-2	입(口)-을/를	이블 잘 놀리라
32353-0-3	입(口)-에(서)	이베 풀칠 허키여
32353-0-4	입(口)-으로	이브로 ㄱ른 마른 담찌 모턴다
32353-0-5	입(口)-도	입또 크다
32354-0-1	낫(鎌)-이/가	이 나시 크다
32354-0-2	낫(鎌)-을/를	나슬 굴라
32354-0-3	낫(鎌)-에(서)	이 힘벅 나세 가므라
32354-0-4	낫(鎌)-으로	나스로 비라
32354-0-5	낫(鎌)-도	낫또 크다
32355-0-1	강(江)-이/가	강이 크다
32355-0-2	강(江)-을/를	강을 보라
32355-0-3	강(江)-에(서)	강에 퀘기 하영 인찌
32355-0-4	강(江)-으로	강으로 오라
32355-0-5	강(江)-도	강도 질다
32356-0-1	젖(乳)-이/가	어멍 저시 크다
32356-0-2	젖(乳)-을/를	어멍 저슬 메기라

32356-0-3	(乳)-에(서)	어멍 저세 물리라
32356-0-4	젓(乳)-으로	저스로 달래라
32356-0-5	젓(乳)-도	젓또 메기라
32357-0-1	꽃(花)-이/가	꼬시 곱따
32357-0-2	꽃(花)-을/를	꼬슬 보라
32357-0-3	꽃(花)-에(서)	꼬세 물 주라
32357-0-4	꽃(花)-으로	꼬스로 멘드랏찌
32357-0-5	꽃(花)-도	꼰또 곱따
32358-0-1	팥(赤豆)-이/가	팍시 국따
32358-0-2	팥(赤豆)-을/를	팍슬 갈라
32358-0-3	팥(赤豆)-에(서)	팍세 베랭이 이럴찌
32358-0-4	팥(赤豆)-으로	팍스로 폰쭈 쏜다
32358-0-5	팥(赤豆)-도	폰또 콩도 얻찌
32359-0-1	옆(側)-이/가	바당 여피 널르다
32359-0-2	옆(側)-을/를	여플 보라
32359-0-3	옆(側)-에(서)	여페 사라
32359-0-4	옆(側)-으로	여프로 걸라
32359-0-5	옆(側)-도	엽또 보라
32360-0-1	샅(賃金)-이/가	사기 받싸다
32360-0-2	샅(賃金)-을/를	사글 잘 주라
32360-0-3	샅(賃金)-에(서)	사게 삭 부뜨카
32360-0-4	샅(賃金)-으로	사그로 바든 거여
32360-0-5	샅(賃金)-도	사도 받싸다
32361-0-1	닭(鷄)-이/가	그 득기 크다
32361-0-2	닭(鷄)-을/를	그 득글 자브라
32361-0-3	닭(鷄)-에(서)	득게 고달 일찌
32361-0-4	닭(鷄)-으로	득그로 여슬 멘들라
32361-0-5	닭(鷄)-도	이 득또 크다
32362-0-1	밖(外)-이/가	바피 흰허다
32362-0-2	밖(外)-을/를	바끌 보라
32362-0-3	밖(外)-에(서)	바게 걸라
32362-0-4	밖(外)-으로	바끄로 나걸라
32362-0-5	밖(外)-도	받또 널르다

4편 문법

4.1. 대명사

4.1.1.

40101	아이ㄴ라 미테ㄴ라 ㄴ를 때 이거 나거여
40101-0-1 내-가	나가 머견찌
40101-0-2 내	*
40101-0-3 나-를	날 도라
40101-0-3 나-를	날 도라
40101-0-4 나-에게	나신디 도라
40101-0-5 나-와	나영 가게
40101-0-6 나-는	난 양가키어
40101-0-7 나-도	나도 가키어
40102 저/제-가	나가 가쿠다
40102-0-1 저-가	나가 허쿠다
40102-0-2 저-의	나 거여
40102-0-3 저-을/를	날 줍찌
40102-0-4 저-에게	나안티 줍찌
40102-0-5 저-와/과	나영 가게마썸
40102-0-6 저-는	난 안 가쿠다
40102-0-7 저-도	나도 가쿠다
40103 우리	우리
40104 저희	우리
40105 너	이건 느 거여
40105-0-1 -가	느가 헨라
40105-0-2 -의	*
40105-0-3 -을/를	늘 도랑 가키어
40105-0-4 -에게	느신디 주마
40105-0-5 -와/과	느영 ㄴ치 가게
40105-0-6 -는	느 어디 갈 꺼니
40105-0-7 -도	느도 ㄴ찌 헨라

40106	어디 사위
40107 당신	당시니 강 바
40108 너희	느네 아버지여
40109 개	가이
40109-1 애	야이
40109-2 재	자이
40110 자기	지 말만 온텐
40111 당신	하라바진 항상 당신 빵에서만 즈물 자

4.1.2.

40112 누구-요/누구십니까	누게 오라서
40112-0-1 누-가	누겐파아
40112-0-2 누구-의	이 짐 누게건고
40112-0-3 누구-를	이거 누게 도니니이
40112-0-4 누구-에게	이거 누게신되 줄 겐고오
40112-0-5 누구-와	새각썬 어디 누게영 겨룬 헐 꺼니

무엇

40113 무엇-이냐/입니까	걸 보자기 쏘게 무시거니
40113-0-1 무엇-이	그 주머니에 놓 거 미시거 행
40113-0-2 무슨	요새 무신 널 험서
40113-0-3 무엇-을	미싱거 떡젠 영
40113-0-4 무엇-과	무시거 담뎨도 허는 디 보통

4.1.3. 그 밖의 의문사

40114 어디	어디 가멘
40115 언제	어느 때 오란 디 영
40116 어느	어느 때 오란 디
40117 왜	무사 우렘시니 영
40118 얼마나	얼마나 걸리느니
40119 어떻게	요새 어떻헨 사람시니

4.1.4. , 지시부사

40120	이거 연필
40121	그것 그거 연필
40122	저거 저건또 연필
40123	여기 요디 파 보라
40124	거기 그디 파 보라
40125	저기 저디 파 보라
40126	이래 오라
40127	그래 가라
40128	저래 가라

4.2. 조 사

4.2.1. 격조사

40201	-이/가	까겨기 빔싸다
40202	-이/가	코가 크다
40203	-을/를	귀를 때렷따, 귀 뜯련
40204	-을/를	무를 쥐사
40205	-에게/께	저 사람마피 주라 저 사름마피 주시 저 사름신디 주라
40206	-보고/더러	누구한티 버릇떠시 영 행 누구신디레 버릇떠시
40207	-보고/더러	누구보고 당시니라고 헤 누게신디 저영 험싱고
40208	-에	지비 감쭈
40209	-에	내중 또 만나게
40210	-에서	오닐 큰지비서 어느 할망 제사여 헤영
40211	-에서	서울서 만나게
40212	-에서	이디서 서울까지 뎨씨간 걸리느니
40213	-으로	츨살로
40214	-으로	나룩 찌그로 멘드라

40215 -	스끼로 무꺼
40216 -으로	어디 감시니
40217 -와/과	츄메영 수바기영 마니 떡쭈게
40218 -와/과	자기 혼자 가지 마랑 나영 ㄱ쭈 가게
40219 -보다	*
40220 -처럼	도새기처럼 술천쭈
40221 -만큼	나도 느만치 커시민 조키여 나도 느만치 커시민 조키여
40222 -만큼	머글 마니만 욕썸부리지 마랑 머글마니만 가져당 머그라
40223 -아/야	봉나마
40224 -아/야	봉나마 영 행
40225 -아/야	영수야
40226 -아/야	누님
40226-1 -예	누님
40227 -아/야	하라바지
40227-1 -요	하라바지
40228 -이랑	수리영 퀘기영 잔똥 머거서
40229 -커녕	마뉘니랑 마랑 천뉘도 어성 썸썸포고 영 행

4.2.2.

40230 -은/는	수른 머검쭈마는 담벤 안 피운다 난 수른 머검쭈마는 담벤 안 피운다
40231 -만	그 사르른 똥만 애껴주언
40232 -도	*
40233 -마다	그 사르른 일쭈일 똥안 흐루도 빠지지 아니언 날마다 수를 머건
40234 -부터	난 오늘부터 담베 끄느키여
40235 -까지	넬까지 일 끈네라
40236 -조차	막 ㄱ무라부난 머글 물조차 떠러전
40236-1 -할라	*
40237 -이야/야	그 사름 마리사 잘 허 잘 헤여
40238 -을랑	그런 소리랑 다시 흐지 말라
40239 -이라도	그 사르른 부제라도 그렁 건 아이 산다
40240 -밖에	경해도 날 생각케주는 사르른 느베끼 언따
40241 -가지고	엔나레는 포따리에 쌍 아정 갠쭈

4.2.3. 뒤 조사

40242	-고 한다	어머니가 일로 오랜 험찌
40243	알았어-요	아라수다
40244	했지-요?	누게 혜수과

4.3. 종결어미

4.3.1. 명령법

40301	-아라	야 요레 오랑 아지라
40302	-게	사위야 요레 오랑 아지라
40303	-으오	형님 요레 오랑 아집써
40304	-으십시오	아버지 요레 오랑 아집써
40305	-세요	어머님 요디 오랑 아집써

4.3.2. 청유법

40306	-자	야 오라 나여 ㄴ찌 가게
40307	-세	사위야 오라 ㄴ찌 가게
40308	-으오	형님 요레 오랑 아집써
40308	-으오	형님 읍써 ㄴ찌 가게
40309	-십시다	아버지 읍써 ㄴ찌 가게
40310	-세요	어머니 읍써 ㄴ찌 가게

4.3.3. 의문법

40311	-니	야 바깥띠 비 크게 오람시냐
40312	-나	사위야 바깥띠 비 크게 오람시냐
40313	-오	형님 바깥띠 비 크게 왓수과
40314	-습니까	*
40315	-나요	*
40316	-니	느 어드레 가미니
40317	-나	느 어드레 가미니

40318 - 형님 어디 감수과
 40319 -십니까 아버지 어디레 감수과
 40320 -세요 어머니 어디레 감수과

4.3.4.

40321 -는다 는 밥뚜 잘 머검찌
 40322 -네 사원 밥뚜 잘 머검찌
 40323 -오 형님 밥또 잘 머검수다
 40324 -습니다 철순 밥뚜 잘 머검수다 양
 철순 밥 잘 머검수다 양
 아버지 철수 밥 잘 머검수다 양
 40325 -네요 자이 밥 잘 머검수다 양
 철수 밥 잘 머검수다 양
 40325 -네요 어머니 철수 밥 잘 머검수다 양
 40326 -다 는 이분 오슨 흥쓸 족따
 40327 -네 오시 족따
 사위 이븐 오슨 어떻헤연 조그니
 사위 이븐 오슨 조그니
 40328 -소 형님 이븐 오슨 어떻헤연 족쭈다
 40329 -으십니다 아버지 어떻헤연 족쭈다
 40330 -으세요 어머니 어떻헤연 족쭈다

4.3.5. 반 말

40331 -아 어디 아관 어구리 어떻헤연
 40332 -지 병원에 꼭 갈꺼지

4.3.6. -이다

40333 -이다 는 오닐 생이리여
 40334 -이니 는 오닐 생일 아니냐
 는 오닐 생이런가
 40335 -이네 사위 는 생일이여
 40336 -인가 는 오닐 생이런가
 사위 는 넬 생이리냐

40337 -	형님 넬 생이리우다
40338 -이오	*
40339 -입니다.	형님 생일 아니꽈 넬 생이리꽈 아버지 넬 생이리우다
40340 -입니까	아버지 넬 생이리꽈
40341 -이시지요	어머니 넬 생리우다
40342 -이시지요	넬 어머니 생이리우다 어머니 넬 생이리꽈
40343 -이냐?	느 소네 쨍 거 미시거니
40344 -인가?	느 소네 쨍거 미시거니
40345 -이오?	형님 소네 쨍 거 미시 건꽈
40346 -입니까?	아버지 소네 쨍거 미시 건꽈
40347 -인가요?	어머니 소네 쨍거 미시 건꽈
40348 -이야?	당신 소네 미시거 쨍연 오란
40349 -이어요?	거 소네 쨍거 미시건꽈

4.3.7. 밖의 종결어미

40350 -습니다	여기는 차가 막 하우다
40351 -습디다	서울 간 보난 차가 막 합디다
40352 -는구나/구나	느네 집 또새기 걸 잘 머검찌
40353 -는구면/구면	느네 쉼 주글 잘 머검찌
40354 -일세	야 벌 오래마니여
40355 -으마	넬끼지 돈 무러주마
40356 -음세	넬끼지 돈 무러주주
40357 -올라	느네 경허단 다치키여 멍심허라

4.4.

40401 -고/-고서	밤 머건 테레비 밤찌
40402 -으면서	자인 밤 머그멍 테레비 베렘시네
40403 -어/-어서	어제 가젠 헤신디 너무 어린 목갈찌
40404 -으니 /-으니까	언 디 멩기단 오란 들뜨턴디 아지난 즈라완
40405 -관데	무슨니런디 영 모여수과
40406 -다가	지브 오단 비 마갈찌

40407 -	그 사람 바지건 안부 전헛띠덴 ㄹ르라
40408 -더라도	밤 머거도조그마니 머그라 아이가 보채에도 사주지 말라
40409 -으려고	동네싸름덜광 갈라떡젠
40410 -도록	빼빼지게 일만 헛져
4	죽께 일만 헛져
40411 -을수록	자리가 노플 쭈룩 짐작케야 덴다
40412 -듯이	도늘 물쓰든 씨부런
40413 -지	난 연속꿈만 보주 다릉 건 안 바

4.5. 존대

40501 -셔	형님 요레 읍써
40502 -셨소	반닐 다 헤수과

4.6. 시 제

40601 웃는다	애기가 잘 우섬쩌 저 사르른 넬 만날 칭구주
40602 기어간다	애기 잘 기염쩌
40603 크다	애기 누니 크다
40604 생일이다	내른 느 생이리여
40605 오고 있다	지금 바깥띠 비 오람쩌
40606 먹었니?/잡수셨습니까?	느 밤 먹진디야 밤 머급띠가
40607 왔었다	난 장년도 금강사네 오라날쩌
40608 먹더라	저 지빔 췌는 주글 잘 머검서라
40609 먹더냐	췌 죽 잘 머거나 저 집 췌 죽 잘 머검서냐
40610 만나는 친구	저 칭군 나녕 매날 만나는 칭구여
40611 만난 친구	어제도 만난 칭구여
40612 만났던 친구	만난 칭구를 오늘사 만날쩌
40613 만날 친구	*
40614 큰 아이	저 아인 지례가 막 큰 나이여
40615 크던 아이	자인 저너부터 지례 커난 나이여

40807	자의 신 신저주라
	자의 신 신찌라
40808 보이다	계와에 시계 베와주카
40809 알리다	저레 소식 알리라
40810 입히다	저 애기 온 입찌라
40811 얹히다	저 아이 이자에 아찌라
40812 벗기다	자이 오슬 베끼라
40813 웃기다	저 하르방털 우찌라
40814 썩히다	단지애 낱 췌기라
40815 숨기다	저 시계 곱찌라
40816 굶기다	자의 자불 곱찌라
40817 깨우다	자의 깨우라
40818 돌우다	저 각찐빨 씌지 올리라

4.8.2. 동

40819 잡히다	도망가당 경찰하티 자편찌
40820 깎이다	아 월그분 깨껴부런 조가라
40821 끼이다	문트메 접찌부런
40822 떼이다	나 누겐안티 돈 떼껴찌
40823 채이다	나 췌바레 어더찬찌
40824 달히다	무니 브르메 더꺼절찌
40825 들리다	전낵쏘리가 더 크게 들렘찌
40826 엮히다	어멍 등에 어편찌
	애기가 어멍 등에 어편찌
40827 바뀌다	나 시니카부덴 바파절쭈
40828 씹히다	바베 머을 자꾸 씹버짐찌
40829 엮히다	바베 연철찌
40830 짝히다	퀵이에 발 찌건찌
40831 놀리다	날 흐게 지들랄찌
40832 실리다	구급차에 실려간찌
40833 꿇기다	그 사름 소시기 윈 어서
40834 굶히다	나 소니 가시에 글거비연

4.9.

40901	생일 선무래 바꾸정 현 게 미시거니
40902 싶다	느 생일선무래 박꼬 시푼 게 미시거니
40903 보다	아버지 이거 이버뵙써 만느냐 안 만느냐
40904 버리다	야 이디 땡 누게 다 머거베시니
40905 대다	재가 흐루 저무랑 소리험써
40906 -나/는가 보다	거친 브름 불곡 곧 비 오람직 헤감써
40907 -나/는가 보다	아이더른 다 잠싱구라 조용허다
40908 -나/는가 보다	바깥 날씨가 후취싱구라 아이더리 손 콕콕 부림써

4.10. 부 사

41001 실컷	느 실피 머그라
41002 많이	먹꼬 시푼 대로 하영 머그라
41003 너무	느 술 너미 머그민 조치 아녀다
41004 조금	난 술 쪼끔만 머거도 취한다
41005 자주	화장시례 즈주 텅겨점써
41006 빨리	느진 줄 아라신디 생각뿌다 흐썰 재기왈써 느진 줄 아라신디 생각뿌다 빨리 오람써
41007 얼른	저 사름 보기 저네 확 머거불라 저 사름 보기저네 얼른 머거불라
41008 기어코	경 가지 말렌 헤도 느시 가비연
41009 가끔	자주는 안 먹쭈마는 가끔 흥번썩 머거
41010 먼저	날랑 천처니 놀당 가크메 늘랑 먼저 가라
41011 나중에	벨리는 나중에 주크메 원금만 먼저 주마
41012 가득	물 그득 채워노라
41013 몽땅	흐나도 냉기지 마랑 몬딱 아정 오라
41014 모조리	*
41015 혼자	자당 이러낭 모반 몬딱 어디 가불고 나 혼자 서라
41016 항상	홀리리 하도 항 항상 바쁘다
41017 똑똑히	너 글씨냐 나 글씨 눈 편찌 땡 똑또기 보라
41018 겨우	툄꼭지를 제우 츠만
41019 늘	즘꾸레기는 항상 잠서
41020 저절로	즈라우민 하위여미 제절로 나온다
41021 자꾸	즈라우난 하위염만 자꾸 나왓써
41022 설마	*
41023 하마터면	차에 노리단 발 험띠디언 흐마떼민 다칠 뻔 험써

41024	온 식꾸가 다 흐디 놀레 갇찌
41025	결핍하면 그 사르른 흥끔허민 용심내여
41026	공연히 저 사르른 공연히 트집 자바
41027	그냥 간 보난 빈싼 기냥 오라수다
41028	매우 저 사름 히미 막 췌다
41029	곧장 다른 데로 주왓주왓 베리지 마랑 굳짜 강 오라
41030	벌써 그 이른 벌써 끈나 베서라
41031	가장 어스름 새벼리 다른 별보단 가장 흰흐다
41032	가만히 어디 가지 마랑 지뵈 그마니 아자시라
41033	미리 물 터짐직 현디 미리 마강 놔두라
41034	이따금 그 냥 혼흔버니나 온다

4.11. 관용구

4.11.1.

41101	여보	여보오 당신 어디갑떠가
41102	여보세요	여보시오 남자일 때 여보시오 아주머니 아주망 여보세요 말로 무릅쭈 헤영 여자면 아주마니 말 좀 무릅쭈 헤영 양
41103	들어가세요	저봐 꼬넵쭈다 잘 드러갑췌 저봐 꼬넵쭈다 잘 드러갑췌 저봐 꼬넵쭈다
41104	수고하세요	오닐 소가수다
41105	오랜만에 만난 친구 사이의 인사말	야 오래마니여이, 야 오래마니여
41106	아침 출근길에 마주친 동네 어른에게 하는 인사말	아니고 오래마니우다 어디 간 왓수과
41107	오랜만에 찾아 뵈 어른에게 큰절을 올리면서 하는 말	오래마니 와수다

오래마니우다

41108	여기 있습니다	돈	여기	이수다										
41109	예	예												
41110	아니	나	아니여,	나	아니									
41111	아무렇지도 않다	난	아무러치도	아녀다										
41112	내버려 둬	저	래	내	불라									
41113	"개나 소나 개나 소나 차를 몰고 다닌다"	요	샌	느	나	어	시	아	무	나	모	랑	땡	겨

4.11.2 답

41114	밀 빠진 독에 물 붓기	창	터	진	항	에	물	비	와	봐	도	그	득	찌	아	니	여
41115	바늘 도둑이 소 도둑 된다	바	농	도	도	기	췌	도	둑	웬	다						
41116	아니 땀 굴뚝에 연기 나랴	아	니	거	쩨	장	귀	에	소	리	나						



국립국어원 지역어 조사 추진 위원회

- ◆ 위 원 장 이 기 갑 (목 포 대 학 교)
- ◆ 위 원 강 영 봉 (제 주 대 학 교)
- ◆ 위 원 김 무 식 (경 성 대 학 교)
- ◆ 위 원 김 봉 국 (부 산 교 육 대 학 교)
- ◆ 위 원 김 정 대 (경 남 대 학 교)
- ◆ 위 원 박 경 래 (세 명 대 학 교)
- ◆ 위 원 소 강 춘 (전 주 대 학 교)
- ◆ 위 원 한 영 목 (충 남 대 학 교)
- ◆ 자문위원 최 명 옥 (서 울 대 학 교)
- ◆ 자문위원 홍 윤 표 (연 세 대 학 교)

